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 호(489)

차 례

김 일 성
신 년 사

(1983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1982년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해로 빛내인 커다란 긍지와 높은 자부심을 안고 희망찬 새해 1983년을 맞이합니다.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우리 조국은 끝없는 환희와 혁명적랑만으로 들끓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장엄한 진군길에 나서고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멀리 이국땅에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자랑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82년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찬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가 전례없이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고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와 조선인민군창건 50돐 경축행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한 정치행사들을 통하여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우리 당이 이룩하여놓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 혁명위업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헌신성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고 있습니다.

1982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기를 열어놓은 보람찬 투쟁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습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신심이 일어났으며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날러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기가 시작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 작업반들이 제2차7개년계획을 2년이상 앞당겨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81년에 비하여 116.8%로 장성하였으며 금속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들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확장하여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광업부문과 건설부문의 로동계급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할흥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검덕광업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유색금속광산들을 개건확장하는 방대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유색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용감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긴장한 로력투쟁을 벌림으로써 평양시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새로운 거리들을 훌륭히 건설하여 우리 혁명의 수도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려놓았으며 남포갑문 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우리 인민들을 매우 기쁘게 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에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전례없는 대풍작을 마련함으로써 드디여 95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은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되며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와 전국가적, 전인민적 지원밑에 농업근로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과학적발명과 연구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나라의 과학발전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82년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전례없이 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의 정당한 혁명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대외사업분야에서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혁명위업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혁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부문은 채취공업입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오늘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채취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어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생산규모가 큰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과 북부지구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나는 석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지도일군들이 견결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영웅적투쟁을 벌려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단천지구와 량강도지구의 광산들에 큰 힘을 넣어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공업은 올해에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의 하나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새 발전소들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북창화력발전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의 확장공사를 다그쳐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과 알곡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입니다. 화학공장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화학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철생산법을 적극 받아들여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의 방침대로 프레스화, 형단조화, 용접혁명, 절연물혁명을 적극 실현하여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공작기계, 채취설비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은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여러가지 질좋은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려면 수송이 앞서나가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고 화차를 제때에 수리하며 철길을 보강하고 렬차운행에서 엄격한 규률과 정연한 수송지휘체계를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더욱 발전시키며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커다란 장성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쌀은 곧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당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정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알곡고지부터 점령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부침땅면적을 적극 늘이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운영해나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인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니고있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의도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하고야말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

서 윤 석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지위와 그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당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로서 그것을 옳게 밝혀야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완성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령도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과 특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지위와 그 역할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론문에서 독창적으로 밝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에 대한 탁월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당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의 개척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리론으로 된다.

* *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한다.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조직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당의 역할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조직된 전투부대이며 선봉대로서의 당의 불패의 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 령도가 필수적이라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없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1페지)

론문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

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필수적인것은 무엇보다도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로서의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그 어떤 무정부적인 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징표를 이루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이다. 집단생활, 조직생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관계의 기초로 되며 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본생활방식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집단생활, 조직생활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러한 사회를 움직여나가자면 사회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조직의 지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수 있다.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조직된 부대이며 사회적집단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집단의 핵이다.

강한 조직력을 가진 당은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이끎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집단주의적, 조직적 성격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당과 같이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는 실로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여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필수적인것은 또한 공산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육교양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더욱더 완성해나가는 사업과 사회관계분야에서 확립된 공산주의적관계를 보다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는 사업 그리고 자연개조분야에서 보다 넓은 자연의 령역을 정복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사회는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추진되게 된다. 이러한 투쟁은 오직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은 낡은것을 새것으로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사회의 심장이며 사회를 끊임없는 발전에로 떠밀어나가는 추진력이다. 마치 사람의 심장이 온몸에 피를 뿜어주어 유기체의 신진대사를 보장하고 체력의 증진을 도모하듯이 당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그런것만큼 공산주의사회는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끊임없이 발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필수적인것은 또한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게 되는 력사발전의 특성과 관련된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 나라 혹은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외부원쑤들의 침략위험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면할수 없다.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는 외부의 원쑤들의 침략위험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물리치고 공산주의사회의 안전이 확고히 담보되였을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사회의 안전은 오직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당은 공산주의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향도적력량일뿐아니라 사회안전의 믿음직한 조직자, 령도자이다.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칠수 있으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보호될수 있다.

그러므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무기로서의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기능과 역할은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계속 강화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당의 정치적령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 다음에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에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와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론문에서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주체의 정치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사상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는 어느 사회에나 있게 되며 그것은 일정한 정치조직에 의하여 수행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론문에서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으로서의 정치의 본질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이 있게 된다는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인류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인민정권과 같은 기구와 함께 그것을 령도하는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인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이 있게 된다는 주체적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론문에서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로동계급의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혀준데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가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화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더욱더 높아지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등 사회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당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을 강화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만일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의 요구에 맞게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울수 없고 사람들의 자주적 지향과 리익을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으며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론문에서는 이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천명함으로써 미래 공산주의사회에 있게 될 정치조직에 대하여 정확한 표상을 가질수 있게 하였으며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실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당건설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전진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서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지위와 그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할데 대한 방향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이 과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뿐아니라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회를 조직화하고 이끌어나갈수 있는 향도적력량으로 목적지향성있게 꾸려나가는 사업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끝까지 고수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당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당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당은 이 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론문에서는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자면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과업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해나간다는것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총적방향을 명시한 탁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바로 이러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모든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놀수 있으며 우리 당을 영

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당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다.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을 빠짐없이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우리 당이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될수 있으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이룩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전투부대로, 향도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구감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그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의 혈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리론,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말한다. 그것은 장구한 기간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것이다.

당의 혈통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굿굿이 이어나가게 된다. 만일 수령의 사상과 위업, 당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지 못할 때 로동계급의 위업은 중단되게 되고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는 문제, 당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문제는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직면하고있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하고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웅근 한세기가 훨씬 넘는 장구한 기간이 흘러갔다. 많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때로부터도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나갔다. 이 기간에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대가 바뀌우고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으

며 따라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문제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 당의 혈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굳굳이 이어주며 그 확고한 승리를 담보해주는 귀중한 혁명의 재부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가장 굳건한 조직사상적려전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다.

우리는 현 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굳건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과 그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이 보장되여야 당안에 수령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을 오직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안에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파와 종파가 허용된다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없다.

제국주의가 있고 기회주의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룩된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것만큼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등 당의 통일단결을 저애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지휘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더욱 강화하여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원들은 조선에서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책임지고 완성하여야 할 전위투사들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인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는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 그리고 혁명적실천과정에서 배양되고 공고화된다.

우리는 당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적인 당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업 방법과 작풍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제기하고 모든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자신이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인민의 충복이라는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서서 언제나 아래일군들과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줄 아는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을 옳게 체득하는것이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수 없으며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없다. 우리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을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어머니당으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떠밀어주는 기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 력사에서 가장 보람찬 시대에 살고있으며 우리 앞에는 끝없이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다.

《ㅌ.ㄷ》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반세기가 넘는 영광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오랜 력사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처럼 우리 당이 위력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첫 당조직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

주 용 목

조선로동당은 오랜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고 영광스러운 시원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자주성의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37년이 지나갔지만 우리 당의 조직건설력사는 반세기를 헤아리고있는것이다.

《ㅌ.ㄷ》로부터 시작된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첫 당조직을 결성하심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이 열려지게 되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모체조직의 탄생이였으며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준 위대한 사변이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첫 당조직을 무으시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당의 창건로정이 체계정연하게 개괄되여있다.

론문에 의하여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와 시원이 력사적자료에 기초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론증됨으로써 당의 주체적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오랜 력사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마련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제기한 절박한 문제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였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인류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새로운 력사적시대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대표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것을 요구하였다.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자주적

인 요구와 지향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으며 튼튼한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1920년대전반기 로동계급이 점차 투쟁무대에 나섬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적당을 가지고있지 못한탓으로 하여 수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곡절을 겪은 조선혁명은 온갖 시련을 뚫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의 창건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이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ㅌ.ㄷ》에서 자라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동지들을 비롯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을 무으심으로써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첫 당조직을 무으신것은 당창건위업수행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였으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5~6페지)

첫 당조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모체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치적무기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을 자주적으로 벌려나가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이였다.

첫 당조직이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참다운 향도적력량을 가지고 그 지도밑에 겹쌓인 난관을 뚫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의 초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당조직이 활동하게 되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첫 당조직은 주체형의 당의 혁명적성격과 그 면모가 훌륭히 구현되여있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당조직이였다.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탄생한 당조직만이 로동계급의 당의 시원으로 될수 있다.

첫 당조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조직이였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성격과 사명을 규정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어떤 사상을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하는가에 따라 당의 성격과 면모가 규정되게 된다. 옳바른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하고있는 당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당건설, 당활동의 확고한 지침을 밝혀주는 근본사상이다.

론문에서는 첫 당조직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우리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현실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간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직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첫 당조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였다.

이것은 첫 당조직이 우리 당의 력사적 사명을 그때에 벌써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첫 당조직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조직의 주체적성격을 빛나게 고수해나갔다.

첫 당조직과 그 성원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이라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활동을 벌리였으며 특히 당조직을 주체의 피만이 흐르는 혁명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자신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첫 당조직의 성원들은 조선혁명의 무거운 책임이 자신들의 두어깨에 지워져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용감하게 전진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첫 당조직과 그 성원들은 엄혹한 시련의 고비를 수많이 겪으면서도 주체위업의 새로운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으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꿋꿋이 전진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첫 당조직은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며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참다운 정치적령도자로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 바로 여기에 첫 당조직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주체형의 첫 당조직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당창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공고한 토대우에서 창건하며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당대렬의 구성이 그 조직의 향도적역할과 불패의 위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당대렬이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핵심적골간들로 튼튼히 꾸려져야 당조직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조직으로 만들수 있다.

당대렬의 조직적골간은 수령에 의하여 키워진 공산주의핵심들로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들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적핵심들로 당대렬이 튼튼히 꾸려질 때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할수 있으며 당조직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따라서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실현하자면 온갖 낡은 사상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공산주의혁명가들로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론문에서는 낡은 당이나 종파주의, 사대주의에 오염된 기성세대와 인연을 끊고 참신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로 앞으로 창건될 당의 조직적골간을 키워내야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ㅌ.ㄷ》를 결성하시고 그들을 준엄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끊임없이 단련시키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장차 우리 나라에서 창건될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의 조직적골간을 마련해나가시였다.

《ㅌ.ㄷ》에서 자라난 참신한 공산주의핵심들은 첫 당조직의 성원으로 되였으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대오가 끊임없이 확대되여 우리 당 창건의 조직적골간으로 되였다.

첫 당조직의 성원들은 그 어떤 낡은 사상에도 물들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랐으며 수령님의 사

상과 의도대로만 살며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으며 수령님께 조선혁명의 운명과 미래를 긴적으로 의탁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준엄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하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모든것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았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떠나서 한시도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닌 사람들로 첫 당조직이 무어졌기에 당대렬은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첫 당조직은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첫 당조직은 이처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확고한 조직이였으며 바로 이것을 힘의 원천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이였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핵심적골간들에 의하여 당의 령도중심이 견결히 옹호보위되고 당대렬의 위대한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된것으로 하여 첫 당조직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으로 되는것이다.

주체형의 첫 당조직은 또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혁명의 전위부대였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근본특징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바로 광범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그러므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첫 당조직은 로동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 선 강철의 대오였다.

론문에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광범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명철하게 해명하고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쓰라린 진통을 겪은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대중과 동떨어져 진행된데 있다. 주체사상의 신봉자들로 무어진 첫 당조직성원들은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렇기때문에 첫 당조직은 언제나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활동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첫 당조직은 결성된 첫날부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첫 당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시키며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당을 건설해나가는 귀중한 경험과 전통이 창조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고귀한 재부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첫 당조직은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에 있어서나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순결성과 공고성에 있어서, 군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주체형의 당조직이였다.

참으로 첫 당조직의 결성은 우리 나

다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새형의 혁명적당의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주체형의 첫 당조직이 결성된것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조직건설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한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의 탄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창건준비사업이 실속있게 되면 국제당의 승인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0페지)

혁명적당을 창건하는데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는것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당을 건설하여야 창건된 당이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적참모부,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첫 당조직은 자주성의 원칙을 구현하여나온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이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매개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담당자, 주인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자신이다. 매개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신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창건하는 목적도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자는데 있는것만큼 응당 자기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첫 당조직의 결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성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의 출현이다. 이것으로 하여 첫 당조직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참다운 모범으로 된다.

첫 당조직은 또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올데 대한 주체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원칙을 옳게 구현한 새형의 당조직이다.

론문에서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야 조직사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빨리 키워낼수 있으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을수 있다. 그리고 당조직생활을 통해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체계적으로 교양육성하며 당조직을 부단히 확대하고 그것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첫 당조직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올데 대한 당건설원칙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고귀한 결실이다. 그러므로 첫 당조직은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한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주체형의 당의 면모를 갖추고 혁명적당건설의 원칙을 구현하여나온 첫 당조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 당조직과 그 성원들은 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도시와 농촌의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광범한 군중속에서 정치군사활동을 힘있게 벌려 항일유격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

키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카룬회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되였다.

첫 당조직과 그 성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옳게 관철하여 암담한 수난속에서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열혈청년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반일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탄생한 첫 당조직은 실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승리적으로 개척하는데서 자기의 향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6페지)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기층당조직을 늘이도록 하시는 한편 몸소 국내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시고 투쟁속에서 검열된 핵심들로 기층당조직들을 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1930년 10월 1일에는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기층당조직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였다.

주체형의 당조직건설사업이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당시의 조건은 그에 맞게 당조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하시는 한편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대적조건과 혁명조직의 구성상태, 당원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당조직지도체계를 옳게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현당위원회로부터 부락의 당세포에 이르는 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으며 반일인민유격대안에는 련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가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다.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온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하는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국내와 만주일대에 당조직들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는 한편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36년 12월에는 국내당공작위원회, 1937년 2월에는 장백현당위원회를 조직하시고 그후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되고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아직 당중앙은 선포되지 않았지만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당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첫 당조직이 무어지고 당조직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된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과 주체형의 당창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되고 그것이 확대될

으로써 무엇보다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다. 당안에 수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쳥적담보이다.

첫 당조직과 각지의 기층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그리고 당시의 당및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직적의사를 실현하는 회의들이였으며 그것은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당창건위업수행에서와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일대 사변으로 된다.

첫 당조직이 결성되고 그를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이 광범히 조직됨으로써 또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당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으며 당창건준비사업이 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무장투쟁이였으며 당의 령도에서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결성된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해설침투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과 그 확대발전과정에 또한 우리 시대 새형의 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길이 개척되고 새로운 당사업과 당활동 경험이 창조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은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과 그 활동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주체형의 당을 건설할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이 확대되고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당창건위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제때에 창건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이 우리 혁명발전과 주체형의 당을 건설하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고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혁명적 당조직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 의하여 첫 당조직의 결성과 그것이 논 거대한 역할이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주체형의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론문에서 우리 당의 시원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밝혀진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론문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시원을 가지고 빛나는 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정치사업선행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적요구

김 천 식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정치사업선행의 필요성과 원칙, 그 방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론문에 의하여 정치사업선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업을 수행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혁명이란 누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당원들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혁명은 많은 군중이 하는 일이기때문에 군중자신이 그것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수 있는가, 승리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를 알아야만 잘할수 있습니다. 군중이 자각적으로 동원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도 없으며 공산주의에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354~355페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혁명과 건설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는 사람과 함께 물질문화적수단들도 리용되게 되며 조성된 객관적환경도 작용하게 된다. 물질문화적수단들이 보다 위력하고 유리한 객관적환경이 조성되면 될수록 혁명과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가능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물질문화적수단들을 마련하는것은 사람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수단들의 위력을 얼마나 나타내게 하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아무리 물질문화적수단의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사람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수 없으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것으로 되게 된다. 환경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성하는것도 사람이며 조성된 환경을 합목적적으로 리용하는것도 바로 사람이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인 능력이 높고 그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될 때 보다 위력한 물질문화적수단들이 창조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 위력이 높이 발휘되게 되며 주어진 객관적환경도 옳게 리용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동원되도록 하는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되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을뿐아니라 사상을 발동하여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은 반드시 정치사업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과의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정치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으로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원래 혁명이란 자각적인 투쟁이다. 혁명은 남이 시켜서 하거나 그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는것이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간고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에 사람들을 강제적방법으로 끌어들일수 없으며 그 어떤 보수를 주고 참가시킬수도 없다.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각성과 적극성에 의하여 혁명투쟁에 참가하며 혁명을 전진시켜나간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것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또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라는것을 밝히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입니다.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성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는것이 합법칙적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9폐지)

자본주의사회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함으로 하여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된다. 그들은 얼마 안되는 자본가들의 리윤획득을 위한 한갖 수단으로 되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며 돈없는 가난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여지없이 짓밟힌다.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그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이 발휘될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하여 마지못해 일하거나

강압에 못이겨 움직이게 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높은 정치적자각성을 가지고 혁명적열의를 내여 살며 일한다. 사회주의제도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창조적으로 살아나갈것을 념원하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선택하고 그들자신이 세운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담보하는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여기에서는 인민대중의 인격과 권리가 가장 존중시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열성을 내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위업실현을 앞당겨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이 본질적우월성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옳은 정치사업에 의해서만 원만히 발양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계속 견지하며 이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일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이에 옳게 결합하는것은 정치사업선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행정실무사업이나 기술경제사업을 홀시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이에 옳게 결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69~70페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전사회적규모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업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여러 분야, 여러 부문들이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으며 그것이 진척되면 될수록 그 련관관계는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하여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분야, 모든 부문들에서 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계획들이 서로 잘 맞물리며 로력 조직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계획실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잘 보장하여주기 위한 행정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기술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경제사업을 잘할 때에만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치밀한 행정조직사업, 기술경제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그러나 행정조직사업, 기술경제사업

도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조건에서만 잘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야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행정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기술경제사업을 과학적으로 하게 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고 기술경제적인 실무사업에만 매달려서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는 것이다.

론문은 또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는것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는 것을 밝히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자면 또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0페지)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정치도덕적자극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한다. 정치도덕적자극은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공산주의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것이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는 과도적성격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여기에서는 또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지켜야 하며 물질적자극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물질적자극문제가 제기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 하여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상이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은 없으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아직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남아있다. 사상의식령역에 남아있는 이 낡은 사회의 유물은 근로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현을 저애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낡은 사상의식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주인다운 태도를 충분히 나타낼수 없게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또한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도 남아있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과도적성격으로 하여 근로자들은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은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착취가 없는 조건에서의 물질적관심이다. 따라서 그것은 남의 로동에 대한 착취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자신의 로동에 기초한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와 집단의 요구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들 매 개인의 요구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성은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의 끝없는 치부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착취계급들의 치부욕은 남의 로동에 대한 착취에 기초한것이고 보다 많은 잉여생산물을 획득하려는 사리사욕이다.

물질적자극은 반드시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는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차요시하고 물질적자극을 위주로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성격에 어긋나는것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리기주의를 조장하

고 그들을 돈이나 물질에만 매여달리게 하며 결국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부식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유해로운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한다는데 있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할 때 인민대중이 나라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태도를 옳바로 가지고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도록 할수 있다.

론문에 의하여 밝혀진 정치사업선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이처럼 대중지도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원칙으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정치사업방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론문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정치사업은 사람과의 사업,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이고 그들을 발동하는 사업은 오직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교양사업,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써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방법으로써는 결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수 없고 조직동원할수 없다.

관료주의는 적대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지배계급들의 반인민적인 통치방법이다. 관료주의적방법으로 명령하고 호령하면 군중이 잘 움직이지 않을뿐아니라 움직여도 마지못해 움직이게 된다. 관료주의적으로 내리먹이는 방법으로써는 사람들을 납득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타이르고 깨우쳐주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에 의거할 때에만이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론문에는 또한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정치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정치사업 방향과 내용이 옳바로 설정되고 정연한 정치사업체계가 세워졌다하더라도 옳은 형식과 방법이 적용되지 못할 때에는 정치사업에서 실효를 거둘수 없다. 정치사업은 그 내용과 대상, 환경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야 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정치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환경과 조건은 각이하며 또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된다. 따라서 정치사업이 각이한 장소와 시간, 각이한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

정치사업을 환경과 조건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들을 옳게 활용하여 정치사업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들을 적절하게 동원리용하여야 정치사업을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맞게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정황이 아무리 변해도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각이한 수준과 특성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정치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은 계층과 성별, 년령과 성격,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지식수준, 맡고있는 혁명과업이 서로 다르며 감정과 취미도 꼭같지 않다. 사람들의 이러한 차이와 특성은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다.

사람들이 이처럼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정치사업을 한가지 방법으로 천편일률식으로 진행하여서는 실효를 높일수 없다. 다시말하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고정격식화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진행하여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으며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의 실효를 높이자면 그것을 대상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론문에는 다음으로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벌려야 하는것은 그것이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뒤떨어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교양개조하여 이끌고나가야 하며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정치사업은 결코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어렵고 복잡한 사상개조사업을 다그쳐 한사람도 뒤떨어진 사람이 없이 그들모두를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는것은 많은 사람들을 정치사업에 인입하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우월한 방법이다.

간부들이 당원들을 교양하여 움직이게 하고 당원들이 군중을 교양하고 움직여나갈 때 정치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될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론문에서는 또한 정치사업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정치사업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는것은 정치사업의 목적과 관련된다. 정치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정치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성과로 나타나야 하며 또 그에 의하여 평가되여야 한다.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정치사업,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사업은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을 보장하고 그것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사업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된 실속있는 사업으로 될수 있고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밝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은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며 그들의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는 혁명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해나가야 할것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

최 경 환

국방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일정한 지도적원칙에 의거할 때 옳게 해결될수 있다.

따라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을 정확히 밝히고 그를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국방사업을 뚜렷한 목표와 방향에 따라 확신성있게 벌려나가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을 자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론문에 의하여 국방분야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자위의 혁명적원칙이 밝혀짐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나라와 민족도 역시 자기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위적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36페지)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내외원쑤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민족적독립과 평화의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담보란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이다. 제국주의는 원래 그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다.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그 침략적본성의 직접적발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언제나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며 저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처지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죽음에 가까와오면 올수록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사라질수 없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이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하며 가장 교활하고 야만적인 침략자, 략탈자이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마수가 미치지 않는곳이 없으며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미제는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미제국주의의 간섭이 있는곳마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되고있다.

세계혁명력량이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 파괴와 음모 활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는 해방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언제나 준비있게 대처하는것, 바로 여기에 민족적독립과 평화를 고수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있다.

론문에는 또한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이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로 된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51～52폐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로 된다. 여기에서 규제적인것은 정치적독립, 정치적자주성이다. 정치적독립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표징이며 정치적자주성은 그의 제일생명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자립은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담보로 된다. 이처럼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자주권을 가진 민족적독립국가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수호하고 경제적자립을 참답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는 무엇보다도 정치적독립의 군사적담보이다.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그것을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해나가는것이다. 그것은 국가주권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기때문이다.

인민의 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위적인 무장력에 의거하여서만 철저히 세워질수 있고 보위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쑤들은 항상 반혁명적폭력으로 자기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할뿐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주권국가를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강력한 자위적무장력을 마련하는것은 자기의 정권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수 있는 올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이미 그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은 이와 함께 매개 나라가 자신의 결심에 따라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관철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게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자주성을 잃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는 결코 자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말할수 없다. 매개 나라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가지자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립적인 경제를 가지는것과 함께 반드시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내정에 간섭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있는 오늘 국방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자기의 정치적독립을 유지해나갈수 없다. 자위적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게 되며 대외관계에서 민족적 불평등과 차별대우를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나라는 필연코 다른 나라에 얽매이지 않을수 없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데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는것은 물론 하고싶은 말과 하고싶은 일도 제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된다.

참으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가 안하는가, 튼튼한 자위력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정치적자주권, 정치적독립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국방에서 자위는 또한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이다.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은 언제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있는 오늘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모든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투쟁은 곧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신식민주의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침략무력까지 동원하여 이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면서 경제적자립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집요하게 방해하고있으며 군사장비를 가지고 통간질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자연부원을 끊임없이 략탈해가고 있다.

이 모든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단순히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격렬한 반제반미투쟁과정이며 따라서 이 투쟁은 오직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철저히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인민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조건에서 경제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제적자립을 더 잘, 더 빨리 이룩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로부터 자기의 인적자원과 자연부원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

이와 같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자위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에 대하여서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를 방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힘과 자체의 방위력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국방사업도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2페지)

자위로선관철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제 나라를 보위하려는 자주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보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해나가는것이다.

국방사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나라를 보위하는 사업은 바로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를 튼튼히 보위하려면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국방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주동적으로 처리해나가야 한다.

매개 나라의 국방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를 처리할 권한은 오직 주인인 그 나라 당과 인민에게만 있다. 만일 당과 인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저버리거나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다면 국방사업에서 자기의 리익을 고수할수 없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할수 없게 된다.

당과 인민이 국방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똑똑하게 행사하자면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간섭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제 정신을 가지고 국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 있고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수 있다. 여기에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보위할데 대한 자위의 원칙의 참뜻이 있는것이다.

자위로선관철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또한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보위하는것이다.

국방사업은 인민자신의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나라를 방위하는것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 맡아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며 그 나라 인민만이 담당수행할수 있는 사업이다. 국방사업의 주인은 매개 나라 인민대중이며 나라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능력도 그 나라 인민에게 있다.

물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국제적인것으로 하여 국방에서 개별적나라 인민들은 형제나라들과 벗들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자기 운명과 관련되는 국방문제를 남에게 의탁할수 없으며 또 남의 힘에 의존해서는 결코 자기 나라를 지켜낼수도 없다. 국방문제를 남에게 맡기거나 남의 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저버리는것으로 되며 나중에는 망국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

국방사업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이며 남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그 힘은 보조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국방문제를 풀어나가는 여기에 자위의 원칙을 관철해나가는 가장 옳바른 길이 있는것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크기나 력사, 투쟁수단의 발전정도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국방사업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달려있다.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해방투쟁과 조국보위에 적극 떨쳐나서는데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이며 세계혁명운동력사가 남긴 중요한 교훈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투쟁은 힘의 대결이다. 따라서 국방에서 자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언제나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론문에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자위적무장력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자위적무장력은 자위력에서 핵을 이루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자위적무장력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

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되여야 한다. 그러한 군대만이 군민일치와 상하일치를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자위적인 무장력으로 될수 있다.

론문에서는 또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는것을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방도로 제시하고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자면 전군을 간부화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전군을 간부화하여야 군대의 힘을 강화할뿐아니라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지휘력량을 보장하여 군대를 몇배로 늘일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 전군을 현대화하여 정치사상적우월성에 현대적기술을 결합하여야 혁명군대를 참말로 무적의 군대로 만들수 있다.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자면 전군을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한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국방에서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자체의 힘으로 막아낼수 있게 하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이다.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전체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적들이 어디로 덤벼들든지 제때에 철저히 섬멸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론문에는 다음으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헌신성에 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 장병들사이의 혁명적동지애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자각적군사규률 등은 오직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만이 가질수 있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이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무력의 본질적우월성이며 그 불패성의 원천이다.

혁명군대가 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하는것은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우세에 있다. 혁명전쟁의 력사가 증명하는바와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는 최신무장을 갖춘 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인민무력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자기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론문은 또한 자체의 튼튼한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후방을 강화하는것을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제기하고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민족국방공업은 자위적무장력의 물질적담보이다.

매개 나라가 자체의 민족국방공업을 건설하며 자위적무장력의 물질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특히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무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며 무기장사를 통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을 략탈하고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있는 조건에서 신생독립국가들이 자체의 민족국방공업을 창설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로 나선다.

물론 작은 나라들이 필요한 무기를 다 자체로 생산하기는 힘들수 있다. 그러나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것은 어디까지나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방을 강화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도록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들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조성하며 일단 유사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군사사상발전과 우리 시대 자주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이 밝힌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사상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군사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자위의 원칙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군사문제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할수 있게 하는 근본초석이며 인민대중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이 원칙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은 우리 시대에 와서 군사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해석하며 처리하는 주체의 군사사상으로, 자위의 원칙을 근본핵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방건설과 군사전법에 관한 리론, 령군방법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또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주었다는데 그 거대한 의의가 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정치는 군사와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반혁명적폭력을 혁명적폭력으로 짓부시기 위한 투쟁, 다시말하여 군사문제의 옳바른 해결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본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자위의 원칙이 밝혀짐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의 길로 나갈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은 이미 혁명실천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확증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전투진영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권위있고 힘있는 나라로 되였다.

우리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진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에 관한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

김 창 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 실현방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이 문제는 혁명투쟁의 승리적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시대가 제기한 이 중대한 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주심으로써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민족국가단위로 벌어지고있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사상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9페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는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는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라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건에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새롭게 밝힌 탁월한 사상이다.

이 독창적인 사상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일정한 사회적집단속에서만 개척해나갈수 있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삶으로써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자주적요구가 높아지고 창조적 능력이 증대되는데 맞게 사회관계를 개조하여왔을뿐아니라 사회생활단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온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인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맺고있는 사회관계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고있다. 매개 민족들이 피줄과 언어, 령토에서 서로 구별될뿐아니라 사회제도, 사람들의 심리와 생활풍습에서도 서로 구별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물론 인류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민족국가들에 형성되여있는 사회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맺게 되는 관계이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아무리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사람들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구별이 있는 이상 사람들이 맺는 사회관계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게 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맺는 사회관계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속한 민족국가의 사회관계를 체현하고 그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이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되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민족국가의 성원으로 살며 활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련결되여있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예속되면 나라와 민족의 성원을 이루고있는 인민대중도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예속이란 다름아닌 그 나라 인민대중의 예속을 의미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예속을 떠난 나라와 민족의 예속이란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예속하려는것은 그 나라 인민대중을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한것이다. 결국 나라와 민족의 처지는 그대로 인민대중의 처지에 반영되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나라와 민족이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도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게 되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없으며 하고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남에게 예속된 나라는 모든 정책과 로선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관철할수 없으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을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처지가 이렇게 되면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이와 같이 인민대중의 운명이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인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련결되여있고 그속에서만 개척될수 있는것만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상은 또한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남에게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세찬 불길속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게 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얼마 안되는 식민지지탱점을 견지하며 새로 독립한 신흥세력나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다시금 예속하고 지배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에 의거하여 로골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한편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의 올가미를 씌워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을 다시금 예속하고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지금 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있으며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들의 앞길에는 커다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조성된 정세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이 새 사회를 건설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결히 고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지 못하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그 어떤 진보적인 사회경제개혁도 실시할수 없으며 따라서 쟁취한 민족적 독립마저 잃어버리고 다시금 식민지노예로 전락될수 있다. 실로 오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뿐아니라 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나라들에서도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물론 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면 민족국가의 범위안에서는 그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외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비록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리용될수 없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된 정권은 외세의 온갖 간섭을 막아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될수 있으며 인민의 소유로 된 생산수단도 인민대중의 자유롭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고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국제무대에서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사이, 자주세력과 반자주세력사이의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선결조건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요구와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무엇보다먼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결합시켜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적범위에서 진보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그 어떤 사회경제개혁도, 경제문화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연과 사회를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신념에 따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갈 때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어느 한 혁명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의 전력사적기간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물론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보장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할수 있는 외부적요인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된 다음에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구별이 있는 한 그것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침해당할 조건이 없어진 다음에도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하는것이다. 그래야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할수 있고 세계혁명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

주적인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9페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적독립을 전제로 한다. 민족적독립을 잃어버리고 남의 식민지가 된 나라와 민족은 그 어떤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남의 식민지로 된 나라와 민족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발전의 길을 걸을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는것이다.

민족적독립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민족적독립이 이룩되였다고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다음에도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를 청산하며 민족문화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업은 자주적인 정권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다.

정권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이다.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주도적지위와 결정적역할로 하여 정치적지배는 사회생활의 전반을 지배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혁명의 기본문제가 정권에 관한 문제로 되는것도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있다고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성을 잃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러한 정권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주적인 정권을 가질 때만이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표징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9페지)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여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남의 압력과 간섭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된다. 정치적자주성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한다.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

주성을 지킬수 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면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게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경제적락후성은 민족적불평등을 낳는 실제적기초이다. 경제적불평등은 정치와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한다.

경제적자립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실현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략탈정책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배와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으며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를 청산하고 국제관계분야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는 자위적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는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자체의 힘으로 능히 물리칠수 있도록 언제나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그러자면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위적무장력을 가져야 하며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고 자체의 위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상은 우리 인민의 혁명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되였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로정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벌려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고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였다. 우리 인민이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한것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간고하고 복잡한 길을 훌륭히 개척해나가고있는것도 우리 당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한데 있다. 지난날 착취와 억압, 락후와 빈궁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이 오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것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거대한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다.

이 사상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준데 있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자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일적인 과정에서 보아야 하며 이 투쟁들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민족국가단위로 벌어지는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옳게 해명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이 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이 정확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상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민족문제에 관한 로동계급의 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킨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게 된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문제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원칙적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문제의 본질과 민족문제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 민족문제해결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민족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상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나갈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며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

김 덕 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적출판물발행사업을 조직령도하시고 항일의 혈전속에서 주체적출판보도물의 원형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항일유격대식출판보도선전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출판보도선전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로 제기하고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었다.

우리 당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원칙적문제가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당출판보도선전은 그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방법에서도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갈수 있는 참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 *

항일유격대식출판보도선전방법을 구현하는것은 출판보도활동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어떤 사업방법에 의거하여 조직진행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는것처럼 당적출판보도선전의 성과여부도 어떤 사업방법에 의거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상사업에서는 내용과 함께 방법이 또한 중요하다. 당의 출판보도선전 방향과 내용이 옳게 규정된 다음 여기에 혁명적방법이 따라서야 출판보도선전이 당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될수 있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출판보도활동을 벌린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기풍과 방법으로 출판보도물을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당적출판보도물을 전투적이고 호소적이며 참신하고 다양하게 통속적으로 만들수 있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기본요구는 출판보도활동을 수령의 위대성선전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모든것을 집중시키며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 철두철미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에 중심을 두며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 관철에 철두철미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출판보도선전을 벌리는데서 기본으로 되며 당적출판보도물의 사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0권, 296페지)

혁명적출판물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그것이 언제나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을 더 잘하며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일군들은 파란곡절을 겪어오던 조선혁명이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의 한길로 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였기때문에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태양, 해방의 구성이시라는것을 널리 선전하는데 출판보도선전을 집중시켰다.

혁명적출판보도일군들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그들자신이 마음속으로부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가장 숭고한 임무로 간직하고 출판보도선전사업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던 전환의 시기에 《볼쉐위크》의 주필로 활동하던 김혁동지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그이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하여 출판보급하였으며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의 진로》를 《볼쉐위크》에 원문그대로 출판하였다. 김혁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한치의 드팀도, 순간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단 한번도 《볼쉐위크》의 출판부수를 줄이거나 그 발행기일을 늦춘 일이 없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일군들이 발휘하였던 이러한 혁명적 기풍과 방법을 그대로 본받는것은 오늘 우리 당 출판보도선전이 숭고한 정치사상적 높이에 올라설수 있게 하며 권위있는것으로 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비록 하나의 기사와 론설을 쓰고 한장의 사진을 찍고 한면의 신문과 한종의 도서를 편집하여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선전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출판보도선전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출판보도물이 자기의 생명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고있다.

참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위대성선전에 중심을 두며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출판보도선전을 어디에 모를 박고 집중시키겠는가 하는 자세와 립장, 방법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되며 그것은 항일유격대식출판보도선전방법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주되는 요구로 된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데 대한 당의 방침의 기본요구는 또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수준에 맞는 특색있는 출판보도물을 만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출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출판물의 형식과 내용을 대중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하며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며 우리 출판물들을 인민대중이 읽고 알수 있는 통속적인 출판물로 고쳐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97페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이라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로부터 출발하여 출판보도선전은 마땅히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에게 적극 복무하는 방향에서 조직진행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일군들은 등사기를 메고 유격대원들과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군중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혁명적출판물을 만들어내였다. 그들은 군중들이 알아들을수 있는 말과 글로 출판보도활동을 벌림으로써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출판물들이 대중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특히 그들의 집필편집활동에서 구감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풍이였다. 혁명적출판보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풍을 따라배워 글을 로동자, 농민들이 보고 무엇을 말하려는것인지 알수 있게 짧으면서도 깊이있고 문제의 정통을 찌를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든 모든 출판물들은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간결명료하고 생동하고 참신하였으며 다양한 형식과 수법으로 특색있게 씌여졌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만년초석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출판보도일군들이 사무실에 파묻혀있을것이 아니라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문제점을 찾아내며 기발하게 착상하고 취재하여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출판보도물을 만들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훌륭한 글감은 훌륭한 문제작을 만드는 전제의 하나이며 그를 위한 소재는 바로 군중이 살고 일하는 현실속에 있다. 들끓는 현실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군중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만들어낸 출판보도물만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출판보도물을 짧고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만드는것은 대중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항일유격대식으로 출판보도선전을 벌리는데서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있는 원칙적요구이다.

출판물을 통속적으로 만든다는것은 대중에 대한 옳은 주체적관점, 높은 복무정신을 가지고 그 정치사상적내용을 풍부히 하면서도 그것을 대중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백하게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은 출판보도물을 통속화하며 글을 짧고 알기 쉽게 쓰는 문제를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중에게 복무하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고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식 문풍을 따라배워 글쓰는데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출판보도물을 인민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게 통속적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은 부르조아유한객들과 지식층만을 상대로 하는 부르조아출판보도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적출판보도물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원래 글이란 사람들이 보고 그 내용을 명백히 알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 착취계급들은 인민대중을 억압하며 저들의 《유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글을 인민대중이 리해할수 없게 까다롭게 만든다.

글을 까다롭게 쓰고 대중이 알고싶어하는 요진통을 찌르지 못하며 본질적인것을 놓치고 부차적인것만을 장황하게 늘어놓는것과 같은것은 문풍에서의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그러므로 출판보도물을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있고 명백하며 쉽게 리해하고 파악할수 있게 만드는것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출판보도선전을 벌리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로 되는것이다.

출판보도물들을 참신하고 특색있게 만드는것은 대중의 요구와 수준, 그들의 감정에 맞게 항일유격대식으로 출판보도선전을 벌리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참신한 글이란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새맛이 나게 쓴 글을 말한다.

우리 당은 문제성이 없이 일반적인

내용만 걸게 늘어놓고 수식사나 타렬한 출판보도물은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는것을 밝히고 기자, 편집원들이 당의 사상을 사리정연한 론리와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실감있게 해설하는 좋은 글을 더 많이 써내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출판보도물을 자기 특성에 맞게 만들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매개 출판보도물이 가지고있는 독자대상과 임무는 서로 다른것만큼 그것이 아무런 특색이 없이 한가지 내용, 한가지 방법으로 나간다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보도물은 패기가 넘쳐야 하며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은 구수한 말로 흙냄새가 풍겨야 한다.

출판보도물을 참신하고 특색있게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은 매개 출판보도물의 특성에 맞게 당의 의도를 깊이 반영할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출판보도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기본요구는 또한 온갖 겉치레와 격식을 없애며 출판보도활동을 통이 크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다.

항일유격대식방법은 고정불변한 격식과 겉치레를 배격하며 모든 문제를 창조적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패기있게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 전투적사업방법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보도일군들은 글을 쓰고 편집하는데서 그 어떤 겉치레와 허식도 몰랐으며 출판보도사업에서 언제나 통이 크게 궁리하고 설계하였으며 출판보도활동을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갔다.

우리 당은 겉치레와 허식, 온갖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통이 크고 패기있게 벌리는것을 출판보도선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출판보도물을 틀에 박힌 체계와 누구나 아는 내용을 가지고 낡은 격식에 따라 만들어낸다면 교양적가치도 적고 대중에게 흥미도 주지 못한다. 겉치레와 허식, 도식주의에 빠지면 창조적인 사색을 할수 없고 기성관념에서 벗어날수 없다.

물론 출판보도선전은 개별담화나 집체적모임을 통한 선전사업과는 달리 광범한 독자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사업의 형식이므로 모든 개별적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그것을 조직진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당은 낡은 격식과 겉치레,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출판보도선전을 통이 크고 패기있게 벌리는 기본열쇠는 바로 항일유격대식으로 출판보도선전을 조직진행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당적출판보도물의 전투성과 호소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언제나 출판보도활동에서 로쇠와 침체를 반대하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출판보도물의 질을 높이며 당출판보도선전에서 시간성과 기동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참으로 출판보도선전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전면적으로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이 혁명적방침은 무엇보다먼저 출판보도선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변색을 모르는 명실공히 영광스러운 주체의 출판보도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갖출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은 또한 출판보도활동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온갖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출판보도선전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이 새롭게 밝혀지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출판보도선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이 이룩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보에서 사설혁명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데 뒤이어 출판보도부문들에서 련이어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이 일어나게 되였다.

최근 우리의 신문, 잡지, 도서,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는 당이 매시기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문제작들이 수많이 나오고 있다. 당보를 비롯한 우리 출판보도물들에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사리정연한 론리와 깊은 내용, 생동한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있게 해설한 문제성있는 사론설과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있으며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출판보도선전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또한 우리 당 출판보도선전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출판보도선전일군들속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일군들처럼 일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혁명적열정과 생기발랄한 기백이 차넘치게 되였다.

오늘의 이 모든 성과들은 출판보도선전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의도에 맞게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출판보도선전을 더욱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은 출판보도선전일군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이 내놓은 방침의 위대성,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은덕에 대한 선전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청년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별》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높이 칭송한것처럼 모든 출판보도물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칭송의 노래가 웅심깊게, 열도높게 울리도록 해야 한다.

당적출판보도물이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대중운동을 얼마나 힘있게 추동하는가 하는것은 출판보도선전사업을 어떻게 대중에 접근시키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우리는 한건의 글을 쓰고 편집하여도 당정책적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대중화, 통속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출판보도부문들에서 품위있는 훌륭한 문제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정책적으로 쇠소리나고 품위있고 무게있는 훌륭한 문제작을 제때에 창작하기 위한 기본고리는 종자를 똑바로 쥐고 속도전을 벌리는데 있다.

출판보도물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데서 기본은 당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잡는것이다.

특색있는 종자를 바로잡아야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당정책적요구에 맞

게 제기할수 있으며 독자대중에게 인상깊고 그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훌륭한 문제작을 만들어낼수 있다.

출판보도선전일군들은 종자를 바로 잡은 다음에는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해설한 출판보도물을 제때에 내보내야 한다.

당이 바라는 훌륭한 출판보도물은 출판보도일군들의 혁명적열정의 산물이다.

출판보도일군들은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훌륭한 출판보도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서 충성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독자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출판보도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자면 당출판보도선전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누구보다도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두가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야 한다.

짧고 명백하고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출판보도물을 만드는 문제는 주관적인 욕망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적안목과 능숙한 문필적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식 문풍을 따라배워 출판보도물을 로동자, 농민이 늘 쓰는 쉽하고 알기 쉬운 말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식 문풍을 따라배워 그대로 구현하는것이 곧 출판보도활동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라는 옳은 립장을 가지고 글을 까다롭고 리해하기 힘들게 쓰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언제나 고유한 우리말, 로동자, 농민들이 늘 쓰는 구수하고 뜻이 깊은 말로 간결하고 명백하게 글을 쓴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문풍을 출판보도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출판보도선전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옳게 진행하자면 모든 당조직들이 출판보도물의 편집과 발간, 그 리용, 배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출판보도물의 가지수만을 늘이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교양자료들과 혁명소설들 그리고 대중들의 요구에 맞고 혁명에 절실히 필요한 출판보도물들을 더 많이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신문, 잡지, 도서들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의 특성을 살리는데 모를 박고 당출판보도선전을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기자, 편집원들이 신문, 잡지, 도서들의 사명과 독자대상에 맞게 그 내용을 편집하며 모방과 도식을 없애고 기사의 종류적특성에 맞게 출판보도물을 만들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출판보도물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오늘 출판보도선전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조직들과 당선전일군들은 출판보도물을 통한 선전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고 책읽는 운동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출판물이 대중속에서 옳게 리용되자면 그 배포를 잘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독자들의 직종과 수준에 맞게 신문이나 잡지, 도서 등이 그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출판물배포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는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당적출판보도물들을 적극 동원하여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들이댐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앙양된 분위기로 더욱 들끓게 하여야 할것이다.

기술혁신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중요한 방도

김 웅 호

지금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혁명적구호를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당이 제시한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할 현실적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며 그것을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기술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305~306페지)

기술혁신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최신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의 급속한 장성은 기술의 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기술을 혁신하고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커다란 물질적힘으로 전환시키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의 력사는 기술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때 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룩된 《천리마속도》와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도 그리고 1970년대에 창조된 《70일전투속도》도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였으며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진 기술혁신운동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였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름으로써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한 다음에도 계속 힘차게 내달려 3대기술혁명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며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과업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은 규모가 대단히 커진 우리의 인민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경제건설과업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례없이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이 거창하고 웅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전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며 기술을 더욱 혁신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튼튼히 장비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다그쳐짐에 따라 오늘 생산발전에서 기술수단들이 노는 역할은 날로 커지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기술적변혁을 이룩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없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없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며 기술을 혁신하여야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그 발단을 열어놓으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대고조력사의 전통을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와 영웅적기상을 높이 떨칠수 있다. 기술을 혁신하는 바로 여기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기술혁신은 무엇보다도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생산을 더욱 늘여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도구의 개선에 의하여 이룩된다. 손로동이 기계로동으로 바뀌여지고 기계적인 로동이 반자동화, 자동화되는것은 기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며 생산력발전의 추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의 모든 부문, 생산의 모든 단위에서 손로동이 자취를 감추고 생산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다. 그런것만큼 현존기계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새로운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인다면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가지고도 생산을 훨씬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으며 방대한 규모의 건설에 많은 힘을 돌릴수 있다.

기술혁신은 기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낡은 기계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보다 능률적인 기술장비들을 만들어내는것은 기술혁신의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을 일으켜 기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실현하면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훨씬 높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할수 있으며 크게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더 큰 생산능력을 마련할수 있다.

기술혁신은 또한 생산공정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생산을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한다.

생산기술공정을 합리화하고 생산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생산 공정과 방법이 개선되는데 따라 원료와 자재, 로력 등 생산요소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되고 제품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공정을 적극 개선하고 새로운 생산방법들을 창안도입하는것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마련하는데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 기술공정과 방법에서 전환이 이룩되면 될수록 생산은 더욱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 더우기 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고리들사이의 련계가 다양해지고

밀접해진 현대적생산에서는 생산 기술공정과 방법을 개선하는것이 생산장성의 큰 예비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생산기술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기술혁신에 있다. 기술혁신을 하여 기술수단과 생산방법을 새롭게 개선하면 뒤떨어진 생산공정이 보다 현대적인것으로 전환되며 일부 불비한 공정과 이빠진 공정들이 보충완비되고 나아가서 기계설비들사이의 능력상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흐름선과 자동선을 성과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술혁신은 기술수단과 생산기술공정, 생산방법의 개선을 다그치게 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기술을 혁신하는것은 또한 생산과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높임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경제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담당자는 근로자들자신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옳게 발동시킨다면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으며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그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열의를 더욱 높일수 있으며 그것을 실제적인 생산성과로 더 잘 전환시킬수 있다.

기술혁신은 모든 일을 기계와 기술의 힘에 의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헐하고 안전하며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한다. 기술혁신과정을 통하여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이 보다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자기의 지혜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기술혁신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혁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의 기술혁신은 그 수준에 있어서나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새로운 비약을 의미하는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민족간부문제를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해결하여오신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은 100만명이상의 인테리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위력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와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경제적밑천도 마련하여놓았다. 기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나 다 만들어낼수 있다. 나라의 기술적진보를 이룩하는 과정에 쌓은 좋은 경험들도 오늘 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인테리대군이 있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아무리 높은 요새라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신심과 혁명적열정을 안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500페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기술혁신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요구에 맞게 기술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혁신하자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립장에서부터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기술혁명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데 있으며 그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자는데 있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나서는 기술혁신과업은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며 그것은 수준과 규모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술혁신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과업으로, 생산력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동시키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기술혁신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이며 그들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열쇠는 바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다름아닌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맡겨져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숨은 영웅들처럼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하며 인재나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산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가지고있는 풍부한 경험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지고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옳게 결합하여야 기술발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생산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서 과학기술지식을 배우면서 실천투쟁속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들을 살려 기발한 착상과 적극적인 발기로 훌륭한 기술혁신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자들의 산 경험에서 새로운것을 찾아내고 그들이 내놓은 창발적의견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성시키며 일반화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

며 생산실천에서 나서는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 잘 풀어나가야 한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에서나 작전을 잘하고 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처럼 기술혁신을 일으키는데서도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기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고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여있는 오늘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조직지도사업에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태와 전망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게 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실속있게 실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프레스화, 형단조화, 용접혁명, 절연물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기계설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하며 전반적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 수행정형을 늘 장악하고 총화할뿐아니라 그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발기들이 다름아닌 생산자들속에서 많이 나온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사소하고 미숙한 창의고안의 싹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 지지해주며 그것을 발전완성시킬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들과 창의고안, 생산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그것이 제때에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가려면 경제지도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술혁신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갈수 없으며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킬수도 적극 전개해나갈수도 없다. 과학기술수준이 높고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민감한 일군만이 대중과 함께 대담하게 착상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수 있으며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서 이신작칙하고 대중과 보조를 잘 맞춰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고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현대과학기술에 밝은 유능한 지휘관이 되여야 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한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뒤떨어진것, 보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요구하는 기술혁신, 그것은 전면적기술개건의 시기나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월련

높은 단계의 기술혁신이다. 그런것만큼 기술발전을 방해하는 사소한 낡은 사상경향도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술을 현실이 요구하는 높이에 올려세울수 없으며 기술발전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의 사소한 요소들도 반대하여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하며 기술을 개조하는데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낡은 기술기준과 낡은 공칭능력을 마스고 새 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신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며 그것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기술혁신도 이 근본핵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들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맡겨진 기술혁신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게 하여야 한다.

지금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이에 따라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있다.

현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가져오게 하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새 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현지대리인

고 병 한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남조선이 마치도 《독립국가》이며 거기에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가 존재하는듯이 떠벌이면서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을 기만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의 엄연한 현실을 가리우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은 《독립국》이 아니라 미제의 철저한 식민지이다.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은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이며 남조선의 괴뢰통치배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집행하는 현지대리인역할만을 하고있다.

제국주의상전을 등에 업고있는 전두환역도가 예속을 《독립》으로 외곡하면서 온갖 매국배족적책동을 일삼고있으나 그것은 제놈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 *

현지대리인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실현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실현하는데서 쓰고있는 교활한 신식민주의통치수법의 하나이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 우익반동들을 매수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들 앞잡이로 내세워 이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실현하고있다. 이러한 나라와 지역들은 어떠한 외피를 쓰든지 결코 《독립국》으로 될수 없으며 식민지로서의 본색을 가리울수 없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미제와 괴뢰들사이에는 철두철미 상전과 주구와의 관계로 얽매여져있다. 미제는 상전으로서 괴뢰들에게 모든것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으며 괴뢰들은 상전에게 아부굴종하고 그들의 명령지시를 집행할 의무만을 지니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주종관계를 통하여 많은 나라와 지역을 저들의 침략적야망에 맞게 지배하고 통제하고있는것이다.

오늘의 남조선은 바로 미제의 교활한 신식민주의통치의 가장 전형적인 지역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17페지)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직접적산물이다.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일제시기와 조금도 다름없는 군정통치를 실시하던 미제는 그것을 더 이상 연장할수 없게 되자 그 무슨 《독립》을 도와준다는 미명밑에 괴뢰정부를 조작해내고 그를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도구로 리용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체계적으로 키워낸 앞잡이들을 괴뢰정권의 자리에 번갈아 들여앉히고 그들에게 저들이 작성한 침략정책을 집행하게 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을 틀어쥐고 식민지적지배를 실현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괴뢰통치배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추호도 대변할수 없을뿐아니라 실제상 그 어떤 독자성이나 실권도 없는 가련한 존재들이다. 놈들은 오직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현지에서 충실히 집행하는 대리인의 역할만을 할따름이다.

미제를 상전으로 섬기면서 감행한 남조선력대괴뢰들의 매국배족정책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리승만괴뢰도당은 8.15이후 남조선에서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미쳐날뛴 철저한 매국역적이였다. 일찌기 미제의 품에 기여들어 노복으로 길들여진 리승만역도는 괴뢰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후 매국배족정책을 감행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마련하여놓았으며 미제의 침략정책의 돌격대가 되여 미쳐날뛰였다. 리승만괴뢰도당은 상전의 지령에 따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의 불을 질러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대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다.

그후 남조선에서 괴뢰대통령의 감투를 뒤집어쓴 박정희역도 역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것을 제놈의 본분으로 삼아온 미제의 손때묻은 톡무였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에서 극악한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저촉되는 모든 진보적요소들을 탄압말살하였으며 자주를 지향하는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의 지령에 따라 반공을 《국시》로,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정책》으로 《선언》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였으며 미제의 새 전쟁 정책집행에 미쳐날뛰였다. 박정희역도가 감행한 이 모든 책동이 철저히 미제의 침략적전략에 따라 남조선을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매국배족적죄행이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두환역도는 미제에 아부굴종하는데서 선행한 괴뢰들을 훨씬 릉가하는 사대매국노이다.

전두환역도로 말하면 벌써 20년전에 미제에 의하여 《선발》되고 길들여진 철저한 미제의 노복인것이다.

미제가 전두환역도에게 괴뢰대통령감투를 씌운것은 그를 앞잡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어떻게 하나 수습하며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틀어쥐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미제의 비호밑에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은후 전두환역도가 하고있는 모든 책동은 철두철미 미제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매국배족적인 범죄행위로 일관되여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철저한 집행자이다.

정치적예속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기본내용으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 그들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영구화하려 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의 이러한 침략정책을 앞장서 집행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의 직접적인 감독통제밑에서 놈들의 지령을 받아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고있다.

미제의 지령에 따라 전두환도당은 《정권》강탈을 전후한 시기에 포악한 비상계엄령을 456일간이나 유지하면서 5,400여건의 악법들을 개악, 조작하여 독재정치의 《법률적기초》를 마련하고 정보, 사찰과 경찰, 사법검찰을 중추로 한 파쑈폭압체제를 가일층 정비보강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괴뢰통치기구를 개편하고 그 《요원》들을 친미분자들로 교체하였다. 전두환역도가 남조선의 《정치적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것은 놈들의 《정책》이 다름아닌 미제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에서 식민지파쑈독재를 더욱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전두환역도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받침하고

남조선인민들을 놈들의 정치적지배의 희생물로 만드는 용납할수 없는 매국배족적책동인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라면 나라를 팔고 동족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것도 서슴지않는다.

미제상전으로부터 특별지령을 받은 전두환역도가 광주대살륙음모를 꾸미고 수천수만에 달하는 광주의 시민들과 학생들을 잔인하게 살상한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력사는 수많은 파쑈살인광들의 범죄를 기록하고있지만 전두환역도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처럼 많은 동족을 학살한 흉악한 민족의 백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전두환도당이 남조선에서 반공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도 바로 미제의 각본에 따른것이며 남조선에서 민족적자주권을 말살하고 미제의 정치적지배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한고리이다.

전두환역도는 《집권》기간 200여건의 대소반공모략사건들을 날조하고 여기에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청년학생들, 인민들을 관련시켜 가혹하게 처형하였으며 남조선애국적인민들의 진보적인 사회정치활동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에 걸어 마구 탄압하고있다. 그리하여 온 남녘땅을 죽음과 공포의 살벌한 분위기속에 몰아넣었다.

전두환도당은 이처럼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전에게는 비렬하게 굴종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하여서는 폭군으로 군림하고있는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말살되는 정치적암흑지대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정치적부속물로 전변되였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예속적이며 략탈적인 식민지경제정책의 철저한 집행자이다.

남조선경제를 미국경제권안에 완전히 예속시키려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일관한 침략전략의 하나이다.

전두환역도는 미제의 침략목적에 부합되게 남조선의 모든 경제적실권을 미국의 독점자본가놈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남조선경제를 미제에게 더욱 철저히 예속시켜놓았다.

전두환역도는 《집권》한후 외자도입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자본시장개방의 최후단계라고 볼수 있는 합작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수입자유화》라는 명목밑에 시장을 개방하는 매국적조치를 단행하였다.

전두환역도의 이러한 경제적《조치》들은 그 모두가 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지배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며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매국배족적행위이다.

특히 전두환역도는 침략과 예속의 올가미인 미제의 경제 《원조》와 《차관》에 매여달림으로써 남조선경제를 미제의 지배권안에 더욱 깊숙이 몰아넣고있다. 전두환역도는 미제의 《원조》가 남조선에 그 무슨 《번영》이라도 가져오는듯이 떠들어대면서 미국독점자본을 남조선에 마구 끌어들이고있다. 이미 1981년에 79억딸라의 막대한 《차관》을 도입한 전두환도당은 앞으로 4~5년기간에 469억딸라의 외자를 더 끌어들이겠다고 떠벌이였다.

전두환역도의 무분별한 외자도입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는 미일독점자본이 물밀듯이 쓸어들어와 남조선경제의 중요명맥을 틀어쥐고있으며 놈들은 생산의 조직으로부터 소득분배에 이르는 경제활동의 전과정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미국독점체들은 남조선에 투자하여 불과 2~3년동안에 리익금은 2~3배, 영업규모는 10~20배로 늘이는 폭리를 얻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국독점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황금시장》으로 되고있다.

전두환역도의 매국적인 경제정책으로 외국독점자본이 판을 치는 속에서 남조선의 외채는 천문학적수자를 기록하고있으며 경제적예속과 대외의존성은 더

욱 심각화되고 민족경제의 파산몰락과정은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오늘 남조선경제에서 자립성이라는것은 티끌만치도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경제는 미국이 자금과 원료를 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움직일수 없는 형편에 처하여있으며 돌아가는 공장들이라는것도 모두 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들여다 가공하거나 반제품을 만들어 내가는 외국독점자본의 부속공장으로 되고말았다.

외국독점자본에 짓눌리우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경제의 침체와 파국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민족산업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러 무리로 파산당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있다.

이와 같이 전두환역도의 대미의존적인 경제정책은 남조선경제를 전면적인 파탄과 몰락의 나락 속에 깊이 몰아넣고 경제생활전반을 미제의 경제적지배권안에 깊이 밀어넣음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한 발판을 닦아주고있다.

전두환피뢰도당은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지배와 전쟁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51페지)

미제는 남조선을 아세아에서 중요한 군사전략적지점으로 보고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영원히 지배하며 현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저들의 흉악한 해외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미제의 이러한 침략적인 군사전략의 직접적인 집행자의 역할을 놀고있다.

전두환역도는 피뢰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미국상전을 찾아가 남조선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생명선》이라느니, 《미국의 전초기지》라느니 뭐니 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허용하는 침략과 매국의 《문건》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고 놈들이 남조선에 현대적무기들을 서슴없이 끌어들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멋대로 감행할수 있도록 하여놓았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갈데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남조선을 영구히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밑에 내맡기는 용납할수 없는 죄행이다.

전두환역도는 미제의 극동침략전략에 발맞추어 남조선피뢰군을 더욱 정비보강하고 남조선령토를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내맡기는것도 꺼려 하지 않고있다.

전두환역도는 피뢰군부내의 기성군벌들을 밀어제끼고 그 자리에 미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은자들을 들여앉혔으며 피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미국으로부터 현대적인 살륙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있다. 오늘 남조선피뢰군은 값눅은 미제의 고용병으로, 미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대포밥으로 리용되고있다.

전두환도당은 남조선을 미제의 철저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남조선도처에 군용비행장을 비롯한 각종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고 항만, 철도, 도로 등 군사기동력과 병참보급부문을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침략정책 수행의 전초기지, 직접적군사행동지대, 병참기지로 전변되였다.

전두환역도는 미제의 침략전쟁계획에 따라 우리를 《적》으로 가상한 도발적인 구호를 내걸고 군종별전쟁연습과 륙해공군합동훈련, 종합전술훈련 등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있으며 《쌍룡훈련》과 같은 예비군훈련도 해마다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특히 전두환역도는 미제의 작전계획에 따라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 보다 많은 괴뢰군과 예비군 무력을 동원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전두환도당의 무모한 군사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있으며 조선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새로운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전두환역도야말로 남조선을 새로운 침략전쟁의 온상으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켰으며 3천리강토를 또다시 새 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고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민족반역자이며 전쟁광신자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남조선괴뢰들은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미제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다.

현시기 미제의 대조선정책에서 기본전략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적극 추종하면서 인위적인 분렬상태를 고착시켜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전두환도당은 《집권》하자마자 《분렬의 지속만이 미국과 살아가는 길이다》, 《북과는 대결만이 있을뿐이고 평화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놈의 분렬주의적립장을 드러내놓았다.

전두환역도가 들고나온 《2천년대통일론》이라는것도 바로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이것은 전두환역도가 2천년대까지 분렬을 위한 대결체제를 굳힌후에 그 무슨 《련공》통일을 이룩해보겠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다.

전두환역도는 상전의 각본에 따라 가짜통일론을 들고나와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려는 뻔뻔스러운 책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전두환역도가 미제의 지령에 따라 꾸며낸 이른바 《상호방문》이요, 《최고당국자회담》이요 뭐요 하면서 떠들어대고있는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과는 대결만이 있을뿐이고 평화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던 전두환역도가 갑자기 《방문》이요, 《회담》이요 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제기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에 대한 내외인민들의 폭풍같은 반향과 열렬한 지지를 가로막고 내외여론을 오도해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인것이다.

전두환역도는 마치도 제놈이 통일에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가장하고 있으나 그 무엇으로써도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의 돌격대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모든 사실은 전두환괴뢰도당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철저한 앞잡이이며 미제에게 빌붙어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전두환반역도당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참다운 발전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의 더러운 앞잡이이며 민족의 흉악한 원쑤인 전두환사대매국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찾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항거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놈들의 가혹한 탄압이 가해지는속에서도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력사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외세를 끌어들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추악한 매국배족의 무리들을 쓸어버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각화되고있는 실업문제

황 한 욱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반제자주력량이 날로 장성강화되는 반면에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고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떠선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호되게 얻어맞고있을뿐아니라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맞다들어 진통을 겪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연료위기, 원료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은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팽창과 실업의 증대로 하여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83페지)

현시기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전례없이 심각한 경제적파국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대중적실업문제이다.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늘어나는것은 하나의 법칙이지만 그것이 최근년간처럼 만성화되고 심각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실업자대렬이 전례없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최근에 미국로동부는 미국의 실업률이 10%선을 넘어섰으며 미국에는 1,130만명을 넘는 실업자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로조단체들은 미국의 실업자수가 실지에 있어서는 2,000만명을 헤아린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에서도 실업자대렬이 계속 증대되고있다. 지난해 7월현재 일본의 실업자수는 137만명을 기록했다.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에서도 실업자대렬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말현재 이 나라들의 실업자수는 1,123만 6천명으로서 40년래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 나라들에서의 실업률은 10.1%에 달하였는데 서구라파에서 실업률이 10%선을 넘어선것은 제2차세계대전이래 처음이라고 아우성을 치고있다. 특히 영국에서 대중적실업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영국에서는 로동능력있는 인구의 14%가 실업을 당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로동자 7명중 1명이 실업자라는것을 의미한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또한 실업자대렬이 좀처럼 줄어들 가망이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것으로 되고있는데 있다.

종래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줄어드는 때가 있는것이 일반적현상이였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적실업은 생산이 오르내리는 경기변동과는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늘어만나는 사태가 지속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1974~1975년 공황이 있은 다음의 경기순환과정에서도 실업자수는 그 어느 한해에도 줄지 않고 취업률이 공황전수준에로 되돌아가지 못하고있는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실업기간을 놓고보더라도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년간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할수 없는 암담한 형편에 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27주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로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지어 년간을 두고 일자리를 전혀 구할 가망이 없어 직업안내소에 등록하려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실업자들은 실업자수의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대중적실업의 만성적성격을 잘 말해주고있다.

현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겪고있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로력과 숙련로동자들까지 마구 공장에서 쫓겨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79년에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실업에서 25살이하의 청소년실업률은 23~44.5%에까지 이르렀다. 숙련로동자들의 실업률도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실업인구구성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지난날 독점자본가놈들이 장년로력은 밀어내고 될수록 값눅은 청소년로력을 대량 흡수하던것과 그리고 공황시기 일반로동자들은 공장에서 쫓아내면서도 숙련로동자들은 앞으로의 생산의 확대를 예견하고 남겨두던것과 대비해볼 때 오늘날의 실업선풍이 얼마나 파국적인것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전례없는 경제적파국에 따르는 실업의 급격한 증대는 사회경제생활과 정치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하에서 실업의 증대는 독점자본가들로 하여금 취업로동자들에 대한 고용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절할수 있게 한다. 실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가들은 취업로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며 로동시간을 연장하고 로동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업의 증대가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을 급격히 첨예화시키며 독점의 지배를 엄중히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파국을 빚어낸다.

방대한 실업인구의 존재는 근로자들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축감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생산의 발전을 억제하고 재생산과정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대중적실업은 경제적침체와 주기적인 과잉생산공황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경기순환과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경기순환주기를 단축하고 공황국면과 불경기국면을 연장시키며 그다음에 오는 활기증진, 호경기국면을 모호하게 한다.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있는 조건에서 경제가 공황국면에 빠져들어가면 그로부터 다시 헤여나기도 힘들며 그 속도가 매우 미미해지는것이 일반적현상이다.

이리하여 대중적실업은 결국 제국주의자들을 헤여날수 없는 경제적파국속에 더욱더 깊이 몰아넣는다.

대중적실업이 빚어내는 가장 엄중한 결과는 사회정치적위기이다.

실업은 무엇보다 근로대중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직접적요인으로 된다. 실업상태에 있는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초보적인 생존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기아선상에서 신음한다. 이것은 전체 로동계급의 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로동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 대중적실업에서 오는 고통을 로동자들은 앉아서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독점의 지배와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일떠선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로동운동이 급격히 앙양되고있는것은 그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과 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 근로대중은 고용조건, 로동조건, 생활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들고 대중적파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큰 규모로 확대되고있으며 더욱더 조직화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투쟁은 경제투쟁에만 국한되지 않고있다. 그것은 독점의 지배와 전횡, 제국주의적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로 발전하고있다.

나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미국인민들의 대중적인 진출, 재무장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반정부운동 그리고 미제의 핵무력배치를 반대하는 서구라파나라인민들의 투쟁 등은 모두가 제국주의국가와 그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첨예한 정치투쟁들이다.

대중적실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사회적불안은 지배층내의 위기를 첨예화시키지 않을수 없다.

대중적실업과 그에 의한 사회적불안속에서 제국주의지배층내부의 모순과 위기는 오늘 극도에 이르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반동우두머리들이 자기 임기도 채우지 못한채 련속 쫓겨나며 내각이 《총사직》하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있는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지배층의 위기는 특히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지배층내에서 더욱더 우심하여지고있다. 카터놈이 《인플레의 대책》, 《고용문제의 해결》 등을 《공약》하고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았으나 불안과 공포 속에 근근히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으며 같은 수법으로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레간놈도 《새 경제대책》을 들고나왔으나 그것은 한두해도 못가고 파탄되였고 레간놈에 대한 불만과 항거의 기운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적실업은 심각한 사회정치적후과를 빚어내고있으며 반동통치배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각화되고있는 실업문제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가지고있는 첨예한 모순들의 필연적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공황과 경제적혼란이 일어나는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5페지)

실업을 포함한 자본주의하에서의 모든 경제적혼란들은 자본주의경제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그것은 무정부적으로 진행되는 생산과 지불능력있는 수요간의 충돌, 경제부문들사이의 불균형들에 원인을 두고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취업은 잉여가치의 보다 많은 착취와 자본축적에 필요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하에서 실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생산력이 마구 파괴되는 공황시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경기가 호전될 때에도 자본가운데서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본의 몫이 높아짐에 따라 끊임없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실업은 자본주의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며 자본주의생산방식의 항시적인 동반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의 실업의 증대는 그에 공통되는 일반적원인에도 불구하고 매 시기 그것이 발생되는 조건과 기간, 환경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요인들을 가지고있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급격히 증대되고있는 대중적실업은 무엇보다도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전면적경제위기에 중요한 원인을 두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는 전례없는 파국적상태에 빠져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국민총생산》의 장성률은 1951~1973년간에는 4.5%였던것이 1974~1979년사이에는 2.4%로 대폭 떨어졌다.

1974~1975년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세계경제는 새로운 위기단계에로 넘어갔다. 생산의 필수적요소인 원료, 연료의 부족에 의하여 공장이 문을 닫아매고 생산의 침체와 뒤엉켜 돌아가는 악성인플레와 리자률의 폭등때문에 기업경영이 악화되며 기업파산이 무리로 일어나고있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의 섬유공업, 자동차공업, 건설업 등 중요공

업부문들이 만성적인 공황에 빠져 항시적으로 위기를 겪고있다.

이러한 부문들은 1974～1975년공황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산은 절대적인 축소에까지 이르고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세계경제는 최근년간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파국적위기를 겪고있다. 바로 이러한 위기때문에 공장은 페쇄되고 로동자들은 대중적으로 거리에 밀려나고있다. 미국의 자동차공업부문만 보아도 경영악화로 1979년 1.4분기부터 1980년 2.4분기사이에 전체 종업원수의 29%에 해당하는 30만의 로동자가 해고되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적실업이 경기순환국면과는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며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일반로동자들뿐아니라 숙련로동자들까지 마구 공장에서 쫓겨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급격히 증대되고있는 대중적실업은 또한 제국주의대독점들이 이른바 《경영합리화》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 있다.

제국주의대독점들은 높은 리윤을 위하여 《경영합리화》란 이름밑에 생산기술공정, 생산방법, 기업관리 등에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를 끌어들여 로동자들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최대한으로 짜내고있다.

자본주의하에서 과학기술의 도입은 자본가들의 리윤증대에 두 측면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운데서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의 몫을 높임으로써 리윤률의 저하를 초래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취업로동자들의 로동강도를 높이고 고용로력을 줄여 산 로동을 《절약》함으로써 리윤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독점자본가들은 높은 리윤을 위하여 《경영합리화》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리윤률이 떨어져감에 따라 자본주의나라 대독점들은 더욱더 악랄한 《경영합리화》책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취업로동자들의 로동강도를 높이고 산 로동을 《절약》하기 위하여 현대적기술이 도입된 공장에 생산을 집중하며 같은 공장내에서도 새 설비가 설치되여있는 직장에서만 생산을 조직하고 다른 직장, 다른 부문에서는 로동자들을 《정리》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다기능공화》, 로동강도의 제고 등에 의하여 한사람당작업량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고용로력수를 줄이고있다. 대독점들은 로동강도를 높이고 산 로동을 줄이기 위하여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방법에뿐아니라 로동자들의 작업과정에 대한 감시통제에도 리용하고있다. 대독점들은 지어 생산을 줄이면서 대신 상품의 값을 높여 떨어지는 리윤률을 보상하는 전례없는 악랄한 《합리화》책동도 감행하고있다.

《생산축소》, 《감량경영》은 오늘 위기속에서 대독점들이 리윤을 높이는 기본방법의 하나이다. 높은 독점가격으로 리윤을 높일수 있는 독점체제하에서 대독점들은 새 투자를 하고 설비를 확대하여 고용을 늘이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있다. 낮은 설비가동률은 독점들로 하여금 더욱더 《생산축소》, 《고용축소》의 경영방법에 매달리고 높은 가격정책에로 넘어가게 하고있다. 제국주의나라 대독점들은 지금 생산능력의 20～30%이상이 움직이지 못하는것을 타산하여 가격을 미리 높이 설정하며 80%이하의 가동률로써도 리윤이 떨어지지 않게 생산을 줄이고있다. 이와 같이 높은 리윤을 위한 대독점들의 《경영합리화》책동도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대중적실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대중적실업은 또한 독점자본의 농촌침투로 인한 중소농민경리의 대량적인 파산과도 관련되여있다.

자본주의하에서 농민경리의 파산과 리농가수의 증가는 언제나 실업자 및 반실업자수를 끊임없이 그리고 계통적으로 늘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도시에도 늘 방대한 실업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공업이 농촌과잉인구를 흡수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년간처럼 농촌과잉인구의 진출이 실업의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농촌로력의 축소는 오늘 자본주의나라의 인구구성에서 일어나고있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이다. 미국만 보아도 중소농장주와 그 가족로력수는 1950년에 811만명이였는데 1979년에는 약 270만명밖에 되지 않았다.

자본주의나라 농촌에서 중소규모경영의 파산몰락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대규모경영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나라 농촌에서의 중소규모경영의 급격한 파산몰락은 단순히 대규모경영과의 경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지난날에는 대규모경영에의 토지와 농업생산의 집중은 중소농민경리의 일정한 보존을 동반하면서 진행되였다. 그것은 대토지소유자들이 적은 토지를 가진 령세농들을 유지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졌기때문이였다. 다시말하여 대토지소유자들은 자기 토지의 적지 않은 부분을 소농차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농촌들에서 중소농민경리가 대대적으로 파산되여 리농하는것은 독점자본의 농업생산부문에로의 직접적인 침투와 관련되여있다. 독점자본이 직접 농업생산에 침투하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지난날과 사정이 달라지고있다. 독점자본은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들은 토지를 분할경작시키는것이 아니라 직접 대규모의 농업생산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리윤을 얻고있다. 독점자본은 지난날 농촌의 대토지소유자들과는 달리 중소농민경리를 파괴병탐하면서 농업생산을 통합하고 큰 규모의 자본주의적농업경영을 만들고있다.

독점자본의 농촌 착취와 수탈 방식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날에는 주로 그들이 공업상품의 판매와 농산물시장의 독점, 농촌금융 등의 류통공간을 통하여 착취하고 수탈하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직접 농업생산부문에 자본을 투하하여 생산분야까지 들어쥐고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독점자본은 농업주식회사의 조직, 《공업, 농업복합기업》의 창설 등 여러가지 형태를 통하여 농업생산부문에 광범히 침투하여 중소농민경리의 토지를 빼앗아내고있다. 이러한 결과 중소농민경리는 급격히 파산몰락하고 그 주인과 가족들은 농업에서 리탈하여 도시에로 흘러들고있다. 오늘 대중적실업이 경기순환국면과는 관계없이 계속 증대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 농촌의 과잉류동인구에 있는것이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문제가 급격히 심각화되고있는 다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고용수출》이다.

《다국적기업》은 본국에 있는 어미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 설치된 새끼회사들이 하나의 기업복합체를 이루고 국제적범위에서 생산과 판매, 금융을 진행하면서 높은 리윤을 얻는 대독점이다. 《다국적기업》은 여러모로 국내고용에 영향을 주고있다. 《다국적기업》은 무엇보다 거대한 자본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그만큼 국내투자를 줄이고 취업률을 저하시키고있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해외 생산과 판매를 진행함으로써 실업의 증대를 촉진시키고있다. 1975년에 미국의 수출과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판매의 호상비률은 1:8.8이였다. 같은해 서부독일의 중요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생산판매비률은 26.6%였다.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현지생산판매에 의하여 수출산업은 정체되고 수출품생산기업들에서 대량적인 해고소동이 일어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은 품이 많이 들거나

현대적과학기술의 도입이 힘든 생산공정들과 부문들의 제품을 현지의 값눅은 로동력을 리용하는 해외새끼회사들에 맡겨 가공한 다음 다시 본국에 수입한다. 이러한 결과 또한 국내산업의 생산기술공정과 부문구조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생산의 정체, 고용의 축소가 일어나고있다.

이밖에 《다국적기업》들은 금, 통화 주식, 상품에 대한 각종 투기행위를 일삼음으로써 자본주의세계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며 고용조건을 악화시키고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통하여 악성인플레가 지속되고 여기에 원료, 연료 위기와 같은 새로운 위기가 겹쳐져 《물자부족》현상이 일어났으며 또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국제금융통화위기가 심화된것 등은 《다국적기업》의 책동과 많이 관련되여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는바와 같이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급격히 증대되고있는 대중적실업은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높은 리윤을 위한 독점들의 《경영합리화》책동, 농촌과잉인구의 압력,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의 강화 등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나라 반동지배층놈들은 마치도 저들이 실업문제를 해결이나 할것처럼 떠들어대고있으나 그것은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상을 가리우며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책동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한줌도 못되는 독점자본가놈들이 생산수단을 차지하고 절대다수 인민대중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는 모순에 찬 자본주의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처방》으로써도 날로 심각화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

실업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요인인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뒤집어엎을 때에만 해결될수 있다.

근로대중을 실업과 빈궁에로 몰아넣는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고 참된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자본주의나라 인민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단결된 력량으로 더욱 과감히 진출함으로써 저주로운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 새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1호 (루계 4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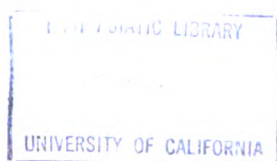
편 집 위 원 회

편집•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3년 1월 3일　　발 행• 1983년 1월 5일

ㄱ—25209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제 2 호(49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우리 당은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혁명적당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통일단결의 위력이다. 통일단결된 당은 시대와 력사를 전진시키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되며 단결되지 못한 당은 무력한 존재로 된다.

당의 공고한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공산주의운동력사에 남기는 고귀한 업적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이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은 위대한 통일단결을 마련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시고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의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며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이 있다.

불패의 통일단결의 실현, 이것은 《ㅌ.ㄷ》로부터 시작되여 반세기가 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찬연히 장식하는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다.

이 위대한 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의 확고한 의지이며 성스러운 의무이다.

(1)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는 우리 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혁명투쟁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0권, 411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진분자들이 뭉친 조직적부대이다. 전당이 굳게 뭉쳐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일 때 당은 조직된 부대로서의 존재를 유지공고화하고 그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굳건히 다지는 문제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문제나 구경은 당대렬을 어떻게 튼튼히 결속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이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직 반당적조류와 이색적요소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당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비록 력사가 오래고 큰 당이라 하여도 조직적뉴대로 굳건히 결속되지 못한다면 전일적인 전투부대로 될수 없으며 자기의 력사적사

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우리 당은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대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그처럼 공고하고 위력한것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있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뭉쳐있는가 하는데 있다.

단결의 중심은 혁명대오를 굳게 결속시키는 근본핵이다.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으며 중심을 잃는다면 그것은 벌써 분렬을 의미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고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당을 창건하며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수령은 통일단결의 중심에 서게 되며 따라서 수령을 높이 모셔야 혁명대오의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력한 당으로 될수 있다.

수령을 단결의 중심에 모시는것은 혁명의 어느 한 단계에서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전력사적기간에 나서는 가장 원칙적인 문제이다. 비록 지난날에는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해왔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단결의 중심에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은 굳건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고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변함없이 높이 모심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전력사적 행정에서 대렬의 통일단결을 언제나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것으로 꿋꿋이 이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오늘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중앙에 의하여 더욱 억센것으로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전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자이다.

우리 당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활동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당, 국가, 혁명무력 건설과 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어려운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만이 자기들에게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마련해주며 휘황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위대한 품이며 우리 혁명대오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조직자, 령도자이라는것을 심장으로 굳게 확신하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그처럼 공고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니는것은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원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고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불패의것으로 되게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전당이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전일체로 될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당의 통일단결을 수령과 혁명전사사이의 참다

운 동지적이며 의리적인 단합으로 되게 한다.

수령을 끝없이 경모하고 우러러받들어나가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높은 혁명적자각에 기초한것으로 되게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치적신념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한순간을 살고 한생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며 당과 수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변함없이 당과 수령만을 따르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삶의 참다운 보람을 빛내여나가는것은 당의 손길아래 자라난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가장 고상한 풍모이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지닌 이러한 높은 혁명적풍모는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맞이하고 수령으로 모신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고귀한 혁명정신은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살아 세차게 맥박치고있으며 그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데서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삶의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고 광명한 미래를 가져다주는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있다. 당과 떨어져서는 살수도 혁명할수도 없다는 신조가 당원들의 확고한 의지로 되고있음으로 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허물래야 허물수 없는 굳센것으로 다져지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무기로서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기 활동을 벌려나간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떠나서는 사상의지적통일체, 행동의 통일체로서의 당의 존재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수령이 창시한 지도사상의 높이에 달려있다. 지도사상이 위대하면 할수록 당의 통일단결은 더욱 튼튼한 기초우에서 공고화된다.

당의 참다운 통일단결은 실무적단합이 아니라 사상의지적단합이다. 실무적으로 맺어진 단합은 공고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지향만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쳐나아가는 사상의지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체로 되여야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통일단결, 가장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 또한 온갖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대렬안에 이색적인 사상요소가 끼여들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할수 있다.

수령의 위업 계승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이며 그것은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대렬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실현한 당만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올수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있는 참다운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기치밑에 통일단결의 첫 대오가 탄생하고 장성강화되여왔으며 조선혁명이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왔다.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있으며 높은 사상적각오와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당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으며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발붙일 틈이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오늘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은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당의 의지로 움직이는 순결한 대오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전체 당원들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공고한 통일단결로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오랜 세월 한결같이 바라던 그러한 위대한 통일단결의 빛나는 실현,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위대하며 우리 나라가 강대한것이다.

(2)

《ㄷ.ㄷ》에 뿌리를 두고 시련의 고비를 넘으면서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력사는 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력사이며 그 어느때에도 이룩할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영광의 력사이다. 이 빛나는 력사의 창조,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자랑높은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347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은 준엄한 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당의 위업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행로를 거쳐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 과정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적대적요소들의 필사적인 반항과 반당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당내반영인 반당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벌리지 않고서는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오직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 통일단결만이 가장 위력하고 불패의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혁명의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에 다져진것으로 하여 그처럼 고귀한것으로 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이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섰던 투쟁대상은 종파주의였다. 종파주의를 허용하고서는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었으며 당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우선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데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당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은 반당종파분자들을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분쇄하는 투쟁과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벌렸다. 또한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는 당내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모든 힘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요소들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혁명발전의 어느 한 단계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당앞에 나서는 혁명과업이 방대해질수록 그에 맞게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것은 당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지난날에는 비록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지 못한다면 조직된 부대로서의 당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1970년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당사업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당사업에서 일어난 전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통일단결의 전통과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수령의 위업을 옳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당앞에 나선 지상의 과업이다. 이 력사적과업을 해결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는 수령이 이룩한 통일단결의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사업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인것만큼 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전당에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차넘치게 할수 있고 수령의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또한 모든 사회성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질수 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대렬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을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내용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여기에 집중시켜왔다.

우리 당중앙은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과 그 기초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밝히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충실성으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공산주의운동은 선행한 모든 사회적운동과는 달리 고도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운동이다. 따라서 수령을 높이 모시고 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당건설의 기본원칙이다.

우리 당중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모든 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복종시켜 진행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더욱 강화하도록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또한 끊임없는 완강한 투쟁이 없이 당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그 어떤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밝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들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대렬은 그 어떤 잡사상도 발붙일수 없는 순결한 전투대오로,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충성의 대오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강철같은 조직규률이 보장되여야 당안에 그 어떤 분파적요소도 생겨날수 없게 되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지휘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부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움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였으며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모두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튼튼히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전당에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강한 조직규률이 확립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으로 하여 빛나는 숭고한 통일단결이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3)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당건설분야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통일단결의 전통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미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

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가 있고 기회주의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6폐지)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다름아닌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대중을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는 투쟁의 기수로 만드는것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당대렬이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혁명가들로 꾸려질 때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질수 있다.

불굴의 혁명정신,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들만이 어떤 조건에서도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온갖 반당적반혁명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당원대중을 당의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지키며 당과 수령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고 강의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지닌 혁명가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나가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언제나 순결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이룩된 력사적투쟁 경험과 교훈은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투쟁경험으로 무장하여야 온갖 부정적요소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투쟁의 기수로,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종파주의, 지방주의 등 당의 통일단결을 저애하는 자그마한 요소들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전당에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강력한 당으로 될수 있으며 통일단결된 힘으로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이 지배하게 되면 당이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체로서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으며 과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전당에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사업하고 생활함으로써 전당에 당중앙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행동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우리 당에 의해서만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공고한 통일단결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으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가장 공고하고 가장 위력있는 통일단결을 확고히 고수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혁명지도방법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발단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과 청산리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실천투쟁을 통하여 불패의 위력과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와 오늘의 현실은 3대혁명소조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여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며 위대한 혁명지도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1)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옳은 혁명지도방법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일정한 지도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정확한 혁명지도방법을 가진 당만이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수령이 제시한 전략전술, 로선과 방침들을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아무리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진 당이라고 하여도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과학적인 지도방법을 세우지 못하면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함께 그를 관철하기 위한 지도방법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과업을 실현하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준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참다운 혁명지도방법을 마련하여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고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0~321폐지)

3대혁명소조운동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군중로선과 청산리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여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여기에 새로운 혁명지도방법으로서의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적특징과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를 구현한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혁명지도방법이라는데 있다.

혁명지도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이 제기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혁명지도방법이 위력한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혁명과업의 성격과 내용에 맞는것이여야 한다.

혁명지도방법은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새로운 단계에로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개선완성되여야 한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그에 맞는 혁명지도방법이 요구되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또한 새로운 혁명지도방법이 있어야 한다.

지난날에는 비록 옳은 혁명지도방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력사적조건에 맞게 새로운 혁명지도방법을 창조해나가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옳게 령도해나갈수 없다.

3대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지난날과는 다른 새로운 혁명지도방법을 요구한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에 의하여 수행되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치사상적지도와 함께 과학기술적지도를 다같이 틀어쥐고 나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중지도의 두 측면이다.

만약 정치사상적지도를 홀시하고 과학기술적지도에만 치중한다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실무주의적편향을 범하게 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은 두말할것도 없고 기술혁명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반대로 정치사상적지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적지도를 무시한다면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없는것은 물론 정치사상적지도자체의 위력도 제대로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켜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현대과학기술과 밀착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군들의 구체적인 지도방조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상하가 기맥이 잘 통하게 되고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새로운 높이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요구는 지난날의 수공업적인 지도방법으로써는 옳게 해결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을 창조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소조의 구성상특성으로 하여 3대혁명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훌륭히 결합시킬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에는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지도능력과 사업경험이 있는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있으며 새것에 민감하고 혁명성이 강한 청년인테리들이 망라되여있다. 3대혁명소조는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강력한 지도력량을 망라하고있음으로 하여 보수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견결히 벌릴수 있으며 낡은 기술과 문화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당의 의도를 잘 아는 준비된 큰 규모의 지도력량을 전국의 중요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냄으로써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들은 아래의 실태를 깊이 료해한데 기초하여 옳바른 지도대책을 세우고 대중을 발동하여 그것을 풀어나가며 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해나가도록 추동한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 적극화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으로 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방법은 이처럼 그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폭넓고 깊이있는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방법으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의하여 낡은 수공업적인 지도방법의 틀이 깨여지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참신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조치하며 전개해나감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혁명지도방법으로서의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력은 또한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적인 지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결합시키는것은 혁명운동의 성과를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중앙집권적지도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드팀없이 진행되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지도이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전당이 당의 의사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전체 인민이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당의 지도를 받들어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은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며 그것은 당의 옳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높이 발양되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당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떠나서는 대중의 창발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또한 대중의 창발성을 발휘시키지 못하는 중앙집권적지도는 로동계급의 당의 참다운 혁명적지도로 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운동의 규모가 커지는데 맞게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결합

시키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는 당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오직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지도방법을 확립한 당만이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는 혁명지도방법을 창조하는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불패의 위력은 바로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의 밀접한 결합, 당과 대중의 일체성에서 오는 위력이다.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이 옳게 결합되자면 당의 구상과 의도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그것이 제때에 대중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환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3대혁명에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들은 대중지도에서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단위에 들어가 대중에게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제때에 알려주고 실천적모범으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이끌어나간다. 그리고 3대혁명소조들은 일군들과 합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조직화하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며 그것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지게 한다.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광범한 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집중되고 그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함께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을 기본활동방식으로 삼고있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당중앙위원회에 신속정확히 반영되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의하여 당과 대중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며 3대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과 그들의 지향, 요구가 제때에 당중앙에 집중되고 그것이 정책화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정확히 보장되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우리 당은 사회적변혁의 폭이 커지고 심도가 깊어지는데 맞게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과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제때에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집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또한 당이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아래실태를 환히 꿰뚫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확고히 보장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3대혁명소조를 통한 혁명지도방법은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게 하는 혁명적인 지도방법인것이다.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 3대혁명소조운동을 창조한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길에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 당이 창조한 3대혁명소조운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혁명지도방법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게 되였으며 아무런 편향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

였다.

우리 당이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인 3대혁명소조운동을 창시하고 현명하게 이끌어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것은 실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해나가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한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2)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활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42페지)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추동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을 마련하는것은 그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수령만이 할수 있다.

혁명지도방법을 완성해나가는것은 새로운 지도방법을 창시하는데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사업이다. 새로운 지도방법을 창시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는 여기에 수령과 당의 현명성이 있는것이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이 당의 령도밑에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것처럼 수령이 마련한 혁명지도방법을 발전풍부화하는 사업도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웅대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3대혁명소조들의 기본임무와 사업내용,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3대혁명소조들의 기본임무로 규정하고 소조들의 활동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제기되는 구체적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3대혁명소조운동이 그 어떤 편향도 없이 활발히 전개되여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지도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지도력량을 옳게 편성하는것은 혁명지도방법으로서의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국의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지도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게 3대혁명소조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사업능력과 전공지식 등을 고려하여 소조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지도력량이 집중되고 소조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3대혁명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한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

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옳은 사업체계를 세우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성시켜나갔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짐으로써 전국에 파견된 수많은 3대혁명소조들이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게 되였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가 아래에 거침없이 내려가고 대중의 의사가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반영되여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에서의 성과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3대혁명소조대렬을 어떻게 꾸리고 준비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3대혁명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대렬을 혁명성이 강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더욱 보강하였으며 소조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대렬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3대혁명소조원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3대혁명의 전위로, 투쟁의 기수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다.

대담한 작전과 비상한 조직력, 능숙한 전개력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3대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될수 있었다.

혁명지도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검증되고 과시되게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발단된 때로부터 지난 1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빛나는 이 10년동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력을 산 현실로 확증해준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먼저 이 운동을 통하여 인간개조사업과 기술개조사업, 문화건설사업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이 일어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발전하여온 전로정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당와 대중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굳게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살며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고있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범위에서 광범히 벌어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기상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화폭으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3대혁명소조운동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기술개조사업과 사회주의문화건설사업에서도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는 사업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고 농촌경리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며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화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관습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튼튼히 확립되게 되였다.

이처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매우 높은 속도로,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됨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였다.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진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된다.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해당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들이 아래에 내려가 일군들을 잘 배워주고 도와주어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을 이 운동의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적극 이끌어주었다.

3대혁명소조들은 생산현장에 직접 내려가 일군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과 사업방법을 버리고 언제나 새것에 민감하고 혁명적열정에 넘쳐 사업해나가도록 깨우쳐주고 도와주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조직진행하며 항일유격대식으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고있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수많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로 자라난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청년인테리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로 키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3대혁명소조운동의 자랑찬 력사는 3대혁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다져온 빛나는 로정이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가 확고히 옹호고수되고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 ＊

우리 당은 지난 기간 3대혁명소조운동을 정확히 령도하여 참으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운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우리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결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과업이다.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3대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과 정당성, 그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이 운동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하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운동의 직접적담당자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현지에 파견된 3대혁명의 전위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할 때 3대혁명수행에서는 더 큰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높아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이 땅우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그 불패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

림 춘 추

조선로동당은 튼튼한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난 위대한 당이다.

반세기가 넘는 우리 당의 력사는 자주의 기치따라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자랑찬 투쟁으로 빛나고있으며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한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이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출발점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뿌리로 하여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이 백전백승하는 강유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에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그 력사적뿌리를 어디에 두고 어떤 전통을 계승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당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나무가 무성한 줄기와 가지를 뻗고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것처럼 로동계급의 당은 그 력사적뿌리가 튼튼해야 준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력사적뿌리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를 통하여 혁명을 령도해나간다. 이 과정에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마련되며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이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출발점인 동시에 우리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ㅌ.ㄷ〉는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전제조건들과 앞으로 창건될 당의 초석을 마련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ㅌ.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 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 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름아닌 〈ㅌ.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3페지)

당의 강령과 활동원칙, 당의 골간육성문제는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며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ㅌ.ㄷ》의 강령이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다는데 있다.

혁명조직이 어떤 강령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그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조직이 참다운 혁명조직으로 되고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반드시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강령을 가져야 정확한 투쟁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참다운 투쟁강령을 가지는것은 19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앞에 나선 근본문제의 하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강점초기부터 그에 항거하여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다 벌려보았으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만을 거듭하여왔다. 과학적인 투쟁강령을 밝히는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옳은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시대와 혁명의 이 절박한 요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내세운 투쟁강령은 당시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특성과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조선혁명의 당면한 과업과 최종목적 그리고 그 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힌 혁명적인 투쟁강령이였다.

《ㅌ.ㄷ》의 강령은 조선혁명의 당면한 투쟁과업이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당시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였고 자본주의적, 봉건적 착취관계를 유지하려는 장본인이였다.

일제를 타도하고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없고 나라의 독립도 이룩할수 없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에는 또한 인류의 리상사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만으로써는 결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으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였다고 할수 없다.

《ㅌ.ㄷ》는 이 근본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나라에서와 세계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선포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내세운 투쟁강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혁명강령이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을 목표로 한 공산주의강령이였다. 《ㅌ.ㄷ》의 강령에 의하여 비로소 조선혁명의 종국적 목적과 당면과업이 뚜렷이 밝혀지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전략적단계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은 앞으로 창건될 우리 당의 최저강령과 최고강령의 요구들을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강령이였다.

이것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혁명적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ㅌ.ㄷ》의 강령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영광의 로정,

승리의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ㅌ.ㄷ》의 강령에 기초하시여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ㅌ.ㄷ》의 강령은 해방후 우리 당 강령과 공화국정부의 정강들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참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력사적로정은 《ㅌ.ㄷ》의 강령이야말로 우리 인민을 언제나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해주는 불멸의 기치였으며 이처럼 위대한 강령을 가지고 있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야말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되는것은 또한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이 우리 당 건설과 당활동의 일관한 원칙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자주성을 자기의 활동원칙으로 삼는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인것만큼 마땅히 자주성을 자기의 활동원칙으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당이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의 풍에 놀게 되면 결국 당도 혁명도 망쳐먹게 된다. 오직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당만이 자기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우리 당 창건위업을 령도해오신 로정은 자주성을 견지한 빛나는 모범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에는 아직 혁명위업의 개척이나 새형의 당창건을 위한 그 어떤 기성토대도 마련되여있는것이 없었다. 당창건을 위한 방침으로부터 핵심골간육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신념과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길은 말그대로 모든것을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초행길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안에는 사대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혁명의 자주적발전을 크게 저애하고있었다.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망상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자들은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녔으며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구체적현실에 맞게 로선과 투쟁전략을 세우는것이 아니라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하였다. 이렇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심하게 작용하다나니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혁명의 길을 개척할수 없었다.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지도사상과 지도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혁명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바로 이러한 자주성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주체형의 첫 혁명조직이였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것은 《ㅌ.ㄷ》의 숭고한 리념이였다. 《ㅌ.ㄷ》는 이 위대한 리념밑에 사대와 교조를 비롯한 온갖 악페를 쓸어버리고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로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갔다. 그리하여 《ㅌ.ㄷ》는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처음으로 혁명투쟁을 자주적으로 벌려나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투쟁로선과 투쟁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국가적후방도 없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는 매우 간고한 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믿을것이란 오직 근로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ㅌ.ㄷ》가 추켜든 자주성의 원칙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게 한 위대한 고무적기치였다.

조선로동당은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변함없이 견지함으로써 참말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로 되는것은 또한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당 창건의 귀중한 골간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튼튼한 조직적골간에 토대하여 당을 창건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결코 빈터우에서 세울수 없다. 튼튼한 조직적골간에 기초하여 당을 창건하여야 창건된 당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반드시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선진분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바로 조직적핵심력량이 있어야 당을 쉽게 창건할수 있으며 창건된 당이 자기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고 혁명투쟁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창건에 앞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의 뿌리를 다져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조직적골간을 꾸리는것은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실태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1920년대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은 주로 계급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한 부르조아, 소부르조아 인테리들과 맑스주의자들로 구성되였으며 그 상층부에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틀고앉아있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고 저마다 자파세력확장에만 눈이 어두워 혁명대렬을 분렬시키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종파사대주의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하여서는 결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참다운 혁명적당창건을 기대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심으로써 장차 창건될 혁명적당의 골간을 튼튼히 마련하여놓으시였다.

《ㅌ.ㄷ》에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종래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였다.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수령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을 결의하여나선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워나갔다.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시작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오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끊임없이 확대되였으며 그들은 해방후 우리 당 창건위업을 완성하는데서 골간으로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력사적과정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타도제국주의동맹에 뿌리를 두고 자라난것으로 하여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온 빛나는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력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2페지)

우리 당은 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후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을 내오시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당은 자기의 모체조직을 가지게 되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인 당조직의 령도를 받게 되였다. 첫 당조직은 단순히 선진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던 종래의 공산주의소조와는 달리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과 명확한 투쟁강령,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있는 혁명의 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하시는 한편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 각급 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 우리 당 조직들이 건설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조직적으로 련결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반세기가 넘는 오래전부터 참다운 당조직을 가지고 그 령도밑에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었던 그 암담한 수난의 시기에 비범한 예지로 독창적인 당창건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였으며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난국을 헤쳐오시였다. 아직 20대에도 이르지 못하시였던 젊으신 나이에 위대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완고한 기성세대와 단호히 결별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새 력사를 펼치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 몸소 이룩하신 풍부한 당건설경험과 그 성과에 토대하시여 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 창건을 선포하시였다.

당창건의 선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며 추진시켜오신 당창건위업의 완성이였으며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린 력사적사변이였다.

창건후의 우리 당의 력사는 집권당으로서의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영광의 력사이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령도해야 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력사이다.

우리 당은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과정에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오늘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이 땅우에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투쟁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력사와 민족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는 오늘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당의 전도를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원의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복종시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되고 그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이 백방으로 강화되게 되였다.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더욱 강화하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고 전당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며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오직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공산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이 신념은 일찌기 《ㅌ.ㄷ》에서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항일혁명의 로투사들과 민주혁명에 참가한 로당원들 그리고 새세대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마다에 하나와 같이 굳어진 신념이며 날이 갈수록 더욱 굳세여지는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당과 수령의 세련된 령도따라 나아가는 오늘처럼 위대하고 양양한 전도를 가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는 지금 1980년대에 사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정신은 당의 뿌리가 내리고 시원이 열리던 1920년대나 30년대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정신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우리는 《ㅌ.ㄷ》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영원히 당과 수령께 충성다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

윤 기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심오한 혁명원리에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반영하여나온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에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위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이 담겨져있다.

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구현하여 제시된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이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을 일관한 혁명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찬 로정은 3대혁명로선이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혁명로선이며 정당한 전략적방침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1)

당의 총로선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총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방향과 근본방도를 규제한 기본혁명로선이며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이다. 당의 총로선에 따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혁명발전의 전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규정되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이 옳게 세워지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총로선을 옳게 규정하여야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끝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인 과정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40폐지)

로동계급의 당의 최종목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

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자연과 사회, 사람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사회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회개조사업과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나가는 자연개조사업,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인간개조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

사람들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 당의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된다는데 있다.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과업은 로동계급이 끝까지 틀어쥐고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3대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투쟁의 전기간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전면에 나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3대혁명이 주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온갖 형태의 사회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사회정치적요인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이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구속하는 사회정치적요인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없애기 위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3대혁명을 밀고나가야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시기에는 3대혁명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는것만큼 그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전면에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고 사람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그들의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바로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상혁명은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과 관점, 낡은 사고방식이 남아있게 되면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람들을 낡은 사상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사상생활을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에게 문화적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없다. 인류문명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적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으며 문화생활령역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이처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총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어야 한다.

혁명의 전략적과업이 정확히 제시된 다음에도 그를 수행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가 세워지지 못하면 혁명의 최종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혁명의 수행방도는 혁명을 하는 방식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옳바른 혁명방식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근본방도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혁명의 내용이 달라지는것만큼 그에 따라 혁명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혁명방식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혁명수행방도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투쟁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또 그들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인것만큼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혁명방식을 요구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투쟁은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가장 우월한 혁명방식이다. 그것은 이 혁명방식이 사람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위력한 혁명수행방도로 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을 수행하는 방법만이 가장 적극적인 혁명수행방도로 된다.

이처럼 3대혁명은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근본방도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총로선으로 밝혀짐으로써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인민들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는 리론실천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제시됨으로 하여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내용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론은 새로운 사상리론적내용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3대혁명리론에 의하여 과거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을 철저히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참답게 건설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총로선을 밝히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길을 새롭게 개척한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2)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실천에서 빛나게 관철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18페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매우 락후한 처지에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현대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져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민주기지를 공고히 하며 하루빨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새 사회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무르익히신 새 조국 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해방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세우시였으며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

고시였다. 이 방침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섰던 당시의 구체적조건과 다음 단계의 혁명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이 위업은 인민대중이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을 가지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때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착취제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총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때로부터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청산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을 령도하시는데서 언제나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사상혁명에 선차적힘을 넣는다는것은 결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가야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상혁명이 확고히 앞서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통일적과정으로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산주의적 전진운동들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이것은 3대혁명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위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진군이 힘있게 벌어진 1970년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수행하는데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 력사적시기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들을 내놓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3대혁명이 새로운 높이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우리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대한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 중요한 내용의 하

나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행정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생활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새로운 혁명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 성과여부는 당이 인민대중을 이 사업에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인민적인 진군운동이다. 이 대중운동들은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혁명적전개력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일찌기 천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은 오늘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에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강의한 혁명정신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는 드높은 충성의 열정과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벌어져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적극 추진되고 생산설비들이 더욱더 현대적으로 개조되고있으며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로 하여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락원을 하루빨리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신념이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지도적지침

우 달 호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며 바로 이 영광스러운 칭호들에 우리 당의 근본 성격과 특징들이 집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떼여놓고 우리 당을 생각할수 없듯이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그 요구들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필승불패의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철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

*　　　*

주체사상은 당의 모든 활동,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4페지)

주체사상이 당과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의 모든 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해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하고 처리하는 근본 립장을 밝혀주는 사상적기초로 되는 동시에 모든 문제를 원리적으로 해명하여주는 리론적기초로 되며 문제해결의 실제적방도를 제시하여주는 방법론적기초로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적세계관에 관한 문제, 사람의 본질적특징과 인간운명개척에 관한 문제와 같은 철학적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력사적운동, 혁명과 건설의 원리와 그 수행방도를 비롯한 사회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당건설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등 당사업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참으로 백과전서적인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문제, 인민대중의 운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임으로 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위대한 사상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으로 된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고 하는것은 곧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사상으로 하고있기때문인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특징을 튼튼히 고수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의 원칙에서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가장 근본적이며 항구적인 요구인 그들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나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수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에 있어서 당건설과 당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여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이를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당의 근본 성격, 사명으로부터 벗어나는것으로 되며 우리 당의 고유한 근본특징을 잃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결국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그 요구들을 관철하여온 력사 다시말하여 당을 주체사상화하여온 력사인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곧 당을 주체사상화하여온 과정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투쟁의 계속이며 그 높은 단계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2페지)

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당건설,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것을 말한다.

당이 창건된 초기에 그리고 당이 대중적당으로 급속히 확대되던 조건에서는 당원들을 처음부터 단꺼번에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는 없었다. 이에 비추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먼저 당핵심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그 대렬을 확대해나갔으며 이와 함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는 사업원칙, 사업 체계와 방법을 세워나갔다.

이와 같이 하여 당을 주체사상화해나가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우리 당은 이 성과에 기초하여 당의 주체사상화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과업을 전면에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전반적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게 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지 않고서는 전당의 주체사상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

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확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과 그리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총적방향이며 기본로선이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문제들을 전당의 주체사상화에서 출발하고 여기에 복종시켜 풀어나가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적극적인 방침들을 취하고있다.

당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며 우리 당이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며 따라서 마땅히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하는것이다. 당건설에서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나 오직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인민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당만이 자기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강력한 당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지난날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공산주의운동, 혁명과 건설에 큰 해독을 끼쳐온 우리 나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확립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급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시키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당사업에 구현하면서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할데 대한 사상은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하여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우와 같은 문헌, 28페지)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이란 사람들 즉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교양개조하고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말한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것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들을 지

접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당사업원리이다.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당사업원리는 우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철학적원리에서 흘러나오는 당사업원리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의 원리는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 그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당이 사람들과의 사업, 그들의 사상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당사업원리는 또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기초하는 당사업원리이다. 즉 주체사상은 당으로 하여금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대중의 주동적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전략전술을 작성할것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이 반드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당사업원리는 결국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람의 본질적특징들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게 하는 당활동원칙과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생활을 최대한으로 마련하여주기 위한 당의 활동목적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주체의 당사업원리이다.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두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행정경제기관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사람들,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시켜 혁명을 수행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그러므로 당의 모든 활동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간다.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당의 성격과 사명을 고수할수 있으며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다.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당사업원리를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였으며 온갖 관료주의적, 행정실무적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이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새 환경과 조건에 맞게 발전시키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확립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주체의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워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당 사업에서는 주체의 원리들이 정확히 구현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당사업의 체계와 방법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에서도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당활동의 중요한 측면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발전시키는데서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우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본질상 그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목적과 방향, 모든 문

제를 풀어나가는 근본립장을 명백히 하여준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모든 혁명투쟁의 목적과 방향을 두어야 하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창조적성격을 밝히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창조적방법 즉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실정에 맞게 진행하는 방법을 명시해준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밝힘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강화의 기본방도를 명백히 해준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리론을 확립하고 그들의 리익과 요구,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수 있게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에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오늘은 온 사회 즉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친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확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되게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완전히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발전시키는 위대한 혁명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로의 위대한 진군은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우리 당이 구세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혁명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있게 전진하여왔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혁명적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됨에 따라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고 주체사상이 온 사회의 유일한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게 되였으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불패의 혁명대오로 꾸려지게 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참으로 공고하고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오늘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여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게 되였으며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행정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모든 성과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은것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은 결국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귀착되며 우리 당의 모든 혁명활동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데 귀착된다.

우리 당을 영원히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인 주체형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도록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을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인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매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건설경험은 그것이 오랜 기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 매우 풍부하고 창조적인 것임으로 하여 끝없이 고귀한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건설경험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며 동시에 그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 세계혁명의 귀중한 공동재부로 된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높은 단계를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당건설과 당의 모든 활동에서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지난 기간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해나갈것이다.

사상혁명은 인간개조를 위한 숭고한 력사적과업

지 창 익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주인이며 그 창조자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력사가 발전할수 없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한다는것은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이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지닌 인간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과 고상한 도덕품성은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풍모이며 자질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5페지)

사상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전 과정에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사상혁명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기 위한 숭고한 력사적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인간개조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해나간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을 개조하는것이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정도에 의해서 평가되는것이 아니라 그가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사회와 집단,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

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아무리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수준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문화기술수준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사람은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적소양을 가져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높은 문화기술수준은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의식에 기초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상의식은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고있기때문에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회와 인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깊은 과학지식과 높은 문화수준,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사상과 밀접히 결합될 때 비로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에 옳게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그들이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사람들은 활동에 앞서 자기 활동의 목적과 방법 그 결과에 대하여 미리 예견한다. 사상의식을 떠난 사람의 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상의식은 계급성을 가진다.

계급사회에서 사상의식은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성격을 규정한다.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상의식개조문제는 오직 사상혁명을 통하여 해결된다. 바로 여기에 사상혁명이 인간개조를 위한 숭고한 력사적과업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상혁명이 인간개조를 위한 숭고한 력사적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개조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훌륭히 교양개조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면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상혁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면 낡은 사상이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기초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장애물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변된 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자면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하여야 한다. 이 투쟁은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선진사상을 넣어주는 사상혁명의 방법으로 인간개조사업을 추진시킬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간개조사업은 어디까지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내부의 문제로서 사람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처럼 폭력적방법을 그대로 적용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서는 그 성격과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해설과 설복, 교양이 주되는 방법으로 되게 된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근로자들내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는 해설과 설복, 교양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해설과 설복, 교양의 방법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상의식개조의 합법칙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사람들의 사상생활전반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해설과 설복, 교양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여기에 사상혁명이 인간개조를 위한 숭고한 혁명과업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사상혁명이 인간개조를 위한 숭고한 혁명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의식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심각한 혁명이라는 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스스로 없어지거나 그들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이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낡은 사상 잔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굳어진 착취사회의 유물로서 매우 집요하고 보수적이다. 그것은 한두번의 사상교양이나 사상투쟁으로써는 없어지지 않으며 오랜 기간에 걸치는 완강하고 꾸준한 투쟁을 통해서만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는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사상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결국 적대적사상요소가 자라날수 있는 온상으로 되며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부르죠아사상독소를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바탕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독소를 끊임없이 침습시키려고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있고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사상의식령역에서 자본주의적인것과 사회주의적인것과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진행되여야 한다.

만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부르죠아사상의 침습을 막아낼수 없고 나중에는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

계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도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이것은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상의식령역에서 혁명은 계속되여야 하며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인간개조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방법이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는것만큼 그것은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요구한다.

사상의식령역에서는 공백이란 있을수 없으며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이 강화되면 그만큼 새롭고 혁명적인 사상이 더 잘 들어가게 된다. 다른 한편 사상교양이 강화되면 될수록 사상투쟁이 더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갈 때 사상개조사업은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사상혁명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의식개조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것으로 하여 사상혁명은 인간개조를 위한 숭고한 력사적과업으로 된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린데 대한 사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새로운 원리를 내놓고 사상혁명이 인간개조를 위한 사업에서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와 특질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사상혁명, 인간개조의 총적목표와 근본방향을 가장 정확히 규정하여주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한 우리 당의 커다란 공적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2페지)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사상혁명, 인간개조사업을 성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제기된 혁명임무와 대중의 의식수준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목적지향성있게 규정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특히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을 밀접히 결합하여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특질과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를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가장 훌륭히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사상교양사업을 옳게 진행할수 있는 형식과 방법을 새롭게 밝히고 그것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사상교양의 내용은 언제나 일정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속에 전달되고 침투된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의 내용과 함께 형식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는 것은 사상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사상교양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사상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사상교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이 새롭게 밝혀진것은 사상사업분야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형식주의, 도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을 대담하게 마스고 사상교양사업을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참신하고 패기있게 진행하며 인간개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인간개조를 위한 구체적방도가 전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혁명수행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가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으며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인간개조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하는데 이바지한 우리 당의 크나큰 공적이 있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고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혁명적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로도 된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그들의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대중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위력한 방도의 하나이다.

대중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개조사업을 경제문화건설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이 운동을 통하여 사상혁명, 인간개조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인간개조와 생산실천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와 실천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사상개조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실천적인 사업성과로써 나타나게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가는데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혁명적조직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사상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옳게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혁명을 인간개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인간개조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 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나오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대중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의 중요한 과업

최 문 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위업,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훌륭히 보장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투사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위업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완성될수 있는 력사적인 위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의 길을 걷게 되는 로동계급과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게 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닌다는것은 바로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과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며 로동계급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소유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지도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누구보다도 당의 의도를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해결에서 앞장에 서야 할 사람들이 우리 일군들이다.

지도일군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 속에서 선출되여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들이다. 인민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이며 충복이라는 여기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우리 일군들의 참다운 보람과 영예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당의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지녀야 하며 여기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은 구첵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이고 념원이며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그런것만큼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

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마땅한 혁명적 본분으로 되며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도 여기에서 높이 발현되여야 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바로 여기에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담보가 있으며 지도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사업하여야 무엇보다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로선과 정책에 반영하고 관철하게 된다. 당의 로선과 방침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유일한 지침이며 힘있는 무기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로선과 방침이 정확히 선 다음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조직되고 추진되며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가 높이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당정책이 옳게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은 일군만이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책임적으로 조직진개해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사업하여야 또한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문화적수단들을 성과적으로 마련할수 있다.

사람들의 생활과정은 곧 물질적부의 소비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민생활을 개선하자면 여러가지 소비품들과 살림집, 문화보건시설 등 생활수단들을 더 많이, 더 잘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의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이 맡겨준 경제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닐 때 근로자들의 식생활과 살림집조건, 문화생활은 물론 사소한 일용필수품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돌리고 생산을 더욱 짜고들어 인민들이 요구하는 다종다양한 물질문화생활수단들을 충분히 해결해줄수 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활수단들을 근로자들의 리익에 맞게 리용되도록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물질적부를 더 잘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높이자는데 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마련하여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증진에 옳게 리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은 실질적으로 높일수 없으며 생산을 늘인 보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자면 반드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는 동시에 마련된 생활수단들이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다름아닌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다.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게 이미 마련된 생활수단들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사업을 짜고들지 않게 된다. 경험은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녀야 모든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다 내여 근로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여놓은 물질문화적조건들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더 훌륭히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인민들의 생활상요구가 보다 높아진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전체 인민이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누구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병을 치료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금처럼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생활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하며 물질문화생활령역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있고 수산물생산과 살림집건설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꾸려져있으며 쌀과 고기를 비롯한 농산 및 축산물생산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농업생산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빠른 기간에 훨씬 향상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데 대한 현실발전의 요구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에 기초하여 1980년대에 근로자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의 이 위대한 구상과 령도를 받들어 나가는데서 남김없이 발휘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당의 로선과 방침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로 된다.

당의 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이다. 여기에는 인민생활향상의 근본 방향과 원칙으로부터 인민소비품생산과 상품공급사업,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받아들이며 완강한 투지와 혁명적전개력으로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집행에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며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이미 수행하던 과업을 뒤로 미루거나

이것을 강조하면 저것을 놓치는 식으로 일하는것은 혁명가의 참다운 일본새가 아니다. 일군들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일단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혁명적기백으로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높은 뜻이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힘있는 존재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로동계급이 낡은 착취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은 바로 인민을 사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철저한 혁명적인 군중관점이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 혁명적인 군중관점을 가질 때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답게 충실히 일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며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인민대중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으며 인민생활에 무관심한것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인 군중관점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러한 낡은 사상관점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없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인민대중을 혁명동지로 여기고 그들과 사소한 간격도 없이 한마음한뜻이 되고 한덩어리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은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독창적인 사업방법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지도하시든지 먼저 인민들의 생활형편부터 일일이 알아보시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우리 일군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워 언제나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면 늘 그들의 로동생활조건과 살림살이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인민들의 애로를 자신의 애로로 여기고 자그마한 문제라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더 빨리 가닿게 할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그마한 생활상불편도 없

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입니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80페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일군들을 옳게 교양하고 잘 이끌어주어야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하거나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현상들의 사소한 요소도 제때에 강신 사상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일군으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지닌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은 경제지도일군들이 맡고있는 기본혁명과업이며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집행해나가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당조직들은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때에 제시해주고 모든 일군들이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소비품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인민의 충복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은 없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숭고한 임무는 없다.

모든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옳게 수행함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며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대중운동 방침의 빛나는 구현

리 재 일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으며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야말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대중적운동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과 기적의 창조자로 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대중운동방침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은 당의 령도밑에 혁명적대중운동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대중운동은 혁명과 건설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대중령도방법이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함으로써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방법으로 된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의 힘을 적극 발동시키는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중운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끌어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우리 당은 대중운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풀어나가는것을 혁명적대중령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의 대중운동방침에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대중운동의 본질적요구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역할을 높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만이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대중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대중운동형태들을 제때에 발기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몸소 발기하시고 이끄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중운동은 전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심화발전되였으며 3대혁명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오늘에 와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려나가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적대중운동방침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창조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의 혁명적본질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교양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는데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대중운동의 본질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옳게 구현한 위력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대중교양의 기본방법을 승고한 높이에서 실현해나가는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45페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활짝 열려져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것에로 지향하며 온 사회에는 긍정적인것이 지배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며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일치한다. 이로부터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되며 이 과정에 수많은 긍정적모범이 창조되게 된다. 이 모범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전사회적으로 널리 일반화되는것이다.

특히 우리 인민은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혁명적인 인민이다.

그러므로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힘있는 대중교양방법으로 된다.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끄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긍정감화교양방법을 새로운 높이에서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그것은 이 운동이 비할바없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긍정감화교양을 통한 대중교양의 위력은 그것이 내세우고있는 긍정적모범이 어떤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이 내세운 숨은 영웅들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다. 숨은 영웅들이 지닌 사상정신적특질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이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해결하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

복을 느끼였다. 누가 무엇이라하든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10년, 20년을 하루와 같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당의 크나큰 기대에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로써 훌륭히 보답하였다. 이것은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모범은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공산주의적인간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긍정감화교양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우리 당의 대중운동방침을 빛나게 구현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또한 사상개조, 기술개조,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실현해나가는 대중운동이다.

대중운동의 심도와 높이는 대중운동이 내세우고있는 목표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것은 대중운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모든것이 거기에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기때문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며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대담하게 혁신하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대중의 기세를 늦춤이 없이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람들속에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사상개조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숨은 영웅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에로 끌어올려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훌륭히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기술개조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사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과학탐구의 길에서 동요와 주저를 몰랐다. 그들은 자기들의 과학연구사업을 언제나 륭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와 련결시키였고 생소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끝까지 탐구해내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바로 이러한 의지와 열정을 지니고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짓부시고 인민경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다.

숨은 영웅들의 위훈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근로자들을 새로운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도록 고무추동하는 빛나는 모범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서도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사업방법은 완성된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

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으로 하여 대중령도의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으로 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를 옳게 구현함으로써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그들을 적극 도와주고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가도록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이렇듯 사상개조와 기술개조,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세우는데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것으로 하여 가장 위력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혁명적진군운동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그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생소한 사업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나서는 이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해나간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주체사상을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 주체의 방법은 그들의 사색과 탐구, 실천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착상하고 설계하여도 기성리론이나 기성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풀어나갔다. 언제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탐구하고 풀어나가는것이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확고히 지배한 립장이며 태도인것이다.

자기가 맡은 임무는 반드시 자기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투쟁한 우리의 숨은 영웅들에게는 난관앞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하며 혁명임무수행에서 남을 쳐다보거나 조건을 타발하는것과 같은 일이란 추호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당의 구상을 꽃피우려는 한마음을 안고 어떤 애로와 난관도 제힘으로 뚫고나가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공산주의자의 혁명적기백으로 살며 일해나갔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을 앞당겨나가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된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그 정당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갔다. 이 기간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불패의 생활력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발단과 확대발전, 이것은 비범한 예지와 혁명적전개력으로 사회주의, 공

산주의 건설을 끊임없는 비약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이 운동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대중운동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치밀한 조직지도사업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시작을 잘한 대중운동이라 하더라도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될수 없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중요한 당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모든 당조직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지도하게 함으로써 이 운동이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지도록 하였다.

당의 방침에 따라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환반히 진행함으로써 이 운동이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전당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내신 숨은 영웅들을 적극 내세우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한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당보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는것과 함께 지상토론, 좌담회, 영화감상모임 등 여러가지 정치사상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실효투쟁을 널리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이 지닌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불타는 지향을 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충성의 위훈으로 빛내여나가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발현되고있는 숭고한 모범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조장발전시킴으로써 숨은 영웅들의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이 영웅을 낳고 모범이 모범을 낳으면서 우리 혁명대오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으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자기의 성실한 창조적로동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한 그러한 영웅들이 많음으로 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공화국이 위력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그 첫걸음부터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켰으며 따라서 온 사회에는 약동하는 혁명적기상과 기백이 세차게 차넘치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급속히 확대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성의 열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수많은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발명과 창의고안들이 나왔으며 영웅적인 위훈과 기적들이 도처에서 련이어 창조되였다.

또한 일군들속에서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이 더욱 높아지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려는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이 운동을 전당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80년대속도》창조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이다. 이 투쟁은 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며 대중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함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근본핵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1980년대의 보람찬 진군을 힘있게 추동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바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여도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당이 맡겨준 임무를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 때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창의고안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대고조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며 방대한 경제건설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우월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80년대속도》창조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의 강령적지침

최　영　화

오늘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억센 뿌리에서 자라 혁신의 한길을 걸어온 주체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이룩하였다.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예리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나온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문예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로부터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오한 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면모와 그 본질적요구를 밝혀준 혁명적문예리론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적문예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은 착취계급의 비위와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온갖 낡고 뒤떨어진 문학예술을 뒤집어엎고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전인미답의 생소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그것이 어떤 면모를 갖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그 본질적요구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제기된 이 어려운 력사적과제는 오직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당의 문예리론에 의해서 과학적해명을 보게 되였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은 공산주의적인간학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이 우리가 건설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이라는것을 정식화함으로써 공산주의문학예술의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히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5페지)

주체적문예리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작품에 인민대중을 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으로 보고 그리는 주체의 미학관을 확립함으로써 문학예술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전환시켰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도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이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은 자주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과학적문예리론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며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문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질적요구로 밝힘으로써 문학예술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질적요구는 또한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데 있다.

문학예술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오직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서만 옳게 밝혀질수 있다. 그것은 문학예술이 어떤 인간의 전형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문제의 가치와 의의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예술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는가 하는것과 함께 어떤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학에서 제기되는 또하나의 근본문제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의 문학예술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들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새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이 창조하여야 할 인간전형, 인간학의 근본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다.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성격에서 기본핵을 이루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이렇듯 인간학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우리가 건설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면모와 본질적요구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보면서 변함없이 창작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리론이 새롭게 밝혀진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사상리론적업적으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 정확히 밝혀져야 주체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의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정서와 감정, 기호에 맞는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우리의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에 더 잘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는 우리 식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하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는 예술형식에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용의 혁명성과 전투성, 형식의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정치문화생활에 훌륭히 이바지하며 조선혁명에 더 잘 복무하는 우리 식의 문학예술, 주체가 확고히 선 혁명적문학예술로 된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학예술이 참말로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을 비롯하여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창조문제,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발전문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확고한 결합을 실현하는 문제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이 모든것은 주체적문예리론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문예작품의 창조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준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리론이라는것을 확증하여준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문학예술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는데 있다.

주체의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그 본성으로부터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예술적실현방도를 주는 새로운 창작리론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성과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창작리론이 없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없으며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퇴페적인 창작수법에 오염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수정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진흙탕속에 빠뜨리게 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적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그리는 방법을 새롭게 해명하고 주체의 창작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의 창작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종자에 관한 리론이다.

우리 당은 처음으로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발견하였으며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작품의 생명을 규정하는 사상적알맹이로서의 종자를 핵으로 하는 문예작품창작의 합법칙적과정을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문예리론이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혁명적문예작품의 생리를 새롭게 밝힌데 기초하여 창작에서 종자를 핵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고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높여나갈수 있는 근본요인을 밝히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과학적인 방도를 주었다. 종자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창작에 작용하는 원리와 법칙들이 새롭게 해명되고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예술창작의 방법론을 밝힌 공산주의적창작리론이 확고한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적창작리론을 밝혀주는 동시에 문학예술의 매 종류와 형태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들을 제시하였다. 주체의 문학리론을 비롯하여 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는 공산주의적영화리론, 낡은 가극의 틀을 마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극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피바다》식가극리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연극을 창조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성황당》식연극리론, 민족적바탕에 기초한 우리 식의 음악, 우리 식의 무용, 우리 식의 미술을 창조할데 대한 리론 그리고 우리 식으로 교예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리론 등 우리 당이 밝힌 문예리론들은 문학예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며 문학예술전반에서 창조적앙양을 가져오게 하는 탁월한 문예리론이다.

참으로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체계화된 주체의 창작리론은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공식이 아니라 혁명적창작실천속에서 이루어지고 창작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공산주의문학예술창작의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문제를 옳바로 푸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령도문제에 빛나는 리론실천적해명을 주었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할데 대한 리론은 주체적문예리론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밝혀진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적문예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는 사업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자면 수령의 문예사상과 령도를 계승하고 구현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령도를 대를 이어 끝까지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의 본질과 그 필연성, 당적령도의 원칙, 그 실현을 위한 령도체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였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문제는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리론적으로 빛나게 해명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질과 면모, 요구에 대한 심오한 해명으로부터 그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고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령도문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으로 하여 현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포괄하는 백과전서적인 공산주의문예리론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32페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구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다양한 예술형식들에 옮기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킨것이다.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소설과 연극 등에 그대로 옮겨져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위대한 공적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의 위용은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으며 주체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성과적수행과정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전반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 우리 인민은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문예리론을 구현하는 길에서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또한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숭고한 과업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이 문제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참다운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오직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해서만 이 문제는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우리 당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문학예술에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방침을 제시

하고 그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왕재산, 삼지연 등에 대기념비들이 웅장하게 솟아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수십편의 장편소설에 담는 총서 《불멸의 력사》가 창작되였다. 또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수령관을 보여주는 예술영화 《조선의 별》을 비롯한 혁명영화들이 련이어 나오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는 음악무용서사시극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불멸의 혁명송가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이 세찬 불길처럼 타오르는 우리 조국의 생동한 예술적화폭이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전하는 주체문학예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들을 빛나게 형상한 혁명적대작들이 수많이 창작되고 우리 문학예술이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오른것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인공들은 지난 시대의 문학예술이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자주적인 인간전형들이며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그것은 그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이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그처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충성의 한길에서 영생하는 삶의 보람을 찾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혁명적대작을 창작한것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이 가져다준 훌륭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화혁명이 빛나게 수행되고 뒤이어 가극혁명과 연극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 기원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고 우리의 문학예술은 군중적지반우에서 활짝 꽃피여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것은 인류문예사에 빛나는 장으로 장식될 위대한 기적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소박한 가설무대에서 공연의 막을 올린 우리의 주체예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현대인류의 예술을 대표하는 가장 리상적인 예술》로 대전성기를 이룩하게 된것은 주체적문예리론의 위대한 승리로 되며 그 정당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하기에 우리의 주체예술을 본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신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20세기 지구우에 주체예술의 새 기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문예사상가》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예술의 영재》이시며 《대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확고히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

김 철 식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가장 옳바른 경제건설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왔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나가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완수해나가려는 결의에 넘쳐있다.

* *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9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은 다름아닌 경제건설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며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하고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경제건설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옳게 이끌

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옴으로써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느 한 시기나 인민경제의 어느 한 부문에서가 아니라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혁명적앙양을 이룩해왔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원칙을 옳게 밝히는것은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원칙이 옳게 밝혀져야 당의 령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경제건설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할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며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등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원칙에 관한 사상은 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경제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경제관리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각급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당위원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과 유능한 기술자들, 핵심로동자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으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지도가 철저히 집체적협의에 의거하여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당조직들로 하여금 해당 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도록 하는 한편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심화된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참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원칙을 옳게 밝힌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되며 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투쟁목표와 혁명적구호들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한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장기적인 사업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옳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의 매 단계마다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옳은 투쟁목표와 투쟁구호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확한 투쟁목표와 구호들을 제때에 내놓아야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대중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단계마다 높은 투쟁목표를 대담하게 설정하고 적중한 투쟁구호들을 제시하여 생산과 건설을 일대 고조에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기초를 축성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에 나섰던 시기에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행정에서 천리마진군의 자랑찬 력사를 창조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혁명적구호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적구호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투쟁목표와 혁명적구호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빛나는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게 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과 사업전개원칙을 새롭게 밝히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한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경제건설에 일떠선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옳바른 전투형식과 사업전개원칙에 의해서만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 당은 속도전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혁명적 사업전개원칙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은 속도전의 기본요구이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최단기간내에 빨리 해제끼면서도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창조한 속도전의 본질적특징이며 바로 여기에 속도전의 거대한 위력이 있다.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의 경제는 그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위력한 경제로 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기본열쇠로 보고 모든 부문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데 선차적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도록 힘있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의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온 사회에는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가게 되였다. 속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생산은 류례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사람

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속도전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4페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기 위해서는 나라의 자원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애로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은 오직 사회주의경제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경제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여 그들의 상의창발성과 로력적열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대중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창조적방법이며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방법이다. 대중운동을 옳게 조직하고 밀고나가야 광범한 군중을 집단적인 혁신과 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올바른 대중운동형태들을 발기하고 이 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을 발기하여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으며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는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고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실속있게 밀고나가며 이 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경제과업수

행과 밀접히 결부하도록 옳게 조직동원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개조사업과 기술, 문화 개조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주선을 틀어쥐고 섬멸전을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힘을 넣어 문제들을 하나씩하나씩 철저히 해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력사를 룡롱히 이끌고나아갔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196～197페지)

경제건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방대한 과업들이 제기된다. 복잡한 경제과업들가운데는 보다 중요한 과업과 먼저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선을 옳게 정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주선을 옳게 정하고 풀어나가지 못할 때 경제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없으며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언제나 주선을 정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왔다.

197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경제사업에서 주선을 틀어쥐고 풀어나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은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벌리던 시기에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주요전선으로 정확히 규정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면서 련이어 채취공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에 강력한 지도력량을 파견하였으며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한편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부문에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70일전투속도》는 바로 주선을 틀어쥐고 섬멸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현실은 주선을 옳게 정하고 섬멸전을 벌려야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첫시기부터 높은 속도를 견지하여온 우리의 경제는 그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비상히 빠른 속도를 이룩하여왔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공업화의 기초축성시기에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도 우리의 경제는 비할바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상히 커진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경제는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1970년—1980년사이에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6.1%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도 매해 넘쳐수행하고있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결코 공업부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며 그것은 농업을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농업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가 2년이나 앞당겨 점령되였으며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마다 농업생산을 늘여온 우리는 지난해에도 전례없는 대풍작을 마련함으로써 드디여 95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년간 일찌기 없었던 경제적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원료위기, 연료위기, 동력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되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온갖 그릇된 《리론》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제를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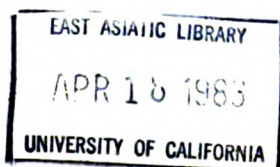
오늘 우리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그것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근로자 1983년 제2호 (루계 490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3년 2월 1일　　발 행• 1983년 2월 5일

ㄱ-3519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근로자

제 3 호(49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현시기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과 더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1980년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장식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사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생산적앙양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해주며 올해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펼쳐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올해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을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뿐만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7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구성부분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은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에서뿐아니라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변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나타난다.

사람의 생활환경은 사회개조와 함께 자연개조를 통하여 개변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담보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보장한다. 경제건설을 다그쳐야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으며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근로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될수 있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야 또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능히 튼튼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경제건설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제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총적방향과 근본원칙, 그 구현방도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경제건설을 힘있게 벌려올수 있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합법칙성에 맞게 경제건설의 방향과 원칙, 방도들을 옳게 세우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생산수단이 민족국가단위로 사회화되고 경제법칙들도 한 나라의 범위에서 작용하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경제건설의 총적방향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의 병진, 천리마운동과 속도전 등을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원칙적방도로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의 총적방향과 근본원칙,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에 기초하여 경제건설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발전은 끊임없는 앙양의 한길을 걸어왔다.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와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시기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원료, 연료 위기가 휩쓸고 경제파동이 극심하였던 지난 1970년대에도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70년에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늘어났으며 1970년～1979년기간에는 해마다 평균 15.9%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력은 위력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튼튼히 다지지게 되였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비록 크지 않고 뒤떨어진 나라라 하여도 자기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경제건설투쟁을 다그쳐나가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한다면 능히 위력한 경제를 건설할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해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

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절박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보람찬 진군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실로 고귀한 업적과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으로 제기되였던 인간개조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것은 최근년간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이룩된 그 무엇으로써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인간개조사업에서 거둔 성과들은 반드시 경제건설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경제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풍요한 물질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없을뿐아니라 끊임없이 심화되는 사상개조, 사회개조 사업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없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힘있게 다그칠것을 요구하고있다.

1980년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10년동안에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고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매우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이 강령이 실현되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려면 10년동안에 공업총생산액을 3.1배로, 1946년에 비해서는 무려 1,000배로 늘여야 한다. 이것은 보통의 발전속도로써는 이룩할수 없는 방대한 과업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지난 두해동안에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놓았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알곡고지점령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4대자연개조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왔으며 유색금속 150만톤고지를 점령하며 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또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그리하여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수행하는데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목표의 높이와 과업의 방대성에 있어서 전례없이 거창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전투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올해전투를 잘하여 지금까지 창조된 높은 발전속도를 더 다그칠 때 우리는 방대한 제2차7개년계획과제를 훌륭히 완수할수 있다. 제2차7개년계획을 넘쳐완수하게 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달성하는데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는것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있어서나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있어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고 우리의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맞게 끊임없이 높여야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휘시킬수 있고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도 더 튼튼히 다질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 때 그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 당과 수령의 은덕을 심장으로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될것이며 당과 수령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더 튼튼히 의탁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게 될것이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여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물질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실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될뿐아니라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 1980년대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면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올해 경제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채취공업에 큰 힘을 넣어 그것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것이며 전력공업과 가공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운수부문에 힘을 넣어 수송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그리고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제2차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올해 경제건설과업들은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마련된 나라의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과제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경제건설투쟁이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야 한다.

올해의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는것이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우리 인민은 높은 혁명적 기개와 기상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력사, 천리마대고조와 속도전의 새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이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지난해에 우리의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혁명적고조기를 열어놓았

라.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거대한 불길속에서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온 나라가 우리 당이 제시한 웅대한 경제건설목표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치는 여기에 올해의 방대한 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은 이 투쟁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목적과 의의를 깊이 침투시켜 그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조국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실성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운영해나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인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처럼 경제건설투쟁에서도 성과는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특히 인민경제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가 매우 복잡해진 조건에서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야 하는것만큼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금 온 나라 근로자들은 비상히 앙양된 열의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대중의 기세와 그들의 혁명적각오는 매우 높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생산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준다면 올해에도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올해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경제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한다는것은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결실을 볼 때까지 끈기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들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와 리익을 집대성하고있는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며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는데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발휘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또한 당의 의도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생산적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더욱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앞세워야 할 인민경제부문들은 앞세우고 균형을 맞출것은 미 잘

맞추면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를 더 잘 해결해주고 그들의 로동을 더욱더 흥겹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기 부문앞에 맡겨진 계획과제를 기어이 완수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에서 구현된다.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당의 당사업은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사업을 잘하는데 이바지하지 않는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당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낯을 돌려야 하며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는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일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철저히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되게 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경제사업을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가 있으며 간고한 투쟁으로 쌓아올린 강력한 자립경제토대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못해낼 과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 올해전투과제를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위력을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력사적문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한돐이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원칙들을 전일적인 체계속에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이다.

론문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새롭게 발전풍부화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론문이 발표됨으로써 주체사상의 비상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백방으로 증대시키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1)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고전적문헌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는것은 이 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 력사적지위와 변혁적의의를 뚜렷이 보여주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는 력사적위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론문에는 주체사상이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을 구성부분으로 하고있는 사상리론체계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져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하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80페지)

혁명의 지도사상은 서로 련관되여있는 구성부분들로 이루어져있다. 지도사상이 어떠한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원칙에 따라 전일적으로 체계화되는가에 의하여 지도사상의 과학성과 위력이 규정되게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이 갖추어야 할 가장 옳바른 구성체계를 가지고있으며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정연하게 체계화되여있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옳바른 구성체계를 가지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복무하여야 할 사명에 맞게 체계화되여있는데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의 사상리론체계는 그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정당한 사명을 내세우고 그에 맞게 리론과 원칙, 방도를 옳바로 제시하는 지도사상이라

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인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보다 더 절실하고 사활적인 리해관계는 없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복무하는것을 직접적인 사명으로 내세우고 그에 맞게 현실세계의 존재와 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개조의 근본방도를 통일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을 통하여 개척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면 한편으로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발전하는가 하는 합법칙성을 알아야 하며 다른편으로 그것을 개조변혁하기 위한 활동원칙을 알아야 한다.

주체사상은 현실세계의 존재와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방도인 지도적원칙을 동시에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며 이것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대표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적원리이다. 이것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천명한것이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다.

주체사상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복무하는 원칙에서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고 통일되여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는 지도적원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구현되며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전제로 삼고있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현실세계의 존재와 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힌데 그친 단순한 리론체계인것이 아니라 세계개조의 원칙까지 담고있는 전일적인 구성체계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복무하는 주체사상의 체계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와 밀접히 결부시켜 밝히고있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대답을 주려면 그들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과 결합시켜 개척해나갈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와 통일되여 밝혀져있다.

론문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세계의 합법칙성과 함께 그 개조의 원칙을 통일적으로 밝혀주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를 밀접히 결합시키고있는 사상리론체계라는것이 해명됨으로써 주체사상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과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유력한 무기라는것이 뚜렷이 확증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옳바른 구성체계를

가지고있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체계화되여있는데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일정한 고찰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다.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사상리론을 체계화하는가에 따라 그 사상의 과학성과 혁명성이 좌우되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그에 기초하여 원리와 명제를 전개하며 사상리론들을 전일적체계속에 집대성하고있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예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객관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하고 개조변혁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그에 맞게 체계화된 지도사상이라야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현실세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주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적극 발양시켜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위력한 지침을 제시하는 사상리론체계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기때문에 모든 구성부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다.

주체사상의 구성부분들인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은 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있다.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와 지도적원칙으로 이루어진데 주체사상의 구성체계의 특징이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말하여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사회력사원리가 전개되고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쥘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원칙을 밝히고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이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투쟁에 지침을 주려면 현실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힐뿐아니라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에 맞게 현실을 주동적으로 대하는 관점, 립장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현실세계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변혁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주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기때문에 전반적구성에서 현실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현실을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 립장을 밀접히 결합시키고있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는 사람을 위주로 세계에 대한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통일되여 전개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력사의 합법칙성을 밝힌 견해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보는 관점, 립장을 결합시켜 전개한 여기에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특성이 있다.

론문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전반내용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화되여있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이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여 현실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고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발양하여 자연과 사회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혁해나가는 강유력한 무기를 준다는것이 심오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복무하는 사명과 사람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는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이며 구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구성부분과 그 전일적인 체계를 밝힘으로써 이 사상의 론리적체계성과 내적정연성을 심오하게 해명하고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빛나게 론증한데 론문의 중요한 사상리론적공적이 있다.

(2)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사상리론적내용을 발전풍부화한 독창적인 문헌이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 내놓은 혁명사상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자면 그것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혁명투쟁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이 새로운 사상리론적내용으로 발전풍부화되여있다.

론문에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심오히 밝혀져있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이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답으로 된다는것을 밝힌것은 론문에서 천명된 중요한 창조적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9폐지)

철학의 근본문제는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기초적인 문제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세계관을 밝혀야 할 요구와 세계의 시원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철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였다.

론문에는 철학의 근본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였을뿐아니라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옳바른 대답으로 된다는것이 밝혀졌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철학의 근본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으로써 철학이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것을 통하여 세계관을 밝히는 과학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에 과학적해명을 준 원리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사람중심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옳바른 기초가 마련되고 철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론문에서 천명된 사람에 대한 주체적리론은 주체사상의 철학적내용을 발전풍부화한 탁월한 리론이다.

사람과 그 활동에 대한 주체적리해를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주체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를 보다 깊이있게 근거지으며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의 전반내용을 더욱 튼튼히 안받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라는 정식

화를 주었다. 이 정식화에 의하여 사람을 사회적관계속에서 보면서도 그 본질적속성에 기초하여 사람을 파악하는 철학사상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게 되였다.

론문에 의하여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는것이 해명됨으로써 인간활동에 작용하는 물질세계운동의 일반적법칙을 시인하면서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기초하여 사람의 활동을 분석하는 철학적인식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론문은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사람중심의 관점, 립장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혔다.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전면적으로 밝히는것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심화발전시키고 이 세계관의 내용을 풍부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에 대한 견해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것은 주체사상이 내놓은 세계에 대한 견해의 근본특징이며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된다는것은 이 견해의 내용이다.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가 밝혀짐으로써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파악하는 세계관발전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철학적세계관의 새로운 분야가 독창적으로 개척되고 인민대중이 세계를 주동적으로 대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되여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심화발전시킨 특출한 공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집니다. 물론 사회적운동도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집니다. 사회적운동에도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5폐지)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한 주체적해명을 주어야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관을 원리적으로 안받침할수 있으며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력사를 발전시키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발전과정을 가장 옳바르게 해석할수 있다.

론문은 자연의 운동과 달리 사회적운동에는 자주적인 요구에 따라 력사적운동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밀고나가는 주체가 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에서 작용하는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법칙이 있다는것을 밝혔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은 바로 이 주체의 운동법칙이다.

론문에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천명되여있다.

주체사상은 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은 곧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명제를 내놓음으로써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였다. 인류력사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정이며 인민대중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것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만큼 사회력사의 전행정은 인민대

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주체사관이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에 기초하여 인류력사를 해명하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으로 된다는것이 명백해지게 되였으며 사회력사에 대한 사람들의 리해가 원리적으로 혁신되게 되였다.

론문에는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에 대한 전개된 주체적해명이 주어져있다.

론문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명철하게 밝혔다. 이리하여 주체의 운동인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주어졌으며 사회력사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론문에서 발전풍부화된 주체사관의 중요한 내용이다.

사회력사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현상에 대하며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력사발전과 혁명운동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사관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고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관점과 립장을 가질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사회력사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 의하여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의식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위력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주어져있다.

론문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7페지)

주체사상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구현된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려면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주체사상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키고 통일시키는 지침이 바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관철함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에 구현되고 물질적힘으로 전변된다.

론문에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고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준다.

론문에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론문에 의하여 혁명운동의 지도적원칙의 본질과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밝

혀짐으로써 주체사상이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로 더한층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창조성을 발전시키며 의식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의하여 주체사상은 독창적인 원리와 명제, 심오한 정식화들로 새롭게 발전되고 그 전반내용이 전진하는 우리 시대 혁명운동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풍부화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위력과 생활력을 비상히 높이고 주체사상을 인류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승리할 불멸의 지도사상으로 끝없이 빛나게 한 여기에 론문이 이룩한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이 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의 본질과 진수, 그 내용들을 더욱 철저히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력사적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

김 화 종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세계화된 새로운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보고 대하며 풀어나가는 사상이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라는것을 말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는것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해명하시였다.

론문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철학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근본특징과 본질적우월성, 그 력사적지위와 위대한 생활력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으며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해방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라는것이 힘있게 확증되였다.

*　　　*

주체사상은 인류사상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을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이 사상이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거기에 과학적해답을 주는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를 밝혔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9페지)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과학이다.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은 일정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전개된다.

철학의 기초에 놓여있는 철학적원리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해답을 준 원리로서 세계관의 초석을 이루며 세계관의 특징과 성격, 내용의 과학성과 혁명성을 규정한다.

종래에는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 다시말하여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인정되여왔으며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에 관한 유물론적원리에 기초하여 과학적세계관이 세워졌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새롭게 밝혔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내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는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외부세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과 외부세계와의 호상작용은

세계의 존재와 운동발전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의 활동은 외부세계와의 호상작용속에서 이루어지며 사람의 운명개척과정은 곧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철학이 세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주는 과학적학설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복무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려면 마땅히 세계와 사람의 호상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세계관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가지는 것이며 사람을 위한것이다. 사람이 세계에서 살아나가기 위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것만큼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라야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세계의 주인으로서 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바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새롭게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인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고 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해명에 기초한 과학적인 원리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사람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세우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데서 나서는 전제로 된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세계를 이루는 기본요소인 사람과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외부세계와 사람사이에 어느 하나라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객관적현실을 옳게 파악할수 없으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줄수 없다.

외부세계,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끊임없이 운동발전한다는 원리에 의하여 이미 밝혀졌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을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하고 특출한 지위에 내세울수 있었으며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진바와 같이 사람도 물론 물질적존재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이다. 생명을 가진 다른 모든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나가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하는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세계의 다른 어떠한 존재도 가질수 없는 본질적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와 같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철학적세계관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온갖 예속과 구

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근본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직접 표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원리이다.

세계관은 사람이 자기 운명과 생활을 개척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가지게 되는것만큼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계급적리해관계가 깔려있다. 신비주의적관념론적세계관에는 반동적지배계급의 리해관계가 깔려있으며 과학적유물론적세계관의 바탕에는 세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일치하는 지향을 가진 진보적계급의 리해관계가 놓여있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살려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 근본리해관계라는것을 밝히고 그것을 철학의 근본원리에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직접 표현하고있는 여기에 주체의 철학적원리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 과학성과 혁명성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원리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은 언제나 시대를 대표하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오는것만큼 마땅히 시대가 제기하는 철학적과제에 해답을 주어야 하며 그러자면 그 출발적원리에 시대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우리 시대는 오랜 세기에 걸쳐 력사의 대상으로 되여온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이며 이 새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세계관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우리 시대의 이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원리이며 여기에 바로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철학적원리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해답을 준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이다.

모든 사상과 리론은 객관적현실에 맞을 때에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세계의 개조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고있는 주인의 지위와 결정적역할은 사람의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생각해낸것도 아니며 그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사람에게 부여된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합법칙적결과이며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물질세계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함께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에 기초하고있는 원리인것으로 하여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조변혁되여나가는 현실세계의 객관적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 이것은 실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진보적인류의 사상리론의 정화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철학의 근본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그에 옳바른 혁명

을 준 철학적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세계관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의 새기원이 열려지게 되였다.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주체적리해가 확립되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참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의 발견, 이것은 인류의 철학적사유의 발전에서와 자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다.

* *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세계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혀주는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워진 세계에 대한 견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2~13페지)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견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 세계에 대한 견해이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를 해명해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밝혀진 세계에 대한 견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종래의 철학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란 무엇인가에 해답을 주는것으로 되여왔다. 인류의 철학적사유발전의 장구한 과정을 통하여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자기 원인에 의하여 운동발전한다는 과학적견해가 밝혀졌다. 이러한 견해는 세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지식을 주는 견해였다.

주체사상은 선행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시인하는 조건에서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혁신하였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견해는 사람을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놓고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킨 견해이며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견해는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의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심화된 리해를 주는 견해이다.

사람이 세계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것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여 자기에게 복무시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세계에 대한 견해는 마땅히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인 사람의 견지에서 고찰되고 세워져야 하며 또 그렇게 될 때에만 현실세계의 면모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전면적으로 밝혀낼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새로운 견해가 밝혀짐으로써 인류의 철학적사유는 세계의 시원이 물질이고 물질세계는 자기 원인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는 견지에서 세계와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고찰하던 단계로부터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 사람이고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는 견지에서 세계와 그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에 대한 새로

운 견해가 밝혀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깊이 파악하게 되였으며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뒤집어엎고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힌것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 인류의 철학과 세계관 발전에 공헌한 특출한 공적의 하나이다.

력사상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세계관이 있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세계관의 독자적인 내용으로 밝힌것은 없었다.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운동발전한다는 견해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객관적실재로, 운동발전속에서 보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벌리는 사람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그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을 위주로 하여 밝혀진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그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종래의 철학적 세계관과는 달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발전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있다. 그 하나는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것이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단순히 객관적인 존재로만 보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견지에서 보고 대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자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세계를 사람을 위한것으로 개조변혁해나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을 말한다.

이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개조에서 객관적조건, 물질경제적조건의 준비도 필수적이며 중요한것이지만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자체를 준비시키는것이 보다 중요하며 사람을 먼저 힘있는 존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만 그에 의하여 객관적조건을 마련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립장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을 발동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것을 근본방법으로 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세계의 인식과 개조과정은 그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물질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의식에 반영되고 개조변혁되는 과정이지만 주체인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객관세계의 본질에 파고들어가며 목적의식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과정이다. 여기

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에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관점과 립장이다. 인식과 개조의 성과여부는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의 태도, 관점과 립장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세계관의 내용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과학적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세계에 주동적으로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통일적으로 밝혀주는 완성된 체계와 내용을 갖추게 되였다.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 창시됨으로써 세계를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인류의 철학적세계관은 그 본성과 사명에 맞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더욱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발전완성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밝혀줄뿐아니라 철학적원리를 사회력사에 적용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을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주체의 운동인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 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천명하였을뿐아니라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그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이 밝혀짐으로 하여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지침이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과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이 새롭게 밝혀지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의 새기원이 열려지게 되였다.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 주체의 세계관의 확립은 실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시키고 인류의 자주위업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이다.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 주체철학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력사의 전진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현실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력사가 전진함에 따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사에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은 날로 확대되고있는것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은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는 더욱더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되고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현실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 주체철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을 밝혀준 위대한 주체사상은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조들을 철저히 짓부시면서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인류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관

진 영 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철학사상과 혁명리론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 출현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사회력사원리이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원리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는 새로운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대하여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었다.

론문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와 그 발전과정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본질적특징을 뚜렷이 밝혀준다. 론문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체계화하고 그 근본원리들을 새롭게 정식화함으로써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론문에 정식화되여있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이다. 이 네가지 원리는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 성격, 추동력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와 본질, 성격, 추동력에 관한 문제는 주체사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로서 사회력사를 정확히 리해하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다.

주체사관은 사회력사를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원리적인 문제들을 새로이 제기하고 그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1)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밝혀주는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이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옳게 풀어야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를 정확히 밝히고 그의 지위와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력사전반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확립할수 있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주체사관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력사는 발전합니다. 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은 곧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5페지)

사회적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올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사회적운동도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진다. 사회적운동에도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한다. 주체사관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자연의 운동과 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은 사회적운동이 바로 주체의 운동이라는데 있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되는것은 사회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적운동의 가장 적극적형태인 혁명운동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한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가 있을수 없다.

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착취계급은 력사의 주체가 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착취계급은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우고 되돌려세우려고 한다. 력대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지배하고 착취하는자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일이란 없으며 그들은 결국 력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력사의 주체로는 근로인민대중만이 될수 있으며 사회적운동은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들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추동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력사발전과정의 합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준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력사발전과정은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다.

사회발전과정에 인민대중의 지위가 높아진다는것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그들의 요구실현정도가 높아진다는것, 다시말하여 자주성의 실현정도가 높아진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이며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린다. 이 과정에 그들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점차적으로 실현해나가게 되며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지위를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물질생활수준을 높여나가는 과정은 경제생활에서의 지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사회개조사업을 통하여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더 많이 쟁취해나가는 과정은 정치생활에서의 지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가 높아지는것은 그들의 역할이 높아지는것과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는 결코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지위가 높아지는것은 그들의 역할이 높아지는데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높아진 지위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 안받침되여야 유지되고 공고발전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과정은 곧 근로인민대중의 지위

와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적과정으로 된다.

력사의 주체를 인민대중으로 보고 력사발전과정을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보는것은 주체사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진 사회력사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을 밝히고 인민대중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근본조건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8페지)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그들이 어느때나 저절로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을 이루는 수백수천만사람들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자면 행동상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행동상통일을 이룩하자면 옳바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옳바른 지도가 보장되지 못한 대중운동은 곡절을 겪기 마련이며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수 없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산주의운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옳바른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령도자, 최고뇌수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낡은 사회와 그 유물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하여나갈수 있다.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사회는 더욱 조직화되여나가는것만큼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는 계속되게 될것이며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게 될것이다.

실로 지도와 대중의 결합, 수령과 인민의 통일에 관한 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사회력사원리의 근본핵을 이룬다. 대중에 대한 지도, 인민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더 큰 의의를 가지게 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주체사관에 의하여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력사는 주체인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며 사회발전과정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힘의 준비정도에 맞게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적과정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의 발견은 사회력사에 대한 온갖 주관주의적 및 객관주의적 견해를 다같이 극복하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발전, 혁명발전에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세우는데서 하나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밝혀주는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관한 문제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력사의 모든 측면들을 전일적으로 리해하는데서 중심적인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는 주체사관의 기본내용을 이룹니다. 이것은 주체의 운동인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76~77페지)

력사의 주체를 명확히 해명한 기초우에서 주체가 지니고있는 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사회력사적운동전반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질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운동은 물질에 체현되여있는 속성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운동의 특성은 그 어떤 외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운동의 실체인 물질자체의 속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물질자체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물질이 진행하는 운동의 특성을 분석하는것은 어떠한 운동을 리해함에 있어서나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바른 원칙으로 된다. 특히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의 제약을 받는 사회력사적운동에서는 이 운동의 주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명확히 밝히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온갖 그릇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적운동의 특성을 옳게 리해할수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것을 명백히 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사회력사적운동의 원리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하였다.

론문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자주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주었다.

인류사회의 력사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자주성은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근본지향과 요구, 활동목적을 집중적으로 표현한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게 되며 따라서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이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며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며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사람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개조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인간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존엄있게 살아나갈수 있으며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착취사회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의 계급사회력사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력사로 특징지어진다.

인민대중은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통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전진시켜왔으며 마침내 자본주의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이 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

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인류력사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로 규정한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에 대한 고전적정식화로서 그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모든 측면들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분석판단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원리이다.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자주성을 더욱 원만히 실현하는것이 그 근본목적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복잡한 사회력사과정을 한줄기로 석연하게 리해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었다.

사회력사적운동은 그 성격의 면에서 볼 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간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특성을 옳게 밝혀야 사회력사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확립할수 있다.

사람의 창조적활동과정은 투쟁을 동반하며 투쟁에서의 승리는 창조적힘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는가 하는것은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의 준비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자면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력인 생산력이 발전하여야 하며 사회개조사업이 발전하자면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력인 혁명력량이 장성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혁명은 혁명력량의 준비에 기초하여 일어나며 혁명력량의 준비에 상응하게 이루어진다. 낡은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노예들의 폭동이 일어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이 발전하고 보다 새로운 사회제도에로의 교체가 이루어진것은 혁명력량의 장성에 기초하고있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강화되는 력사이며 그것은 곧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력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적능력이 강화되는 력사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인류력사는 더욱 높은 속도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사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기초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장성정도에 맞게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게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론문은 또한 인민대중의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력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사회적운동의 높은 형태는 혁명운동이며 여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다시말하여 혁명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한다.

의식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가장 고급한 속성이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그 결정적요인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에서 찾아야 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옳바르게 밝혀주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자기의 혁명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주체사관이 밝힌 사회발전의 추동력에 대한 리해는 사상의식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사상의식은 객관세계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지식과는 달리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 사상의식만이 사람들의 활동을 추동하게 된다. 사상의식의 규제와 조절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자면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옳게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자주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그것은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행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적극성정도를 규정하기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있는가에 의하여 무엇을 생활과 투쟁의 목적으로 내세우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얼마만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혁명운동에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노는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운동에서는 물질적요인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물질적조건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달려있다.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자각에 의거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이처럼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의식적인 주체로,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위대한 혁랑으로 되게 하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고 추동하는 혁명적역할을 한다.

사회를 발전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역할은 곧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역할이며 따라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사회력사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사상의식의 본질과 내용, 그 역할에 대한 철학적견해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 성격과 행동에서 발휘하는 의지와 투쟁력을 언제나 사상문제로 보고 사상

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론문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운동의 목적과 그것이 실현되여나가는 방식, 사회적운동을 떠밀고나가는 기본요인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문제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하여 해명한것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실로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선행리론의 모든 제한성을 극복하고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이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실천속에서 그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사회력사적운동을 통하여 개척된다. 그러므로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실천투쟁에서 주체사관의 원리들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혁명의 전도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는 결국 이 위업을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하며 주체사관의 원리들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

박 태 준

혁명의 지도사상이 완벽한 구성체계와 면모를 갖춘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로 되려면 세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원리만을 주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활동원칙까지 밝혀주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원리와 함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론문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혁명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 전반적체계와 내용이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그들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실천의 필승불패의 무기로서의 주체사상의 위력이 더욱 힘있게 증시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주체사상의 전일적인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자면 반드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7페지)

주체사상은 현실세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히는데 그치는 단순한 리론체계,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실천의 지도사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혁명과 건설에 구현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구현되여야만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들을 실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지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할데 대한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이 두가지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지킬 때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주체를 세우는것을 통해서만 혁명과 건설에 구현된다.

주체를 세우자면 주인인 인민대중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활동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

이 바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주체사상을 혁명실천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위대한 현실을 창조하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여기에 주체사상의 전일적인 체계에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가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포괄되여있다.

자주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은 세계의 유일한 자주적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혁명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을 지킨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지키게 한다.

자주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창조적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창조적방법은 창조적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혁명적방법이다.

창조적방법을 지킨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창조적방법을 지키는것은 창조성을 구현하고 높임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해나가는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창조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는 방법이며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은 창조의 대상인 객관적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의식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는 원칙이다.

의식성이 자주성과 창조성의 전제로, 담보로 되는것처럼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 원칙의 전제로 되며 담보로 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상의식의 규제와 조절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으로 이루어져있다. 사상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고 그들의 자각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주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정치사업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문제와 관련되

여있다.

론문에서 전면적으로 밝혀진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사람, 인민대중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자체의 본질적특성과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원칙이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옳게 발양시키는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79페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원칙인것만큼 어디까지나 주체사상의 원리자체의 본질적특성과 요구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만 그것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구현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으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그리고 그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의 근본원리들은 어느것이나 다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혁명의 근본원리를 비롯한 주체사상의 원리들이 이렇게 사회적존재인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을 구현한 사람위주의 원리들이기때문에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도 마땅히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을 견지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들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사람위주의 지도적원칙인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침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자주적립장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구현하고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창조적립장이며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구현하여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이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적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원칙이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따라서 그것은 혁명운동의 본질적특성과 요구에 맞게 세워져야 옳바른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운동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며 창조성을 높이 발양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며 의식성을 발양시켜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다. 혁명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인것만큼 혁명운동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리게 된다.

혁명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인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운동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를 세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된다.

우선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키워 그들을 보다 자주적인 존재로 만들고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높여 자주적인 운동으로서의 혁명운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또한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은 사람들의 창조성을 키워 그들을 보다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여 창조적인 운동으로서의 혁명운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은 사람들의 의식성을 높여 그들을 보다 의식적인 존재로 키우고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여 의식적인 운동으로서의 혁명운동을 잘 수행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워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다양하게 벌어지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구현하고 높이 발양하게 하는 지침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옳게 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1폐지)

원래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인민자체의 힘에 있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도 같지 않다.

더우기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운동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상의 영향이 있으며 특히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이 널리 벌어지고있는 사정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을 하며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되는만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을 하는 길을 개척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른 한편 혁명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에 기초하여 발전한다. 그러나 혁명투쟁에서는 사상적요인보다 객관적, 물질적요인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 관점이 의연히 남아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사상적요인에 주되는 관심을 돌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과 사람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들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워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매개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온갖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 사대와 교조주의적사고방식을 반대하고 자기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기 인민의 창조력과 높은 혁

명적열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힘을 가진 필승불패의 무기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전면적으로 밝혀진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은 무엇보다 먼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법론적무기를 마련하여준데 있다.

돌이켜보면 수천년에 걸치는 오랜 세월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서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리고 고역을 치러왔지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찾지 못한탓으로 하여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환상에 사로잡혀 마치도 《하느님》, 《신》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노예적처지를 타고난 팔자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자각을 가지지 못했다. 지어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큰 당, 큰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없는듯이 생각하면서 남을 추종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리하여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당을 망치고 혁명을 말아먹은 례가 적지 않았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면서도 그 참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여 모대기며 파란곡절을 겪고있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었으며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게 하는 방도를 밝혀주었다.

사람의 운명의 주인이 사람자신인가 아니면 그 어떤 외적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당과 인민과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열어놓은 여기에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가지는 위대성과 백전백승하는 위력이 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은 또한 그것이 자기 나라 혁명문제와 자기의 민족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옳바른 길을 명시하여준데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리익과 민족적리익의 대표자인 혁명적로동계급의 당앞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문제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민족문제를 다같이 책임지고 성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문제는 결국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키고 통일시키겠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가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지도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발전과 결부시켜 풀어나갈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창조성을 발전시키며 의식성을 발양시켜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원칙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발전을 위한 방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특히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통일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빛나게 해결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사상정치적으로, 경제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주는 가장 혁명적인 원칙이며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에게 억눌리고 뜯기워 뒤떨어지게 된 신흥세력나라들을 짧은 기간에 륭성번영하는 발전된 나라와 민족으로 되게 하는 곧바른 길을 환히 밝혀준 휘황한 등대이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주체사상을 그처럼 열렬히 신봉하고 따르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은 또한 그것이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매개 나라의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같이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지름길을 열어놓은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는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호상관계문제를 어떻게 옳바로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 풀어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온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가지 곡절을 겪게 된다.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호상관계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멀리 전진하여 전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박한 해답을 기다리는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주체사상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고 자기 인민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곧 국제적임무에 충실한 길이라는 혁명의 새로운 진리를 밝힘으로써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호상관계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 위대한 진리가 밝혀짐으로써 국제주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줴버리거나 차요시하는 편향도, 자기 민족의 리익만 추구하면서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의 위업수행에 아랑곳하지 않는 민족리기주의와 배타주의적편향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자주성과 창조성의 기치밑에 민족적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것을 통하여 국제적임무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국제주의의 길,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이 펼쳐지게 되였다.

실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간섭과 통제가 없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세계 건설의 곧바른 길을 밝혀준 위력한 혁명적지도원칙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업적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와 항일무장투쟁의 국내에로의 확대발전

리 율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력사의 땅 왕재산에서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및정치공작원회의가 있은때로부터 5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이 연설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왕재산회의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이후의 성과를 총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왕재산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신음하던 민족수난의 시기 국내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굳게 안겨주고 민족해방혁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정확한 투쟁의 길을 밝혀준 전투적기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앙양시키는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일무장투쟁을 반드시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61페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항일혁명투쟁의 근본요구였으며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였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며 그 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조선인민자체의 힘이다. 항일혁명투쟁은 조선에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은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그러므로 조선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었으며 조국땅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는 우리 인민을 옳게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항일혁명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항일유격대의 군사행동지대를 국내깊이에로 끊임없이 넓혀나갈 때 일제의 통치체계와 대륙침략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손으로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왕재산회의에서 밝혀진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항일무장투쟁의 근본요구와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적무력으로 강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항하는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그것은 우리 인민의 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해나갈것을 요구하는 혁명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민족해방투쟁의 종국적목적을 실현하자면 조국땅에서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강도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기고 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었다. 또한 그래야 상비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의 강력한 군사정치적공세에 대중투쟁을 적극 배합하여 일제침략자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혁명운동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놈들은 주체적혁명로선의 관철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촉진시키는것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섰다. 이자들은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유격구를 확대하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발전시키는것을 반대하여 음흉하게 책동하였으며 조선혁명을 자주적발전의 길로 전진시켜나가는데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안팎의 온갖 원쑤들이 조선혁명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던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항일유격대의 영향력을 국내깊이 확대하여야 인민대중을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었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또한 항일혁명투쟁의 발전과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한후 지난 한해동안의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반일인민유격대는 급속히 확대강화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1폐지)

항일대전이 선포된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령군술에 의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졌으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조선혁명발전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급속히 장성강화되였으며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유격구가 창설됨으로써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전략적기지가 마련되고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싸워나갈수 있는 군중적지반이 축성되여나갔다. 이것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으로, 전반적조선혁명을 거대한 규모로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특히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이 강화되는데 질겁한 일제침략자놈들의 발악적책동에 대처할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이 시기 일제는 더욱더 많은 침략무력을 집중하여 유격구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을 감행하는 한편 유격구역인민들과 적통치구역인민들사이의 련계를 끊고 유격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조국에로의 진출과 국내의 《적화》를 막는것을 이른바 《국책》으로 내세우고 국경경비진을 강화하기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였으며 국내 혁명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전국도처에서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고있었다.

일제의 중세기적폭압정치로 말미암아 국내혁명조직들의 활동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모대기

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국내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을 강하게 주고 그들을 반일성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반일인민유격대의 위력을 널리 시위하여야 하였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제시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실로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였으며 일제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재산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창설공고화하고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며 무장투쟁을 국내인민들의 대중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였다. 이 모든 과업들은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와 잇닿아있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는것은 전반적유격근거지를 확대공고화하며 무장투쟁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정치군사적거점과 후방기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항일유격대의 전투활동을 국내깊이에서 강력히 전개해나가며 기본군중을 유격대의 후비력량으로 믿음직하게 육성하여 항일무장대오를 급속히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였다.

혁명은 매개 나라의 주체적요인에 의하여 일어나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의 혁명력량인것만큼 민족해방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유격전의 형식으로 벌어지는 혁명전쟁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유격전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참가를 전제로 하며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해서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왕재산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데 대한 과업은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정치적동향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것으로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는 정당한 방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를 증오하고 조국광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결속시킬데 대한 방침을 밝히심으로써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키고 전민족의 총동원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실수 있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과 함께 여기에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과업은 조국인민들에게 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을 강하게 주고 그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놈들의 패망을 촉진시킬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리고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과업은 세련되고 검열된 핵심들로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고 그 주위에 혁명군중을 급속히 결속시킬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공산주의운동을 주체적립장에서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명시해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왕재산회의는 불멸의 주

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항일무장투쟁의 발전전망과 그 총적방향을 명시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로 빛나고있다. 왕재산회의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 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는 지름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조선혁명의 주체를 세워나가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고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왕재산회의의 의의는 무엇보다 그것이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에게 맡겨진 가장 숭고한 임무이며 따라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왕재산회의가 엄숙히 선언한 중요한 혁명적립장이다.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롭고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나가며 항일무장투쟁이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된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은 주체를 세우는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왕재산회의는 우리 인민에게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었다. 왕재산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휘황한 길이 밝혀짐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은 철저히 고수되고 우리 혁명은 오직 주체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왕재산회의는 민족수난의 시기 조국광복의 날을 손꼽아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굳게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제의 류례없는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조선은 말그대로 피바다로 변하고 민족의 모든 권리와 자유가 여지없이 짓밟혔지만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받들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살며 싸워나갈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땅에서 맞이한 인민들의 감격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없이 컸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와 흠모의 정은 더욱더 두터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땅에 모시고 민족해방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받아안게 된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으며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끗끗이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우리 인민은 적들의 반혁명적공세가 우심한 조건에서도 혁명승리의 그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반일항전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반적조선혁명을 떠밀고나갈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전인민적항쟁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게 하였다는데 또한 왕재산회의의 중요한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이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그가 내세운 전략전술적방침의 위대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은 국내에로 더욱 확대발전되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은 크게 앙양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재산회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

기 위하여 몸소 1933년 3월하순에는 경원군 류다섬에, 5월 28일에는 종성군 신흥촌에 나오시여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여시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한편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의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국내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국내혁명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접수하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그들은 적들의 삼엄한 감시와 위협이 뒤따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왕재산밀영을 비롯한 수많은 밀영들을 건설하고 주요도시들과 철도연선의 전략적지대들에 비밀련락소들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온성, 회령, 종성, 무산을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형성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기지인 유격구가 반석같이 꾸려지게 되였다. 그것은 민족해방운동전반을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정치군사적으로 련결시키는 튼튼한 고리로 되였으며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넓은 지역에 꾸려진 지하혁명조직들과 반일대중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항일유격활동의 령활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고 유격대에 대한 지지원호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조직적련계 밑에 국내인민들을 파업과 태업, 소작쟁의, 동맹휴학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그 결과 전국도처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넓은 지역에서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왕재산회의는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1930년대 전반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의 국내에서의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과 1930년대 후반기 대부대에 의한 대규모국내진공작전의 빛나는 승리들은 왕재산회의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전민족이 반일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은 준기찬 발전을 가져오고 항일대전의 앞길에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재산회의를 통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오늘도 길이 빛나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혁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칼 맑스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국제로동계급이 낳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며 위대한 혁명가인 칼 맑스가 서거한 때로부터 100년이 지나갔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세계진보적인류와 더불어 칼 맑스 서거 100돐을 맞이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쌓아올린 그의 고귀한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맑스는 근대부르조아지의 잔인한 착취와 압박을 받아오던 로동계급이 독자적인 혁명력량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던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준비기에 활동하면서 자기의 전생애를 로동계급과 피압박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

맑스는 로동계급의 첫 수령으로서 자본을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해방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힌 걸출한 사상리론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는 독점전자본주의시대에 살았고 따라서 그때의 사회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위대한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조종을 울렸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549페지)

맑스는 선행한 인류의 사상리론적재부들을 비판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유물변증법과 유물사관을 확립하였으며 자본주의사회를 과학적으로 해부하여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적생산관계가 자기 발전의 일정한 력사적단계에서 생산력과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되며 자본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불가피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맑스는 자본주의경제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잉여가치학설을 내놓음으로써 자본주의제도의 착취적본질을 발가놓았다. 그는 자본주의적생산의 궁극적목적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데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모순들은 잉여가치생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로동계급의 빈궁의 근원을 해명하였다.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밝힌것은 맑스의 중요한 공적이다. 맑스는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조직화되고 단결된 력량으로 자라나게 되며 자본주의의 매장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맑스는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혁명리론을 천명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계급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 사이의 투쟁은 불가피하며 이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가져오게 된다는것과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임무는 낡은 국가기구를 전복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혔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은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자기의 계급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맑스는 로동계급의 당과 그 전술에 관한 사상을 내놓고 로동계급은 혁명적전위부대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혔다.

맑스의 다년간에 걸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첫 혁명적학설인 맑스주의가 창시되게 되였

으며 《공산당선언》과 《자본론》을 비롯한 그의 수많은 혁명적저작들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맑스주의가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은 비로소 과학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는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되고 인류는 온갖 사회적질곡에서 벗어날수 있는 투쟁의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맑스주의의 창시는 실로 인류선진사상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자본주의사회의 멸망을 알리는 조종이였다.

맑스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였을뿐아니라 프로레타리아해방위업을 개척한 불굴의 혁명가였다.

맑스의 생애는 투쟁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자본주의의 온갖 낡고 썩은 모든것을 혁명적으로 쓸어버리고 자본주의사회의 저주로운 반동통치기구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맑스의 필생의 사명이였다.

맑스는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전투적구호밑에 국제로동계급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로동운동을 앙양에로 이끌었으며 근로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혁명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는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묶어세우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렸으며 마침내 제1국제당을 창건함으로써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웠다. 맑스는 제1국제당을 지도하면서 로동계급을 조직화하여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로 동원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제1국제당이 해산된 다음 맑스는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창건문제를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제기하고 구라파와 북미주의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령도해나갈수 있는 혁명적당들을 창건하는 사업에 자기의 정력을 쏟아부었다. 그는 여러 나라 당들안에서 나타났던 각종 기회주의조류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을 건전한 궤도우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벌린 맑스의 투쟁은 그의 모든 정치활동의 자랑스러운 총화였다.

맑스는 지칠줄 모르는 투쟁과 그 과정에 쌓은 업적으로 하여 국제로동계급과 진보적인류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세계혁명렬사대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맑스의 위업은 온갖 반동통치배들, 자본의 수호자들과의 투쟁속에서 고수되고 승리하여왔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혈안이 되였던 부르죠아지들은 맑스주의가 출현하자 그것을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부르죠아지들과 그 사환군들은 맑스주의와 맑스의 위업에 극도의 증오를 품고 그 《소멸》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었으나 그때마다 격파당한것은 맑스주의가 아니라 바로 그들자신이였다.

온갖 부르죠아반동들과 각종 기회주의와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맑스주의의 순결성이 확고히 고수되였으며 그것은 자본의 예속과 전횡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발전하게 되였다.

맑스의 위업은 그 정당성과 견인력으로 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였으며 그들을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맑스가 서거한후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멀리 전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전진해온 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와 조선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시고 그것을 조선혁명의 현실에 빛나게 적용하시였으며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혁명실천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참다운 지도사상의 탄생이였으며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며 승리하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펼쳐놓은 불멸의 리정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7페지)

조선혁명과 공산주의운동 발전의 귀중한 사상리론적총화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하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세계관발전에서와 혁명리론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력사관이 밝혀짐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혁명의 전로정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일찌기 주체의 빛발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민족적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고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영웅적인 항일대전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위업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피압박민족들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해방후 조선혁명은 그 특수한 안팎의 환경으로 하여 험난하고 복잡한 길을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매우 뒤떨어진 처지에서 그것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하에서

모든 난관을 타개하시면서 제때에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며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과 정규무력을 건설하는 사업을 훌륭히 완수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혁명전쟁이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엄혹한 시련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전술과 전법을 창조하시고 원쑤를 격멸하는 성전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능숙히 조직동원하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제힘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은 참으로 간고한 투쟁이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전후의 겹쌓인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이 거세찬 혁명적진군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천리마대고조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창조하였으며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단 14년동안에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가장 짧은 기간에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가장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펼쳐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문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문제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로정과 총적목표, 그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편향없이 곧바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기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비상히 빨리 전진시키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위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강유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자

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영광누리고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떨치고있는 이 높은 영예와 존엄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자랑찬 결실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있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맑스가 서거한후 지난 100년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은 중첩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끊임없는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왔다.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일찌기 볼수 없었던 규모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지구의 여러 대륙들에서 승리하며 전진하고있다.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력사무대에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인 신흥세력이 등장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히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공인된 활동원칙을 가진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라났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온갖 민족적 예속과 지배가 없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 때 세계에는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도 없어질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실현될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자주의 기치따라 나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는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일군들의 혁명화와 혁명적 세계관 확립

강 신 용

일군들이 혁명화를 다그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과 인민앞에 지닌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우리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쥐고있는 일군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이 다 잘되여나갈수 있다.

사람의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일군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얼마나 튼튼히 준비되였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속에서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일군들에 대한 혁명화는 그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일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은 곧 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상개조에서의 기본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똑바로 세우는것이다. 따라서 일군들을 혁명화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자기 생명을 혁명에 바칠 결심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개인의 리익을 희생하고 조직의 리익에 복종할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말하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93페지)

일군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인민들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굳게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며 자연과 사회, 사람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거창한 변혁과 창조의 과정이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무한한 충실성,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강의한 혁명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간고한 혁명투쟁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또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사람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서고 혁명에 대한 립장과 관점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하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세계관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이다.

우리 일군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여 투쟁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나가야 할 사업으로서 그것은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혁명적세계관은 사람들이 처음에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로부터 낡고 부패한 착취제도를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며 적들을 때려부신 다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며 그것은 혁명화를 끊임없이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이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끊임없는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야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서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혁명초소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겨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돌려주시였다.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만일 우리 일군들이 혁명화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으며 갖은 천대속에서 고생하던 처지를 잊어버리고 관료화, 귀족화될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을뿐아니라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절대로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가 되여서는 안되며 대중과 동떨어져사는 특수한 존재가 되여도 안된다.

일군들은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될수 있다.

혁명화를 끊임없이 다그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또한 일군들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당과 함께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일군들은 당과 함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충실히 싸워나갈것을 굳게 맹세다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그 어떤 험난한 길도 용감히 헤쳐나가는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혁명의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일군들은 혁명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강의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온갖 풍파와 험난한 길도 용감히 헤치고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10년, 20년, 30년을 당과 함께 일하여온 일군이라도 자신의

혁명화를 소홀히 한다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끝까지 고수해나갈수 없다.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혁명의 준엄한 길을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꿋꿋이 걸어나가자면 자신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순간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며 세대교체가 일어나는데 따라 간부대렬이 어려운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는 조건에서 일군들에 대한 혁명화문제는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사상을 가지는것도 아니며 혁명가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도 아니다.

완성된 혁명가가 없는것만큼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수양하고 단련하는가에 따라 좋게 발전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경험은 혁명을 오래한 사람이나 로동계급의 출신의 간부이거나 새로 자라난 일군이거나 할것없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지 않는다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누구든지 혁명화를 끊임없이 다그쳐나가야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고 왕성한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당과 함께 간고한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다.

참으로 일군들이 혁명화를 다그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되며 그들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안고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우리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혁명적세계관은 무엇보다도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열렬히 사랑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만이 견결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원쑤에 대한 증오심은 자기 계급과 인민, 자기 당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데서 나타난다.

로동계급과 인민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으며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

인민들속에서 나온 우리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언제나 대중을 진정한 혁명동지로 대하며 그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드팀없이 싸워나갈수 있도록 손잡아이끌어주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며 행동준칙이다.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을 아끼고 사랑하여야만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충복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일군만이 참된 지도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일군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또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는것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면 어렵고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애야 하며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중요한 정치적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기술혁명방침을 내놓고 적극 추진시켜왔다.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완수된 다음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주자면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근로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이 일을 보다 헐하게 하고 흥겹게 하도록 그들에게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일군들에게 지워져있는것이다.

일군들이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받들고 근로인민대중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악하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의 높이와 확립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이 일을 헐하고 흥겹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아글타글 애쓰며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는곳이라면 수천척 지하막장을 비롯한 그 어디에나 찾아가 생산자대중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아보고 기술혁신대책을 제때에 세워주며 필요한 모든 로동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군만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은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투쟁하는가 하는데서 또한 나타나게 된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려는데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과 수령의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정확히 가닿도록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짜고들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라도 풀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일군만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혁명적세계관이 선 참다운 일군이란 자기 계급과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

오늘 일군들이 혁명화를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참

된 충복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일군들은 혁명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우며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관점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오로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으며 오늘도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계신다.

인민의 리익과 그들의 행복을 마련해주는것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울 때 일군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대중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우리 당은 오늘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대담한 작전을 련이어 펼치고있으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돌려주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관점을 옳게 체득해야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된 일군이 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의 방침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학습은 혁명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체득할수 없으며 높은 계급적안목과 혁명적 식견을 가질수 없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학습의 기본교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의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의 방침에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사업이 폭넓고 깊이있게 다 밝혀져있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의 방침 학습을 강화하여 거기에 밝혀진 내용만 잘 알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여도 편향없이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언제나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의 방침에 대한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옳은 자를 가지고 모든것을 재여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숨쉬고 행동하여야 하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서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야 한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혁명가로 자라날수 없고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갈수 없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언제나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일군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사상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완성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사상투쟁을 통하여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뽑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참다운 풍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화를 통하여 자신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값있고 보람있게 빛내여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리 기 섭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문제는 국가정치리론과 사회생활실천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가정치생활, 경제, 문화 생활분야의 제도들을 공고히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가 바로 법무생활문제와 직접 관련되여 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과 그 필연성, 법무생활의 기본요구와 그 특성,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방도를 비롯하여 법무생활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리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법질서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회주의국가의 법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사회생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7페지)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집행이 담보되고 법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사회생활분야이다. 그 어떤 일반적인 호소나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집행할데 대한 국가적인 요구가 담겨져있는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규률생활, 규범생활이라는 여기에 도덕규범생활을 비롯한 이여의 일반적인 생활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법무생활의 특성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생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성격은 그 기초에 놓여있는 법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통치수단으로서 정치적, 계급적 성격을 띤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태여난 새형의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법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법무생활은 필연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참다운 법무생활로 된다.

사회가 적대계급으로 분렬되여있고 법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강권정치의 도구로 되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원래 고도로 조직화되고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다같이 사회주의근로자로서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집체적인 지혜와 공동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고 관리운영되며 발전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가자면 사람들의 생활을 규범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반드시 사람들의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의무적인 행동준칙과 공통적인 생활규범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생활규범, 행동준칙이 바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이며 그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이 국가적인 조직생활, 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사회는 혁명적인 법무생활이 지배할 때만이 자기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유지되고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더욱 공고발전되여나갈수 있다. 또한 집단주의에 기초한 자각적인 규범생활이 지배되여야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권리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저애하는 적대적요소들을 철저히 짓부실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한다는데 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은 국가사회제도를 반대하는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적대적요소들을 물리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지금 우리는 미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있으며 우리 내부에도 적대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의연히 남아있다. 적들은 우리를 반대하여 음으로양으로 책동하면서 안일해이되고 제도와 질서가 서있지 않고 규률이 문란한 틈을 노리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 규률을 세우지 않는다면 적들의 책동을 막아낼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다.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수호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고 온갖 적대적요소들의 준동을 철저히 막을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혁명을 다그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

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5페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인간개조는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함께 혁명적인 법무생활을 강화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법이 노는 교양적기능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법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에는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와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당의 로선과 방침들이 행동규범, 생활준칙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거기에는 또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기본문제들이 명시되여있으며 공산주의도덕의 요구도 반영되여있다.

우리의 법규범들은 근로자들의 행동규범과 생활준칙들을 규제하면서 그들이 응당하게 하여야 할 긍정적인 활동과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고있다. 그리하여 법을 실천활동에 옮기는 법무생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는데서 강한 인식교양적작용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법을 준수집행하는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혁명적 법질서와 규률을 세울수 있으며 법에 구현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며 그것을 관철해야 한다는 튼튼한 각오를 다지게 된다.

법무생활과정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원칙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는데 습관되게 하며 사람들을 집단적인 규률과 법질서 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과정으로 되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무질서와 무규률을 배격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인 제도와 건전한 사회질서를 세움으로써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등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침습해들어오는것을 막을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워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바로 여기에 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은 경제와 문화생활령역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온갖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높은 수준의 생산력과 문화를 창조하는 거창한 사업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경제문화건설에 조직동원하며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가 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인입하며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이 국가의 법규범들과 규정들에 의하여 규제되고 제도화된다. 이것은 사회주의법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문화건설의 규모와 범위가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간의 련계도 더욱 복잡하고 긴밀해지고있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문화건설에 대한 법적규제의 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경제문화건설분야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모든 활동이 법규범과 직능에 의하여 세밀하게 규정되고 그 정확한 집행에 대한 요구가 보다 엄격하게 제기되고있다. 법규범과 규정들에 대한 사소한 어김도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애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적지 않은 후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법의 조직동원적, 규제통제적 역할을 높이고 혁명적규률과 법질서를 일층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는 경제, 문화 생활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경제문화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경제관리활동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경제법칙과 경제관리원칙의 요구대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관리규범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들을 자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준수할 때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을 앞당길수 있다.

이 모든것은 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단순히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 어떤 법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심중한 정치적문제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혁명투쟁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는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정된 규범과 준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6페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운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준법기풍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본요구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지 않고서는 국가사회생활에서 정연한 법질서와 혁명적인 제도와 규률을 확립할수 없으며 법의 요구를 옳게 관철할수 없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제정된 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엄수하는것을 생활적인 요구로 되게 함으로써 준법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워야 모든 사회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사회를 정확히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또한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울 때 정연한 규률성과 째인 조직성을 가진 사회주의사회의 진면모를 나타낼수 있으며 법무생활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법무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적대계급사회에서와 같이 립법자와 법집행자의 구별이 따로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제정의 주인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법집행의 담당자도 그들자신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그것이 그대로 국가적인 의사로 되며 법화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이 그 어떤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주인된 자각과 높은 준법의식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켜진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의 특징과 그 본질적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소유하는것은 근로자들의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이며 고상한 생활기풍이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적준법기풍을 소유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법생활을 누릴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준법교양은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형태이며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의 기본방도이다. 사람들의 모든 준법활동은 그들의 준법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좌우된다.

법무생활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의 요구를 파악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인것만큼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의식과 준법정신은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성실히 지키게 하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법을 성실히 지키는 준법정신은 법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로부터 흘러나온다. 법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법을 스스로 지키려는 자각성이 나올수 없다.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법의 혁명적본질과 그 우월성, 법집행이 가지는 의의,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 등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법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법이 전체 인민의 의사이며 그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는 신성한것이라는것 그리고 법을 량심적으로 성실히 지키는것이 공민의 응당한 도리이며 의무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법을 어기지 않게 할수 있다.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법을 존중히 대하지 않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으며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개별적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위법현상은 낡은 사상잔재에 바탕을 두고있는것만큼 그것은 사상투쟁을 벌려야만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법준수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사상교양, 사상투쟁과 법적통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법무생활자체의 특성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과학적이며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법적통제는 법준수집행정형을 늘 료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사업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 모든 부문과 단위 그리고 개별적사회성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사회적범위에서 정연한 법질서를 세우는 아주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것은 꾸준한 사상교양, 사상투쟁과 함께 국가권력기관들의 법적통제를 동반하여야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준법기풍을 세우고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이 준법교양 하나만으로는 안되며 거기에 반드시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법적통제를 옳게 결합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정확히 배합하는것은 정치사업방법과 권력적인 방법을 적절히 결합시키는것으로서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의 존중성과 엄정성을 인식시키며 법을 착실히 지키도록 하는 필수적담보로 된다.

법집행에 대한 검열감독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때에 료해장악하고 법적제재를 옳게 가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통제적기능의 발현이다. 법적 통제와 투쟁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한 표현이다. 법적통제와 법위반현상과의 투쟁은 그 자체가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교양수단이며 위법적요소들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듯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효과를 튼튼히 안받침하고 사회성원들에게 법의 정신을 똑바로 인식시킴으로써 혁명적준법기풍을 튼튼히 세워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법무생활에 대한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를 개선하는것은 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주되는 기능의 하나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의 법무생활에 대한 조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법무생활의 기초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 완성하고 그것을 옳게 해석적용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법제정방침과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의 원칙과 요구에 철저히 의거하여 법무생활강화에 필요한 새로운 법규들을 제정하고 완성하며 당적, 로동계급적 립장, 국가적립장에서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법의 기본정신과 법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법무생활에 정확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또한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의 권력의 람용을 방지하고 모든 일을 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집권당이며 우리 국가의 법은 곧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것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고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온 사회에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에 구현된 당의 의사와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전과정을 틀어쥐고 당적으로 지도하는것은 당조직들의 마땅한 임무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명심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움으로써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

피 정 균

오늘 전체 인민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새로운 혁명적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올해 전투적과업수행에서는 련일 새로운 비약이 이룩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높은 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비상히 다그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끄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야말로 1980년대 우리 인민앞에 나선 거창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기본열쇠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발기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혁명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전개될 때마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1980년대의 혁명적대고조,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1980년대 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리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은 폭과 목표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며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는 거창한 투쟁이다.

새로운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 정신과 기풍을 계속 견지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입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을 잘해나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

적토대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옳은 방침을 내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는것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이 발기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혁명적 기세와 기백을 그대로 계승하고 빛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의 정신은 남이 한걸음 걸을때 열걸음, 백걸음씩 내달려 세기적인 기적과 전변을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이 정신은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정신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를 보람찬 위훈으로 빛내인 원동력으로 되였다. 때문에 우리 당은 천리마정신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혁명이 심화되고 그앞에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달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의 호소따라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의 발현이다.

오늘 모든 전선에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고있으며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천리마의 정신을 사상정신적바탕으로 하여 일어나고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진행되는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이것으로 하여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방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강유력한 무기로 된다. 바로 여기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게 하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또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결정적요인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이다. 생산과 건설이 진척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비상한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하고있는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전인민적인 대중적진군운동인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생산자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운동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풀어나가는 위대한 전진운동이다. 이 운동의 위력은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말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진군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발기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모든 대중운동이 그러한것처럼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도 당조직들의 옳은 지도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군당위원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집행단위이다. 대중운동이 경제사업과 옳게 밀착되여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군당위원회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군당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서의 위력을 훌륭히 발휘할수 있다.

개천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이 지펴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투쟁할 때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것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11페지)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대중이 사상적으로 발동되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선결조건은 바로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이다.

개천군당위원회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새로운 대고조를 위한 정치사업계획을 바로세운 다음 모든 부서와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생산을 다그칠데 대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으며 책임일군들이 여기에서 앞장에 서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과 군안의 행정경제일군들이 몇개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을 담당하여 늘 현실에 내려가 근로자들에게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위한 당의 의도를 깊이 알려주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하막장의 탄부들과 협동농장원들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으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정치사업의 성과는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될 때 커다란 은을 내게 된다.

군당위원회는 생산현장에서 예술선동대활동과 직관물선동, 영화실효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면한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하였으며 생산자대중이 언제나 높은 열의를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보장사업을 적극 안받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치사업은 대중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을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냈다.

경험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옳게 짜고들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할 때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이 투쟁을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왔다.

오늘 우리 당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중요한 방침으로 내세우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근본핵으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중요한 당적사업이다.

군당위원회는 3대혁명소조들과 합심하여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대중운동결의목표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관철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렸다.

지난해 상반년까지만 하여도 군안의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세운 대중운동결의목표는 그 이전의 수준에서 크게 전진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는 군안의 전반적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결의목표를 종전의 2배로 높이도록 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관철할수 있게끔 꾸준히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려는 혁명적 각오와 열의가 높아지게 되였으며 수많은 기술혁신안과 생산합리화안을 받아들여 생산을 종전에 비하여 몇배로 늘일수 있는 예비를 탐구해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대중운동을 벌려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데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군당위원회는 탄광과 지방산업공장, 협동농장들 가운데서 몇개의 대상에 본보기를 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반적단위들에서 대중적혁신운동을 적극화하고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조양탄광과 철제일용품공장, 외서협동농장, 상업관리소를 본보기로 만들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과 경험발표회, 견학사업을 널리 조직진행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대중운동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지난해 군적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년간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한 단위들이 훨씬 늘어나게 된것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결실이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경제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를 조직하고 지휘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이다. 혁명앞에 새로운 과업이 나설수록 지도일군들은 높은 각오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건설사업을 패기있고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인 주목을 돌린것은 그들속에서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푸는 기본고리를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생활총화를 사상생활총화로 되게 하였으며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제때에 조직진행하였다. 일군들속에서 당생활이 강화됨으로써 군안의 책임일군들로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이르는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이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서 제기된 과업들을 더 잘 수행하게 되였으며 그들속에서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혁명적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현실에서 당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며 생산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도 찾을수 없다.

군당위원회는 군급 경제지도일군들이 언제나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였으며 아래에 대한 지도사업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실속있는 지도로 되게 하였다.

도자기공장과 선철공장에 내려간 지도일군들은 공장관리일군들이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옳바로 세우고 설비관리사업과 자재보장사업 등 경제조직사업을 적극 개선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대중을 생산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과업이 나설 때마다 어깨를 먼저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대중은 거기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경제건설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군당위원회는 군당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이도록 그들을 이끌어주었다. 우리는 당일군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 탄광의 지하막장에 들어가서 직접 착암기를 잡고 굴진공들과 함께 일하며 협동농장에 나가서는 례년에 없는 가물피해를 이겨내는 투쟁과 새땅을 찾기 위한 전투 등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경험은 책임일군들이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솔선 모범을 보일 때 그것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게 되며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여기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방침대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을 다그쳐나아갈것이다.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

방 철 수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은 근 40년간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억눌리며 살아온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미제를 몰아내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계급과 계층이 망라되고있으며 이 투쟁은 점차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운동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적극적인 형태로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반미자주화투쟁을 통해서만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 *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에 남조선에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의 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화정책을 반대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새로운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보다 적극적이며 심각한 투쟁구호를 제기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은 많은 경우에 개별적인 미제침략군놈들의 살인만행과 인권유린행위, 민족적멸시와 략탈을 반대하는데 국한하여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남조선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미감정이 전례없이 심각하게 표면화되고있다. 진보적인 청년학생들과 《정치범》가족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남조선인민들은 미제를 《침략자》, 《략탈자》, 《살인자》로 명백히 락인하고 그에 투쟁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남조선도처에서 인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을 예속시키는것을 중지하며 이 땅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한다.》, 《조선의 영구분렬을 획책하고있는 미제의 죄행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착취를 규탄한다.》,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반미투쟁구호들은 종전에 비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더욱더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가 달라지고 있으며 그들이 투쟁의 과녁을 옳게 선정하고 목적의식적인 투쟁에로 나

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그들의 투쟁이 더욱더 폭력적인 성격을 띠고있는것이다.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된 남조선인민들은 종전의 파업, 집회, 시위 등의 투쟁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오늘은 직접 미제침략기관들을 불살라버리는것과 같은 매우 적극적인 투쟁에로 나아가고있다.

부산《미국문화원》에 대한 방화투쟁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부산《미국문화원》으로 말하면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대주의와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고 침략과 전쟁, 불신과 반목의 교리를 선전해오던 미제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의 중요한 모략기관의 하나이다. 적들의 가혹한 탄압이 감행되는 속에서 바로 이러한 대상을 선정하여 방화투쟁으로써 미제에게 타격을 가한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의 적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결의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것이다.

이밖에도 최근년간 광주에서 있은 《미국문화공보원》에 대한 방화투쟁을 비롯하여 서울의 《워커힐》과 《미국신탁은행서울지점》에 대한 방화투쟁, 대구미군공군기지에서의 대폭발투쟁,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미국기발소각투쟁 등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발전추세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들이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은 순수한 대중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적극적인 투쟁, 폭력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이 투쟁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망라되고 투쟁이 더욱더 넓은 지역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은 어느 한 계층의 테두리에 머물고 있는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의 진보적인 각계층 인민들이 광범하게 참가하고있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되고있다. 이 투쟁에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 《정치범》가족들과 재야민주세력, 종교인들이 망라되고있다. 지어 지난날 미제를 《벗》으로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미국을 숭배하던 사람들까지도 점차 각성하여 이 투쟁에 합류하고있다.

광주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은 부산, 서울, 대구, 춘천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으로 계속 퍼지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이 수많이 벌어졌지만 오늘처럼 투쟁의 예봉이 미제에게로 돌려지고 이 투쟁에 그처럼 광범한 계급과 계층이 떨쳐나선적은 일찌기 없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인 형태로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더욱 격렬성을 띤 대중적인 투쟁으로 심화발전되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놈들에게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구국투쟁이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주권을 가장 횡포하게 유린말살하고있는 장본인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을 가지는것은 모든 민족의 본성적요구이며 응당한 권리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권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민족적자주권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완전히 유린말살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민족적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틀어쥐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곧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미제의 식민지적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 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는것입니다.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체 조선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칠수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면 무엇보다도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내쫓아야 한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외세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38년동안이나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으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이 들고일어나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내쫓고 놈들의 내정간섭을 철저히 끝장낼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게 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게 한다.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된 사업이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제거할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자주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가혹한 파쑈통치가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는 인민들사이에 통일을 위한 의사가 교환될수 없고 광범한 군중이 통일운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없다.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사회의 자주화가 실현되여야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통일운동에 나설수 있으며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통일위업에 거족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과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의 확립을 앞당기는 투쟁으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투쟁이다.

지난날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정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수많은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진것은 감옥과 교수대뿐이였으며 그들의 념원과 요구조건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미제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고 식민지통치가 위태롭게 될 때마다 괴뢰들을 갈아치우거나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탄압으로써 통치위기를 수습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파쑈통치를 더욱 악랄화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민주화를 위한 투쟁만으로는 민족적자주권을 찾을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자체도 실현할수 없다는 심각

한 교훈을 찾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투쟁과정에 자기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이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마침내 미제를 반대하는데 투쟁의 화살을 집중하게 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남조선에서 계속 되여온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심화발전이며 그 필연적귀결이다.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듦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지난날의 투쟁에서 당했던것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향과 요구들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길을 찾게 되였다.

참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며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투쟁으로 된다.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현시기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숭미사대주의사상과 공미굴종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미제에 의하여 오래동안 강요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공미굴종사상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는 기본요인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숭미, 공미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여야 민족적긍지와 자각을 가지고 반미자주화투쟁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만일 숭미, 공미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외세의존과 사대주의사상에 포로가 되여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숙명적인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외면하거나 주저하게 되며 결국에는 민족적량심마저 더럽히는데로 나가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부식시킨 숭미, 공미 사상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며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지켜온 민족이다.

특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악한 일제와 미제를 때려눕히고 공화국북반부에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일떠세운 자랑높고 긍지높은 인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애국적전통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뭉치는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은 미제침략자와 조선민족사이, 매국배족세력과 애국애족세력사이의 치렬한 힘의 대결이다. 이 힘의 대결에서 외래침략자와 매국배족세력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애국력량이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굳게 뭉쳐야 한다. 그래야만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키고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반미자주화투쟁은 그 어떤 특정된 계급, 계층만이 참가하는 투쟁인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거족적투쟁이다. 때문에 모든 반미애국력량이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결속하는 것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반미애국력량이 굳게 뭉치기 위하여서는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미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비록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오늘 반미감정

을 가지고있다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며 사상과 정견, 신앙을 초월하여 반미통일전선에 뭉쳐야 한다. 민족의 량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또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그리고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조국에 살건 이국에 살건 관계없이 반미성전에 떨쳐나서야 한다. 바로 이 길만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할수 있는 참다운 길이다. 외세에 빌붙어 그 무슨 《자주권》을 얻어보려고 망상하면서 반미자주화투쟁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사실상 조국과 민족 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며 후대들로부터 저주를 받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투쟁을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가는것이다.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신식민주의 수법으로 통치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서로 밀접한 주종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여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을 통하여 식민지통치를 실현하며 남조선괴뢰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뒤받침해주는것으로 저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철두철미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현지대리인이며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약화시키고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면서 여기에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은 굴함없는 투쟁으로 자기들의 정당한 념원과 요구를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3호(루계 491호)

편 집 위 원 회

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3월 1일　　발 행•1983년 3월 5일

ㄱ—3551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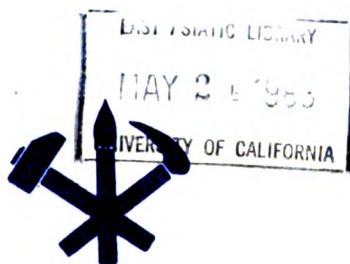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4 호(492)

차 례

위대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온 나라에 혁명적기상과 청춘의 활력이 차넘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면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청사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수령님께서 주체의 예지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열어놓으시고 조국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여오신 자랑스러운 년대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1)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며 완성되여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다름아닌 수령의 위업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최고령도자로서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전략전술을 제시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였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선혁명의 전로정을 승리와 영광의 력사로 빛내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우고 온 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밝히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이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년초석인 위대한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하에서도 모든 난관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시면서 제때에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며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과 정규무력을 건설하는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겹쌓인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이룩하시였다. 이 거세찬 혁명적진군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천리마대고조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창

조하였으며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단 14년동안에 완성하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시고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으며 조국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로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고 구현되여온 자랑스러운 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우리식대로 밀고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04페지)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과 혁명정신은 혁명로선의 작성과 그 관철에서 과학성과 독창성, 원칙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확립문제를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언제나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그것을 사색과 실천투쟁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며 혁명실천이 요구하고 인민대중이 지향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성관례나 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방침,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들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하고있으며 독창성과 창조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자위적군사로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방침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다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혁명의 구체적요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제시된것이다.

주체적립장에서 혁명을 우리 식대로 이끌어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의 전로정에서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또한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대중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창조력을 불러일으키시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전진시키는 혁명적령도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에 대한 령도는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예술이며 혁명의 승패는 결국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인것만큼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옳게 조직동원할 때만이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시고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창조력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물리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여오시였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튼튼히 의거하며 인민들은 당과 수령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헌신적으로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있어야 신심과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난다고 하시면서 근로하는 인민들을 찾으시여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지에서, 혁명과 건설의 들끓는 현실속에서 대중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신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이 제시되고 인민들이 바라는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현지지도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방법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구현되게 하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집대성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위대한 변혁,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언제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전군중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풀어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투쟁형식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령도방법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대중에 적극 의거하고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건설사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우와 같은 문헌, 3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대중운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새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하여온 자랑찬 력사는 대중운동을 통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천리마운동은 혁명적대중운동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고 우리나라에서 천리마시대의 탄생을 가져온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이였다. 천리마대진군속에서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가 산산이 마사지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이룩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이 대중운동을 통하여 사상개조, 기술개조, 문화개조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영웅적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참으로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발동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방법은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오늘과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먼 미래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과학적예견성과 명철한 통찰력, 비범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등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모든 정세와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혁명의 주공방향과 그 수행방도까지 명철하게 밝혀주시며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하여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시는 혁명적전개력으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심으로써 끊임없는 기적과 비약을 창조해나가신다.

비범한 령도적수완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아무리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나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령도적풍모는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이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면서 오늘과 같은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다.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사변과 빛나는 위훈, 세기적인 전변과 기적들이 창조되여온 자랑스러운 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우리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영예를 빛내이신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긴탓으로 하여 오랜 세월 망국노의 처지에서 참을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지도에서 그 빛마저 잃게 되였다. 간악한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며 압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누리는것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민족적숙망이였다.

우리 인민의 이 민족적숙망은 온 민족의 피타는 갈망과 시대의 요구를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시련과 겹쌓인 난관을 몸소 헤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인민의 처지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이였다.

혁명의 준엄한 난국과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여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3년간의 엄혹한 전쟁에서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인민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 령활한 령군술로 미제의 이른바 수적 및 기술적 우세를 타승하고 놈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심으로써 세계를 경탄시키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하고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우리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해낸 간고한 항일무장투쟁과 조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으며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을 영웅조선으로 자랑떨치게 한 위대한 승리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비약과 전변을 이룩하시여 우리 나라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또하나의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전진도상에서 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없애고 훌륭한 사회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0페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자기의 진정한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의 참다운 조국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품속에서 륭성번영하게 된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참다운 영예와 존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도 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이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 빛을 뿌리고있는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잇닿아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에서 누리는 자기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다시는 남에게 롱락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존엄있게 살며 투쟁하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키시고 우리 인민들

에게 끝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신것은 세기를 두고도 이룩할수 없었던 력사적위업을 당대에 빛나게 실현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헤쳐오신 항일혁명 20년이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주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시기였다면 해방후 창조와 건설의 40년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이 땅우에 민족적 륭성과 번영을 가져온 세기에 빛날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년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조선로동당을 권위있고 존엄있는 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을 강력한 전위부대로 건설하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고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창건의 첫날부터 그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을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시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우리 당 건설력사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때로부터 강철의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투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을 조선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우리 당이 류례없이 험난한 투쟁의 길을 헤쳐오면서 오늘과 같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자라나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과제도 능숙하게 수행하게 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 당을 강유력한 전투부대로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오신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위대한 당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길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확고히 서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있으며 그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위대성과 옳바른 령도에서 혁명위업의 휘황한 진도와 자기들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처럼 끝없는 정력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조선로동당을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모든 력사적과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수행과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에 불멸의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과 불패의 혁명정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비롯하여 우리 혁명의 모든 전취물들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마련된것이며 그것은 우리 혁명위업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 *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밑천이 마련된것은 조선혁명의 력사적총화이며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승리이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와 승리를 공고히 하고 그에 의거하여 더욱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나갈 때만이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의도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충성의 열정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생활과 투쟁의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며 수령님께서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전취물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혁명이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고 새롭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우리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간직하고 당이 이끄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하는 불굴의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는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과 락원의 10명 당원,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을 거울로 삼아 사상정신생활과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가 있는 이상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담보

김 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당의 전투적위력에 의하여 담보되며 당의 위력의 원천은 그 조직사상적기초의 공고성에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적위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만이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창건 첫날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완전히 실현한 불패의 전투대오로,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 건설과 주체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의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모든 승리와 고귀한 업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숭고하고도 성스러운 임무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1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사상과 자기 당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전당과 전체 인민이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활동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과 그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하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며 완성되여나간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투쟁의 방향과 방도를 마련하며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을 이끌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여 나간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높이 받들고 그의 위업에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조화, 신념화하고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나가게 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숨쉬고 행동하며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흐르는 혁명의 정수분자로 만들수 있다.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란 다름아닌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가 차넘치는 사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사람을 말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사람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깊이 간직한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듦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게 한다.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며 당대렬을 그 어떤 잡사상과 불순이색분자도 없는 순결한 충성의 대오로 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하며 사소한 분파적요소도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원래 공산주의운동은 선행한 모든 사회적운동과는 달리 고도로 조직화된 운동이며 따라서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대오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당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할 때 대렬안에 종파와 분파가 생기게 되며 당이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게 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말아먹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 언제나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대렬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 때 당은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이다.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당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여 혁명위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담보는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함으로써 참다운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게 한다.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될 때 진정한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무적단합은 오래가지 못하며 공고한 단합으로 될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만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운명, 그 전도와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혁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해나갈수 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은 온갖 착취와 압박, 지배와 예속을 완전히 청산하고 세계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어렵고 거창한 사업이다. 수백만 근로대중의 단합된 힘과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요구하는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과 수령은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기구와 조직들을 움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최고뇌수, 정치적령도자이다.

모든 분야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지 않으면 대중이 투쟁방향을 잃게 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진통과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가 철저히 실현될 때 혁명위업은 승리의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게 되고 그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주체위업은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면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주체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혁명의 밝은 전도와 민족의 휘황할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게 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2)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우리 당 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심화발전시켜왔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유일적인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대오의 일색화를 실현하여온 성스러운 투쟁행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총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를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시였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당 력사를 빛나게 장식한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

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이르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원칙과 방침들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그 폭과 심도에서 주체사상화과정의 앞선 단계보다 비할바없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중심을 둘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중심과 기본에 관한 문제는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중심과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야 할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제반 원칙들을 새롭게 내놓았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들이 제시된것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들이 밝혀짐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온 사회에 주체형의 맑은 피,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힘있게 뿜어주는 사회의 심장으로서의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 한층 높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위업수행을 위한 길에서 우리 당이 쌓은 불멸의 공적의 하나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결정,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명적앙양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데 대한 탁월한 사상과 혁명적 방침들을 제시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준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열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01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올바르게 이끄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사업으로부터 구체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활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지침이다.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으며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의 통일단결도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도 바랄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우리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들을 제때에 가려보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할수 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그 어떤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의 기치를 고수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밝혀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제반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한 원칙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혁명적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할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워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할수 있으며 우리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제반 원칙들에 기초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그것을 유일한 자로 하여 날마다 자기 사업과 생활을 검토총화함으로써 자신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확고히 다져나갈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우리 혁명의 절대적인 요구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적 로정을 돌이켜볼 때 당과 인민이 가장 큰 궁지를 가지게 되는것은 바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은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이다.

우리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주체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위업은 곧 우리 당의 혁명위업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으로 주체위업수행을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통하여 혁명의 밝은 전도와 공산주의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위대한 공산주의건설리론

양 형 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2년 4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한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은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휘황한 진로를 밝혀준 전투적기치이다.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산주의건설강령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1)

공산주의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원칙적문제이다.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걸쳐 벌어진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공산주의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공산주의를 리상으로 삼아왔으며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원으로 되였다.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리론이 있어야 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방도에 의거하여 인류의 리상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공산주의건설이 일정에 올랐으며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는것은 인류해방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시대와 혁명이 제기한 이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은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을 정연한 체계로 집대성하고 독창적인 원리와 명제들로 새롭게 발전풍부화하였다.

로작에서 밝혀진 심원한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은 공산주의가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고전적명제에 집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입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락원이 건설됩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페지)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명제는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해야 공산주의사회가 이룩되는가 하는것을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과 사회, 자연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철저히 개조되여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리상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을 구현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치적무기가 있어야 하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방도가 밝혀져야 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치적무기이며 3대혁명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것을 무기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한다는것이며 3대혁명이 완전히 수행되면 공산주의락원이 건설된다는것이다. 바로 이 진리를 밝혀준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정식화하신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원리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원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진 위대한 공산주의건설리론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공산주의원리의 위대성과 독창성, 그 불패의 생활력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원리의 위대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가장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공산주의건설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얼마나 깊이있게 반영하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 원리와 리론의 위대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건설의 현실적과정을 정확하고 깊이있게 밝힌 원리와 리론이라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줄수 있다.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 공산주의라는 주체의 원리는 정치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전진하고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없애기 위한 혁명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을 심오하게 반영하고있다.

정치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발전하고 완성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중요한 합법칙성의 하나이다.

공산주의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고도의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혁명운동이다.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이 없이는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될수 없다.

원래 공산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전사회적규모에서 계획적으로 조직되고 통일적으로 추진되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리익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치이다.

전사회적범위에서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국가정권에 의하여 수행된다. 국가정권은 정치적지배권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할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혁명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활동을 조직지휘하는 기능인것으로 하여 공산주의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의 성과도

정치의 역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치적지배권인 국가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공산주의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경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정치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가정권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지 않는다면 경제건설을 잘할수 없는것은 물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치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공산주의건설이 추진된다는 합법칙성은 정치에 대한 주체적리해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리해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요소이며 력사발전의 동력인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명한것으로 된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해명에 의하여 정치를 계급의 존재와만 관련시키보던데로부터 사회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적요인으로 리해하게 되였으며 경제적목적의 실현수단, 계급투쟁의 무기로만 파악하던데로부터 경제를 포함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움직이고 계급투쟁뿐아니라 공산주의건설전반을 조직지휘하는 사회적기능으로 인식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여있는 계급사회에서뿐아니라 사회성원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가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계급적차이가 있는 시기뿐아니라 그것이 없어진 시기에도 정치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공산주의건설이 진전하는 합법칙성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공산주의가 건설된다는 원리는 정치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추진되고 실현되는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진리로 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혁명을 통하여 발전하고 승리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중요한 합법칙성의 하나이다.

공산주의건설은 사람들을 모든 구속과 예속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이 청산되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 투쟁은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바로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혁명의 기본내용이다. 이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끝난것으로 보고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킬수 없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갈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공산주의건설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 혁명을 통하여 전진한다는 합법칙성은 혁명에 대한 주체적리해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졌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것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혁명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힌 주체적인 리해로 된다.

혁명에 대한 주체적리해에 의하여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혁명으로 보던데로부터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을 혁명으로 인식하게 되였으며 계급들사이의 경제적리해관계의 대립을 혁명의 근원으로 파악하던데로부터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이 있는 한 혁명이 계속되여야 한다는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혁명은 계속되며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승리해나가는 합법칙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다는 주체의 원리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건설이 수행되는 합법칙성을 깊이있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진리로 된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원리의 위대성은 또한 그것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공산주의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한다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얼마나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수 있게 하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의 건설리론의 위대성을 규정하는 척도의 하나이다. 공산주의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인것만큼 공산주의건설리론의 가치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며 이 리론의 위력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 공산주의라는 원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공산주의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게 하는 위대한 진리이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면 공산주의가 건설된다는 원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적극 높이게 한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과 사회를 보고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현실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공산주의가 건설된다는 주체의 원리는 공산주의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을 가장 철저히 고수할수 있게 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정권이다.

로동계급의 정권은 일반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에게 복무하지만 그 형태에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을 어떻게 옹호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얼마나 원만히 보장하는가 하는데서 차이가 있게 된다.

인민정권은 가장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체현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훌륭히 보장하여주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된다.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가장 철저히 수행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라는데 있다. 여기에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훌륭히 보장해주게 되는 리유가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정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될수 있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의 경험은 인민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 맞을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시기에도 맞는 가장 우월한 정권이며 이 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공산주의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공산주의가 건설된다는 주체의 원리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여 자주성에 대한 요구를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혁명의 내용을 이룬다. 3대혁명을 벌려야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고 창조성을 억제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공산주의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3대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방법, 새것을 창조하고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혁명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게 하며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대로 공산주의건설을 수행할수 있게 한다.

3대혁명은 그 내용과 방식의 특성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로 된다.

참으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원리는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공산주의건설리론이며 인민정권과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독창적인 원리를 제시하신것은 공산주의혁명리론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고 그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이 출현한 때로부터 한 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지난 시기 국제로동계급의 수령들에 의하여 공산주의는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되고 공산주의건설에 대한 귀중한 사상과 리론들이 제기되였다.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선행한 리론들은 그 시대적 및 력사적 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이였으며 그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크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 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주체시대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구현하시여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창시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길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9페지)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원리가 제시됨으로써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리정표가 세워지게 되였고 공산주의에 대한 인류의 리상을 현실로 전변시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으며 인류는 공산주의사회를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보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수 있게 되였다.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 공산주의라는 원리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건설의 정치적무기와 근본방도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공산주의건설의 기본무기를 무엇으로 보고 어떠한 근본방도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나가는가 하는것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주체의 공산주의원리에 의하여 공산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을 기본무기로 삼고 3대혁명을 근본방도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이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정치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경제도 포함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위력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다. 이 원리는 사상혁명을 선행하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동시에 틀어쥐고나가게 함으로써 우여곡절과 편향이 없이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또한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로정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어떠한 단계와 계선을 거쳐 공산주의사회에로 나아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옳바른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주체의 공산주의원리에 의하여 3대혁명이 철저히 수행되면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다는것이 해명되여 인류의 리상사회가 실현되는 력사적계선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무계급사회를 거쳐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로정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 공산주의라는 원리가 제시됨으로써 또한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발전의 합법칙성이 심오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인류의 리상사회의 면모와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완성된 리론을 확립하고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고무추동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의 공산주의원리에 의하여 공산주의사회는 3대혁명이 철저히 수행된 사회라는것이 밝혀져 미래사회의 면모에 대한 폭넓은 표상이 주어지게 되였다. 공산주의사회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완전히 없어진 사회이며 사람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자주적요구에 맞게 철저히 개조된 가장 발전된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이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며 사회생활에서 온갖 본질적차이가 없어지고 사람들사이

에 완전한 사회적평등이 이루어지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원칙이 확고히 지배하게 된다.

주체의 공산주의원리에 의하여 미래사회에서의 정치와 정치조직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인 정치가 있게 되며 그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인 정치조직들이 있게 된다. 당은 공산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이며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이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정치적수령의 령도밑에 당과 인민정권과 같은 정치조직의 역할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행동의 통일성이 보장되며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이 조직되고 지휘되게 된다.

주체의 공산주의원리에 의하여 공산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3대혁명은 끝나게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사람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하여야 하므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발전법칙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류의 리상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리해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주체의 공산주의원리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인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공산주의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주체의 공산주의원리가 제시됨으로써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향, 옳바른 투쟁방도를 가지고 자주성이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은 참으로 공산주의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고 인류의 진보적사상의 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화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이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워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점령못할 요새란 없으며 극복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당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안 동 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성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성을 지니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높은 당성을 가져야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1)

당성은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기본품성이다.

혁명가의 가치와 존엄은 그의 사상정신적풍모에 의하여 평가된다. 당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규제한다. 당성을 떠나서 공산주의혁명가의 풍모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4페지)

당성,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다시말하여 당성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당성은 당조직에 망라된 모든 당원들에게 고유한 본질적특성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원은 당과 운명을 같이할것을 맹세하고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이다. 당원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혁명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혁명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그 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질수 없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성은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게 하는것으로서 그것은 당원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된다.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인 당성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할 때에만 참으로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은 온갖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력사적사명을 지닌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립장, 방법을 밝혀준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처지와 계급적본성으로부터 지주, 자본가 등 착취계급과 자본주

의제도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엎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게 된다. 로동계급의 이러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사람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혁명위업에 바치는 열렬한 자기희생정신과 온갖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를 지닐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세계관에서 핵을 이룬다.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당성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다.

당성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숭고한 계급적자각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정신이며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그 어떤 난관도 과감히 뚫고나가는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이다.

당성은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신념,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혁명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당성은 또한 로동계급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계급적자각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발현된다.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그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부대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무기인것만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따라서 당성을 떠난 로동계급성, 인민성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에 대한 충실성, 높은 당성은 곧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서 나타나게 된다.

혁명가의 당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수령에 의하여 집대성되고 실현되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투쟁은 수령에 의하여 조직되고 령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참모부이다.

수령은 자기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을 창건하고 당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행정을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며 당의 모든 활동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로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 공산주의자들이 진실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해야 한다.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령도에 충실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심장속깊이 체득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한몸에 체현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높으신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고귀한 혁명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으로 장구한 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시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며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한것이며 거기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리익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류해방의 숭고한 념원을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으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독창적으로 밝히시며 강철의 의지와 혁명적정열로 인민의 요구와 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신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떠나서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륭성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민족적자주권을 잃고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비로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가시고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조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이처럼 그 어떤 단순한 론리적귀결이 아니라 실지체험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성, 불멸의 업적을 심장으로 체득한데로부터 스스로 간직된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곧 당의 품이다. 당과 수령의 품을 떠나서는 당원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없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혁명가의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높은 당성을 지닌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고 혁명승리의 한길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서의 당성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갖 부정적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타난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원의 당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것을 우리는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의 주인공들인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한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뚜렷이 보게 된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였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것을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전화의 그 어려운 나날에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수류탄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여 전선의 수요를 보장하였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대형양수기를 기어이 만들어내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진 충성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나갔다.

이와 같이 당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높은 당성을 지닌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2)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당성을 지니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한생을 가장 보람있게 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근본요구이다.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보람있게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높은 당성을 지니고 사업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높은 당성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당성단련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성단련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동안 끊임없이 당성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04페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은 비록 붙어있어도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영생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다. 사람은 순간을 살아도 혁명적으로 살고 일생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서야 육체적생명은 없어진다 해도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일수 있다. 일생동안 변함없이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생활신조이다.

당원이 혁명가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리며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자면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성단련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요인이다.

쇠붙이를 오래동안 밖에 내버려두면 녹이 쓸어 못쓰게 되듯이 당원이 당성단련을 게을리하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나중에는 정치적생명에 오점을 남기고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당과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성단련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원이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가의 한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지만 혁명가는 혁명의 길에 가로놓인 준엄한 시련을 뚫고나가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우리 당원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당원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특질을 간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성단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원은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으며 어렵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길에서 언제나 강의한 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에게 있어서 당성을 단련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당성단련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그리고 당생활을 오래한 사람이거나 오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할것없이 누구나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시도 중단할수 없는 과업이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숭고한 사업이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단련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고야말겠다는 높은 혁명적각오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높은 혁명적기풍, 바로 여기에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오늘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정세가 긴장하고 투쟁이 어려워질수록 당성단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철저히 짓부실수 있으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업으로 되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높은 당성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를 두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가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옳바른 관점과 립장, 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질수 있게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할 때만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비롯하여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훌륭히 갖춘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자신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기본은 혁명적수령관을 바로 가지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자만 그들이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오직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인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적수령관을 바로 가져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할수 있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8~469페지)

당조직생활은 정치생활, 혁명활동으로서 그것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조직생활은 무엇보다 당원들속에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준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당원이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성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사상성과 함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당원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정규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관념은 당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이 주는 혁명임무를 끝까지 집행하는 당원의 견결한 립장과 관점이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조직이 주는 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은 당원들의 당성을 검열받고 단련하는 과정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성근하게 받아들이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제때에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고 높은 당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을 제때에 고쳐주어 누구나 다 당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립장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해나가야 한다.

비판에 대한 옳은 립장을 가지고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을 잘하는 당원이 바로 당성이 강하고 조직생활에 충실한 당원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

제나 자기의 부족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머리속에 아직 남아있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없애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해나갈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우와 같은 문헌, 468페지)

당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며 그것은 또한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단련된다.

당원들은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혁명정신을 키울수 있다.

당원은 무엇보다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집행하는 실천활동과정으로 되며 그것은 곧 자신의 당성을 단련하고 검열받는 과정으로 된다.

당원들은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대중과 함께 일하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래야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와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그리고 《월미도》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실효투쟁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당성을 지닌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서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며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간개조리론과 불패의 생활력

백 재 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개조리론을 창시하시여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인간개조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1)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아니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은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부가 풍부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간개조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9페지)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주체사상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간다.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을 떠난 혁명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인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울 때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야 하는것은 인간개조사업이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려운 사업이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경제적처지와 물질생활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처지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이 변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변되는것은 아니다.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하다. 따라서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기초가 없어진 다음에도 낡은 사상잔재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처지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개변하는 사업과는 달리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눈으로 볼수도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개조되였는지 계산해낼수도 없다. 또한 사상의식의 개변정도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며 매 사람이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의 내용도 같지 않다.

이것은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가야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사업에 뒤떨어지지 않게 그것과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인간개조, 사상개조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이 저절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속에서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막아낼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고 인간개조, 사상개조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미리 막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인간개조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 곧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인간개조사업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간개조사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412페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을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과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 높은 문화수준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자질이다. 여기로부터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며 어느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사상론에 기초하시여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이 문제에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로 되는것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이 결정되며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규제되고 조절되기때문이다.

사상개조사업을 선행하여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선진과학기술지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갖추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도록 할수 있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수준,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은 마땅히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개조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간개조의 본질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인간개조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와 인간개조과정의 합법칙성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과업인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는 근본방도가 마련되게 되였다.

인간개조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것은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간개조의 목표를 명백히 밝혀야 인간개조사업에서 뚜렷한 방향을 가질수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옳게 규정하고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개조의 목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의 총적목표는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사람만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라고 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지니고 당과 수령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에 한몸 다 바쳐 싸워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풍모를 지닌것으로 하여 공산

주의자의 빛나는 전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간개조의 목표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이 단순한 도덕교양이나 지적교양으로, 기껏하여 사람들의 풍모와 자질의 이러저러한 개별적측면들에 영향을 주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속에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도록 교양하는 사업이라는것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주체형의 혁명가, 참된 공산주의자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와 자질,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교양이 인간개조에서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하며 여기에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복종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지위, 구체적인 과업들이 과학적으로 명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적조직성은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사람들은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비조직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생활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실

혁투쟁과정에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할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교양을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간개조를 위한 방도들은 우리 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인간개조사업의 본질, 그 목표와 수행방도를 비롯하여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하게 밝히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인류사상사에 이바지한 특출한 공헌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은 우리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사람들을 새로운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풍모, 도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이끌어오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과 함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이끌어주고 계신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있는 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이도록 하심으로써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사명으로 내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 운동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실속있게 밀고나가며 광범한 대중을 이 운동에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2 페지)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되게 된데서 나타나고있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삶의 보람과 영예로,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생활과 투쟁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철저히 극복되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싸워나가고있다. 이 투쟁의 대오속에서 오늘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나오고 그 대열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사상정신적특질로 하고있는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다. 이들은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다 바쳐나가는 참된 공산주의자들이다. 하기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온 사회에 급속히 일반화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이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주체적인 인간개조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지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시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다. 전체 인민이 그 어떤 세찬 풍파와 모진 시련이 닥쳐와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대를 이어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할 확고한 결의에 불타고있다.

참으로 오늘처럼 우리 인민이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힘차게 전진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 위대한 통일과 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더욱 양양한것이다.

우리 인민의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된것은 주체적인 인간개조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있다. 또한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모두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적 열정과 패기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휘됨에 따라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교육과 문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락후성을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탓으로 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존엄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공산주의적인간개조리론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회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공산주의적인간개조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

강 희 원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사업방법을 세우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방향은 전당에 수령이 창조한 사업방법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것이다. 수령이 마련한 혁명적사업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할 때 당건설은 물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다.

우리 당이 혁명투쟁의 전기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수령님식사업방법은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전형이고 집대성이며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전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창조되고 전면적으로 확립된 빛나는 로정이며 이 혁명적사업방법이 구현되여 거창한 사회적변혁과 기적을 이룩한 자랑찬 력사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이 주체의 혈통을 굿굿이 이어나가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이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1)

혁명적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권을 잡기전이나 잡은 다음에나 또한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언제나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혁명적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을 힘있게 령도할수 있다. 당이 혁명적사업방법을 세우지 못하고 낡은 사업방법을 그대로 남겨두면 점차 인민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며 그들과 리탈되여 나중에는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특히 정권을 잡은 다음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충분히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집권당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와 행정화의 경향을 막을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창조하고 완성시키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오랜 행정에서 주체의 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사업방법의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 공헌하신 위대한 업적의 하나이다.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그 창시와 확립의 력사적경위로 보아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위대한 사업방법이며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령도사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되고 끊임없이 개선완성되여나가는 우리 당 사업방법발전의 합법칙성은 그것이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와 밀착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과정에 대중령도의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시고 혁명적령도예술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과정은 곧 혁명적사업방법의 확립과정이며 그 위력의 발현과정이다. 따라서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대성은 그것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성, 수령님의 령도사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50여성상에 걸치는 빛나는 령도사는 무엇보다도 주체의 사업방법이 창시되고 완성되여온 자랑찬 행로이다.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 시대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주체사상이 구현되여온 주체의 령도사이며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주체사상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에 관통되여있는 이 근본특징으로 하여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빛난다.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위대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12페지)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선 우리 시대 혁명적사업방법으로서의 본질적특징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대중을 옳게 령도하여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줄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그들자신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여기에 주체의 사업방법으로서의 수령님식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오신 전력사적기간에 주

체의 사업방법으로서의 우리 당 사업방법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됨으로써 지난날의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위대한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령도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령도사는 또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모든 혁명단계에서 제기되는 대중령도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완성된 사업방법을 마련한 빛나는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에는 수령님께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쌓으신 대중령도의 귀중한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 위대한 령도사와 밀착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가장 포괄적이며 다방면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완성된 사업방법으로 된다.

사업방법은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활동방식과 관련되여있는것만큼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자면 대중령도의 풍부한 경험이 마련되여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서 쌓은 경험들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182페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혁명발전의 어느 한 단계의 대중령도경험에만 의거한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지하혁명활동과 무장투쟁, 당 및 국가 사업과 군사사업,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마련된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력사적뿌리가 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적사업방법의 본보기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그를 혁명대오안에서 훌륭히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사업방법의 원형,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혁명적사업방법은 객관적현실이 발전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끊임없이 구체화되고 심화되여야 한다. 사업방법은 발전하는 현실과 변화되는 환경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 때에만 참으로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놀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경제관계,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필연적으로 그에 적응하게 당 및 국가 사업과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혁명실천이 제기한 이 중대한 문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청산리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일관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혁명적사업방법이며 여기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당사업방법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더 완성되여나가고있다. 당사업전반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재래식사업방법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혁명

적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그 력사적뿌리가 내리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과정에 발전풍부화되고 완성되였다. 따라서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력사적연원은 매우 깊으며 여기에는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령도예술이 집대성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령도사는 또한 인민의 힘을 믿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혁명적사업방법을 낳게 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고 혁명활동을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에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목적과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은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 빛나게 구현되여있으며 혁명적군중로선은 당사업방법에 일관된 근본원칙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력과 인민적풍모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한 사업방법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힘을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할수 있었으며 그 길에서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망과 절절한 념원을 가장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야말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혁명적령도예술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령도사와 밀접히 결합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하고 숭고한것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은 혁명적령도예술의 모든 내용을 집대성하고있는 백과전서적인 사업방법이다.

사업방법의 위력은 그 혁명적성격, 사상적높이와 함께 거기에 포괄되는 내용의 다면성과 풍부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 적용되고 검증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사업방법만이 대중령도의 위력한 방법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대중지도원칙과 구체적방법론, 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업작풍들이 전면적으로 포괄되여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여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 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혁명적사업방법의 모든 내용들은 대

중령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밝혀준다. 이 원칙들은 주체의 사업방법으로서의 수령님식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정당한 대중지도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실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중을 도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방법이 참답게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되자면 대중지도사업의 전과정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 의하여 확립된 대중지도원칙을 튼튼히 견지할 때 로동계급의 당은 집권당안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의 경향을 제때에 극복할수 있으며 당사업의 실무화를 철저히 막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대중지도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론도 밝혀준다.

구체적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사업방법을 혁명실천활동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방법론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과 방도들을 세울수 없으며 대중지도원칙을 혁명실천에서 구체화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일군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 사업을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리며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심화시키는 방법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 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지도에서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옳게 보장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작풍에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사업기풍과 일군들이 지녀야 할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이 집대성되여있다. 수령님식사업방법에 구현된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할 때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지고 참다운 인민의 충복답게 훌륭히 일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모든 혁명발전단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다같이 적용되는 대중지도원칙과 매개 분야, 매개 단위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 맞는 구체적 방법론,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인민적사업작풍들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백과전서적인 대중지도방법으로, 혁명적령도예술의 전형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업방법의 원칙과 요구들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세련된 령도예술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령도예술의 위력은 혁명실천과정에서 발휘되며 따라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은을 나타내지 못하는 령도예술은 참다운 령도예술이라

고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활동과정에 령도예술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힘에 의거하여 대중을 혁명승리의 길로 확고히 이끌어나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우리 시대 혁명적령도예술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 위력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장구한 령도사는 혁명적령도예술의 모범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세우며 모든 문제들을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생동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며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계승하여오는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70페지)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대중에게서 커다란 힘을 얻으시여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견지하여오신 일관한 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선생이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온 나라 인민들의 념원을 헤아리시며 그것을 정책화해나가신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바라고 그들이 좋다고 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방침으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위훈과 기적에로 불러일으키는 강위력한 무기로,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는것이다.

락원의 한 녀성당원의 신념에 찬 목소리에서, 태성의 한 농촌할머니의 소박한 말에서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얻으시고 혁명의 시련을 용감히 뚫고나갈 결심을 지니시였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이것은 바로 어려운 시련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과의 뉴대를 얼마나 튼튼히 가지시였는가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난국이 조성될 때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의논하고 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엄혹한 시련을 극복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이다.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의 어려운 과업들을 전격적으로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력과 탁월한 조직적수완은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혁명의 요구, 당의 결심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당은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전후 우리 인민은 재더미를 헤치고 불사조와 같이 일떠서 원쑤들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는 일어설수 없다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예술이 가져온 결실이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

적기개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령도예술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위력한 방법은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을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라고 밝히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청산리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령도예술의 참다운 전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청산리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계획작성으로부터 영농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정치사업을 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농촌경리운영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는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과 국가 사업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 농촌마을에 내려가시여 몸소 농촌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심으로써 지난날 보잘것 없었던 청산리가 오늘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단위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세련된 령도예술의 실천적모범을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에는 탁월한 령도예술의 산 모범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력사는 오가자와 고유수의 새벽길을 걸으시던 그날로부터 불비를 헤치시며 화선의 전사들을 찾으시던 전쟁의 준엄한 나날을 거쳐 청산리의 논두렁과 대안의 공장길, 안개짙은 부두가와 벌목장의 숫눈길우에서 새날을 맞으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걸고 걸으신 수백수천만리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으로 이어져있다.

언제나 우리 혁명의 진두에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며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는 등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령도예술의 수많은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이 혁명적령도예술의 위력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그들의 열의와 기세가 힘차게 타번지게 하여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무비의 위력이다.

실로 혁명적령도예술의 확립, 이것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을 발동하여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령도적풍모의 고귀한 결실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마련된것으로 하여 끝없이 풍부하고 고귀한것이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

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안에는 수령님식사업방법밖에 다른 사업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은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때 당사업과 당활동을 당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정확히 조직전개하여나갈수 있으며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기본방도로 제기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우러러흠모하며 따라배우는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답게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본받아 일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을 확고히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독창적인 당사업리론, 당사업방법론이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을 깊이 체득하여야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수 있으며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령도사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에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과 령도예술이 담겨져있으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이 력사적으로 총화되여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령도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것은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워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서 군중과 함께 숨쉬고 일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야 실정에 맞게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옳게 조직지도할수 있다.

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함께 살며 일하면서 그들과 의논하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 중간단위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생산자대중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야 하며 생산자들속에 몸을 푹 잠그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예비도 찾아내고 걸린 고리도 풀어주며 그들의 요구와 애로도 제때에 해결해주어야 한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주체의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령도적권위를 높여나가는 책임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대로만 사업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당이 관료화, 행정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령도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을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어머니당으로,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대중의 기수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세움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신념

리 용 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가슴속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반세기가 넘는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확고히 자리잡은 이 혁명적신념은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성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튼튼히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적신념은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아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412페지)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신념이다.

신념은 옳다고 생각하는것을 확고하게 믿는 마음이며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려는 각오와 결심, 의지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혁명적인 신념은 맹목적인 믿음, 종교적인 신앙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인식되고 실천을 통하여 체득된 사상, 견해에 대한 확신이며 그것을 구현하려는 지향과 결의, 지조가 안받침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혁명적신념은 일시적흥분이나 격정에 의하여 생기는것이 아니라 혁명적세계관의 필연적인 반영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생활과정에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며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이 서게 된다. 혁명적신념은 이러한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것이기때문에 한번 선택한 혁명의 길에서 인생을 동요없이 억세게 걸어나갈수 있는 마음의 기둥을 세워준다.

혁명적신념은 혁명가의 다른 모든 사상정신적풍모를 규정하는 근본바탕이다.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에는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등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상정신적품성은 혁명적신념을 간직할 때에라야 높이 발휘될수 있다. 사람들은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혁명적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지닐수 있으며 공산주의자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원만히 갖출수 있다.

혁명적신념은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

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다.

혁명적신념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적인 품성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가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징표로 되기때문이다.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징은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있는데 있다. 공산주의자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한몸바쳐싸울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한번 다진 충성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며 한번 택한 혁명의 길에서 추호의 드팀도 사소한 동요도 없이 꿋꿋이 싸워나가게 하는 혁명적신념을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로 간직하게 된다.

육체적생명은 희생시킬지언정 혁명적신념만은 변치않는 여기에 참된 혁명가의 가치가 있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이 있다.

대세와 추세에 따라 쉽게 변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흔들리며 난관과 시련 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며 일신의 안락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조를 더럽히는 신념이 없는 인간은 안팎이 다른 가짜혁명가, 혁명의 변절자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적신념이 참된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적인 품성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으로 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에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고난과 애로를 과감하게 뚫고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확고한 혁명적신념이 있어야 한다. 혁명적신념을 지닌 사람만이 비관과 실망, 동요와 변질을 모르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영원히 고수할수 있다.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혁명적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고 혁명에 충실하였지만 혁명적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혁명의 배신자로, 변절자로 전락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로 혁명적신념은 참다운 혁명가의 가치를 결정하며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 *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는 혁명적신념이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며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의 감정이며 당과 수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철석같은 의지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의 운명, 인민대중의 운명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있다는것을 확고하게 믿고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생활신조로 간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신념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신념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몸바쳐나선 혁명가들은 마땅히 수령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 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혁명적신념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닐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드는것을 절대화하는 혁명적신념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상감정이며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려는 굳은 각오와 지조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는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하나의 숨결, 하나의 맥박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통일되고 단결된 강철의 대오로 되게 하며 혁명가들의 한생을 주체의 혁명위업,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바쳐지는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변하며 고결하고 순결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은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변한것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83～84페지)

혁명적신념이 확고부동하다는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말한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는 여기에 혁명적신념의 공고성이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혁명이 쓰라린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을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오직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만을 간직하고있는 신념이다.

조선혁명은 결코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 이 길에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도 있었으며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안고 교수대와 철창속에서도 원쑤들의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에 다진 맹세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갔다.

간고하고도 복잡한 조선혁명의 로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고귀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심이 가져온 자랑찬 열매이다.

혁명적신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것이다.

시간이 가고 세대가 바뀌는데 따라 달라지는것은 혁명적신념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확신성있게 전진하게 되는 비결의 하나가 다름아닌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지닌 혁명적신념의 영원불변성에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영

원히 변질을 모르고 변색을 모르며 대를 이어 계승되고 더욱 굳세여지는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간직되였던 혁명적신념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항일유격대원들에 의하여 공고화되고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과 오늘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에 의하여 고스란히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또한 한없이 고결하고 순결한것이다.

신념의 고결함은 신념의 높이를 보여주며 신념의 순결함은 신념의 진실성을 표현한다. 혁명적신념이 어떤 높이에 이르고있으며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것은 그의 공고성과 함께 그 생활력을 담보하는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혁명적신념이 숭고하고 진실할수록 혁명가들이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수 있으며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값있게 빛내여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고결한 혁명적량심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순결성으로 특징지어진다. 혁명적신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온 생애를 바쳐나가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순결하고 진실한 사상정신세계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그처럼 값높고 숭고한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실천투쟁행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확고한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감정에 기초하고 있다.

혁명적신념은 사람들의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활동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형성된 혁명적인 사상관점과 립장, 량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상한 품성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옳게 인식하여야 수령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질수 있으며 수령을 믿고 따르려는 혁명적각오를 높일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바로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진리로 확신한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현명한 수령을 모시지 않고서는 살수도 혁명할수도 없으며 참다운 행복,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는 확고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을 숭고한 혁명적의무로 간직하였으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려는 충성의 맹세를 안고 굴함없이 싸워왔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체험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고 따르자면 수령의 위대성을 력사적으로 깊이 체험하여야 한다.

생활과 투쟁과정을 통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할 때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 자각적인것으로, 확고부동한 것으로 될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지난날 진정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실패와 우여곡절만을 겪던 조선혁명의 쓰라린 진통과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심으로써 승승장구하게 된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력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맞이하던 첫시기에 벌써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가실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령도수완, 고결한 인품과 숭고한 덕성을 가슴뜨겁게 느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였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향도성으로,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각오와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에게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조국과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매일매시각마다 가슴벅차게 체험하고있으며 수령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결합되여있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적의리와 결합될 때 더욱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것은 혁명적의리와 결합되여야 혁명적신념이 도덕적인 자각과 혁명적인 량심으로 안받침되고 어길수 없는 마땅한 도리로 철저히 고수되기때문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는 가장 긍지높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를 키워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덕을 항상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어버이로 칭송하며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가는것을 응당한 도덕적의무로, 드팀없는 생활신조로 삼고있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의리를 천금보다 귀중히 여기며 목숨을 바칠지언정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풍모로 되고있다.

참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혁명적신념이다.

수령을 높이 모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참다운 혁명적신념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고 완성되여나가는 혁명의 전력사적과정에서 준엄한 계급투쟁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진다. 그러므로 수령을 높이 모시는 혁명가들의 신념도 혁명발전의 어느 한 단계나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여서는 안되며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구애되지 않고 오직 한마음 수령을 믿고 따르며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혁명적신념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항일혁명선렬들이 간직하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 혁명적신념은 1920년대의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거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다그치고있는 1980년대의 오늘 변함없이 계승되고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위대한 기적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여올수 있었으며 앞으로 그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

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확신성있게 완성해나갈수 있는것이다.

* *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가 바뀌여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도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확고히 간직하고 살며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할 때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혁명적신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엄혹한 시련에 부닥친다고 해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닥칠 때도 많을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을것이며 동요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을 믿고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97페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받들고 관철해나가야 한다는 자세와 립장이다. 수령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관점,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수령을 높이 모시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진리를 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통하여 깊이있게 체득함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신조로 삼고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은덕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충실성을 신념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자기 수령, 자기 당이 위대하고 당과 수령이 베푸는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끼지 못한다면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진실한 사상감정을 가질수 없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은덕을 체득하고 뜨겁게 느끼면 느낄수록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한생을 충성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갈수 있으며 충실성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충실성의 산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생활과 투쟁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생동한 모범을 거울로 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그 사상정신적높이에 이르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 감화력은 실로 크다. 그런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구체적인 표상과 열정을 가지고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다질수 있다.

우리 당은 충실성의 산 모범을 따라배우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구감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따라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수령님께 모든 충성을 다하였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고결한 혁명적신념, 충실성의 산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충실성의 전통이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데서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승되게 하여야 한다.

충실성의 산 모범을 따라배우는데서 오늘 우리 당은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의 주인공들의 숭고한 모범을 내세우고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당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으며 당의 로선을 옹호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영화주인공들의 형상은 참된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 숭고한 화폭이다. 그러므로 영화의 주인공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 그들의 대사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발현되는 충성심을 본받을 때 우리는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혁명적신념을 깊이 소유할수 있다.

혁명적신념을 간직하는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꾸준한 학습을 통한 의식적인 수양,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한 사상의지적인 단련이 없이는 혁명적신념을 지닐수 없으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살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모든 사고와 실천을 여기에 철저히 복종시켜야 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키우며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며 그앞에는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우리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조국애의 사상정신적원천

윤 치 호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다. 매 개인의 생활, 그들의 참된 삶의 보람은 조국과 잇닿아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영예와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한몸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풍모로 된다.

(1)

조국애는 사람들이 력사적으로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 뿌리깊은 사상감정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과정에 조국이 없이는 참다운 삶도 행복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곳이라야 한다. 비록 나서자라기는 하였지만 참된 삶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나 고향은 조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은 있었지만 그것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기고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우리 인민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 인민은 한시도 살수 없고 행복할수 없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애국주의는 자본가, 지주를 위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동자, 농민과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키는 애국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95～96폐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애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만이 인민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조국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높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이 결합되여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애는 바로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이 있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국방력이 튼튼히 마련되여있는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인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그 품에 의탁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핵으로 하여 높이 발양되고있는데 있다.

조국애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결합되고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길에 바쳐질 때 가장 고상한것으로 된다. 그것은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흥망이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에 달려있기때문이다.

수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근본리익을 체현하고있는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조국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끝없는 륭성번영에로 이끄는 최고령도자이다.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참다운 조국이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만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조국은 수령과 련결되여있으며 조국애는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수령을 떠나서는 진정한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참다운 조국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태여나고 발전하여온 로정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위대한 변혁의 력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나라를 빼앗겨 천대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되고 우리 조국이 두차례의 심각한 사회혁명과 가렬한 전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 인민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만이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이 하나의 신념을 안고 살며 싸워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여기에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으로 일관되고있는데 있다.

조국애는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정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인민대중은 나라의 주인이며 조국은 그들의 보람찬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행복하게 살며 마음껏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조국애는 바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헌신적복무의 정신에서 높이 발양되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사랑할줄 모르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참다운 조국애를 지니였다고 말할수 없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

다.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 말건 성실히 일하며 한몸을 바쳐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 참말로 애국심이 높고 조국앞에 충실한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가 현실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지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공산주의적미풍들이 계속 꽃펴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숭고한 조국애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자기 나라의 오랜 력사와 민족문화, 정든 고향과 부모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굳게 결합된 고상한 사상감정이라는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나라, 제고장에서 혈육들과 더불어 자기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오는것만큼 조국애는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 정든 고향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국애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며 매일매시각의 사업과 생활에서 표현되게 된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는 바로 민족의 우수한 모든것들과 사랑하는 고향산천, 부모형제들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고향과 부모형제, 친척친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하여 자기 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면서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는 이처럼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고향산천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되여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숭고한 조국애를 가지고있기에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싸우며 그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는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와의 준엄한 싸움마당에서 추호의 동요와 굴함을 모르고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다 바쳐 조국의 촌토를 끝까지 지켜낸 월미도방위자들의 영웅적투쟁,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서슴없이 바쳐싸운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은 우리 인민이 지닌 참다운 조국애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조국은 이렇듯 숭고하고 열렬한 애국정신을 지닌 우리 인민에 의하여 떠받들리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하고 영원토록 륭성번영하게 되는것이다.

(2)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는 깊고도 억센 사상정신적원천을 가지고있는 숭고한 감정이다.

우리 인민이 간직하고있는 조국애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그 사상정신적원천을 두고있다.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은 혁명적의리에 기초할 때에만이 공고하고 강렬한것으로 될수 있다.

애국적감정을 가지는데는 조국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향토를 가꾸어온 선조들에 대한 의리,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들에 대한 의리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

한것은 참다운 조국을 세워주고 참된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수령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려는 혁명적의리이다. 이런 숭고한 혁명적의리만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인민대중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덕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참다운 조국을 세워주고 그것을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워주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참말로 위대하고 은정깊은 사랑으로 된다. 인민대중은 생활을 통하여 조국의 귀중함을 체득하게 되며 수령이 마련해준 고마운 조국을 부강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애는 바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열렬하고 고상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다 바치시며 우리 인민의 처지를 한없이 높은 경지에 끌어올려주신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망국노의 설움속에 살아왔다. 일제침략자들의 통치밑에서 인민들은 아무러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였으며 나라의 귀중한 자원은 놈들에게 마구 략탈당하였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그때 우리 인민이 절절히 바라던 념원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참다운 조국을 가지고 그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사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겹쌓이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소 타개하시며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였으며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덕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오직 한마음으로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의 사상정신적원천은 또한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의식수준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 기풍이 수립되였습니다.》

진정한 조국애는 그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압제자들에게 얽매이게 되는 착취사회에서는 인민에게 진정한 조국이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스스로 흘러나올수 없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야 조국은 비로소 인민의 진정한 조국으로 될수 있으며

조국의 운명은 인민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되고 조국에 대한 인민대중의 사랑은 참말로 뜨겁고도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주권과 모든 귀중한 재부들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손에 쥐여져있고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활동은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으로 일관되고있다.

지난날 인간사회의 밑바닥에서 버림받던 우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주권을 행사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는 바로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비할바없이 숭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조국을 위한 일인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조국의 륭성번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있으며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10년이건, 20년이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성실히 일하며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성은 나라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진 인민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참다운 조국애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은 또한 열렬한 조국애를 낳는 중요한 사상적원천으로 된다.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은 자기 민족의 존엄과 지위에 대한 떳떳한 자랑이며 자기 민족의 불패의 힘을 확신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열렬한가 하는것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인민대중은 민족의 존엄과 가치와 힘을 확신하고 높은 공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에만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며 이러한 사상감정에 기초하고있을 때에만 참다운 조국애를 지닐수 있다.

우리 인민은 높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가진 위대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이다.

높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은 바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만이 지니게 되는 기쁨이며 자랑이다.

조국과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자부심과 공지는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조국애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인민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게 될 그때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승리할수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 영예를 힘있게 떨칠수 있다.

지난날 남에게 억눌리우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존엄과 영예,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크나큰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잇닿아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서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더욱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품속에서 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고있는것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현재를 떳떳하게 생각할뿐아니라 미래를 확신할 때 더욱 강렬한것으로 된다.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민족은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수 없다.

우리 당은 주체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기를 주름잡아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당이며 우리 인민모두를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하고 우리 인민은 휘황한 미래를 락관하는 가장 긍지높고 자부심이 강한 인민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조국앞에 떳떳이 바치며 이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는것이다.

이처럼 숭고한 조국애의 정신을 가지고있는 위대한 인민을 정복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희망에 넘쳐 살며 혁명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애국적열정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그 어떤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견결히 옹호보위될것이며 우리의 조국은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리 몽 호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이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 인민들은 한결같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 싸우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이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나온 사상으로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자기들이 바라던 참다운 시대사상으로 받아들이고있으며 주체사상에서 투쟁의 진로를 찾고있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보급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그것은 개별적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판도에서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이러한 과정에 1978년 4월 일본도쿄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으며 그때로부터 국제적규모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은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다섯해동안에 있은 모든 사실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기치라는것을 더욱 확증하여주고있다.

* *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방도를 가르쳐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72페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승리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밝혀줌으로써 혁명적인민들에게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다.

주체사상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과학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원리를 밝혔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객관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며 발전한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하여나가는 과정, 다시말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람의 운명문제를 옳바로 해명하자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부터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혔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있다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이 사람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세계관의 모든 문제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나갈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원리를 정식화함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는 사람이며 사람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있다. 객관세계에 의하여 사람이 개조되고 지배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지배하면서 사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범위와 심도가 끊임없이 확대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한 것은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환이며 바로 여기에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때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5페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일정한 합법칙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러한 합법칙성을 옳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준다.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적특징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것이다. 사회적운동도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며 사회적운동에도 물질적운동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주체의 작용과 역할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회적운동도 일어나지 못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사회적운동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어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추동된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자연과 사회, 사상과 문화와의 관계에서 실현되게 된다.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을 청산하고 그것들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따라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기본형태이며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

주체사상은 또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장성하고 창조적힘이 강화되는데 따라 심화발전되는것이 합법칙적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이 투쟁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은 인민대중이다.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인민이 있고 그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예속과 구속이 있는 모든곳에서는 반드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끊임없이 장성한다. 인민대중은 일정한 수준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면 보다 높은 새로운 요구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간다. 자주적인 요구가 끊임없이 장성하는데 따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부단히 심화발전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온갖 예속과 구속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게 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추동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투쟁이며 여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자신의 창조적힘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강화되면 그만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이 확대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더욱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역할이 강화되는데 따라 자주적요구가 실현되고 인민대중의 지위가 높아지며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자주적요구가 제기되고 창조적 투쟁으로 그것을 실현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한다. 다시말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장성하고 그에 따라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발전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고있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생활집단이다. 오늘과 같이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는 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단위, 운명개척의 단위는 나라와 민족이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것만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된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에 떨어지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없으면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실현될수 없게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그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여나가는 여기에 매개 나라의 범위에서나 세계적규모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밝혀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전개하고 해명할수 있

는 옳바른 기초를 마련하여주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관한 리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리론으로 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비상히 높여주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지켜야 할 지도적원칙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나가자면 옳바른 원칙과 방도를 알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옳바른 원칙과 방도에 의거해야 인민대중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아무런 우여곡절도 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옳은 립장과 방법을 가지는것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이 지켜야 할 근본립장은 자주적립장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그 목적에 있어서뿐아니라 성격에 있어서도 자주적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철저하게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이 주인된 지위를 지키고 자주적으로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행동원칙이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독자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인민대중은 남의 품에 놓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것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하는 독자성의 원칙을 지킬 때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인민대중에게는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면 남의 힘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은 창조적립장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철저하게 창조적성격을 띤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적투쟁으로 새로운 물질문화적재부를 만들고 새 제도를 세우며 자주성을 실현해나간다.

창조적립장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할것을 요구한다. 창조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그들의 창조적힘을 동원하여야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변혁적과제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옳게 발동하자면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며 옳은 대중동원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대중이 발동된 다음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구체적환경속에서 진행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 일률적으로 들어맞는 행동원칙이나 고정불변한 행동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창조적립장은 온갖 도식과 교조를 배격하며 구체적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그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며 이 운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사람의 활동은 사람자신의 일정한 요구와 힘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동되며 일정한 대상을 가지고 구체적인 조건에서 진행된다.

의식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 모든 주객관적요인들을 반영하고 조절함으로써 사람의 행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통제한다. 특히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인간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행동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고 그들의 의지와 투쟁력이 규제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절통제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온갖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는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절대적인 담보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되는것이다.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단결할 때 인민대중은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시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결국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결정적역할은 곧 사상의식의 역할이며 따라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업에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지도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멀리 전진하여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운동에 대한 지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다.

령도의 유일중심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 지혜와 의지를 대표하고 옳바른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며 대중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옳바로 이끌어나가는 최고뇌수이며 심장이다.

수령과 수령의 사상을 실현해나가는 당의 옳은 조직사상적, 전략전술적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한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수령을 령도수위에 높이 모시고 수령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과 지도적원칙을 포괄하는 완성된 구성체계와 내용을 가진 우리 시대 혁명투쟁의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 *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기치로서의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그것이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서 확증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

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2페지)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널리 연구보급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 《인민대중을 자주의 한길로 이끄는 시대의 지도사상》,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백전백승의 무기》로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성원인 일본의 이름있는 교수는 주체사상을 학습하고나서 《주체사상이야말로 전인류의 운명을 구원해주는 위대한 사상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구라파의 한 교수는 《주체사상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해방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라고 힘주어말하였다.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처럼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널리 조직전개하고있다.

주체사상을 연구학습하는 사업이 활발해지고 주체사상과 관련한 출판물들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는데 따라 수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책들이 대대적으로 번역출판되고있으며 이 사업은 날로 확대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50여개의 민족어로 번역출판되였으며 그 수는 무려 수십억부에 이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세계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고전적문헌》,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최고의 철학저서》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발표된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론문은 수많은 나라에서 신문, 통신, 방송으로 보도되였고 많은 나라들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여 널리 보급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혁명의 참다운 진리를 깨우쳐주는 귀중한 혁명의 량식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혁명적인민들의 열망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들에는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수많이 조직되고 그 대렬이 확대발전하고있다.

1960년대말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은 오늘 세계 여러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 확대되였으며 여기에는 정계와 학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로부터 로동자, 농민에 이르기까지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이 광범히 망라되여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들이 국가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널리 진행되고있는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해마다 많은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전국토론회를 진행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들이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1971년 레바논에서 국제적규모의 연구토론회로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토론회》가 있은후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절절한 소망과 념원을 반영하여 대륙적 및 세계적 범위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련

이어 진행되였으며 그 규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들이 얼마나 성대히 진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은 198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107개 나라와 5개 국제기구에서 온 132개의 대표단이 참가한 사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 건설에 구현되고있다.

주체사상은 큰 나라, 발전된 나라에서의 혁명의 성과에 의거해서만 매개 나라 인민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벌릴수 있다고 보던 낡은 관념을 극복하고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인민들은 주체사상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고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온갖 형태의 예속과 압박을 반대하고 자주의 한길을 따라 나가는것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적인 움직임이며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는 강력한것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매개 나라와 민족들 사이, 당과 국가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국제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성의 원칙은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담보하며 공산당, 로동당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더욱더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또한 신흥세력나라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도 국제관계발전의 공인된 원칙으로 되고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나라들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을 강화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세계적범위에서 자주력량은 더욱더 강화되고있는 반면에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은 날로 고립약화되고있으며 놈들은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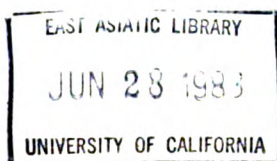
모든 사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불멸의 기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혁명적인민들의 성스러운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4호(루계 492호)

편 집 위 원 회

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4월 1일 발 행•1983년 4월 5일

ㄱ—3567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493)

차 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 정 일

국제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며 과학적공산주의학설의 창시자인 칼 맑스가 생존하여 활동하던 때로부터 한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칼 맑스는 인류해방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맑스의 이름은 오늘도 모든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귀중히 간직되여있다.

맑스의 한생은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였다. 맑스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진보적인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친 맑스의 빛나는 생애와 크나큰 공헌을 영원히 추억할것이다.

맑스가 인류앞에 세운 가장 큰 공적은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에게 해방투쟁의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준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나온다.

19세기전반기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은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게 되였다.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은 그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 사상과 리론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은 맑스가 엥겔스와 함께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리해관계를 반영한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해결되였다.

맑스는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사회주의학설을 비롯한 당대의 선진적사상리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의 원리를 밝히고 잉여가치학설을 내놓았으며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고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시켰다.

맑스의 탁월한 공적에 의하여 로동계급은 비로소 자기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발전의 법칙을 파악하게 되였으며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고 광명한 새 사회를 건설하는 앞길을 내다보게 되였다.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야말로 자본의 지배를 청산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새로운 공산주의사회를 창조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라는것을 밝히고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주의사상은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맑스주의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맑스주의가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자유와 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새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맑스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려명기에 로동계급과 피착취근로인민대중에게 해방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었을뿐아니라 직접 혁명투쟁에 참가하여 그 앞길을 개척하였다.

맑스는 과학적사회주의를 로동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로동계급의 해방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맑스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그 전위부대를 내와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당건설에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맑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을 내오고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선언》을 작성하여 세상에 발표함으로써 로동계급이 과학적인 강령을 가지고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투쟁해나가는 공산주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맑스에 의하여 제1국제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은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갖 계급적원수들과의 첨예한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

여왔다. 부르죠아지들과 그 사환군들은 처음부터 맑스주의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맑스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부르죠아반동들,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호하고 그 승리의 길을 열어나갔다.

맑스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력사는 멀리 전진하였으며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맑스의 학설은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구현되여왔으며 맑스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맑스의 위업을 계승한 레닌은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 시기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았다. 레닌주의에 의하여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하고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탄생하였다. 맑스가 창시하고 레닌이 발전시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는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인민대중의 해방위업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 새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 수행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환이며 여러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 혁명적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력사적승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그 개척기에 벌써 맑스의 활동을 통하여 이 귀중한 진리를 확증하였다. 만일 로동계급의 첫 수령인 맑스가 맑스주의를 국제로동계급에게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속에서 헤매였을것이며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가지 못하였을것이다. 또한 레닌이 제국주의시기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리론과 전략전술인 레닌주의를 내놓고 로씨야로동계급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도 출현할수 없었을것이다.

공산주의운동의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서광을 비쳐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에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승리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시였다.

혁명운동은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다양한 구체적현실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매개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시대적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

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하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혁명리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자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따라서 혁명운동은 자주적립장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자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운동이며 따라서 혁명운동은 창조적립장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이 창조력을 높이 발양하고 현실에 맞는 방도를 찾아내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자면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따라서 혁명운동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하여야 혁명을 빨리 성숙시키고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이자면 모든 사업에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은 공산주의운동의 원리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

공산주의운동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벌려나가는 운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본성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오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주체적립장을 지켜야 할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나선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나라 혁명을 주체적립장에 서서 잘해나가면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힌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창조적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의 본성에도 맞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적용해나가야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새로운 혁명리론을 창조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 리론, 방법은 모두 주체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구현한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

주체사상은 반세기가 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혁명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주체사상에는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발전풍부화되고 새롭게 제시된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나아갈 때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으며 시대와 혁명발전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력사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아무러한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림으로써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해나감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

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그에 의거하여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구현함으로써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다.

맑스에 의하여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이 창시된 때로부터 인류는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굽힘없는 투쟁을 벌려왔으며 오늘에 와서 공산주의는 먼 앞날의 숙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력사의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해결함으로써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혔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며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래야 맑스가 일찌기 내놓은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회의 주인인것만큼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육교양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공산주의사회를 옳게 운영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은 사회생활의 2대 분야를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두 분야에서 다같이 실현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반드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계급적대립은 청산되지만 계급적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는 친선적인 두 기본계급인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인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차이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또한 로동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로동이 영예로운것으로 되지만 아직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 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차이는 주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에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종국적으로 청산되지만 사회성원들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이러한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로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은 그 본질적특징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성격이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그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하고 이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며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 등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는 옳은 정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만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홀시하고 공산주의적성격만 보거나 반대로 공산주의적성격을 홀시하고 과도적성격만 보고 정책을 세운다면 좌우경적오유를 범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다. 낡은 착취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과 그에 따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로동의 차이,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경제문화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고 밖으로부터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해들어올수 있으며 생활이 높아져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람들속에서 혁명하려는 열의가 점차 식어질수 있다. 사상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사상혁명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지왔다.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자면 사상혁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사상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기본과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교양개조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을 강화하고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인민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도,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기술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자면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와 생산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기술을 개조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며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우리의 인민경제를 고도로 과학화된 경제로 전변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의 옳바른 민족간부육성방침에 의하여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120만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떠밀어나가는 이 위력한 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기술혁명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떠한 문제도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생산과 건설에서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반적경제형편은 매우 좋으며 우리앞에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져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결심하고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을 받들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수행해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자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면서 인민소비품생산과 인민봉사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문화혁명은 우리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하며 그들의 날로 높아가는 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 당은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완전한 중등교육을 받고있으며 민족간부양성사업이 발전되여 인테리의 대군이 자라났다.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과학기술과 문학예술,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현시기 문화혁명의 중심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해나가는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방침이다. 우리는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며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 관한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정권을 쥔 로동계급이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체계와 령도방법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체계에서 향도적력량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사업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적으로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자주성의 원칙에서 당조직들을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해방후 집권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자주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의 요구로부터 대중적당건설방침을 내놓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받아들여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였으며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자기의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우리는 특히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졌으며 우리 당을 전당이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강철같은 혁명적당,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전투적인 당을 건설하여놓은데 대하여 우리는 응당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옳바로 움직여나가자면 당과 같은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영원히 그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당의 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당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 그들의 당성을 더욱 단련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실현하는것은 당의 중요한 임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정치적령도기관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는 전행정에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옳게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당조직들

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한편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들을 무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함으로써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이 힘을 합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3대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며 그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집권당에 있어서 당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는 높은 발전수준에 올라섰으며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그 무기인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국가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면서 국가주권문제를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인민정권을 창조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새로운 형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한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그 기치밑에 로동계급뿐아니라 더욱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집결시켜왔으며 우리 시대에 와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운동에 참가하게 되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었거나 또는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농민, 근로인테리 및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혁명에 참가할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접수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회정치적지반이 비할바없이 확대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인민정권형태를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에서 구현하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에 따라 해방후 지체없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오늘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인민정권이 각계각층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옹호자로서, 조국과 혁명의 보위자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인민정권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각급 인민위원회들과 국가경제기관들을 당에 충실하고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있는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잘하는것은 국가경제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관리운영될수 있으며 빨리 발전할수 있다.

국가경제기관들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경제관리형태이다. 국가경제기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틀어쥐고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과 생산장성의 빠른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개되여온 우리 혁명의 위대한 창조물이며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혁명정권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속에서 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인민정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것이다.

근로단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

파단체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단체들이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당과 각계각층 군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하고 단련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매개 혁명단계에서 근로단체들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규정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근로단체들을 개편하고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근로단체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사로청사업을 강화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청년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의 위력한 력량이며 혁명의 계승자들인것만큼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돌격대적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이 청년사업, 사로청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은 결과 우리 나라 청년들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그들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으며 조국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혁명적이고 조직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비롯한 모든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은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령도방법을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령도방법의 기본요구는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

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군중을 옳게 조직하고 발동하는것은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일군들은 마땅히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속에서 배우며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자면 그들속에서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집권당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쥐면 일부 일군들속에서 권력을 리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이 나올수 있으며 이것은 당정책의 관철을 방해하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우리 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특히 우리 당은 당일군들과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령도사를 깊이 체득하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참다운 일군으로, 대중에게 의거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의 능숙한 지휘성원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근 40년에 걸치는 미제의 강점과 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은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된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재난과 참화를 강요당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저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널리 부식시켰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일수 있으며 그들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갈것이다.

맑스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는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오래동안 전개되여온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으며 더욱더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인류력사에서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여 그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였으며 피압박인민대중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에 매여달리면서 보다 은폐되고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략탈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를 구원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고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혹하게 탄압할뿐아니라 《반공》의 간판밑에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 행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지배와 략탈이 없어질수 없으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이 존재하는 한 그를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제반미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는 문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도,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생각할수 없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반제적립장을 견지하고 국제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면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오늘도 반제투쟁을 비롯한

공동의 과업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계급적전우로서 호상존중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힘을 합치고 긴밀히 협조하여야만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이번 칼 맑스 탄생 165돐과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주권을 쟁취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을 하나의 계급적뉴대로 결속시킬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을수 있지만 그것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로선과 방도에 대한 견해상차이로부터 오는것이지 결코 서로 다른 국가사회제도간의 모순이나 적대되는 계급들사이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며 공통점이 주되는것이고 차이점은 부차적인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공통점을 중시하고 의견상차이를 호상리해와 동지적협조의 정신에서 해결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진지하고 인내성있게 노력한다면 통일은 수호되고 단결은 강화될것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자면 통일단결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매개 민족부대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민족부대를 강화하고 힘을 단합함으로써만 전반적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공산당, 로동당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각이한 사회력사적조건을 가진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고 나라마다 혁명임무가 다른 우리 시대의 현실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자주성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제주의적단결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적임무도 잘 수행할수 없고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할수 없다.

특히 로동계급이 주권을 쥔 나라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잘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기 인민의 힘과 자체의 자원을 동원하여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자기 인민과 국제로동계급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수 있다.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하여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주요 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으며 《협조》와 《보호》의 간판밑에 제3세계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직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여러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내쫓고 나라의 비식민지화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온갖 형태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이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할것이다.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없애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치적단결과 경제적협조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고 서로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며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위험이 커가고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핵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무서운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중근동지역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준비하고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민족적해방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있다. 미제는 중미주지역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반대하여 무력간섭을 감행하고있으며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위협과 전복파괴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구라파지역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려 하면서 이 지역의 정세를 매우 첨예하게 만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식민지지탱점으로,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틀어쥐고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커다란 전쟁화약고로, 핵전쟁기지로 전변시켰다.

세계도처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앞에는 새로운 세계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현정세는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단합하여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민족해방운동과 민주주의운동, 폭력불가담운동 등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은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에 집단적으로 공격을 들이대여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다른 나라들에 있는 미제의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철수시키며 군사쁠럭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확대하며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

여야 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며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맑스에 의하여 개척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반도시 승리할것이며 모든 인민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는 기어이 오고야말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의 빛나는 실현

최 선 태

조선로동당은 혁명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빛나는 전투적행로를 걸어왔다.

우리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최성기를 맞이하였으며 보다 휘황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앞당겨나가고있다.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고온 조선혁명의 길우에서 이룩된 모든 변혁들과 빛나는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필승불패의 우리 당의 령도의 빛나는 전통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마련되였다. 《ㅌ.ㄷ》로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우리 당은 카륜회의방침에 따라 첫 당조직이 결성되고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오래전부터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그 령도밑에 투쟁하여왔다. 이것은 우리 당이 항일혈전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적당이라는것을 긍지높이 말하여준다.

오늘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한 고귀한 경험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당적령도의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경험은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며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억세게 전진할 때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여 우리 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시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4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그것은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준엄한 투쟁과 변혁의 로정이며 그 길우에는 예견할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은 오직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선봉부대인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

하여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 투쟁방침을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적변혁을 이룩해나간다. 당은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며 혁명투쟁의 전반적행정을 통일적으로 령도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간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다.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은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방대한 폭압기구와 최신무기로 장비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하여 한두해도 아닌 20성상을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싸워야 하는 가장 간고한 투쟁이였다.

인민대중의 힘밖에 아무것도 의거할것이 없었던 항일혁명투쟁은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대오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반일항전에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만 승리할수 있었으며 그것은 당적령도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당적령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였다.

당적령도를 실현하자면 우선 당조직을 건설하고 기층당조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출발점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후 당조직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첫 당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전위조직이 마련되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한 첫 당조직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투쟁하는 혁명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참다운 향도적력량을 가지고 그 지도밑에 겹쌓인 난관을 뚫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의 초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당조직이 활동하게 되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을 확대해나가는것은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였다.

첫 당조직이 나왔다 하더라도 광범한 대중속에 조직을 확대하여나가지 않는다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갈수 없는것이다. 당은 기층조직을 통하여 대중과 잇닿아있으며 대중을 령도한다. 따라서 기층당조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는것은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고 전국적범위에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기층당조직을 늘이도록 하시는 한편 친히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혁명조직들을 새로 내오시고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들로 기층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1930년 10월 1일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들로 당조직이 무어진것을 비롯하여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과 기층당조직의 확대, 이것은 광범한 반일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당적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이루어진 고귀한 성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6페지)

혁명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는 당조직을 통하여 실현되며 그것은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조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광범한 지역에 조직된 기층당조직들을 하나의 조직사상적기초우에 결속할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전일적인 대오로 만들수 있다. 만일 광범한 지역에 기층당조직들을 아무리 많이 조직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당의 로선과 방침을 제때에 침투시킬수 없으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목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적령도의 실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조직이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워야 모든 당조직들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당조직이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당조직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대오와 유격구, 적통치구역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현당위원회로부터 혁명조직구별로 구당위원회들이 조직되고 부락단위로 당세포, 그밑에 당분조들이 나오게 되였으며 반일인민유격대안에는 련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들이 조직되여 모든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대오가 급속히 확대되고 군사행동규모가 비상히 커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오시여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혁명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에 당대렬을 계속 늘이는 한편 백두산근거지를 중심으로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들을 광범히 내오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와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 당조직들이 건설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조직적으로 련결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 당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의 하나로 된다.

(2)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철저히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당적령도는 우선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 투쟁방침을 제시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함으로써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옳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는것은 혁명투쟁에 대한 당적령도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는 우선 혁명투쟁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명투쟁의 옳은 방향과 목표,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실천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힌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쟁목표와 방도가 없이는 혁명운동이 전진할수 없으며 또한 로선과 전략전술이 없이는 혁명투쟁이 승리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전략전술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제시되며 당의 조직적의사를 대표하는 당회의들에서 토의결정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당및공청간부회의들과 군정간부회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전략전술을 토의하는 회의들이였으며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실 때마다 중요한 군정간부회의들을 여시고 거기에서 토의결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시고 당및공청간부회의들과 군정간부회의들에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들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관한 문제로부터 개별전투행동과 지하공작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앞에 나선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전술과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력사적로정에는 혁명의 매 시기마다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이 제시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준 력사적인 회의들로 가득차있다.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이 제시된 카륜회의로부터 시작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것을 호소한 명월구회의,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왕재산회의,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요영구회의, 주체의 기치밑에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남호두회의,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선포한 동강회의, 일제의 발악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한 남패자회의, 다가오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소할바령회의를 비롯해서 항일혁명투쟁의 중요한 계기들이 조성될 때마다 새로운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는 당및공청간부회의들과 군정간부회의들이 있었다. 당시의 조건에서 소집된 이러한 정치회의들은 당의 조직적의사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는 력사적인 회의들이였다. 때문에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모든 당및공청간부회의들과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에서 제시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유격대의 정치기관과 지방당조직들을 통하여 기층당조직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침투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항일혁명대오가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대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투쟁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는 또한 광범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가지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 조직동원하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9페지)

혁명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정확히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관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혁명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여야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투쟁이 진행될수 있고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광범한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드는것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당조직들과 조선인민혁명군안의 정치기관들은 당원들과 대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체득시키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조직과 유격대안의 정치기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고 일상적인 학습과 집중적인 군정학습, 단기강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대원들을 튼튼히 무장시켰다. 그리하여 전투와 행군이 련속되는 무장투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깊이 체득할수 있었으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대중단체들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대중은 혁명조직에 결속되여야만 단합된 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대중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당정책관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몸소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거기에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회, 반일청년회, 부녀회, 아동단 등 여러가지 대중단체들이 조직되였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들이 조직에 결속되게 되였다.

특히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의 확대강화는 당적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국광복회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동시에 당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국내외를 포괄하는 넓은 판도에서 자기 조직을 통하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해설침투하였고 그 관철에로 광범한 반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중을 당의 로선과 방침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는것이였다.

원쑤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 정치공작원들이 높은 정치적각성과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대중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고 그들을 조선혁명의 주체로선과 전략전술을 관철하는데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 혁명적군중관점과 혁명적사업방법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군중공작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시였으며 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도처에 파견하시여 군중정치사업을 널리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해설선전함으로써 대중을 반일성전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의 정치기관들과 당조직들을 통하여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에 첫 당조직이 결성되고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된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받들어온 자랑찬 력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전도도 이 령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인민은 항일의 그날부터 당적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 충실하여왔다.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절대적인 충실성, 이것은 항일의 혁명선렬들이 우리들에게 넘겨준 불멸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신념과 의지만을 간직하고 그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

김 완 선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히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력사적운동이 무엇에 의하여 일어나며 어떻게 발전해나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그에 맞게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이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명하여야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특성,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질수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를 사회력사에 구현하여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이며 사회력사를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이 진행되며 력사는 발전한다.

인류력사는 노예사회와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등 사회발전의 매 력사적시대에 벌어진 사회적운동들이 그 력사적조건과 형태, 내용과 결과에서는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대중이 서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기하고 전개함으로써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발생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5～16폐지)

주체사상은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력사가 발생발전한다는것을 밝혔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물질적담당자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모든 운동은 물질적운동이며 운동의 특성은 물질적담당자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식은 그 운동을 일으키는 물질적담당자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게 된다.

물론 사회적운동도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사회적운동에도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적운동에는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하는것과 함께 자연의 운동에는 없는 고유한 합법칙성이 작용한다.

사회적운동이 자연의 운동과 질적으로 다른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바로 사회적운동에 주체가 있다는데 있다.

주체가 있는 사회적운동이 주체가 없는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것만큼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운동에 주체가 있다는데 기초하여 이 운동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상은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자연의 운동과 사회적운동에 참가하는 요인들은 서로 구별된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운동인것만큼 그것은 객관적요인과 주체적요인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력사를 발전시키는 인민대중의 활동은 일정한 생활환경에서 진행되며 인류력사는 언제나 객관적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한다. 사람의 필수적인 생활환경인 자연지리적조건은 자연을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물질문화적수단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사회적조건은 사회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연지리적조건이나 사회력사적조건은 인민대중의 활동에 미치는 객관적조건이지 사회적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요인으로는 될수 없다.

사회적운동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요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체적요인이다.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자연이 개조되고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가 창조되며 사회관계, 사회제도가 개변되여나간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이 진행될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는것은 사회적운동의 근본원인과 동력이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벌린다. 사회적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사람의 힘은 자연의 운동에 작용하는 물질적힘처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의 통제밑에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인민대중이 발휘하게 되는 힘은 물질적힘과 정신적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는 창조적힘이다. 바로 이러한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운동인것으로 하여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은 다름아닌 주체의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력사적운동이 주체의 운동과정이라는것을 밝힌데 기초하여 사회력사발전과정과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사회력사발전과정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과정

이다.

사회적운동은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들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추동된다.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의 힘이 장성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능력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능력을 강화해나간다.

인민대중의 지위가 높아지고 힘이 장성하면 그들의 주동적인 역할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면 그들은 더 높은 자주적요구를 제기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힘과 역할이 강화되는데 따라 그들의 자주적요구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한다. 다시말하여 사회력사발전과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장성하고 그에 따라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을 해명함으로써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이루는 기본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 사회력사발전의 기본내용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의 기본내용은 력사의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 성격, 추동력을 정확히 해명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은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하여야만 정확히 밝힐수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발생발전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키는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의 밑바탕에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놓여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발전과 혁명운동에 관한 모든 문제를 밝히고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 인류력사는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라는것을 밝히였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따라서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모든 활동을 벌리는것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력사적운동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이다. 사람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 활동을 벌려나간다. 이로부터 모든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

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복잡한 사회력사적과정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질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 인민대중의 창조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창조적성격을 띠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하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것은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사회적진보가 이루어지고 력사는 발전한다.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투쟁을 동반한다. 창조의 과정은 곧 투쟁과정이며 투쟁을 떠나서는 새것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창조적활동과정은 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이 투쟁에서의 승리는 창조적힘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가 하는것은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의 준비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강화되는 력사이며 그것은 곧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력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적능력이 강화되는 력사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인류력사는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의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의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준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담보하며 그들의 인식활동, 실천활동을 보장하는것은 의식성이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통제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상의식의 규제와 조절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활동은 의식적인 활동으로 되며 사회적운동의 높은 형태인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발전의 내용인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그 추동력을 가장 정확히 해명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력사가 발전하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　　　*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혀진것은 인류사상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공적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6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발전

완성시키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였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원리,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라는 원리,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원리들은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사회력사적원리들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적운동에 작용하는 원리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사회력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할수 있는 과학리론적기초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혁명발전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을 보는 관점과 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혁명과 사회발전을 대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인민대중은 사회발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주체의 사회력사원리가 옳게 해명됨으로 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실로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발전완성시키는데서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또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과 의의는 그것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람들의 실천활동,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실천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혁명리론이 실천에 참답게 이바지하자면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결정적요인인 사람,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사회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되며 외세에 의존하거나 허황한 초자연적인 《힘》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없는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억눌려살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숙명》적인것으로 여기고 한탄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밖에 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굳은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는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되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적원리는 우리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것을 관철해나감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아무런 편향없이 승리적으로 헤쳐올수 있었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위력한 공업과 발전된 농업,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빛나는 현실이나 생산력발전수준이 낮은 조건에서도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농업협동화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모든 경험들은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실로 이 땅우에 이룩된 세기적인 변혁과 자랑찬 승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온 위대한 열매이다.

주체의 사회력사원리,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은 자주위업을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혁명운동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여오던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대중이 자기의 력사적 지위와 사명을 깊이 깨닫고 자연과 사회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력사의 전진을 다그치고있으며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추세를 반영하여 그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의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인류의 해방투쟁에서는 끊임없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새 사회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으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자주의 리념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리익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기 인민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창조적인 투쟁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있는것은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주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이며 투쟁의 참된 무기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업적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박 종 배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다.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에 의하여 력사발전이 추동되며 사회는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여나간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것은 그들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력사발전과 혁명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력사의 주체, 사회력사적운동의 담당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하였으며 혁명운동의 승리를 위한 정확한 길을 새롭게 밝히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한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사회력사적운동을 전진시키나간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력사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고 력사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라고 하여 저절로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는것은 력사발전과 혁명운동에서 그들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의식화되여야 사회력사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자각할수 있고 사회력사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전진과정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과정이다.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이 없이 사회가 발전할수 없으며 력사가 전진할수 없다. 따라서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의식화되여야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리해관계를 깊이 자각하고 혁명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다.

노예적굴종사상과 환상적인 힘에 대한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회의 주

인,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저절로 력사의 주인이 되고 창조자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이 의식화되여 사회력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의식적인 투쟁을 벌려나갈때 사회력사적운동은 끊임없이 전진하게 된다.

인민대중을 조직화하는것은 력사발전과 혁명운동에서 그들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조직되고 단결된다면 사회를 발전시키고 력사를 전진시키는데서 더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 대중의 힘은 조직과 단결에 있다. 조직되고 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사회력사발전에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결국 인민대중은 하나의 목적에 기초하여 조직화되고 단결되여야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인류력사는 의식화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게 하는 사업은 오직 옳은 지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지도는 대중의 활동에 자각성,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대중을 집단적활동, 조직적운동에로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대중은 옳바른 지도를 받아야 자기자신의 존엄과 위력을 자각하고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 사회력사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다시말하여 옳은 지도를 받는 인민대중만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기 위한 근본적인 요구로 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산주의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사이에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로서 여기에는 력사상 전례없이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한다.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중에 대한 령도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이 운동이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고도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이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자주성을 위하여,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시기 모든 운동에서는 그 시대적, 력사적 제한성으로 하여 대중자신이 자주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을 벌려나갈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모든 혁명운동들은 자연발생적인것이였으며 따라서 언제나 간악하고 교활한 착취계급에게 롱락당하지 않을수 없었고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참가밑에 넓은 규모에서 통일적으로 추진되는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떠나서 공산주의운동이 진행될수 없다. 고도의 의식성과 조직성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며 여기에 이 운동이 선행한 모든 혁명운

동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운동은 고도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인것만큼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혁명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결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운동이 과거의 그 어떤 사회적운동보다도 인민대중에 대한 통일적이며 조직적인 지도를 요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옳바른 지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을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전략전술로 무장시킬수 없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여나갈수 없다. 높은 의식성과 조직성에 의하여 발전해나가는 공산주의운동은 지도와 대중이 밀접히 결합됨으로써만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이 운동이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람과 사회, 자연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운동은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건설되여도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외부의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그들과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준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게 된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운동은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게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조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운동은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옳은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될 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옳바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대중만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될수 있으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것은 실로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근본문제로 되며 이 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공산주의운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이 밝힌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이다.

지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8페지)

공산주의운동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지도는 당과 수령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과 수령의 지도를 떠난 공산주의운동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

명의 최고령도자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공산주의운동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는 종전의 모든 운동에서의 지도문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높은 의식성과 조직성에 의하여 전진하고 발전하는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그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것만큼 이 운동에서 당과 수령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이것은 수령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 되는것은 수령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의 유일한 대표자이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활동능력을 키워주는 정치적령도자로 되기때문이다. 수령은 계급의 리익, 인민대중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념원을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는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수령은 또한 사회력사적운동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며 그 실현방도를 가르쳐줄수 있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일뿐아니라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사상의지적으로 단합시키며 조직적으로 결속시켜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만드는 유일한 령도자이다.

이와 같이 수령은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를 전진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한다. 수령이 내놓은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수령은 혁명의 핵심골간들을 키워내고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내오며 그것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단결시킨다. 그리고 세련된 령도예술로 대중을 조직동원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의 전행정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의 역할에 의하여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되며 혁명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 이것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갈 때 혁명과 건설의 주인,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비록 인민대중이 투쟁의 길에 나섰다 하더라도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지 못하면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으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당의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령도는 당의 령도이며 당의 령도는 다름아닌 수령의 령도이다.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은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령도를 빈틈없이 보장하는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있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조직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당의 향도적역할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철저히 보장되며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이 정확히 구현되게 된다.

이와 같이 수령의 령도는 당의 령도와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그런것만큼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의 본질이 옳게 해명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훌륭히 결합시킬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인것만큼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근본방도는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어떻게 령도하며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것과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데서 뗄수 없는 두 측면을 이루고 있다.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우선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어떻게 령도하는가, 특히는 지도를 어떻게 대중에게 접근시키고 대중을 어떻게 옳은 길로 이끌어나가는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당과 수령의 지도는 그것이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과 결합되여야만 참다운 지도로 될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대중과 유리된 지도는 사실상 참다운 지도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러한 지도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지도가 철두철미 대중에게 복무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될 때에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옳바른 령도로 될수 있다.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과 수령의 지도는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 대중에 대한 지도는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요구를 자신의 투쟁으로 관철하게 하는데 그 기본사명이 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가 참다운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고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될수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과학성이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를 받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었으며 력사의 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슬기롭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혁명발전의 전로정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으며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만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준 빛나는 행로였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를 옳게 운영하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래의 모든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이 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사회이며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가야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옳게 운영해나가자면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을 새롭게 밝히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것이 이 사회를 옳게 운영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해명함으로써 공산주의혁명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켰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가 빛나게 해결된것은 우선 주체의 대중령도리론을 완성하는데서 혁명적인 전환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지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또한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당과 수령은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를 옳게 실현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갈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 력사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결정적요인에 대한 문제가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은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밝힌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력사의 주체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준 위대한 사상으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영화예술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

허 백 산

영화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사상교양방침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올해에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를 가지고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실효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이것은 영화를 통한 대중교양사업을 한계단 발전시키며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또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전당적, 전사회적 범위에서 영화실효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보급하며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판이 크게 벌림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영화는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이며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이다.

당사상사업, 대중교양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그 수단과 형식, 방법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사상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고 사상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수단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대중교양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 사상사업을 그 내용과 대상, 환경과 조건에 맞게 옳은 수단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야 그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실효를 나타낼수 있다.

당사상사업, 대중교양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바로 영화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는 대중교양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447페지)

영화가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의도를 제때에 민감하게 직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동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영화는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고있는 현실생활을 화면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는 가장 힘있는 직관적인 예술이다.

영화는 자체의 우월한 형상수단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그리고 생동하게 반영한다. 물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는것은 사회적의식형태로서의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임무

이며 따라서 영화예술도 여기에서 례외로 될수는 없다. 그러나 영화는 그것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설득력있게 보여주는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화면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영화는 모든것을 관중들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게 할뿐아니라 인간생활의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문학예술형식들이나 선전선동수단들보다 사람들의 의식행여에 미치는 사상정서적감화력이 비할바없이 크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 내용을 글로 읽거나 선률이나 률동으로만 듣고 보는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감동세계에 끌려들어가며 모든것을 생동한 표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리해하게 된다. 시각적인 예술인 영화는 바로 화면형상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물론 당이 구상하고 의도하는 문제들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당보의 사설과 같이 높은 호소성과 전투성을 가지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선전선동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 바로 여기에 영화가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것이다.

영화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가장 진실하고 감명깊게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예술이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자면 그 내용이 혁명적이여야 할뿐아니라 또한 거기에 생활이 진실하게 반영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감정에 맞지 않으며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예술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될수 없다.

종합예술인 영화는 그 어느 예술형식들보다도 인간과 그의 생활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반영할수 있는 가능성과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영화예술은 여러 예술형식들의 형상 수단과 수법 그리고 광학, 기계공학, 화학, 음향학, 전자공학 등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급속히 발전한 가장 현대적인 종합예술이다.

영화는 자체의 우월한 형상수단들과 생활반영의 풍부한 가능성으로 하여 인간과 그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영화는 관중들에게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보여줄뿐아니라 대중들로 하여금 명곡도 감상할수 있게 하고 아름다운 자연이나 거리 풍경, 용광로의 이글거리는 불길도 볼수 있게 하며 사람들의 섬세한 심리세계도 엿볼수 있게 한다. 영화의 화폭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살고있는 인간과 같으며 영화에서 보여주는 생활화폭은 약동하는 현실의 인간생활과 조금도 다름없다.

이것은 영화가 다른 예술형식들보다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는 우월한 형식의 예술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생활반영의 우월성은 혁명적영화예술로 하여금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격동시키며 그들을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는 선전선동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한다.

영화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그 보급의 대중성, 기동성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보급에서의 대중성과 기동성은 문학예술작품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향유물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영화는 다른 예술에 비하여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그리 받지 않고 보급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연극이나 가극 같은것을 공연하려면 일정한 설비를 갖춘 큰 극장이 있어야 하지만 영화는 극장과 같은 장소나 설비가 없어도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곳이면 그 어

디에서나 돌릴수 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장편소설 같은 부피 큰 책을 읽는 독자들처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그 내용을 화면을 통하여 깊이 파악할수 있다. 영화는 또한 여러곳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동시에 보여줄수도 있다.

영화예술은 바로 보급에서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가장 군중성있는 위력한 사상선전수단으로 된다.

이처럼 영화는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우월한 형상수단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반영하는 특성과 그 보급에서의 대중성, 기동성으로 하여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당사상사업, 대중교양에서 영화가 노는 역할은 그 어떤 다른 수단으로써도 결코 대신할수는 없는것이다.

대중교양수단으로서의 영화예술의 위력은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빛내이며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영화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한몸바쳐나서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오늘 대중교양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예술은 바로 대중교양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하고있다. 특히 《조선의 별》을 비롯한 혁명영화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안겨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나갈 혁명적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이끌어주는 혁명적대작이다. 영화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향도성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김혁, 차광수, 최창걸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은 무엇에 기초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여왔는가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영화의 주인공들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형상은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여야 하며 혁명전사는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나가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주는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수령관이란 어떤것이며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죽어서도 잃지 않는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철학적해답을 준 여기에 혁명영화 《조선의 별》이 가지는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

과 근로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는 구호를 힘있게 웨치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전진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이야말로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영화예술의 거대한 역할은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를 통하여서도 힘있게 확증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사회주의 현실주제를 취급한 특출한 성과작이며 화면에 옮겨진 당사업독본과 같다. 영화의 주인공은 현시기 우리 당이 요구하는 당일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당일군의 전형이다. 영화는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군중로선은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 사업작풍은 어떻게 가져야 하며 가정혁명화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음에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우리 당 일군들이 지녀야 할 자질과 풍모의 높이를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모든 일군들에게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해나가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주고있다. 오늘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그토록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고결한 풍모는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에도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이 영화는 준엄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맡겨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낸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바로 오늘의 현실이 제기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는 대표작이다. 영화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를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이 지녔던 고상한 정신세계를 통하여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보다 더 값높고 빛나는 삶은 없다는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영화는 오늘의 번영하는 조국, 인민의 락원이 어떤 비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교양에서 우리의 영화가 노는 역할은 기록영화를 통해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오늘 우리의 기록영화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관철되는 승리의 로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수록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기록영화들은 또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 정책의 정

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방침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동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예술은 사상교양수단으로서뿐아니라 문화교양수단으로서도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정책화되고 통속화된 과학교육영화들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그 해결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반영한 대중과학교육영화들이 수많이 제작되여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는 훌륭한 직관교재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에로 적극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예술이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자기의 전투적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영화예술은 당중앙의 올바른 지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55페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예술은 대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전반적인 문학예술발전에서 영화예술이 노는 거대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영화예술을 문학예술의 중심고리로 규정하고 그 발전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왔다.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해나가는것은 문학예술혁명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한 기본원칙이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영화예술 건설과 창조를 위한 우리 식의 영화리론을 확립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이 당사상사업,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리론과 종자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혁명적영화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독창적인 영화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힘있게 발전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면에 옮기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것은 주체적영화예술을 건설하는 길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이 위업이 실현된 결과 우리 영화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확고히 마련되고 영화예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영화문학창작을 영화제작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영화예술을 빨리 발전시켜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이 방침은 영화제작사업의 특성과 우리 나라 영화창조실천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경험은 영화문학창작이 확고히 앞서나갈 때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작품들이 정상적으로 창작되며 영화계에 풍년이 들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영화예술을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혁명적영화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세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영화를 빨리 발

전시키며 그것을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낡은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정과 혁명적영화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모든 창조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주체적인 영화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튼튼히 세워놓았다. 이것은 영화부문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낡은 틀을 완전히 마사버리고 영화창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하나의 혁명이며 혁명적영화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이다.

영화예술을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영화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영화예술인들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창작과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영화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고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혁명적예술인으로 자라났으며 우리의 영화촬영소들은 모든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영화창작기지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영화보급사업은 근로자들에게 누구나 다 영화를 빠짐없이 제때에 볼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를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우리 당은 대중교양에서 영화보급사업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주체적인 영화보급체계를 세우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적인 영화보급체계가 세워진 결과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농촌리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제때에 돌어갈수 있게 되였으며 누구나 다 영화를 정상적으로 감상하고 학습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영화를 통한 사상선전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렇듯 영화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그것을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는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그 어느 하나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서는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로 하여금 대중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고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한 결정적담보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영화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영화를 통한 대중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영화실효투쟁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어떤 애로와 난관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사로 준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와 구상을 받들고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에 대한 실효투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영화의 주인공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영화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영화창작사업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당사상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군중로선관철과 과학적인 경제관리

전 정 희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는 이 장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관철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원칙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을 옳게 밝히는것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따라 경제관리의 내용과 체계, 방법이 규정되며 생산과 건설에서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과학성을 보장할데 대한 원칙을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경제를 지도하는데서 언제나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이 다 하나의 인민경제체계에 속하여 서로 긴밀한 생산적련계를 맺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답게 일하여야만 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65~66페지)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경제이며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현대적인 대규모경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하려면 마땅히 그 주인을 옳게 발동시키고 모든 경제활동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조직해나가야 한다.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그들의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을 받아들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것을 말한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통일적으로 관철되여야 한다. 군중로선의 원칙을 떠나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과학성의 원칙을 실현할수 없으며 과학성의 원칙을 떠나서는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환시키는 군중로선의 원칙을 관철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통일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옳바른 길은 군중로선의 관철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의거하여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해나가는것이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여러가지 경제법칙들이 작용하며 매개 법칙들은 개별적 경제관리운영사업에서의 원칙적요구와 활동방식을 규제한다. 그러므로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조건을 보장하며 생산과정을 추진시키는 등 모든 경제관리운영사업은 철저히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조직진행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맞게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바로 타산리용하여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자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는 경제활동의 직접적 담당자인 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실천활동을 통하여 관철된다. 이것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는것이 경제법칙들을 옳게 타산하고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법칙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일반적요구를 리해할뿐아니라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객관적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타산하여야 한다. 사회의 경제적운동이 벌어지는 객관적현실을 가장 잘 아는것은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직접 벌리는 과정에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현상들에 맞다들게 되며 경제법칙의 발현을 실지로 체득하게 된다. 생산자대중에 의거하여야만 객관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경제법칙의 요구를 경제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정확히 타산할수 있다.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가는 문제도 생산자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시켜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생산자대중은 일상적인 생산활동을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생산을 발전시키고 관리를 개선하겠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게 되며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경제운영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방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 때에만 경제법칙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우고 경제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운영사업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포치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활동과 대중적관리를 통하여 직접 실현해나가는 생산자대중이 자각적으로 동원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생산자대중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여야 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하는 사업을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경제법칙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의 기술공학적 요구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휘를 보장하는것은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현대적생산은 기술공학적원리에 따라 진행되며 새로운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생산을 지휘하여야 현대적생산의 특성에 부합되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생산을 지휘하는 방도는 생산자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생산이 기술공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생산자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생산활동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생산활동을 통하여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가 실현되는 행정이다. 생산이 그 기술공학적원리에 맞게 진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을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이며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나서는 기술공학적요구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는것도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을 적극 발동시켜야 생산을 그 기술공학적요구대로 추진시키기 위한 방도를 바로세울수 있으며 생산행정에서 련이어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생산을 철저히 기술공학적요구대로 추진시키자면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공정들이 빈집히 련관되여있고 많은 부문들에서 생산이 고속, 고온, 고압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조건에서는 사소한 자연발생성이나 비조직성도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를 지킬수 없게 하며 생산의 정상적진행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생산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는 생산자대중이 자각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는데 있다.

생산자대중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생산공정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 때에만 생산활동전반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의 전과정을 기술공학적요구대로 빈틈없이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을 옳바로 리용하여 경제관리의 과학적수준을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현대적기술에 토대하고있는 사회주의적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는 발전된 기술수단과 합리적인 관리수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현대적생산은 그 어떤 기준경험이나 수공업적방법에 의거해가지고서는 도저히 관리할수 없다.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에 의거함으로써만 생산과정을 신속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제때에 조종할수 있으며 복잡한 경제현상들을 짧은 시간안에 종합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관리를 보장하리면 발전된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노는 현대적기술수단과 관리수법도 생산자대중에 의거할 때에만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 은을 충분히 나타내게 할수 있다.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이 아무리 발전된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생산과 경제현상을 주어진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반영할따름이며 경제관리활동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더우기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으로는 측정할수도 없고 동원할수도 없다.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는것이다.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야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의 적용대상도 합리적으로 설정할수 있으며 그 적용에 필요한 모든 조건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다.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에 의하여 내부예비를 분석탐구하는 사업도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야 보다 정확히 진행될수 있다. 기술수단과 관리수법의 도움으로 얻어낸 경제기술적방안들은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검토함으로써만 완전한것으로 되며 생산행정에 대한 장악과 통보, 조정도 그들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해서만 정확히 진행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휘를 실현하며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관리수법들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다같이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의 령도밑에 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현대적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군중로선에 기초한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 당은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제관리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켜 토의결정되는 문제들에 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있으며 행정대행과 추미주의를 없애고 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며 인민경제부문들에서 표준공장을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며 작업반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자동조종체계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관리를 더욱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이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더욱 훌륭히 구현하고 생산자대중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1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다그쳐짐에 따라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공정은 더욱 세분화되고 집약화되였으며 생산 단위들, 부문들 사이의 생산기술적련계가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우리 당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생산자대중을 어떻게 발동시키고 경제관리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진행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대중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면 모든 생산조건들을 빈틈없이 보장하고 생산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경제를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과학적인 경제관리는 과학과 기술의 최신성과에 의거하여 생산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함으로써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생산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생산자대중을 자각적으로 발동시켜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생산을 지도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군중이 일하는 생산현장이야말로 경제관리가 물질적결과로 실현되는 장소이며 관리활동을 통하여 풀어야 할 생산기술적문제들이 발생하는곳도 다름아닌 생산현장이다. 군중속에 들어가야 생산과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생산을 추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며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하여 그 해결방도를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그 과학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실질적으로 세우게 되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고 준비있게 생산현장에 내려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과의 집체적협의를 잘 조직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내용에 따라 집체적협의를 격식과 틀이 없이 기동적으로 조직하고 제기된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지도일군들이 생산과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여 생산기술적문제들을 집체적토의에 준비있게 제기하며 대중의 혁명적의사와 창의창발성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경제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일단 세워진 경제기술적인 대책은 끝까지 관철하여 그것이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충분히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사업을 옳게 배합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적요구이다. 경제관리에서 정치적방법을 무시하고 경제기술적방법에만 매여달린다면 생산자대중을 적극 발동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관리도 개선해나갈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제때에 침투시키고 그 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그들이 경제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현하는데서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은 특히 당면한 생산을 추진

시키고 관리운영에서 걸린 문제를 푸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잘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타산된 경제과업들을 옳게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정치적방법은 경제기술적방법과 옳게 결합됨으로써만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의 요구도 이 행정에서 성과적으로 관철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경제기술적사업을 안받침하여 그것이 생산을 늘이고 관리를 개선하는 물질적결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모든 경제기술적사업을 과학적인 타산밑에 진행하는것이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목적은 결국 보다 적은 생산적지출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자는데 있다. 과학적인 타산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생산을 조직지휘하여 가지고서는 그 어떠한 관리운영대책도 바로 세울수 없는것은 물론 생산과 관리에서 막대한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초래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발전에 커다란 부정적작용을 미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어떠한 경제기술적사업에서나 타산을 바로하고 한가지 일을 벌리는데서도 생산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원칙에서 설계하고 작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경제기술적사업이 최대한의 실효성을 나타내게 할수 있으며 기본건설을 진행하고 기술발전사업을 벌리는데서도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받아들일수 있다.

경제기술적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그래야 현대과학과 기술의 성과에 토대하여 경제기술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표준공장들의 사업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경제조직사업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경제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전반적인 기업관리사업을 고도로 째이게 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적열의를 가지고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일군들의 정치실무능력과 경제기술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일군들의 정치실무능력과 경제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정치사업방법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경제지식을 소유하고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지식에 정통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정치실무능력과 경제기술지식을 생산과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경제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과학적인 경제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미제의 조선침략정책과 3각군사동맹조작책동

김 정 호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을 품고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특히 미제는 저들의 세계전략에 따라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동북아세아에서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완성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과 아세아에는 긴장상태가 날로 격화되고있으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전쟁의 방법으로 가로막고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를 파괴유린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과 전쟁정책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의 악랄한 새 전쟁 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힘있는 공동투쟁으로 놈들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 *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사이에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는것은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세계전략에서 기본정책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는 침략적인 세계전략에서 아세아대륙을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있다. 아세아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중하고 《나토》형의 반공군사동맹을 형성하여 아세아인민들의 자주위업을 말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려는것은 현시기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끊임없이 교체되고있으나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고있다. 이른바 《닉슨주의》나 《신태평양주의》, 《카터주의》나 《레간주의》 할것없이 미국의 력대 우두머리놈들이 들고나온 대아세아정책은 그 어느것이나 다 침략과 전쟁으로 아세아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려는데 기본목적을 두고있다. 이러한 침략전략에 따라 이미 아세아의 군사전략적요충지들과 그 주변에는 수많은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들이 설치되여있으며 거기에는 방대한 침략무력이 항시적으로 주둔해있다.

더우기 《힘의 정책》에 기초한 《강대한 미국의 재건》을 떠벌이면서 집권한 전쟁광신자 레간은 력대의 그 어느 우두머리보다 아세아지역에 대한 모험적인 군사적침략과 간섭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아세아전략에서 기본을 동북아세아에 두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7페지)

남조선은 아세아대륙에 있는 미제의 중요한 군사기지이며 식민지의 마지막 지탱점이다. 미제는 아세아를 침략하는데서 조선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이 지역에 주되는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미제의 호전광들이 남조선은 《미국에 있어서나 자유세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요충지》이며 현시기 《미국전략의 제1선》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것은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영구히 틀어쥐고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놈들의 흉악한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 책동의 중요한 한 고리이다.

미제가 지휘하는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의 반동적본질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노린 반공군사동맹을 형성하여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이 지역에 대한 침략목적을 실현하려는 범죄적인 책동이라는데 있다.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수법의 하나이다. 지난날에는 독일과 일본, 이딸리아의 파쑈분자들이 반공군사동맹을 맺고 인류에게 제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강요하였다면 제2차세계대전후에는 미제가 세계도처에 반공군사뿔럭을 만들어놓고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현 미국지배층은 집권 첫날부터 저들의 《3대전략지대》의 하나인 동북아세아지역에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침략적인 군사뿔럭을 새로 형성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현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미제가 3각군사동맹조작을 통하여 추구하는 주되는 목적의 하나는 일본을 아세아에서 저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이것은 미제가 손아래동맹자들을 침략야망실현에 유용하게 써먹으려는 교활한 수법이다.

오늘 미제는 밖으로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세계도처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안으로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현 조건에서는 미제가 아세아를 지배하기 위한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자고 해도 혼자서는 힘에 부치고 극동에서 군사력의 《우세》를 확보하려해도 그것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아세아에 대한 침략경험과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리용하여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침략야망을 손쉽게 달성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또한 3각군사동맹을 조작해놓고 이 뿔럭을 모체로 하여 여기에 《안쥬스》를 련결시키고 기타 나라들을 망라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에 구라파의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기구》를 만들것을 추구하고있다.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서 일본반동들은 또한 그들대로의 침략적인 목적을 노리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여보려는것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허황한 망상이다. 일본의 반동지배층은 이러한 야망으로부터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일본의 재무장을 다그치는 한편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돌아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는 대륙에 대한 일본의 진출로로 되여있》으며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군사적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망발한것은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해외팽창을 실현해보려는 놈들의 야망이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사대매국노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일상전의 아세아침략정책을 앞장서 집행함으로써 남조선을 미일반동들의 2중의 식민지로, 침략적전략기지로 완전히 내맡기고 그 대가로 저들의 더러운 장기집권야망과 북침야욕을 달성해

보려 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이 미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한 보루》이며 남조선과 일본이 《안보상 같은 명토》라고까지 줴치면서 남조선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기지로, 조선반도를 새로운 전쟁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괴뢰도당은 추구하는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그처럼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재무장, 재군국화를 다그치고 그와의 군사적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군사적으로 긴탁시키는 방법으로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체계를 형성하려고 획책하여왔으며 1965년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맺은 《협정》을 계기로 이러한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는 1950년대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에 맺은 《호상방위조약》과 《일미안보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미국과 남조선,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결탁관계를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맺은 《협정》과 련결시킴으로써 사실상 3각군사동맹체계를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맺은 《협정》이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완전한 《군사조약》이 아니라는데로부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야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일본, 남조선사이에 《군사조약》을 맺게 하고 그것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에 맺은 《호상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을 련결시키는 방법으로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체계를 완성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남조선과 《군사조약》을 당장 체결할수 없는 조건에서 미제는 우선 미국, 일본,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일체화를 한걸음한걸음 선행시키고 그를 기정사실화하는 방법으로 3각군사동맹체계를 완성해나가려는 교활한 술책에 매달리게 되였다. 놈들은 먼저 3각군사동맹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군사협력기구》를 설치하였다. 미제는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상설적인 《안보협의기구》를 조작하게 하고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정치적결탁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 《안보협의기구》에서 3각군사동맹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실무적토의와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는 또한 3각군사동맹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군부우두머리들의 호상래왕과 군사적결탁의 강화를 위한 모의들이 수많이 벌어졌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그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군수산업을 급속히 확장하며 《자위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군사전략을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공격전략》으로 전환하고 령해와 령공으로 한정되였던 《작전구역》을 서태평양일대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남조선괴뢰들과의 공동작전에 대비하여 《중앙지휘소》의 지휘체계를 개편하고 지휘통신시설을 남조선에 련결시켰다. 미일반동들은 일본주둔 미군사령부와 직결된 일본《자위대》의 지휘통신망을 남조선에까지 련결시킴으로써 3각군사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은 무기규격을 일원화하고있으며 일본《자위대》에 대한 조선말교육을 실시하고 조선과 비슷한 지형에서 내한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주는 등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이 임의의 시각에 공동작전을 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미국에서 가장 호전적인 레간정권이 출현하고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극악한 전두환파쑈정권이 조작되였으며 일본에서 가장 반동적인 나까소네내각이 나온후 더욱더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최근에 있은 나까소네의 남조선과 미국행각이 바로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나까소네가 남조선에 들어가 전두환괴뢰도당과 미일남조선 《3각안보협력체제를 긴밀화》할데 대하여 모의하고 사실상의 군사《원조》인 40억딸라의 막대한 《차관》을 남조선괴뢰들에게 주기로 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결탁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나까소네가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관계를 군사적으로 밀착시킨 기초우에서 미국에 찾아가 일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운명공동체》론을 제창하면서 1,000마일 《해상교통로》를 무력으로 지키며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열어놓겠다고 한것은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완성단계에로 더욱 접근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벌써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을 위한 책임분담을 적극 맡아나서면서 남조선에 대한 침략을 경제적침투로부터 군사적결탁에로 한걸음 더 내디디고있다. 이제 와서 일본반동들은 일본렬도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며 《유사시》에 조선해협을 비롯한 3개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침략적인 망언까지 줴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여 군사적행동을 감행하며 아세아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겠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함께 《극동유사시》라는 구실밑에 조선전쟁을 가상한 미일남조선공동작전계획까지 짜놓고 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각종 공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자위적인 무력의 보유》만을 인정하고있는 현행 일본헌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벌리기 위하여 헌법을 개악할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사실들은 미제와의 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해외팽창을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며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아세아에 침략적군사기지를 수많이 늘이고 현지주둔침략군의 전쟁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에 아랍만과 인도양 주변을 비롯한 아세아의 주요 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신속히 들이밀수 있는 〈신속전개무력〉까지 편성하여놓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준비책동의 주되는 힘은 조선반도에 돌려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가 미국의 전쟁전략의 당면목적을 수행하는데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떠들면서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이 지역을 전조선과 아세아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꾸리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항시적으로 배치해놓고 수십개의 삭신비행장, 수백개의 각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물들을 건설해놓았다. 그리고 최신식전투추격기 《에프16》을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 각종 미싸일, 땅크, 장

갑차, 대포 등 최신살륙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적책동까지 감행하고있다. 지어 놈들은 북으로부터의 그 무슨 《위협》이요, 《세력균형》이요 뭐요 하면서 남조선에 중성자탄과 전역핵미싸일까지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목적밑에 일본과 태평양지역에 수많은 군사기지들을 건설하고 미국본토에는 임의의 시각에 조선전쟁에 투입할수 있는 《기동타격부대》까지 편성해놓았다. 놈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작전을 아무때나 전개할수 있도록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일본과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미륙해공군무력을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들의 전략적배비를 일단락 지어놓은데 기초하여 그를 직접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리고있는 각종 군사연습소동은 놈들의 전쟁책동이 극히 모험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극동에서 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한 고리로서 지난 2월부터 4월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본토와 일본을 거쳐 남조선의 전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팀 스피리트 83》이라는 력사상 최대규모의 련합작전훈련을 벌리였다. 이 전쟁연습에는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일본과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 7만여명과 남조선괴뢰군 11만 8천명이 참가하였으며 미제7함대의 최대의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하여 각종 함선들과 비행기들, 미싸일과 같은 최신전쟁수단들이 동원되였다. 《팀 스피리트 83》 전쟁연습은 일본본토를 중요한 작전, 발진, 병참, 보급기지로 삼고 일본반동들의 적극적인 뒤받침밑에 진행되였으며 여기에는 《참관》의 명목밑에 일본《자위대》의 우두머리들까지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이 전쟁연습은 사실상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체계에 립각한 《시험전쟁》, 《예비전쟁》으로 감행되였다.

모든 사실들은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사이에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책동이 마감고비에서 다그쳐지고있으며 그 위험성이 어느때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로 증대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이 조작되면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침략전략이 더욱 모험적으로 추진되리라는것은 명백한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과 아세아에 위치하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동남아세아나라들과 전반적태평양지역이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허용되면 우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더욱 증대되게 된다. 지금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있는 심상치 않은 사태발전은 현실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만일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국부적인 지역전쟁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쉽사리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수 있다.

3각군사동맹의 조작은 또한 일본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깊이 말려들게 함으로써 일본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게 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공모하여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나서게 되면 일본자체의 안전을 유지할수 없을뿐아니라 일본이 침략전쟁으로 하여 초래되는 재난으로부터 결코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는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막고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과 직접 련관된 문제이다.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독립과 자주권,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세아인민들의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이 투쟁은 아세아지역이 지난날처럼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쟁마당으로 되는가 아니면 이 지역인민들이 전쟁의 위험을 막고 독립과 자주, 평화의 길로 나가는가 하는 사활적문제와 관련되여있다.

3각군사동맹조작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철저히 폭로배격하여야 하며 《평화국가》라는 외피를 쓰고 재군국화, 군사대국화에로 나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책동과 미일의 2중주구인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아세아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운다면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저지파탄되고야말것이다.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이 쇠퇴몰락하고 독립과 자주,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센토》와 《세아토》와 같은 침략적군사쁠럭의 수치스러운 붕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려야 한다. 미제는 남조선과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이 지역에서 하루속히 물러가야 한다. 이것은 아세아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일치한 요구이다.

일본반동들도 지난날 저들의 해외침략정책이 가져다준 수치스러운 패망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제의 대조선, 대아세아전략에 추종하여 해외팽창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과 아세아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인민은 혁명적인 아세아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며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최 상 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 반동세력과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이 국제정세발전과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다.

얼마전에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제7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투쟁목적의 정당성을 일치하게 재확인하고 이 운동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발전과 뉴델리수뇌자회의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고수할데 대한 방침이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확고한 기초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만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세력으로서 세계의 변혁과정에 더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발전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 *

쁠럭불가담운동은 인민들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세계를 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는것을 배격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 진보적운동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이러한 투쟁목적과 리념에서 가장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있는것은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6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위한 운동이며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자주성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을 결속시키는 근본원칙이며 그의 위력을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목적이 종국적으로 달성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사명이다. 그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성스러운 위업이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할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반제자주의 원칙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으로 되며 이 리념이 고수될 때만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목적과 모든 리념이 실현될수 있다.

자주의 거세찬 시대적조류를 반영하여나온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를 숭고한 리념으로 삼는것은 당연하며 바로 여기에 이 운동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와 력량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정

치적자주성을 보존하며 강대국들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민족적리익을 고수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쁠럭불가담운동의 창시국들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을 이 운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이 없이는 결코 정치적자주성을 지켜낼수 없으며 경제적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자주성과 반제투쟁은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하나의 리념으로 결합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이러한 리념은 시대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 독자적으로 살것을 바라는 개별적나라들의 념원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에 와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인된 리념으로 되였다.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은 지난 20여년간 력사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되였다.

많은 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이 내세우고있는 리념이야말로 현시대의 요구를 대표하며 인류의 참다운 미래를 지향한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였으며 이 리념을 자기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 들어왔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력사상 존재한 모든 국제적운동가운데서 가장 폭넓고 보편적인 운동으로 되였으며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나 쁠럭불가담의 기치가 휘날리고있는것도 이 운동이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내세우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제국주의반동세력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재자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의 확대강화를 저지시켜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해나서고있는것도 다 반제자주의 리념이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그 어떤 반동세력도 더는 공개적으로 이 리념을 거부하고 도전해나설수 없게 되였기때문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고수하는것은 자기 운동의 존망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반제자주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을 고수하고 구현하여야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수 있으며 시대와 인류 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만일 쁠럭불가담운동이 외부의 압력에 못이겨 자기의 숭고한 리념을 한걸음두걸음 양보하고 저버리게 되면 그것은 벌써 쁠럭불가담운동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잃게 될것이다.

력사적사실은 반제자주의 리념을 고수하는것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재자체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 리념을 어떻게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가 하는데 쁠럭불가담운동의 공고발전과 그 위력을 강화하는 참다운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고수하는것은 이 운동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망라되여있으며 그 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처음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에는 여기에 몇몇 나라들만이 망라되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대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에 망라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어제날 뒤떨어지고 억압받던 발전도상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 호상간에는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국경문제를 비롯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미해결문제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 적은 나라들만이 망라되여있던 때보다 그 대렬이 급격히 확대된 오늘에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함께

많아졌다.

여러가지 사정은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고수하며 이 운동성원국들이 자기의 대내외정책에서 반제자주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리념을 고수하는것은 현시기 제국주의반동세력이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시키고 그 진보적성격을 거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인류를 또다시 새 세계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고있다.

지난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유엔무대를 가로타고 거수기를 발동하여 세계인민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롱락하였으며 이러한 형세를 그 누구도 변경시킬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산이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신흥정치세력으로서의 참신성과 리념의 진보성으로 하여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유엔자체에서의 변화를 포함하여 세계정치력량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부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으며 이 운동을 말살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해나섰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자체를 종국적으로 소멸해버릴것을 바라고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그 성격의 변질과 기능을 《약화》시켜보려고 꾀하게 된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의 반제자주적립장에서 물러서게 하기 위하여 공공연한 정치적압력과 군사적위협을 감행하고있으며 경제적난관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을 굴복시키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와해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서 보다 위험한것은 이 운동을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악랄한 음모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밖으로부터 여러가지 압력을 가하는 방법과 함께 쁠럭불가담운동내부의 알륵과 충돌을 조장시킴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을 약화시키고 이 성원국들이 반제자주의 리념을 포기하는데로 나가게 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지켜야 제국주의의 온갖 지배와 간섭 책동을 짓부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참으로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은 이 운동이 시대와 인류 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 *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앞에는 자기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고수해나감으로써 이 운동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 문제들을 더욱 원만히 해결하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를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원국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권을 더욱 철저히 행사하며 운동의 근본원칙과 고유한 특징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같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고 행동할 때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대렬을 결속하고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며 모든 활동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여야 하며 그 어떤 지배세력에도 추종하지 말고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렬강들의 쁠럭에 끌려들어가지 않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는것만큼 결코 어느 한 쁠럭을 위하여 복무하는 운동으로 될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로 있어야 하며 쁠럭에 가담하는 나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또한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담보로 된다.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침해하면 결코 자기의 자주성을 지켜낼수 없으며 자기의 자주성을 존중할것을 요구할수도 없다. 자기의 자주성을 주장하기만 하면서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배타주의에 떨어지게 되며 이러한 나쁜 전례가 용납되기 시작하면 자주성의 원칙은 뒤흔들리게 되고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친선의 뉴대는 마사지게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성원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원국도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은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동등한 성원국이며 세계혁명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는 절대로 특권적 지위와 행세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을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은 어느 한두개의 나라가 그것을 고수하고 구현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나라들이 이 리념에 충실할 때만이 그것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전제로 하게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지지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만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의 념원을 저버리고 서로 배척하고 반목질시하게 되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쁠럭불가담운동의 내부문제에 간섭할수 있는 구실을 줄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것은 분쟁당사자들과 쁠럭불가담운동자체이며 제국주의자들만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엇서나가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내부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어디까지나 단결의 원칙에서 쌍방의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당사자들끼리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하며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이 공정한 립장에서 해결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을 고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

담나라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힘있는 공동투쟁은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단순히 자기의 념원만 표시하고 원칙을 론하는것만으로는 리념을 고수할수도 실현할수도 없다. 오직 단합된 력량으로 힘있는 실천투쟁을 적극 벌릴 때만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을 고수하고 목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이 직면하고있는 모든 문제들은 개별적나라들에 한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많이는 국제적성격을 띠고있으며 개별적나라들의 범위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인 경우에도 국제적 규모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완전히 풀릴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적지 않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반대하는 집단적인 공세를 취하고있는 조건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 리념을 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한 힘있는 공동투쟁을 벌리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된다.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의 공동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정의의 해방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무력으로 압살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랍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책동하고있으며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을 사촉하여 나미비아인민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무력으로 공격하고있으며 중미주지역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특히 미제는 조선반도와 아세아지역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침략적인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다그치고있으며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태세를 완비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더욱 첨예하게 조성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며 세계평화애호력량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더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강력한 반제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모험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을 지켜낼수 없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룩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데로 공격의 화살을 돌려야 하며 모든 군사쁠럭들을 해체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세계도처에 평화지대, 비핵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의 광범한 반전평화력량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안고있는 경제문제는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현존하는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의 경제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완고하게

고집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체의 경제력과 단결력을 강화하여야만 발전된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일수 있고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질서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모든 낡은 질서를 마사버리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지켜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하며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경제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조직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단계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남남협조를 확대강화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남남수뇌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업을 고위급에서 토의하며 추동하는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모든 성원국들이 이 운동의 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단결과 협조의 정신에서 적극 노력한다면 쁠럭불가담운동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책임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 독립, 쁠럭불가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을 고수하고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5호(루계 49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5월 1일　발 행•1983년 5월 3일

ㄱ—3592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494)

차 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자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담당자인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열렬한 애국자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는데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경험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 때만이 사람들속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켜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자기의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은 근로대중이 피로써 쟁취한 가장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이며 그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마련해주는 은혜로운 어머니품이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이다.

애국주의는 오랜 력사적행정에서 사람들의 심장속에 자리잡고 발현되여온 사상감정이다. 사람들은 선조들이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피땀으로 걸구어오고 지켜온 조국강토와 인민 그리고 민족의 슬기와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재부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남달리 애국애족의 감정이 강하고 조국의 촌토를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따라서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애국의 기개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지난날의 애국주의는 력사적, 계급적 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착취사회에서 애국주의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높이 발양될수 있는 토양을 가질수 없었으며 그것은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리용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결부되고 그것을 사상적기초로 삼음으로써 비로소 높은 의식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애국주의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하는 진정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43페지)

부르죠아애국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한 참다운 애국주의로서 그것은 철저하게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감정과 활동의 기저에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 놓여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나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고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결합된 민족적자주의식을 담고있다. 민족적자주의식은 온갖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외세의존과 사대주의 그리고 민족허무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것을 자생자결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혁명정신이다. 민족적자주의식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며 불타는 애국적열정을 낳게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바탕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의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의 결합은 자기 계급, 자기 제도에 대한 사랑과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단순한 민족애가 아니다. 그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리익은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적리익과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자기 민족과 조국을 떠나서 수행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지금처럼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국가단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투쟁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음으로 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지향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참다운 애국주의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비상히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현실과 조성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있게 진행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궁지

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민족적번영의 확고한 담보이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지닐수 없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가 강한 인민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민은 무력하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자부심이며 긍지이다. 조국과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자부심과 긍지는 인민들이 지니는 조국애의 근본원천으로 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자부심과 긍지와 하나로 잇닿아질 때 가장 숭고한것으로 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탁월한 수령을 모신 혁명적 자부심과 하나로 련결되고 그 직접적발현으로 되는것은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흥망이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에 달려있기때문이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조국은 빛을 뿌릴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 담보될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의 참다운 조국은 수령과 련결되여있으며 조국애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빛내여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남달리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오로지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시는 민족의 구성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하고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부강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조국땅우에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피는 륭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을 떠나서 조국의 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인공들이 말하고있듯이 지난날에도 선조들이 살던 곳, 종달새우짖는 아름다운 고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고향땅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하였다. 바로 종달새우짖는 아름다운 그 땅에서 그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눈물겨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참다운 인민의 조국을 세워주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가치를 지닐수 있었으며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귀중한 체험과 신념으로부터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사상감정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조국애가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될수 있으며 가장 숭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당

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곧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이라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조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조국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중요하게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전취하고 고수하며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모든 전취물들은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으며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고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은 그 우월성을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공고한것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여야만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수 있으며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은 이 제도를 마련하고 꽃피워나가는 수령의 위대성교양과 결합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오늘과 같은 륭성번영하는 조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근로자들의 실천투쟁과 결부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실천투쟁과 결부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열정과 창발성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

한 투쟁이 곧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감정은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자기 마을과 공장, 자기 일터를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과 그 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애국적열정이 높은 사람들은 나라의 재부를 알뜰히 거두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쓸모있게 만들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이바지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실천투쟁과 철저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애국심이 크고작은 모든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를 소중히 다루고 더 많은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 헌신적투쟁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새세대의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혁명의 전취물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로동계급가운데는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혁명선렬들이 이 제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생명을 바쳐 싸웠는가 하는것을 잘 모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80페지)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새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새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지난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유리한 환경에서 배우며 일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그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모든 고귀한 혁명적전취물들이 어떤 값비싼 대가로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그들이 언제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이 귀중함을 더욱 심장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특히 새세대청년들에게 백전백승의 위대한 기적은 희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심각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의 백전백승은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된다.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하는 과정에 혁명승리가 이룩되는것이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적으로 싸우는 참다운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심장속에 타번지는 불보다 뜨거운 조국애의 숭고한 모범에 무한히 감동되고 공감하게 된다.

사람의 한생의 보람과 가치는 생명의 길이나 그 어떤 개인적향락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

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 있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해안포중대원들은 그처럼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마음의 동요를 모르고 온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영생하는 삶을 지니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짧은 한생을 가장 값있게 빛내일수 있었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심도있게 진행함으로써 특히 새세대청년들로 하여금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맞받아나가며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생명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애국자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겠다는 혁명정신을 튼튼히 심어주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혁명가는 자신의 운명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키며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침략하려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고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울 높은 혁명적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있다. 이러한 열렬한 애국적열정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확고히 지키고있으며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있으며 국토와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분렬정책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늘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적감정은 반드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현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똑똑히 인식시키며 어떤 조건에서도 나라의 분렬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조국은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오늘 우리 조국은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그 뿌리를 찬란히 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으로 간직하고 조국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높은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갈것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림 수 만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행정에서 혁명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사업방법의 성격은 그것이 어떤 사상, 어떤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혁명적인 지도사상,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할 때 옳바른 령도방법을 세울수 있으며 그것은 대중령도의 참다운 무기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들을 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자랑찬 로정은 수령님식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실천적으로 확증해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예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방도로 내세우고있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혁명투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대한 모범, 주체의 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12페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서의 우리 당 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은 그것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의 운명은 인민대중이 그에 어떤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참가하는가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확고히 지켜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또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바로 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할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게 하는 사업방법만이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 사업방법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근본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무엇보다도 일군들로 하여금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실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래에 내려가 현실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으며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아래에 내려가야 모든 문제를 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하는것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아래에 내려가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낼수 없으며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울수 없다.

아래에 내려가야 또한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실속있게 도와주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옳게 가르쳐줄수 있다. 당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웃단위의 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에 내려가 아래를 참답게 도와주는 것은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웃기관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래의 실태를 손금보듯이 정확히 꿰뚫어볼수 없으며 아래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의 혁명과업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지도방조를 줄수 없게 된다. 일군들이 아래에 늘 내려가야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이렇듯 아래에 내려가 현실에 깊이 침투하는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다음으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가게 함으로써 대중의 힘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해결하여나가는것은 혁명적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에게는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할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있는 이 힘과 지혜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나 대중의 힘과 지혜는 오직 광범한 대중이 의식화, 조직화될 때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거대한 힘으로 전환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켜 그들자신이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근본요구로 제기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홀시하면서 인민대중을 적극적으로 교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담당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가야 인민대중이 높은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높은 창조력을 가질 때 모든것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낡은 틀과 격식에 맞추어 사업해나간다면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기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또한 일군들이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대중으로 하여금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옳게 보장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품성에 크게 달려있다.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대중을 적극 이끌어나가게 하는 사업방법만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될수 있다.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아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일군들이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진군로를 헤쳐나가야 사람들은 거기에서 커다란 감동과 고무를 받게 되며 실천투쟁에서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된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인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군중앞에서 겸손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인민의 참다운 벗이 될 때 대중은 그들을 믿고 따를수 있으며 창의창발성을 다 내여 일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사업방법만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참으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며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고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은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 대중이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이끌어주는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 광범한 대중을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창조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한 위대한 공적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창시하시고 끊임없이 완성하신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에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승리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헤쳐나가시는 과정에 주체의 사업방법의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군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61페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은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시원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조직동원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못해낼 일이 없다는 고귀한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이 겹쌓인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을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 힘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업방법을 바로 세우는것을 대중령도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창조와 건설의 나날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 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는 대중지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강화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속에서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울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주

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는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실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세우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위대한 인민적수령만이 창조할수 있는 탁월한 대중지도사상이며 대중지도방법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지하혁명활동과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해방후 오늘까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수위에 서시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신 전력사적기간에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방침,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방침,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 등 일련의 중요한 혁명적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이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더욱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당사업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또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혁명적사업방법이 확고히 확립되게 되였다. 당사업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정당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는 주체의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굽임없이 전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대중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주체의 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을 튼튼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

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전행정에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의 령도리론과 혁명적사업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온갖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뿌리뽑고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이 더욱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아래에 내려갈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일군들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의 념원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목적은 아래단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자는데 있다. 일군들이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에 내려가거나 한두번 유람식으로 내려가서는 아래에 내려가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일군들은 아래단위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아래일군들을 도와준다고 하여 그들의 사업을 가로타고 앉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합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래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아래일군들이 제구실을 바로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들을 성의껏 도와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데서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작풍은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표현이다. 만일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작풍이 거칠게 되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일군들이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게 되면 군중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게 되며 나아가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일군들이 대중속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며 군중을 아량있게 대해주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오늘의 생활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세심히 돌봐주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게 되며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

김 창 원

주체사상은 현실세계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와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것과 함께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의식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지침이며 혁명운동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원칙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업이며 여기에는 사상적요인과 물질적요인이 작용한다. 혁명운동에 작용하는 이 두 요인가운데서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가 하는데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는 근본원칙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혁명투쟁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

주체사상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을 밝힘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2~63페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투쟁에서 사상적요인,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운동의 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에서 사상적요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여 그들을 보다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들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하는 지도적원칙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

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워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은 사상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만큼 사람을 개조하는데서는 무엇보다도 사상개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야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동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그들이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여 그들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만들며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원칙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하는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혁명의 지도적원칙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힌 원리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지침이다. 따라서 혁명의 지도적원칙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얼마나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하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이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이 혁명에 대한 사활적인 리해관계와 혁명투쟁에서 그들자신이 놀아야 할 역할을 자각할 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군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으며 자주성을 짓밟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추동하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기가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강의한 의지, 투쟁력을 발휘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할수록 혁명투쟁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혁명투쟁에서는 물질적요인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고 추동되는것은 아니다. 물질적조건을 어떻게 조성하고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혁명에 불리한 물질적조건을 극복하고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발전하고 승리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혁명운동이 발생발전하는것만큼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며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될 때 아무리 간고하고 불리한 조건도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능동적으로 앞당겨나갈수 있다는 혁명운동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는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여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의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 그 사명이 있는것만큼 지도적원칙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지도적원칙이라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원칙으로 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의식성을 높여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지도적원칙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사람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며 혁명운동을 다그치는데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의식성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의

식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 사람들의 의식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강화되고 사회력사발전과 혁명운동에서 노는 역할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더욱더 다그쳐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성을 높이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바로 혁명운동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사람들의 의식성을 높이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

사상개조사업은 사람들을 혁명관이 바로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혁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을 소유한 혁명투사로 키우는것이다. 그러므로 사상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사람들을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서게 할수 있으며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게 할수 있다.

정치사업은 사람들에게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홀시하고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에만 매여달린다면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게 되는것은 물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여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원칙으로 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해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옳게 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1폐지)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혁명의 지도적원칙은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지도적원칙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으며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혁명운동이 민족국가

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이 자기나라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힘도 그 나라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사상개조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인민대중을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그들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매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야 비로소 승리할수 있다.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 인민대중을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이처럼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을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원칙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이 밝혀진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이 밝혀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혁명의 지도적원칙은 혁명의 원리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인것만큼 그 원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도록 구성되고 체계화되여야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지도적원칙과 함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도록 구성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며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창조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이고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비상히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게 되였으며 혁명을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겹쌓인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생산력발전수준이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변혁인 농업협동화를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운동의 대고조를 일으키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백년이 걸려서야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온 빛나는 결실이다. 이것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업적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 그 불패의 생활력

박 송 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고전적로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본질적내용과 그 정당성, 당의 인테리정책 관철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력사적문헌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인테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은 우리 혁명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1)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새 사회건설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테리문제란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고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를 키워내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부대를 꾸리는 사업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문화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사회계급적처지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는 오랜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심각한 인간개조사업이며 로동계급이 낡은 사회에서는 가질수 없었던 자기의 인테리부대를 새로 꾸려나가는 장기적이고도 어려운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민족간부의 육성이 심히 억제당하였던 지난날의 식민지예속국가들에 있어서 인테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새 사회 건설의 성과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선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인테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테리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테리가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으며 인테리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곧바른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에서 중요한것은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과 우리 인테리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방직후부터 그들을 포섭하고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02페지)

오랜 인테리에 대한 문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테리문제를 해

결하는데서 선참으로 맞다들게 되는 심중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인테리가 없이는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으며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도 제대로 할수 없다. 로동계급은 낡은 사회에서 자기에게 복무할 인테리부대를 마련할수 없으며 주권을 잡은 다음 당장 새 인테리를 키워내려고 하여도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게 된다. 이로부터 민족간부의 부족은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서는 첫시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로 된다. 이것은 오랜 인테리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이 인테리문제해결의 중요한 고리로, 새 사회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인테리문제의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 건설에 대담하게 끌어들여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식민지인테리의 특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지난날 큰 자산계급 출신의 인테리는 비교적 적고 그의 절대 다수가 소자산계급출신의 인테리였다. 이것은 일제식민지통치자들이 우리 인민에 대한 가혹한 략탈과 착취를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조선의 모든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민족공업의 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의 절대다수가 일제를 타도하고 로동계급이 정권을 전 다음에는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길에 들어설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오랜 인테리들은 또한 식민지반봉건 사회의 인테리들로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심한 민족적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일제를 증오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일떠세워보려는 반제애국사상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인테리들이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민주주의혁명에서 동력으로 될수 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또한 그들을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가려는 가장 능동적이고 혁명적인 방침이다.

오랜 인테리들은 주로 자산계급출신이였고 지난날에는 자본주의를 위하여 복무한것으로 하여 그의 계급적출신과 주위환경, 사회정치생활의 경위 등이 복잡할수 있으며 그들에게는 낡은 사상잔재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의심하고 배척하는것은 편협한 종파주의적경향으로서 로동계급이 자기의 인테리부대를 꾸리고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미치게 한다. 다른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한다고 하여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홀시한다면 새 사회 건설에서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일수 없을뿐아니라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들이 조장되여 사상적으로 변질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락오자로 될수 있다.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며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바로 오랜 인테리들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종파주의적경향과 그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와 혁명적교양을 홀시하는 그릇된 편향들을 다같이 배격하고 낡은 사회에 복무하여온 오랜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편에 확고히 돌려세우며 그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영

원히 혁명의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를 키워내는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렸다.》(우와 같은 문헌, 302폐지)

로동계급의 당이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것만으로는 새 사회건설에서 방대하게 요구되는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인테리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릴수도 없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자체의 민족간부를 가질수 없었던 조건에서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를 키우는것은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새 인테리의 육성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자체의 민족간부를 육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새 인테리육성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침이며 그것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도 사람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에 달려있다.

교육사업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특히 인테리육성사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를 직접 맡아 지도할 민족간부를 키우는 사업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민족간부를 꾸리는 사업부터 잘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이 자체의 민족간부육성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온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를 키울데 대한 방침은 또한 인테리대렬의 계급적 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 대오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혁명적인테리부대로 꾸리게 함으로써 인테리문제해결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오랜 인테리들의 개조과정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참으로 자체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이 심화되고 건설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게 되는 민족간부의 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제때에 충족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테리정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새 인테리나 오랜 인테리나 할것없이 전체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할것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과 언제나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3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인테리를 교양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것은 인테리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들은 우리 사회의 두 기본계급인 로동계급, 협동농민들과 함께 확고히 손잡고나아가는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 되였으며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신의 확고한 지향으로 삼게 되였다. 이것은 인테리들이 누구를 위하여 어느 계급에게 복무할것인가 하는 이중성문제가 이미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는 결국 당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복무하도록 하겠는가 하는데 귀착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혁명적 인테리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해결된다.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이처럼 인테리를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사회주의사회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이다.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또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의 구성부분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일뿐아니라 인테리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인테리들의 역할은 매우 커지며 그들에 대한 당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인테리들은 생활경로와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직업상특성으로부터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나쁜 사상에 물들수 있는 요소도 많다. 그들은 또한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할 기회도 적다. 그런것만큼 오랜 인테리나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의 인테리나 할것없이 모든 인테리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뿌리빼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하는 혁명적 인테리로 만들수 있다.

이와 같이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모든 인테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손잡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철석같은 의지를 반영한것으로서 인테리문제해결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때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전기간 어렵고 복잡한 인테리문제를 아무런 편향도 없이 빛나게 해결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은 빛나게 관철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산 현실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하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은 우리가 당을 창건할 때 인테리에 대한 규정을 바로하였으며 우리 당이 오늘까지 실시하여온 인테리정책이 참말로 옳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36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식민지인테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오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을 내놓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투쟁사에는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우리 인테리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하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적인테리로 키워온 자랑찬 업적이 찬란히 수놓아져있으며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기가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어렵고 복잡한 오랜 인테리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직한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 훌륭히 개조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해방후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우리 당에 있어서 오랜 인테리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중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낡은 사회의 인테리들을 청산할것이라느니, 일시적으로 리용할것이라느니 하면서 반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었으며 적지 않은 인테리들은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동요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복무할것인가,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것인가 하는 두 갈래의 길,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갈림길에서 모대기고있던 오랜 인테리들에게 그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반공소동과 와해모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의 오랜 인테리들은 물론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은 남반부와 해외의 인테리들도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단호히 결별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 당의 품으로 찾아왔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에 한몸바쳐나섰다.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던 복잡한 시기에도,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으며 전후 안팎의 원쑤들이 당에 도전하여나섰던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하여 견결히 싸웠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그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동요성, 이중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당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사회주의적인테리로 믿음직하게 자라났다.

참으로 오랜 인테리들을 혁명의 일시적동반자로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인테리로 확고히 개조한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되며 낡은 사회에 복무하여온 오랜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로 만들어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 가장 곧바른 길을 개척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로동계급의 새로운 인테리대군을 꾸리고 나라의 민족간부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한데서 힘있게 확증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 나라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오늘 자체의 민족간부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자기의 민족인테리를 가질수 없었던 형편에서 해방후 새 인테리육성이 가지는 절박성을 깊이 통찰한 우리 당은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내세우고 그를 드팀없이 관철하여왔다.

우리 당은 해방후 모든것을 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창설하고 온갖 교육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으며 가장 우월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와 선진적인 교육체계를 세워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훌륭히 키워왔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자체의 인테리부대를 꾸리는것과 같은 장기적이고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120만의 믿음직한 인테리대군을 마련하여놓았다.

오늘 우리의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우리의 기술자, 전문가들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인민경제로력구성에서 기술자, 전문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였으며 나라의 민족경제와 과학, 문화 발전의 휘황한 전망이 펼쳐졌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해방후 우리 당이 키워낸 주체형의 인테리들은 지금 40대, 50대의 씩씩한 일군들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가진 120만의 인테리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재부로서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고 영광이며 우리 인민의 더없는 기쁨이다.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시기 분맹퇴치운동으로부터 문화혁명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워낼만한 단 하나의 대학마저 없었던 우리 나라에서 새 인테리육성사업에서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하나의 비약이고 기적이며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인테리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난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

모든 인테리들을 혁명적인테리로 키워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가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실현하여나가는 우리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이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해방후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리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인테리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리고 혁명적조직생활과 벅찬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로동자, 농민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의 꾸준한 교양과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인테리들은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준비되고있으며 그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집단주의정신과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이 나왔으며 그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우리 인테리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생동한 현실이며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위대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인테리대군을 꾸려놓음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고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는 전기간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믿음직한 인테리부대를 마련해놓음으로써 해방후 빈터우에서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새 조국 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 경제와 문화를 일떠세우고 남들이 몇세기를 거쳐 수행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단 14년동안에 완수하는 세기적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문화와 강유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운 력사적위업에는 우리 인테리들의 자랑찬 업적과 공적이 깃들어있다.

우리 당이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큰 힘과 밑천을 넣어 키워낸 우리의 인테리대군은 앞으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힘을 내게 될것이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빛나는 위훈을 떨치게 될것이다.

참으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혁명적인 인테리대군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은 확고히 담보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미래는 창창하게 펼쳐져있다.

*　　　*

우리 나라에서 인테리문제의 빛나는 해결,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지난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았던것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성다해나가는 그 길에 빛나는 승리와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여있음을 심장깊이 체득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으며 여기에서 인테리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경제를 최신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를 표시하여주시였다.

모든 인테리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당과 혁명에 이바지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전공학습, 어학학습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

박 정 순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당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해나가는 지휘성원들이다.

매개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움직이고 모든 부문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해나가는 사업은 당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당일군들이 당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하여야 사회의 심장, 혁명의 추진력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일군들속에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1970년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일군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당사업,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자랑찬 년대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일군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게 되였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당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사업기풍이다.

우리 당은 지금 당일군들이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것을 중요한 방침으로 제기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주체형의 당일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영화화면에 옮긴 당사업독본과 같은것이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처럼 살며 일함으로써 참된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

당일군들이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는것은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당원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이다. 당일군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지도하며 그들을 발동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

당은 당일군들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을 움직이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한다. 당이 혁명의 참모부, 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활동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어떤 사상정신적특질을 지니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

사상정신적풍모는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일생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따라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품성을 지니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에 대하는 사람들의 근본 관점과 태도를 밝혀주며 혁명가의 기본품성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립장과 자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 당일군은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열렬한 혁명가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이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혁명가로 되는것은 그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당일군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몸에 티없이 순결한 주체형의 피가 흐르며 정치적자각이 높고 능력이 있으며 당의 정책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간부의 표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78페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지닌것은 주체형의 당일군을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정신적풍모의 하나이다.

당일군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이끌어주고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투사이다. 당일군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자신부터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여야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간고하고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발휘하는 백절불굴의 투지와 강의한 의지,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투쟁의욕과 혁명적열정,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비롯한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바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굴함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혁명적의지는 혁명가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영웅적위훈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주체형의 당일군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싸워나감으로써 언제나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을 대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영예를 지니고있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숭고한 높이에서 지닌 주체형의 당일군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끝없는 헌신성,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켜 굴함없이 싸워나간다. 그리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간다. 그리하여 주체형의 당일군은

우리 혁명에 대한 립장과 태도가 확고히 선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직업적인 혁명가로 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일군의 기본품성이며 사상정신적풍모의 근본특질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제일생명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그것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종시키며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의 혁명관의 핵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된다.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혁명운동발전의 본질적요구이며 그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선 혁명가들은 마땅히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어나가는 끝없는 충성심을 지닌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주체형의 당일군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인것만큼 당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뜻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일군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이다. 그러므로 당일군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립장과 자세가 그 누구보다도 투철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해나간다.

당과 수령을 받드는 우리 당 일군의 립장과 자세가 그처럼 투철한것은 그들이 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성, 불멸의 업적을 심장으로 체득한데 있다. 또한 그것은 자기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준 당과 수령께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혁명적의리, 깨끗한 량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립장과 자세라는데 있다.

우리 당 일군은 언제나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며 당과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보장하는데서 그 누구보다도 견결하다.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성심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당사업, 당활동을 벌리는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우리 당 일군의 사업과 생활은 실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모든것이 거기에 철저히 복종되고있다. 한가지 생각을 해도, 한마디 말을 해도, 한발자욱 걸음을 걸어도 언제나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과 수령을 떠나서 살수도 투쟁할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당일군의 숭고한 풍모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여기에 주체형의 당일군의 사상정신적풍모의 근본특질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 우리 당 일군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전통화된 공고한 특실이다.

백두밀림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첫 대오가 탄생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력사가 지나갔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전로정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듦으로써 빛나게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이 자랑찬 력사는 혁명이 무슨 힘에 의해 승리하고 전진해왔으며 우리 혁명의 장래

가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 빛나는 행로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나간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전위들이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갈망하던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한 끝없는 영광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그들의 열화같은 충실성이야말로 그처럼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견결히 보위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힘있게 떠밀어준 위대한 사상정신적힘이였다.

장구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수많은 시련의 고비들을 넘기지 않으면 안되였으나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갔으며 그 길에서 모든 충성을 다하여왔다. 그리하여 지난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이 항일혁명선렬들의 첫째가는 생명으로 되였던것처럼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석같은 혁명적 신념으로, 의지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의지는 조선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다져지고 빛나게 계승되여온 가장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이 사상감정을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계승해나가는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당일군의 사상정신적특질은 그처럼 위대하고 숭고한것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은 당사업실천과정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당사업실천은 당일군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실천이란 곧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혁명관이 똑바로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6페지)

당일군들의 혁명사업, 혁명활동이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난 당사업, 당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당 일군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주체형의 당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투사이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우리 당 일군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집중적표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장하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그런것만큼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을 떠나서 당과 수령께 충실할수 없고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이 없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할수 없다.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할줄 아는 사람, 말은 적게 해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줄 알고 실천할줄 아는 사람이 당과 수령께 충직한 진짜배기당일군이다.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투쟁의 기수이다. 그들의 모든 사고와 실천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겠는가 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당정책을 관철하지 못하고서는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먹는 밥도 모래알처럼 느끼는것이 주체형의 당일군의 심정이다. 자나깨나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며 그것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 여기에 우리 당 일군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으며 삶의 참된 보람이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당일군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드높은 혁명적기백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다.

조건이 유리하게 갖추어질것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주동적으로 그것을 마련하는 기풍, 이것이 바로 우리 당 일군의 투쟁기풍이며 사업방식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언제나 모든 조건이 마련된 환경에서 순조롭게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조건이 불리하게 제기될수 있고 예견하지 않았던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설수도 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우리 당 일군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감으로써 우리 당 일군들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기어이 철저히 관철해내고야마는것이다.

이신작칙은 당정책관철에서 우리 당 일군들이 언제나 견지하고있는 혁명적 사업기풍이다.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두터이 하고 당의 권위를 높이며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무슨 일에서나 지휘관이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면 대중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며 일에서 성수를 내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당일군들이 대중속에서 이신작칙하며 실천적모범을 보이는것은 대중을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며 그자체가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된다.

당일군의 사업방법과 활동방식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남보다 새벽공기도 먼저 마시며 험한 길도 앞장서 걷는 일군이 바로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 일군은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설 때마다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는것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은 또한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데서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군중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투쟁목적은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워가지고 혁명을 하여 그들이 마음놓고 단란하게 잘살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500페지)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들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이 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존엄을 지니고있으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어머니당의 일군인 우리 당일군은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어머니다운 풍모를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임무로 삼고있다.

당일군은 사람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따뜻이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참다운 기사이다.

우리 당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일상적으로 세심히 교양하여 그들이 정치적생명을 언제나 고결하게 간직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사상정신적량식을 부단히 넣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준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키워준 어머니보다도 당조직과 당일군들을 더욱 믿고따르며 사업상문제뿐아니라 개체생활에서 제기되는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다 털어놓고 허물없이 말하며 당조직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다.

이처럼 당일군들이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따뜻이 보호해주고있기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충성의 한길에서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 당 일군은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다.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에 충직하고 인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여 인민들이 잘살게 함으로써 대중의 존경과 신임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보람은 없다. 당일군들은 당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있기에 언제나 자식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는것이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지는것은 군중과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 일군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군중과 혁명동지들을 존경하며 그들과 허물없이 어울릴줄 아는 고상한 품성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군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참된 일군으로 되고있다.

당일군들의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은 생활을 검박하게 꾸려나가는데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군중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생활하며 온갖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을 전투적으로 검박하게 꾸려나가고있는것이다.

당일군들은 겸손하고 소박하다고 하여 결코 무맥한 호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며 모든 문제를 높은 계급적안목에서 분석판단하고 온갖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투사로 되고있다.

우리 당 일군은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때에 원칙적으로 깨우쳐주고 결함을 고쳐나가도록 진심으로 도와준다. 어머니가 속이 타서 자기 아이를 때려도 그 애가 오히려 어머니치마폭으로 기여드는것처럼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잘못을 강하게 추궁하여도 그것은 진심으로 깨우쳐주고 도와주는것으로 되기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당일군들을 친부모와 같이 믿고 따르고있다.

이처럼 주체형의 혁명가, 당일군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휘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당 일군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일군들의 제일생명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며 정치적생명의 기사로서의 역할을 할데 대한 방침, 사상생활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당일군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로 준비시킬데 대한 방침,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방침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혁명적 방침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당일군들을 위한 회의와 대규모의 강습도 조직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주었으며 당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당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당일군들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일군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 일군들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정열을 지니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 일군들은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투쟁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로 되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정치적생명의 기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당일군으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우리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교과서이다. 영화는 현시기 우리 당이 요구하는 주체형의 당일군은 어떠한 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주체형의 혁명가, 투쟁의 기수로서의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은 어떻게 하고 당의 군중로선은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 어떤 사업 방법과 작풍을 지녀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당 사업과 활동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깊이있는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당일군들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사상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나간다면 그가 군당책임비서이건, 초급당비서이건 할것없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으로 더욱 훌륭히 준비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를 단순한 예술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삼고 자신을 영화의 주인공이 지닌 정신도덕적풍모의 높이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철저히 갖추고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은 주체의 혁명관 확립을 위한 근본방도

박 종 선

혁명관을 옳게 세우는것은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람들이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혁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혁명관으로 어떻게 무장하였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

혁명관은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혁명관이 똑바로 선 사람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은 여러 단계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것만큼 혁명관을 옳게 세우기 위한 방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의 본질과 그 확립을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관의 본질이 새롭게 밝혀지고 그것을 정확히 세우기 위한 방도가 전면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5페지)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중심의 새로운 혁명관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근본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것만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복무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혁명은 오직 인민대중의 근본리익,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조건에서만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혁명운동은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에 대하는 것은 혁명투쟁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

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인민대중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인민대중의 활동을 떠난 혁명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세우자면 인민대중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혁명에 대하는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졌다고 하여 사람들이 저절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는것은 아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투쟁정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숭고한 혁명적자각과 확고한 신념이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강의한 의지이다. 따라서 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투쟁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시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혁명관확립의 합법칙성과 인간개조의 본질적요구에 맞는 옳은 방도가 밝혀져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관의 본질과 그것이 사상 개조, 인간개조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적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혁명투사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8페지)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려면 혁명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강한 조직생활과 혁명적실천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한다.

혁명적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은 주체의 혁명관 확립을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적학습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량식을 얻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며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혁명적학습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세우게 되며 공산주의혁명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혁명적학습을 강화하는것은 혁명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에는 혁명의 본질과 혁명운동의 원리, 원칙, 방도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전략전술을 체득하여야 혁명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발생발전하는가 하는 진리를 깨달을수 있으며 높은 계급적안목과 혁명적식견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혁명적학습은 또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체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이며 혁명의 원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강의한 혁명정신이다. 그리고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며 혁명조직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규률성의 정신이다.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원리적으로 체득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게 한다. 혁명적학습을 강화하여 이러한 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학습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문헌,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는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담겨져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문헌,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는것은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기본요구로 나선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혁명적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일생동안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야 한다.

혁명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는것만큼 학습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중단한다면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학습을 강화하는것이 혁명관이 바로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근본요구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일생동안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한다. 그래야 배운 혁명리론과 지식을 혁명실천에 옳게 구현할수 있으며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인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나가게 되고 부단히 혁명적으로 단련되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이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생활방식으로 된다는것과 관련된다.

공산주의운동은 본성에 있어서 고도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이다.

공산주의운동은 혁명대오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요구한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지니게 된다.

따라서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정신을 키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생활방식으로 되며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여기에 사람들을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질수 있으며 혁명정신을 끊임없이 키워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생활환경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데 따라 달라진다. 혁명적조직생활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강화하여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사상과 품격을 갖추고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으

며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은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며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정치활동, 혁명활동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사상투쟁속에서 부단히 단련할 때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해나갈수 있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 습성화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에 성실히 참가하여 조직생활을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울데 대한 방도야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순간순간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일생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직하게 싸워나가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혁명적실천은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혁명적인 방도의 하나이다.

혁명적실천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이다. 사람들은 거창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어나가게 된다.

혁명적실천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시키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는것은 혁명관을 바로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혁명적실천을 떠나서 사람들은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될수 없으며 혁명관을 바로세울수 없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변혁하고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어떤 풍파와 시련도 용감히 뚫고나가는 강의한 혁명정신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 혁명적실천이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되는 리유가 있는것이다.

혁명적실천은 또한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훌륭히 갖출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혁명가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투사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높은 자질과 품격을 지녀야 한다. 높은 자질과 품격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는것이다.

공산주의혁명가가 소유해야 할 자질과 품격은 저절로 갖추어지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되게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실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는것은 주체의 혁명관이 옳게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곧 주체의 혁명관이 바로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이다.

말은 비록 적게 하더라도 진심으로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사람, 누가 보건말건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사람이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로 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계급투쟁의 실천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는것이다.

사람들은 계급투쟁의 실천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고 적아를 가릴줄 알게 되며 계급적원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을 키우게 된다. 그런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과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하며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려면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도 중요한 혁명투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사람들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고 집단주의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며 로동계급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자신을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밝힌 혁명적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세울데 대한 방도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개조, 인간개조 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관 확립의 근본방도가 제시됨으로써 사상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상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것은 사상이며 따라서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은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새로운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새로운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변질되지 않게 부단히 단련하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강압적방법이나 행정적방법으로 할수는 없다.

우리 당에 의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세울데 대한 혁명적방도가 밝혀짐으로써 인간개조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사상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힘있게 다그처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

성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근본방도에 관한 사상은 사상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헌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관 확립의 근본방도를 밝힌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은 우리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혁명관을 세우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으며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전당과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한 방침,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한 방침, 혁명과업수행이 곧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들을 비롯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데 대한 혁명적 방침들을 내놓았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관의 핵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 신념으로,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드팀없는 신념으로써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당과 수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모든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우리 혁명을 놓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활동방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결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으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며 그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는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적요구

강 창 남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이 장엄한 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사회적로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리용하는가, 로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23페지)

사회적로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리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려면 자연을 개조하여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적로동을 옳게 조직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갈수 없으며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로동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적로동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데 들이는 사람들의 로동을 말한다. 사회적로동에는 산 로동과 과거로동이 속한다. 산 로동은 로동력을 가진 사람이 생산을 진행할 때 새롭게 들이는 로동이며 과거로동은 사람이 생산과정에서 리용하는 생산수단에 들어있는 로동이다. 그러므로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산 로동과 과거로동 즉 로동력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적게 지출하면서도 보다 질이 높은 생산물을 더 많이 창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가장 우월한 경제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의 목적은 전적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생산을 빨리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물질적부를 늘여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있다.

모든 생산물은 다 일정한 사회적로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사회적로동을 얼마나 효과있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물질적부의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기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산 로동과 과거로동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할 때 같은 량의 로동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창조하고 생산물단위당로동지출을 줄일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이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은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실현하자면 그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이러한 요구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적로동의 랑비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가 요구하는 방대한 로력과 설비,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할수 없게 하며 따라서 생산을 빨리 늘이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은 또한 축적을 늘여 생산을 끊임없이 확대할수 있게 한다.

축적을 늘이는것은 생산을 확대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축적을 늘여야 생산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축적은 사회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순소득은 생산이 장성하고 생산물의 원가가 낮아지는데 따라 늘어난다. 생산물의 원가는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수단과 로동보수에 대한 지출을 화폐적으로 표현한것이다. 따라서 원가는 사회적로동을 효과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할 때 낮아지게 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게 되면 사회총생산액을 증대시키고 원가를 낮추어 축적의 기본원천인 사회순소득을 늘일수 있게 되며 축적에 더 큰 몫을 돌릴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은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복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확고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은 원가저하와 사회순소득의 장성에 기초하여 소비품의 가격을 낮추고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을 늘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

이 모든것은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이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물질적부를 늘임으로써 끊임없이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자본주의경제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445페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현상이며 그 취약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적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생산자원은 국가와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로력, 설비, 자재 등 생산자원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사회경제적기초가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거대한 우월성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는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실현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정확히 관리운영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로부터 경제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대고조를 견지하여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는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전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던 시기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되여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복구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경제가 복구되는데 따라 공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전후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나섰던 긴장한 로력, 설비, 자재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복구건설의 아름찬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이 당면한 과제로 나서고 있던 1956년말에 몸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자!》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면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났고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동안에 넘쳐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의 구호야말로 사회적로동

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게 하는 전투적구호로 된다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실현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인민경제의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심으로써 대중을 적극 동원하고 사회적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것이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이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적로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의 과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 현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설비관리, 자재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경제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로동생산능률을 계속 높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비약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은 사회주의경제를 정확히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되는 동시에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적극 발양시키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지금 우리 인민앞에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높은 발전수준에 올라섰다.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졌으며 그 기술장비수준은 전례없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수단들의 리용범위는 더욱더 확대되고 그 역할은 날로 커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양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위력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여기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더욱 다그쳐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여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한사람당생산액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361페지)

로동행정사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하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로동력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이다. 과학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에 의해서만 기계설비가 은을 낼수 있고 원료, 자재가 효과적으로 쓰일수 있다. 따라서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로동조직을 짜고드는것은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선차적요구로 나선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사회적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을 옳게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져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모든것을 창조적로동에 바칠수 있으며 적은 로동으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정치사업, 로동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로동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은 생산에 방대한 인적요소가 리용되며 근로자들의 로동활동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오늘 산 로동을 효과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로동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해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로동활동을 조직화하고 로력랑비를 없앨수 있으며 그들이 더욱더 능력을 내여 일하게 할수 있다.

로동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로력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로력을 고착시키는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이고 한사람당생산액을 더욱 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만큼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생활상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할수 있고 높은 능률을 내여 일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로동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로동보호대책들을 적극 세우며 위생문화적인 작업조건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풀어주어 그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을 모르고 모든것을 당과 국가, 사회와 인민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바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설비관리, 자재관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설비는 생산에서 산 로동의 능률을 높이고 원료, 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그 생산능력이 매우 커진 오늘 설비리용률을 높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생산단위들에서는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근로자

들이 설비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설비를 끊임없이 개조하며 설비리용률제고에 대한 경제적자극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재관리를 잘하여 자재소비기준을 낮추고 자재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원료,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단위생산물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거로동의 지출을 줄이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기술혁신은 로동수단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도입할수 있게 함으로써 산 로동을 절약하고 기계, 설비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며 원료,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생산과 경영 활동전반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진행하여 모든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는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술을 혁신하고 새기록, 새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운영해나가는 지휘성원들이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가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그런것만큼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자면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또한 경제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정통함으로써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당경제정책관철과 군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

장 화 준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이 장엄한 현실은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의 힘찬 로력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당의 경제정책은 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여기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목표와 방향뿐아니라 인민경제 부문들과 개별적단위들 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오늘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력사적리정표로 되는 80년대를 새로운 승리와 성과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80년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년대이다. 우리 당은 80년대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켜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함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적극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이 펼쳐준 웅대한 경제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이것은 오늘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뜻깊은 80년대를 더욱 찬란히 장식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 특히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 군의 참모부로서 군사업의 모든 전선들, 모든 부문들을 다 틀어쥐고 당정책을 잘 침투시키고 조직사업을 잘하고

간부들이 와장에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84~285페지)

군당위원회는 나라의 200분의 1을 맡고있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군안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집행단위이다. 군당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군안의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 근로단체들을 발동하여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간다.

군당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데 있다.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군앞에 나선 그 어떤 경제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다. 당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관철하며 경제건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는가 하는것은 군당위원회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지난 기간 통천군당위원회는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으며 군앞에 나선 모든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우리 통천군은 태백산줄기를 따라 바다가에 길게 자리잡고있다.

지난날 이곳에는 바다를 끼고있으면서도 어항이나 고기배 하나 변변한것이 없었으며 땅이 척박하고 바다바람이 심하여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필요한 소비품도 모두 다른 지방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통천군에서는 오늘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인민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군을 몸소 찾으시고 자연지리적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수산업과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친 현지지도를 통하여 우리 군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군당위원회는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는 특히 최근년간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군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시켰으며 지방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통천군에는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수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 물고기를 대량적으로 잡아내고있으며 식료품공장, 일용품공장, 직물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여 소비품에 대한 군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또한 관개공사와 치산치수, 토지개량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어떤 왕가물과 비바람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고있다. 최근 몇해사이에만 하여도 군당위원회가 군안의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 근로단체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수백정보의 새땅을 찾아내고 군소재지는 물론 농촌마을들에까지 현대적인 살림집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수많이 건설함으로써 군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보다 향상되였다.

물론 지난 기간 통천군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 군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여 당경제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귀중한 경험들을 체득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군당

위원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모를 박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야 당경제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고 군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을 빨리 추켜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언제나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갈수 있으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당경제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일군들의 립장과 자세가 투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출발점으로 되며 일군들의 당성을 재는 척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화, 신조화한 일군만이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군에서 벌린 새땅찾기투쟁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 세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가 미림벌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100정보의 새땅을 찾아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열두개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쳐지면서 여러 갈래로 뒤엉켜흐르는 미림벌에서 수많은 물웅뎅이들을 메우고 수만립방메터의 돌무지와 수천차량의 나무뿌리를 둘추어내여 100정보의 농경지를 얻어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겨울의 혹심한 추위와 세찬 바람속에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이듬해봄부터 개간한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자니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난관이 겹쌓이게 되자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는 주저하고 동요하면서 공사에 적극 달라붙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것은 그들이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당위원회가 행정경제일군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걸린 고리들과 그 원인을 포착한데 기초하여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대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새땅찾기를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 보면서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것은 자연개조사업을 적극 벌려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된다는것을 깨우쳐주면서 새땅찾기를 위한 투쟁이야말로 당의 구상을 실현하고 군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으

로 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기간 여러 지방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연을 개조하여 알곡생산을 늘이고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친 좋은 실례들을 들어가면서 일군들이 옳바른 립장과 자세에 서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능히 군자체의 힘으로도 짧은 기간에 새땅을 많이 찾아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군당위원회가 일군들속에서 당정책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린 결과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던 현상들은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새땅찾기전투는 보다 활기를 띠고 힘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미림벌에서 100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는 전투를 자랑찬 성과로 결속지을수 있었으며 마침내 새로 찾아낸 땅에서 봄철씨붙임까지 훌륭히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는 련이어 당이 제시한 지하수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림벌 100정보 밭들레에 대형우물을 파는 공사를 전격적으로 추진시켰으며 그것을 완공한 다음에는 자산, 대곡, 보탄 등 여러곳에서 새땅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나갔다. 물론 이 과정에도 난관과 애로는 계속 제기되였다. 그러나 군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모를 박고 조직지도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당에서 자연개조방침을 제시할 때마다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군의 경지면적을 빨리 늘일수 있었다. 새땅찾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경지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알곡생산이 더욱 장성하고 지방공업의 원료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인민생활이 또한 보다 향상되게 되였다.

생활은 군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모를 박고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 때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바로 이 고리를 풀어야 지방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은 또한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이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는데 있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7페지)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는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속담에 있듯이 독불장군이라고 어느 당일군 혼자의 힘만으로는 용빼는 재간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는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킬 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대중동원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통천군당위원회는 바로 당이 제시한 대중동원사업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당경제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기본방도가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당이 제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과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혁명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적극 벌리는것이였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적인 성과로 가득찬 영광의 년대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자랑찬 력사는 전체 인민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그 어떤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대중적인 혁신운동을 벌려 온 나라가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열정으로 들끓게 하는 바로 여기에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치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곧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우리 군당위원회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 그때와 같은 혁명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군의 면모를 새롭게 개변시킬수 있었다.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건설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때였다.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자면 그에 필요한 로력, 자재, 설비 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그런데 군앞에 나서고있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로력과 자재, 설비를 건설에 동원한다는것은 매우 아름찬 일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우에서 이 문제를 풀어줄것을 바라면서 앉아 기다릴수도 없었다. 방도는 오직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혁명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 선전부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과 편의봉사시설을 건설하는것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가지는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모두가 떨쳐나서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투쟁하여 군의 면모를 개변함으로써 뜻깊은 80년대를 새로운 승리와 성과로 빛나게 장식할데 대한 내용으로 선동공세를 줄기차게 들이댔다. 또한 군당위원회는 사로청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청년들로 하여금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군소재지와 농촌마을 건설에서도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이처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감에 따라 군안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방대한 로력예비를 찾아내고 자재, 설비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이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의 위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대중정치사업을 심화시켜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 여기에 당이 제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할수 있었다.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옳게 구현하여야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벌

리는것만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대치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일군들 특히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언제나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제손으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아래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당경제정책을 해설침투하는 사업으로부터 그 관철을 위한 조직사업과 총화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직접 장악하고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당조직들앞에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며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해나가는 당일군의 참다운 일본새이다.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구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당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당사업의 대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이다. 군중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군중을 각성시키고 군중을 움직이는 사업을 떠나서 당일군들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들이 군중을 잘 알고 그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려면 사무실에 앉아 맴돌것이 아니라 군중이 일하는 기대옆과 논밭머리를 찾아 내려가야 한다. 땅을 잘 알아야 그에 맞는 종자를 심을수 있고 착실한 수확을 거둘수 있듯이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현실을 깊이 파악하여야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군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주었을뿐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문제는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었으며 제기된 모든 경제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이 남을 시키는 방법으로 일할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이 직접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속에서 강연도 하고 해설담화도 하며 경제선동도 벌리여 광범한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당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으며 그 집행정형을 직접 장악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특히 군앞에 새롭고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일군들의 준비정도와 대상의 특성, 작업조건에 맞게 분공을 주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제정된 날자에는 어김없이 현장에서 총화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나갔다. 당경제정책집행에 대한 총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모범적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일반화하고 나타난 편향과 부족점을 바로잡아 한번 시작한 일은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수행하도록 힘있게 추동하였다.

이러한 사업방법은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패기있게 일하도록 적극 고무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실로 커다란 은을 나타내였다. 군당일군들이 제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조직지도한 결과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더욱 높아지고 상하가 기맥이 잘 통하게 되였으며 서로 합심하여 군앞에 나선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우리가 큰 힘을 넣은것은 또한 당일군들속에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의 사업작풍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이신작칙하는 문제입니다.

…

사업에서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할때 안되는 일이란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311페지)

군당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당경제정책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군당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는가 하는것은 우리 군에서 탄광사업을 추켜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났다.

통천탄광에서 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군에서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가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아래의 실태를 료해하고 탄광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풀어주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포치와 총화로써 사업을 대치하다나니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새땅찾기와 군소재지를 건설할 때의 경험을 살려 자신들이 직접 막장에 들어가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갈것을 결심하고 가족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다. 군당책임일군들은 막장에서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보다 큰 기쁨을 드리자고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직접 착암기를 억세게 잡고 새해 첫 석탄생산전투를 앞장에서 진행하였다. 한그람의 석탄이라도 더 캐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군당책임일군들의 이러한 실천적모범은 탄부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우리 군에서 탄광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은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에 대한 실효모임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였다. 영화주인공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놓고 자신의 사업을 심각히 총화하는 과정에 많은 일군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석탄전선을 도와줄것을 결심하고 탄부들속으로 들어가는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리하여 석탄생산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모든 탄부들이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생활은 이신작칙 그자체가 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당일군들이 투쟁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곳에서는 언제나 혁신이 일어나고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힘있게 실증해주고있다.

이렇듯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우고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며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방침대로 일해나갈 때 반드시 자랑찬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였으며 당조직의 전투력을 높이고 당과 대중의 련계도 보다 강화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은 조국통일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전 금 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 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열돐이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슴뜨겁게 새겨보고있으며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반드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되는것을 막고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던 시기에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폭넓은 협상방침에 의하여 1970년대 초에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마련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앞에는 한때 통일의 려명이 밝게 비치였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화를 제놈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리용하려고 획책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공공연히 짓밟고 외세의존과 민족의 영구분렬로선을 집요하게 추구하여나섰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대화의 막뒤에서 민족의 분렬을 각방으로 꾀하여오던 남조선괴뢰들은 1973년 6월에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는것을 《정책》으로 로골적으로 들고나오는데까지 이르렀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통하여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48폐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은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며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북과 남의 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사이의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그 기초우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것은 끊어졌던 민족적뉴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가 실현되여야 남북간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릴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리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합작을 실현할수 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게 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전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옳바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였다.

또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은 북과 남이 각각 유엔에 따로 들어가 우리 나라의 분렬이 국제적으로 고정화되는것을 막고 대외관계분야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이처럼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통일구국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의 제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이 발표됨으로써 남조선괴뢰들의 이른바 《특별성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된서리를 맞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평화통일》의 간판밑에서 꾸며오던 온갖 교활한 영구분렬책동은 파산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참으로 조국통일 5대방침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영구분렬의 위기를 막고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에서 추진시킬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거듭 취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현명한 통일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심으로써 과도적단계를 거침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 력사적조건, 우리 민족의 의사에 기초하여 새로운 련방형태의 통일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야말로 오늘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이 함께 들고나가야 할 구국의 기치이며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위업이다.

이 성스러운 통일대강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하나로 단합되여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적력량을 마련

하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단행본, 10페지)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은 모두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적통일을 념원하는 애국력량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적력량을 이룬다.

조국통일은 오직 민족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북과 남의 애국력량과 남조선의 매국세력사이, 민족자주력량과 외래제국주의 침략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과 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란 곧 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의 애국력량으로 형성된 주체적력량을 한편으로 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로 이루어진 분렬세력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력량 사이의 투쟁이다.

분렬세력은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반동이고 소수이지만 폭력수단을 가지고 애국적인 주체적력량에 맞서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의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는 확고한 담보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고 결정적으로 분쇄할수 있는 주체적인 통일력량을 마련하는데 있다.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하여야 하며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력량을 형성한다는것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당파를 초월하여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을 말하며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력량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애국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하는것을 의미한다. 오직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북과 남, 해외의 애국력량의 대련합을 형성함으로써만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매국세력, 분렬주의세력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통일문제자체의 본질과 그 거족적성격과 관련되여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사이,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침략자와 피침략자사이의 투쟁이며 매국노와 애국자사이의 투쟁이다. 이로부터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는 거족적성격을 띠게 되고 전민족적위업으로 된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만 실현할수 있는 거족적사업이다.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것은 어느 한 특정한 계층과 계급이나 북과 남의 어느 한 지역인민들에게만 한한것이 아니다. 그런것만큼 민족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는 곧 민족전체의 리해관계와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서 살건 관계없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면할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조국과 민족을 통일하는것은 조선민족모두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숭고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망상일뿐아니라 나라를 외래침략자들에게 내맡기는 매국배족행위로서 나라와 민족을 영영 망하게 하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북과 남의 애국력량이 통일구국의 기치밑에 하나로 단합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통일을 첫자리에 놓고 단합하여 거족적인 구국투쟁을 벌려야 조국통일의 주객관적정세를 주동적으로 성숙시켜나갈수 있으며 우세한 력량으로서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영구분렬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다.

또한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야 우리 민족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민족적념원과 리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수 있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은 갈라진 조국을 민족공동의 유일한 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대상은 세계반동의 두목인 미제와 그의 비호를 받고있는 남조선의 매국도당이다.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도 로골적으로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는 분렬주의세력에 가담해나서고 우리 나라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은 더욱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에 관한 문제는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강력한 사회주의력량이 마련되고 남조선에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력량이 있지만 그 어느 하나의 혁명력량만으로는 전민족적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없다. 오직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에 의하여서만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나서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북과 남의 애국력량이 단합하는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온갖 흉계를 꾸며 북과 남의 애국력량사이의 오해와 리간, 반목과 대결을 격화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북과 남의 애국력량사이의 단합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영구분렬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세력권쟁탈을 위한 지대로, 군사적대결지대로 전변되고말것이다.

특히 오늘 안팎으로 궁지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미제가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미제는 올해에도 남조선전역에서 사상최대규모의 《시험전쟁》, 《예비핵전쟁》인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으며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외래침략세력과 남조선의 매국세력이 련합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반대하고 또다시 전쟁의 불집을 터드리려고 발광하고있는 현정세는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합된 힘으로 이에 대처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북과 남의 애국력량이 단합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영구분렬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참으로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력량편성상요구로 보나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현정세발전의 요구로 보나 통일위업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절박한 민족적과제이다.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다 민족적단합의 길에 나서야 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물론 북과 남의 애국력량은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고있고 각이한 사상과 리념을 신봉하고있지만 통일문제에서 단합하지 못할 근거가 있을수 없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은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이 서로 다르지만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조선민족이다.

민족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당파의 차이보다 앞세워야 할 력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사회생활단위이며 혈연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조국과 민족이 있고서야 사상과 리념, 계급과 제도가 존재할수 있고 또 그것을 론의할수 있는것이다. 그런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는 북과 남의 애국력량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리익을 앞세운다면 능히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문제이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한피줄을 이어받았으며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슬기로운 단일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적공통성과 단일성은 그 누구도 깨뜨릴수 없는 하나의 고유한 특성으로 되고있다.

북과 남이 인공적으로 분렬된 때로부터 38년이 지나는동안에 비록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커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만년의 력사의 흐름속에서 형성된 민족의 공통성과 민족적리익보다 우위에 놓을수는 없는것이다.

력사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을 가진 사회정치적세력들이 서로 단결하여 조성된 민족적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적위업을 성취한 전례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통일위업을 위해서는 북과 남의 차이를 보기전에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공통성부터 보아야 하며 주의주장을 앞세우기전에 민족의 리익을 앞세우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과 남의 애국력량은 얼마든지 단합을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반미자주화를 민족통일전선의 근본리념으로 삼고 투쟁하는것이다.

반미자주화는 민족통일전선의 근본목적에 부합되는 구호이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여 민족의 자주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의연히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전국적범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은 근 40년동안 민족분렬의 재난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민족적재난의 화근이고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며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없다.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사회를 자주화하는것은 민족적재난과 분렬의 고통을 가시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온 겨레가 념원하는 조국통일의 길을 개척할수 있다.

지난 1월 18일 공화국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반미자주화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획기적인 구국대책이며 현실적인 구국방안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도당은 이 구국방안의 실현을 필사적으로 방해하여나서고있으며 궁여지책으로서 그 무슨 당치도 않는 허황한 《제안》을 내놓고 마치 제놈들이 조국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내외여론을 기만해보려 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제놈들이 어떻게 하나 신성한 민족적대화의 마당에 끼여들어 통일을 위한 대화를 분렬을 위한 대화에로 이끌어가기 위한 범죄적책동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구국의 방도를 모색해나가야 하며 반미자주화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구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남조선에 수립된 파쑈통치체제는 바로 미제식민지통치의 지반으로 되고있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지향과 통일열망을 압살하는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포악무도한 파쑈악법들과 폭압수단을 몽땅 동원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 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민주주의적권리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진보적인사들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봉쇄되고있는 조건에서는 북과 남의 민족적뉴대가 이어질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그 어떤 대화도 모색할수 없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전두환괴뢰도당의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가 실현되면 조국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 인민앞에는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주체의 통일대강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해나간다면 3천리강토우에는 통일조선이 다시 탄생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에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이 건설될것이다.

통일구국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친 조선인민의 힘은 불패이며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미제의 정치경제적위기와 새 전쟁 도발책동

김 화 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서른세해가 지났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함으로써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침략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졌으며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얻어맞고 녹아나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정책을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여왔으며 오늘 그것은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매우 긴장해지고있다. 특히 조선반도의 정세는 1950년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무력침공을 개시하던 때를 방불케 하는 전쟁접경에 놓여있다.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미친듯이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류례없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 하여 멸망에 직면한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발악적 책동의 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계층은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안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며 밖으로는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35페지)

파국적인 정치경제적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안으로는 국내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밖으로는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그 출로를 찾으려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생리이며 상투적 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침략전쟁은 무엇보다도 원료원천지와 상품시장, 자본투하지를 마련하여 경제적난관을 《해결》하며 군사적강점과 군사기지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수행을 구실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자들의 리해관계에 복종시켜 동원리용하며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극심한 생활상고통을 강요한다.

제국주의지배층은 또한 침략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대중의 이목을 날카로운 국내문제로부터 밖으로 쏠리게 하려고 획책한다. 전쟁과 더불어 민족배타주의적감정을 고취하고 《국가의 리익》, 《국민적단합》과 같은 기만적구호를 내듦으로써 사회적불안과 계급적모순을 무마시키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다.

이와 같이 침략전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정치경제적위기를 《타개》하고 반동적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위기가 심각화될 때마다 그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났으며 미제의 조선침략전쟁 역시 그렇게 일어났다.

제2차세계대전후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제패의 어

리석은 야망밑에 일관하게 침략과 전쟁정책을 추구하여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 미제는 강대해진것이 아니라 도리여 쇠퇴하게 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과 교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위력은 장성하고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국제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특권과 전횡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게 전개되고있는 이 혁명적변혁과정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끊어지고있으며 그들의 마지막지탱점이 무너져가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세계안에서도 독점권과 지휘권을 거의다 잃어버렸다. 미제의 지시와 명령은 제국주의 《동료》들과 추종국가들 속에서 이전처럼 통하지 않게 되였다. 미제와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마찰과 충돌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규탄을 받고있으며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급격히 약화되고있는 가운데 파국적인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거듭하여온 자본주의세계는 1970년대에 들어와 연료위기, 동력위기와 결합된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였다.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는 확대심화되고있으며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파국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최근시기 미국에서 격화되고있는 경제위기는 특히 생산의 침체, 재정금융상태의 악화, 실업의 증대와 같은 현상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공업생산은 1982년 상반년기간에 197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0%이상 줄어들었다. 공장들의 조업률은 지난해 12월 현재 67.3%에 지나지 않는다.

공업생산의 감소경향은 자동차, 건설, 기계, 원유, 가스, 강철 공업 등 모든 주요공업부문들에 파급되고있다. 그중에서도 강철공업에서 더 혹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강철생산은 1982년상반년기간에 1981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9%나 줄어들었다.

생산의 침체와 함께 기업들의 판매량이 줄어들어 리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있다. 1982년 1. 4분기기간에만도 기업리윤은 70.5%로 감소되였다. 이것은 기업리윤이 3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것으로 된다.

생산이 줄어들고 불경기가 계속됨에 따라 공장,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198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의 기업파산건수는 1981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47.4%나 더 많아졌다. 파산선풍은 지난 시기 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머무르던데로부터 대기업들에까지 그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미제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통화재정금융상태가 걷잡을수 없게 악화되고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이른바 《침체인플레》가 고질화됨으로써 생산의 침체와 감퇴의 조건에서 통화팽창과 물가등귀가 지속되고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고있다. 미련방정부의 재정적자는 1981회계년도의 579억딸라로부터 1982회계년도에는 거의 그 2배에 달하는 1,107억딸라로 되였다. 그것이 1983회계년도에는 2,000억딸라, 1984회계년도에는 2,300억딸라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1981년에 1조딸라계선을 넘어선 국가부채는 지금 1조 4천억딸라라고 하는 천문학적수자에 이르고있으며 물어주어야 할 리자액만 하여도 1천억딸라가 넘는 형편에 있다.

미제가 처하고있는 경제위기에서 가장 엄중한 현상의 하나는 로동능력있는 인구의 더욱더 많은 수를 포괄하는 방대한 실업이다.

실업자수가 빨리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줄곧 높아만지고있다. 실업률은 1981년 1월에 7.4%였던것이 1982년 12월에는 10.8%로 증대되였다. 오늘 실업자수는 무려 1,200만명이상을 헤아리고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평균실업률에 비하여 2.5배나 높으며 흑인들의 실업률은 백인들의 실업률에 비하여 2배이상 더 높다.

경제위기는 국내의 범위를 벗어나 대외경제관계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딸라시세의 폭락, 상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무역 및 대외수지적자의 증대와 같은 현상들이 더 심하여지고있다.

미국경제를 전면적으로 휩쓸고있는 경제위기의 류례없는 심각성은 무엇보다 경제위기상태를 특징짓는 지표들이 모든 부문에 걸쳐 최고수준에 이르고있는것이다. 생산의 감퇴와 기업파산, 실업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물론 통화팽창과 물가등귀, 리자률, 딸라시세의 폭락, 무역 및 대외수지적자와 같은 주요지표들이 전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있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의 온갖 《간섭》과 《저지》책동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들이 계속 치달아오르고 전반적인 경제의 악화과정이 더욱더 가속도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의 현상태가 파국적일뿐아니라 그 전망이 비관적이며 암담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끊임없이 심화되여온 경제위기는 드디여 경제를 최악의 지경에 빠뜨려 마비와 붕괴에로 이끌어가고있다. 경제생활의 무질서와 혼란은 극도에 이르고 광범한 근로대중의 생활은 더욱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국제적지위가 급격히 약화되고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심각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호전적인 레간행정부를 출현시키였다. 레간은 미국지배층의 사활적인 요구를 대변하여 《힘에 의한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표방하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며 군비확장과 《힘의 우위》를 이룩하는것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다.

심각화되는 경제위기, 반동적, 반인민적 정책들과 그의 전면적인 파탄은 날카로운 정치적문제들로 번져가고있다.

인민대중의 불만과 사회적불안이 증대되고 반정부기운이 높아지고있다. 생존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반전, 반정부 운동과 같은 정치적 성격을 띤 대중투쟁들과 결합되여 근로자들과 광범한 계층을 망라하면서 확대되고있다.

1981년 9월 워싱톤에서는 약 30만명의 근로자들이 레간행정부의 반인민적인 사회경제시책에 항의하여 대규모의 반정부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여기에는 전국 각지역의 대표들뿐아니라 녀성대표, 흑인대표, 불구로동자대표, 소수민족대표들까지 광범히 참가하였다.

지난해 4월 미국의 수백개 도시들에서는 대규모의 《반핵주간》이 조직되였으며 6월에는 100만명의 군중이 참가한 최대규모의 반전, 반핵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9월에는 철도기관사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에 당황한 미국행정부는 근로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기 위한 《비상법》의 발동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위협해나서는 소동까지 벌렸다.

지배층내부의 갈등과 대립도 여러 면으로 더욱더 우심하여지고있다. 행정과 립법, 군부와 행정부의 우두머리들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커지고 암투가 격화되고있다. 레간행정부내에서 사임소동, 자리바꿈소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레간은 집권자로서 어느 선임자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중간선거의 결과는 레간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현정권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최근 미국의 한 통신은 레간도당을 지지하는것은 기껏해서 미국사람들의 20%밖에 안된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지금 레간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 지났다기보다 서산락일에 처했으며 완전히 끝나가고있다》고 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미제는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첨예화된 정치적위기로 하여 비틀거리고있다.

사실들은 지금 미제가 겪고있는 정치경제적위기가 쌓이고쌓여온것으로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모험적인 새 전쟁을 일으키는데서 찾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내들었던 <평화>와 <긴장완화>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이른바 <힘의 정책>과 <핵전쟁>에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적극 다그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선 군사비를 방대한 규모로 늘이고있다. 야심적인 《전력증강계획》과 《전략무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84회계년도의 군사비지출은 현회계년도보다 300억딸라나 더 많은 2,300억딸라에 달하고있다. 미국방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1985—1989회계년도 방위지침》에 의하면 이 기간의 전쟁예산은 거의 2조딸라나 된다. 이것은 매해 평균 4,000억딸라를 군사비로 쏟아붓는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미제는 《핵타격무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중성자폭탄과 《엠엑스》미싸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개발과 생산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그것들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있다.

최근에는 전략적공격무기의 완성을 더욱 다그치는 한편 질적으로 새로운 살용무기체계를 내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미 조작한 군사쁠럭들을 보강하는 동시에 세계 여러곳에 새로운 군사쁠럭들을 무어 그것들을 서로 련결시켜 틀어쥐려 하고있다.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으며 유사시에 해당한곳에 침략무력을 신속히 돌이밀수 있도록 《신속전개무력》까지 편성해놓고있다.

그리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을 반대하여 리간과 반목, 분쟁을 조장하고 괴뢰들을 내세워 지역전쟁, 대리전쟁을 벌려놓고있다.

미제는 파산을 거듭하여온 지난 시기의 세계전략들을 대신하여 가장 모험적이고 침략적인 《다발보복전략》이라는것을 꾸며놓고 임의의 시각에 세계 여러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감행할것을 타산하면서 유리한 지점에다 먼저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국제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새 세계대전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다.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은 조선을 비롯한 아세아에도 있고 중근동지역에도 있으며 구라파에도 있고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도 있다.

미제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며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세계전략에서 아세아를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기본무대로 삼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에 군사전략적요충지들과 침략적군사기지들을 더 많이 설치하고 현지주둔 침략군의 전쟁능력을 급격히 보충완비하였으며 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가장 악랄하게, 대규모적으로 벌리고있는 지역은 바로 조선반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습니다.》

대아세아전략에서 거듭 실패를 당하고 아세아의 여러 지역에서 쫓겨난 미제는 남조선을 마지막 지탱점으로 하여 아세아지역에 대한 지배를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호전광들은 전쟁전략의 당면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에 가장 큰 힘을 돌리고 여기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저들이 직접 혹은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 도발과 침입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그리고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는 군사작전을 언제라도 개시할수 있도록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과 괴뢰군, 일본과 태평양주둔미륙해공군무력을 비롯한 각종 군사인원과 전쟁수단들의 전략적배비를 일단락지어놓았다. 미제가 지난 2월부터 4월중순에 걸쳐 벌린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3》군사연습은 사실상 기회를 보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시험전쟁》, 《예비전쟁》이였다. 《팀 스피리트 83》군사연습에서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지역과 미국본토에 있는 침략무력과 모든 전쟁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움직이였다. 남조선과 그 주변을 뒤덮은 포연속에서 공화국북반부를 향하여 진공하는 공중투하작전, 상륙작전, 도하작전 등 공격작전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이것은 《팀 스피리트 83》군사연습이 바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계획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놈들이 오래전부터 추진시켜온 미, 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마감고비에서 다그쳐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엄중한것으로 되고있다. 사실상 3각군사동맹은 발동되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지휘밑에 미, 일, 남조선괴뢰들의 침략무력은 우리 공화국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실전과 다름없는 정황에서 공동작전연습을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는 지금 아무때나 전쟁이 터질수 있는 폭발적인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지역전쟁에 머무르지 않고 쉽사리 아세아와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될수 있는것이다.

중근동지역은 그 풍부한 석유자원과 군사전략적중요성으로 하여 미제가 침략정책을 강화하고있는 주되는 대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돌격대》로 리용하여 레바논에 대한 범죄적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수리아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획책하고있다. 미국방부는 얼마전에 아랍만과 인도양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19개 나라를 작전지역으로 하는《중앙사령부》까지 새로 조작하였으며 그 관할밑에 전방본부를 두려 하고있다.

미제는 지주로운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완전히 청산되여가고있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나 이 과정을 가로막으며 이 지역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그리하여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정치군사적지원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들을 나미비아인민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무력으로 공격하며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비롯한 전선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력침범과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도록 끊임없이 내몰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옛 세습령지와 특권을 보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중미주와 까리브지역의 정세가 더욱 긴장하여지고있다. 저들의 코앞인 이 지역에서 앙양되는 반미투쟁, 해방투쟁에 당황한 미제는 친미독재정권들에게 주는 군사원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특히 승리한 니까라과혁명을 말살할 목적으로 이 나라의 령공과 령해를 침범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면서 반혁명잔당들을 무장시켜 《국내군사작전》에로 계속 몰이밀고있다.

미제는 구라파에서도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미제는 《나토》성원국들에 군사비와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미국제 중거리핵미싸일을 전개하기로 한 《공약》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순항미싸일, 《퍼싱 2》미싸일과 같은 새로운 핵공격무력을 기어이 배치하려 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현시기 미제가 벌리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이 극도로 무분별하고 모험적인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결코 새 전쟁을 도발하는 방법으로 멸망하여가는 처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수 없다. 제국주의전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들과 광범한 계층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말살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쟁과 반동통치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

제국주의전쟁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강제로 예속화, 노예화하기 위한 폭력행동이며 그들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침략투쟁, 혁명투쟁이 있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이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파국적인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전쟁에서 찾으려 하였지만 그 전쟁은 결국 전쟁도발자들, 제국주의자들의 패망으로 끝났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제국주의 특히 미제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해있으며 그의 멸망과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 반제자주세력은 비상히 장성강화되였다. 력사의 흐름은 확고하게 혁명력량, 반제자주세력에 의하여 결정되고있다.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우리 인민은 이미 30년전에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적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힘은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필승불패의것으로 굳건히 다져졌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원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적들의 침공에 아무때나 대처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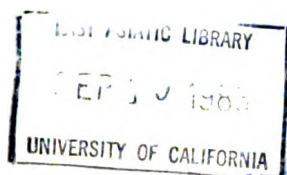
우리 인민은 미제의 전쟁책동을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것은 그들자신의 파국적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오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근 로 자 1983년 제6호(루계 494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6월 1일 발 행•1983년 6월 3일

ㄱ—3596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근로자

제 7 호(49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이다. 강철같은 조직성, 규률성이 보장된 당만이 참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을 당의 질적공고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언제나 깊은 주목을 돌려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그러한 높이에 이르게 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당대렬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의 확립, 이것은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력사를 장식하는 빛나는 업적이며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오늘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워야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엄격한 조직규률을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위력을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 빛내여 나가야 할것이다.

(1)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투적부대입니다. 우리 당에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혁명적규률이 필요합니다.

당내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지 않고는 당이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217페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조직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내부생활 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킬것을 요구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적특성이다. 그것은 혁명적당의 고유한 징표로 된다.

당은 고도로 째인 로동계급의 최고조직이다. 조직화된 력량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당원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지 못한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당의 위력은 그 조직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다. 의식적이며 조직적운동인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려면 그 참모부인 당이 모든 활동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지 못하고서는 대중을 하나와 같이 묶어세울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나서 로동계급의 최고조직,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그 전투력의 원천이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는것이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당만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단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조직적인 사회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성원들의 행동의 통일성과 높은 조직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끊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훌륭히 운영될수 있다.

사회를 조직화하는 사업은 정치조직 특히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인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그처럼 공고하고 위력한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당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한다는데 있다.

당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데서 그 중심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중심이 없는 조직적단결이란 있을수 없으며 중심을 잃으면 그것은 벌써 분렬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당을 창건하고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역할로 하여 조직적단결의 중심에 확고히 서게 된다.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당만이 그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조직된 부대로서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전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일수 있게 하는 조직성, 규률성만이 가장 공고하고 가장 위력한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형태의 조직성이며 규률성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지도체계는 전당을 수령의 두리에 결속시키는 혁명적 규률을 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다.

우리 당은 당안에 정연한 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매개 당원들이 당조직에, 아래당조직이 웃당조직에 철저히 복종하며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당사업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적인 질서와 제도이다. 새로운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시키는 정연한 질서가 있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규률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질서가 튼튼히 세워졌다. 그리하여 당안에는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성, 규률성이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바로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가장 공고한 조직성, 규률성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그처럼 공고하고 위력한것은 또한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조직규률은 조직에 망라된 성원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준수되고 그들의 자각성에 기초할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당원대중의 정치적자각에 기초한 조직성과 규률성만이 존재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규률에는 사소한 강제적요소도 있을수 없다. 강요에 못이겨 지키는 규률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그러한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당은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당원들의 자각성에 기초한 조직규률을 확립하는것은 정권을 잡은 당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당안에 자각적인 조직규률을 세우지 못하면 집권당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의 경향을 막아내지 못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에 저애를 줄수 있다.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책임성에 기초한 혁명적규률은 그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일관될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당의 조직적결속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수되고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하며 당안에 확립된 조직규률이 당원대중의 의지적인것으로 되게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하고있는 당원들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모든것을 당과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정신을 지니게 한다. 이러한 혁명적기풍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에 기초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오늘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풍모로 되고있다.

당의 규률에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끝까지 실현하려는 당원대중의 의사와 념원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원들은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과정을 곧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발현과정으로 여기고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당조직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생각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언제나 존엄있게 대하고 그것을 순간의 지체와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나가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당안에는 당조직을 끝없이 사랑하고 조직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분공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규률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이렇듯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함으로써 가장 의식적이며 자각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전체 당원들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자각적인 규률이 전당에 철저히 서있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성이 있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그처럼 공고한것은 또한 그것이 준엄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다져진것이라는데 있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대중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보장된다. 혁명실천과 유리되여서는 당안에 강한 조직규률을 세울수 없다. 혁명실천과정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공고화되는 과정이며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혁명의

시련을 뚫고나가는 행정에 이루어진 가장 공고한 조직성, 규률성이다.

조선혁명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행로를 걸어왔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은 조직규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복잡한 반제혁명투쟁위업과 심각한 사회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는 위대한 변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민족해방혁명과 계급해방혁명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인간해방위업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과정에 부닥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도 우리 당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허물수 없었으며 우리 당의 조직규률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고나가는 과정에 더욱더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우리 당은 모진 폭풍에도 드놀지 않는 전일적인 전투부대로, 그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되고있다.

실로 가장 공고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참다운 면모이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2)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혁명적 조직성이며 규률성이다.

《ㅌ. ㄷ》로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50여년의 년륜을 아로새긴 우리 당의 력사는 온갖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들을 극복하고 가장 공고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실현한 영광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시던 때로부터 당창건위업을 완성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시는 전행정에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시고 혁명대오안에 엄격한 조직규률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당의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의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이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반당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당안에 강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확립할수 있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는것은 혁명의 어느 한 단계에서만 제기되는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사적기간에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비록 지난날에는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해왔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은 굳건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사회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투쟁과정에 당안에 자유주의와 무규률적현상을 조성하려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성과적으로 극복하시고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확립하시였다.

전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됨으로써 우리 당은 그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당앞에 나서

는 혁명과업이 방대해질수록 그에 맞게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당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1970년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한 고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의 전제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다져진 공고한 조직성, 규률성으로 되게 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전당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곧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조직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할수 있었으며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이룩한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이 그 조직사상적기초의 공고성에 있어서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심화시킨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자랑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더욱 위력하며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5~26페지)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전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결속된 우리 당의 자랑찬 면모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 위대한 통일단결의 빛나는 화폭이다.

오늘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산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조직으로,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백전백승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위력한 당으로 되였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실현해나가게 하는 필수적조건이다.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이 튼튼히 확립됨으로써 당의 결정지시가 아래에 거침없이 내려가고 아래의견이 중앙에 신속정확히 반영되며 전당이 말그대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업이 당의 의도와 구상대로만 진행되고있으며 당이 일단 하자고 결심한 일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빛나게 수행되고있다. 당중앙의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력은 바로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서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철저히 구현된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력이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전투부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위력은 당원대중의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조직성, 규률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는 위력이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겸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려진것으로 하여 그 질적공고성이 비할바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고상한 풍모로 지닌 수백만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는 이것이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의 면모이다. 당원들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는 우리 당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며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가 굳건히 마련된 위력한 당으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3)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고 혁명의 전도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참말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앞길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사업은 당안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당의 조직성, 규률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당내부생활 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당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 당을 강한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위력한 방도이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

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혁명적조직관념이 높아야 당조직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고 생활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은 혁명적조직관념을 튼튼히 가짐으로써 언제나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총화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기 생활을 총화하며 정규화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수양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안에 세워진 혁명적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당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조직성, 규률성은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질서에 의하여 담보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당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당을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혁명의 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이 마련한 혁명적인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으며 그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비롯한 모든 당사업체계들은 당의 본성과 사명에 맞으며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에 따라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강철같은 조직규률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철저히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체계에서 기본은 당의 모든 사업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의도대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이다.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인것만큼 수령의 사상을 구현해나가기 위한 당사업체계는 마땅히 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세워져야 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가 더욱 철저히 보장되도록 당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에 더욱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투쟁을 통해서만 튼튼히 세워질수 있다.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들은 자유주의사상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그것은 다같이 당의 통일단결을 저애하고 그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인것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자그마한 무규률적인 현상도 용화묵과하지 말고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때에 극복해나가야 한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 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의 조직원칙과 생활규범에 따라 당사업과 당활동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고도로 조직화된 전투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의 본성적요구

김 철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여왔으며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이 공산주의운동의 원리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부합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론문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적인 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가 심오히 해명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길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옳바른 립장과 원칙을 확립하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불멸의 진리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을 지킬데 대한 요구가 흘러나온다.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에 대하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립장과 원칙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인 립장과 원칙이다.

주체적립장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자주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자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적립장에서 중요한 내용의 다른 하나는 창조적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자면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적립장의 중요한 내용의 다른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이자면 모든 사업에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적립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자주적립장을 떠나서 창조적립장을 생각할수 없으며 창조적립장을 지킬 때에만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요구는 혁명운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사정에 기인하여 제기되는것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류력사에서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이다. 따라서 혁명운동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며 이 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따라서 혁명운동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창조성과 의식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은 공산주의운동의 원리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혁명적 립장과 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벌려나가는 운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본성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본성에 있어서 철저한 자주적인 운동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투쟁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낼뿐아니라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이 그 목적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자주적인 운동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공산주의운동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벌려나가는 운동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어떤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강요될수 없다. 그것은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력사적사명을 자각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일면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벌려나가는 투쟁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상적으로 남에게 예속되여 자기의 신념이 없이 남을 맹종맹동할 때에는 온갖 편향을 범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원래 공산주의운동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자체가 자기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자주적인 계급인것으로 하여 온갖 낡은 사상과 부르죠아사회운동의 영향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할수 있었으며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오늘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지난날 공산주의운동에서는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가 있었다. 국제당의 창건과 그 통일적지도는 공산주의운동의 국제적규모가 크지 않았고 매개 나라 혁명의 발전수준과 과업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민족적부대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을만큼 준비되지 않았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필요한것이였고 가능한것이였다. 실제로 맑스가 창건한 제1국제당이나 레닌이 창건한 제3국제당은 공산주의운동에서 기회주의의 해독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운동의 국제적 환경과 조건은 크게 변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의 국제적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혁명의 정세와 과업이 심히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갈 때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민족국가단위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대신하여 수행할수도 없다. 혁명의 주인은 매개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다.

물론 매개 나라 혁명은 국제혁명운동의 떼수 없는 한 고리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은 필요한것이며 그것은 매개 나라 혁명운동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혁명투쟁에서 외부의 지원은 보조적역할을 할뿐이며 주체적력량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대신할수 없다.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비록 유리한 국제적조건이 조성되고 외부의 지원이 크다고 하더라도 혁명은 승리의 길로 전진할수 없다. 그러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혁명의 국제적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도 혁명투쟁에서 주도권을 틀어쥘수 있으며 불리한 정세를 유리한 정세로 전환시킬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발전과 승리의 합법칙성이며 그 중요한 원리이다.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운동의 그 어떤 승리와 성과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길을 떠나서는 세계혁명의 발전에 대한 그 어떤 공헌도 생각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대주의에 물젖어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을 맹종맹동할 때에는 자기 나라 혁명을 망칠뿐아니라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에 지장을 주고 세계혁명발전에도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도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이룩된 력사적경험의 귀중한 총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지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지난날 사대주의의 력사적뿌리가 깊고 교조주의의 해독적작용이 우심하였던 조건에서도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기할수 있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동요없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주체적 립장과 원칙,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혁명력사에서 전후 1956년～1957년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때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조성되였던 일시적난관을 기화로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렸으며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괴뢰도당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례없는 반동공세를 감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당안에 숨어있던 소수 반당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하여나섰으며 우리 인민을 혁명의 길에서 떼여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일련의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고있었다.

이 준엄한 시기에 우리 당은 자주성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속에 들어가 대중을 적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정치투쟁에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안팎의 원쑤들의 반동공세를 짓부시고 주체적립장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이 일어났고 혁명과 건설에서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가 그앞에서 주저앉고마는가, 혁명을 끝까지 하는가 아니면 중도반단하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과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그것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맑스-레닌주의의 본성에도 맞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힌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은 창조적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의 본성에도 맞는것이다.》

맑스가 창시하고 레닌이 발전시킨 맑

스-레닌주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자본의 지배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었으며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인민대중의 해방위업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창조적성격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특성의 하나이며 그 생활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맑스와 레닌은 언제나 자기 학설의 창조적성격을 강조하였으며 자기 학설에 대한 교조주의적 관점과 태도를 견결히 배격하였다.

원래 맑스주의자체가 로동운동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한데 기초하여 발생하였으며 모든것이 서로 련관되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보는 변증법을 자기의 방법으로 삼고있는 창조적학설이다.

맑스-레닌주의의 발전력사는 선행리론과 명제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를 배격하고 변화된 시대적요구와 새로운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여 그 내용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풍부화되여온 로정이였다.

만일 맑스와 엥겔스가 독일고전철학,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사회주의학설을 비롯한 당대의 선진적사상리론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대하였더라면 맑스주의를 창시하여 로동계급에게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줄수 없었을것이며 레닌이 자기의 혁명활동, 사상리론활동에서 창조적태도를 견지하지 못하였더라면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었을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그 창조적본성으로부터 이 학설을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조의 체계로 보는 관점과는 량립될수 없다. 교조주의적태도는 맑스-레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을뿐아니라 도리여 이 학설의 생활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빚어낼뿐이다.

주체적립장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본성에 전적으로 맞는것으로서 선행한 혁명리론을 새로운 혁명실천의 요구와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된다.

모든 사상과 리론들은 일정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그리고 일정한 전제밑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기성리론의 명제나 공식을 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이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또 어떤 전제밑에서 나왔는가를 따져보고 구체적 현실과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것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출발점은 기성리론의 명제나 공식이 아니라 산 현실이다. 현실은 언제나 리론보다 생동하고 풍부하다. 실천은 리론의 출발점이고 그 발전의 추동력이다. 리론이 실천의 요구를 등지고 산 현실로부터 떨어질 때 생기를 잃고 병들게 되며 공담을 일삼게 된다.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구체적인 혁명실천의 요구와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기성리론의 명제와 공식을 옳게 대할수 있으며 새로운 혁명의 원리와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탐구해나갈수 있다. 만일 주체적립장을 지키지 못하고 교조주의에 물젖게 되면 리론과 현실의 분리, 사고의 침체를 면할수 없게 되며 새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잃게 되여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우리 혁명의 발전력사는 주체적립장을 지킬 때에만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혁명실천의 요구와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대하시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맞고 우리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 명제나 공식에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대담하게 새로운 리론들을 내놓으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

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리론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농업협동화에 관한 우리 당의 리론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지난날에는 공업화를 한 다음에야 농업협동화를 할수 있다는것이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공식처럼 간주되고있었다. 우리 당은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 그것을 맡아할만한 력량이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을 내놓고 농업협동화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성하였다. 농업협동화에 관한 우리 당의 새로운 리론에 의하여 물질적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던 수동적인 태도가 극복되게 되였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맑스가 공산주의리론을 공상에서 과학으로 진화시킨 때로부터 인민들은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으며 오늘에 와서 공산주의는 먼 앞날의 리상이나 숙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력사의 일정에 오르고있다.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에서 나서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없었으며 지난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확신성있게 헤쳐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새로운 리론들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기본전략목표, 그 실현방도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명확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사상리론활동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심으로 하여 50여성상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오실수 있었으며 위대한 혁명실천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끊임없이 풍부히 하실수 있었다. 불멸의 주체사상에는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발전풍부화되고 새롭게 제시된 사상과 리론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이 밝혀준 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 그 기치밑에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우리는 론문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성격

리 성 갑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가 먼 앞날의 숙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력사의 일정에 오른 우리 시대는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힐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을 줌으로써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고 구현해온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투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새로운 사상과 리론, 명제들로써 공산주의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하였다.

론문에서 밝혀진 공산주의의 두 요새와 3대혁명에 관한 리론,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 그리고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우리 당이 밝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관한 리론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과 력사적지위, 그 전모를 정확히 해명한 과학적인 리론이며 공산주의건설의 로정과 투쟁방침을 뚜렷이 명시한 혁명적인 리론이다.

론문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이 전면적으로 분석되고 그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편향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　　　*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력사적지위를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옳바로 해명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작성하고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어떠한 편향도 없이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제때에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력사적지위를 정확히 밝힐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력사적인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중대한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러한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로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은 그 본질적특징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은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가지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며 그 과도적성격은 낡은 사회의 유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우월성을 표현하는것이며 그 과도적성격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비한 사회주의의 력사적제한성을 표현하는것이다.

과도적성격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징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계급적대립은 없어지고 로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종국적으로 없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의 차이,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는 전인민적소유에 속해있는 로동계급과 협동적소유에 속해있는 농민의 차이에서 표현된다. 로동의 차이는 주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에서 그리고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사회성원들사이의 물질문화생활 조건과 수준이 서로 같지 않는데서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에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본원인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나라마다 구체적조건과 력사발전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낡은 사회에서 오랜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당장 다 없앨수는 없는것이다. 더우기 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져있었기때문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락후성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고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있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도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사이에는 기술장비수준에서나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에서 일정한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로동 조건과 강도에서의 차이가 있게 되며 사회성원들사이의 생활 조건과 수준에서의 차이도 완전히 없앨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이처럼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그로 인한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로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성격을 띤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회가 아직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회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로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청산된 사회인것만큼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류형의 사회이다. 그러

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산주의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다 실현할수는 없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비해볼 때 아직 미숙한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하여 과도적성격을 띤 사회라고 하는것이다.

론문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그 근원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의 필연성을 새롭게 론증하였으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었다. 이것은 공산주의혁명리론발전에 기여한 우리 당중앙의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성격을 띤다는것은 결코 그것이 이 사회의 본질적특징을 이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은 이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데 있다.

해당사회의 본질적특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회생활의 원칙과 사회관계의 기본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지배와 복종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착취계급사회로 된다. 반대로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므로 공산주의적성격을 띤 사회로 된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의 하나이며 사람들사이의 공산주의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이다. 여기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근본리익에 개인의 리익을 복종시키며 전체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킬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에 기초할 때 사람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가 지배하게 된다.

바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인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사람들사이의 공산주의적관계인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인것으로 하여 본질상 공산주의적 성격을 띤 사회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생활원칙,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데 그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로동계급은 그 사회적본성에 있어서 집단주의적인 계급이지만 지난날 자본주의하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지 못한탓으로 하여 자기의 집단주의적인 생활원칙,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를 전사회적인것으로 내세울수 없었다. 집단주의적원칙,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는 오직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하에서만 철저히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전체 인민에게 속해있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공동의 리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싸워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집단주의적 생활원칙과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는 결코 그 어떤 강요나 행정적조치에 의하여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이 사회자체의 로동계급적본성과 그 근본적인 우월성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론문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으로서의 공산주의적성격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적요구를 실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으로부터 인류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그 력사적지위가 규정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인것만큼 착취계급사회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관한 문제는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이러한 새 사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주되는 성격, 본질적특징을 이루는것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는것만큼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직접 잇닿아있는 사회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유물로 하여 공산주의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과도적사회로 된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은 더욱더 줄어들고 그 공산주의적성격은 확대강화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공산주의적성격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될 때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력사적지위로부터 그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데 대한 요구가 흘러나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성격이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그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하고 이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단번에 건설되고 완성될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확대되며 그 과도적성격이 부단히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비한 그 미숙성, 제한성을 표현하는것만큼 그것을 극복하여야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도 그것이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의 본질적요구를 완전히 구현하자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 완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하고 그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홀시하고 공산주의적성격만 보거나 반대로 공산주의적성격을 홀시하고 과도적성격만 보고 정책을 세운다면 좌우경적오유를 면할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그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나아갈수 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며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 등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는 옳은 정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호상관계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정치도덕적자극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 본질적우월성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대중발동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는 아직 과도적사회이며 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도 거기에 물질적자극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문제가 나서게 되는것이다.

만일 사회주의사회가 공산주의적성격을 띠고있다는것만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의 물질적리해관계를 무시하고 정치도덕적자극 일면에만 치우친다면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옳게 발동할수 없다. 반대로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성격을 띠고있다는것만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홀시하고 물질적자극 일면에만 치우친다면 사람들을 돈만 아는 리기주의자로 만들수 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같이 사회주의건설에 지장을 주게 된다.

오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분배문제도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과 력사적지위에 맞게 옳바로 풀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아직 그리 높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개조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분배원칙을 실시할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형편을 고려하여 무료의무교육제도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공산주의적시책들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실시하는것은 사람들속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착취계급의 나쁜 사상을 뿌리뽑고 근로정신을 배양하는데도 좋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 다시말하여 번것만큼 받는 원칙은 사람들속에서 돈만 알게 하는 부르죠아적분배원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인 사회주의분배원칙이다.

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에 기초하여 사회공동의 리익과 관련되는 공산주의적시책들을 적극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장려하면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분배분야에서 자본주의적잔재들을 뿌리뽑고 공산주의적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사상적, 물질적전제조건들을 실속있게 마련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고 그 과도적성격을 극복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 자기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하며 생활한다는데 있다. 자본주의는 기아와 몽둥이의 규률에 의거하고있지만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자각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고발전하는 사회이다.

자각성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의 생활

력의 원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결코 통제를 줴버려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있고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생활풍습과 도덕, 질서와 관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로부터 모든것을 사람들의 자각성에만 내여맡길수 없고 통제를 적절하게 배합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국가정치생활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옳게 결합시켜야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생활에서 건전한 혁명적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론문에 천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사상은 이미 우리 인민의 혁명실천에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오래전에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거기에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며 농민시장을 일정한 테두리안에서 장려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배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도와 무상치료제도, 세금제도의 철폐와 같은 공산주의적시책과 함께 작업반우대제, 분조도급제와 같은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이 철저히 실시되고있다.

근로자들의 자각성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면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 당이 실시하고있는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다.

당의 정확한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문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문제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가고있다. 또한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매우 빨리 극복되여가고있으며 공산주의의 본질적요구들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더욱 실속있게 옮겨지고있다.

론문에서 천명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사상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경험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근본방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낡은 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한 다음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근로대중을 사상, 기술, 문화적락후성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이다. 이 과업은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보여주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로동의 차이,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결국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

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그 근원을 두고있는것만큼 그것은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락후성을 없애야 완전히 극복될수 있다.

또한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현대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야 모든 근로자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관한 리론을 밝히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이 전면적으로 분석일반화되고 과학적으로 론증됨으로써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로정과 리정표가 생동한 화폭으로 뚜렷이 펼쳐지게 되였다.

어떠한 단계와 로정을 거쳐 공산주의에 도달하는가 하는것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이 창시된 이래 오랜 기간 론의되여온 중대한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공산주의사회발전의 두단계에 관한 견해를 내놓고 공산주의사회발전의 첫단계와 둘째단계에서 있게 될 일련의 경제적특징을 서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론문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공산주의건설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 그 호상관계를 심오하게 천명하심으로써 사회발전의 하나의 력사적단계로서의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인류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그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로정과 단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공산주의혁명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심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론문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고 그 과도적성격을 극복하는 정확한 길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제기한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선행시기 력사적조건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실천적경험이 창조될수 없었던것만큼 그 해결에서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었다.

론문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이 공산주의적성격과 함께 과도적성격을 띠고있는데 있다는것을 심오히 해명하고 그러한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주고있다.

참으로 론문에 밝혀진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준 탁월한 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한 위대한 혁명리론이다.

우리는 우리 당이 밝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다그쳐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

석 창 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를 발표하시여 맑스에 의하여 개척된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력사적 로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전략전술과 투쟁과업들을 뚜렷이 제시하시였다.

론문에서 제시된 중요한 사상의 하나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문제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것이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제로동계급은 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실현할 때 국제자본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자체의 계급적본성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이며 백수십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귀중한 교훈이며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고귀한 경험이다.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의 단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론문에 밝혀진바와 같이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이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곧 의식화되고 조직화되는 단결의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로동계급이 계급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은 자연발생적으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개별적인 사회성원들이 공장에 집결되여 하나의 사회적집단으로 편성되는 과정이였으며 경제적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을 자각하고 하나의 전투부대로 결속되는 과정이였다.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상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강화되여 단결의 뉴대가 확대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이자 곧 로동계급의 장성과정이며 발전과정인것이다.

그러므로 단결은 로동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며 생명과 같이 귀중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결의 뉴대로 결속되여있는 여기에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이 있고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단결의 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

로 삼아왔기때문에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올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인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도 로동계급의 전투적단결이 가져다준 위대한 전취물이다.

단결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오늘에 와서도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의 임무는 예나 지금이나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주의, 제국주의 철쇄를 끊어버리는것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강화되는데 질겁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력량은 국제적으로 련합하여 멸망에 직면한 자들의 운명을 연장하여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나서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국제로동계급의 단결된 힘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은 단결된 힘으로 세계제국주의의 침략과 파괴음모책동을 꺾어버려야 한다.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단합된 력량으로 맞서나가야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 자체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인류공동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개별적나라들에서 혁명의 성과적인 전진을 떠나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승리가 이룩될수 없듯이 세계혁명과 동떨어진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이란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로동계급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마땅한 의무로 여긴다.

로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뿐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국제로동계급은 하나의 계급적뉴대로 련결되게 되는것이다.

공산주의위업의 세계사적승리는 오직 세계 모든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과 공동투쟁에 의하여서만 이룩된다. 이것은 단결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자체의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근본문제이며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단결이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은 한세기가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중세기의 종교적 및 정치적 환상에 의하여 은폐되고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놓은 피비린내나는 근대부르조아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로동계급은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장구한 기간에 걸쳐 간고한 투쟁을 벌려왔다. 이 투쟁에서 로동계급은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국제로동계급의 첫 수령인 맑스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로동계급이 대오의 통일단결과 강력한 국제적련대성을 이룩하였을 때에는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가슴아픈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맑스는 공산주의자들의 최초의 국제적조직인 공산주의자동맹을 결성하고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선언》을 발표하

면서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의 전투적단결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구라파에서 로동운동이 새롭게 발전하던 시기에 맑스는 제1국제당을 창건하고 각국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에게 통일적인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밝혀주었으며 로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지도밑에 제1국제당은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림으로써 로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을 실현하는데서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였다. 부르죠아지들과 그 사환군들의 온갖 파괴책동에도 불구하고 국제로동계급이 힘찬 전진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바로 이 단결의 무기를 높이 들고 나아간데 있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내놓은 단결의 구호는 전세계로동계급과 그 전위투사들의 전투적기치로 되였으며 바로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맑스의 위업을 계승한 레닌은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주권전취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며 국제로동계급의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고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였으며 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을 새로운 단계에서 실현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단결이 곧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로동계급은 단결의 힘에 의거함으로써만 안팎의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로동계급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승리한 경험과 함께 기회주의자들의 배신행위와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쓰라린 진통을 겪은 심각한 교훈도 남기였다. 제2국제당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로동운동앞에 초래되였던 엄중한 후과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제2국제당안에서 지도권을 장악한 기회주의자들은 개량주의를 설교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을 저애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기회주의에 물젖은 제2국제당산하의 여러 나라 당들은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성격을 거부하고 자기 나라 부르죠아정부의 침략정책을 비호하여나섰으며 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로골적으로 반대하고 《조국방위》라는 구호밑에 각국 로동자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다. 제국주의적부르죠아지에게 완전히 투항하여 공공연한 사회배외주의자로 굴러떨어진 제2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은 파괴되였으며 주권전취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나라들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후과들이 빚어졌다.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은 결국 제2국제당을 파산에로 이끌어갔으며 개별적나라들에서는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경험은 로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을 파괴하는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으며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여기에 안팎의 원쑤들과 그 련합세력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모든것은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천명된 국제로동계급의 단결에 관한 사상이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과 국

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성, 세계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밝힌 위대한 사상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당들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또한 현시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요구이다. 그것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세계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놀아야 할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 세계혁명발전에서 응당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고 그 대렬을 분렬시키며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단결된 력량으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나가는것은 국제혁명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단결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주권이 로동계급의 손에 쥐여져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국제로동계급의 근본요구와 리익에 맞는 가장 공명정대한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로 될수 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도 반제투쟁을 비롯한 공동의 과업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계급적전우로서 호상존중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힘을 합치고 긴밀히 협조하여야만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론문에 밝혀진바와 같이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자주성과 호상존중에 기초하는것이다.

자주성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제주의적단결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공산주의운동은 세계 모든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인 자주성을 실현하는 운동인것으로 하여 공동의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진 국제적인 운동으로 합류되게 된다.

국제로동계급의 단결은 매개 민족부대들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옳게 결합시키고 그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해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자기 당과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할뿐아니라 다른 나라 당과 인민의 자주성을 존중할것을 요구한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고 호상존중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

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근본원칙으로 된다.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수 있다.

이번 칼 맑스 탄생 165돐과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주권을 쟁취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을 하나의 계급적뉴대로 결속시킬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론문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공통점을 중시하고 의견상차이를 호상리해와 동지적협조의 정신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전우이다.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을수 있지만 그것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로선과 방도에 대한 견해상차이로부터 오는것이지 결코 서로 다른 국가사회제도간의 모순이나 적대되는 계급들사이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며 공통점이 주되는것이고 차이점은 부차적인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진지하고 인내성있게 노력한다면 통일은 수호되고 단결은 강화될것이다.

이렇듯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 밝혀진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의 절실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침으로 되며 국제혁명력량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혁명적립장이며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며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고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시면서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민족부대의 한 성원으로서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기의 민족적임무를 수행하여왔으며 국제주의적임무에도 충실하여왔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중국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을 공동으로 벌려왔으며 첫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왔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제로동계급과의 단결과 련대성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고 반제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였으며 바로 이 고귀한 전통은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빛나게 계승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 세계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의견상이로 하여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도 단결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할데 대한 옳바른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국제적인 반제통일전선과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여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였으며 싸우는 나라 인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는 참다운 국제주의적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은 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해나가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을 따라 힘있게 확증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오늘도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혁명적립장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계속하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혁명적립장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근본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이며 적극적인 립장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이러한 립장을 견지하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30돐에 즈음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때로부터 서른해가 된다.

우리 인민은 뜻깊은 전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조선전쟁은 미제에게 세기적패배를 안기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종결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침략과 전쟁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여왔다.

세계도처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앞에는 새로운 세계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미제의 무력간섭과 전쟁책동에 의하여 세계에는 평온한데가 없으며 특히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다. 새 전쟁의 위험은 전인류를 위협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이 미제의 전쟁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반제평화애호력량은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자라났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새 전쟁은 능히 방지할수 있고 평화는 수호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제국주의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평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1)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승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로 세계에는 평화가 도래하였으나 전쟁세력과 평화력량사이의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날카롭게 벌어졌다.

국제정세에서 일어난 심각한 변화는 우리 나라의 정세발전에 그대로 반영되였으며 조선은 전쟁세력과 평화력량사이의 대결의 결절점으로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려고 광분하였다.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새 전쟁의 발원지로 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의 도발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도전이였으며 그들의 모험적인 전쟁정책의 산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2권, 421페지)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투쟁이였다.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지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우리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자기의 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남조선괴뢰군, 15개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명의 방대한 병력과 현대적인 살인무

기들을 동원하여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비들었다. 그러나 적들은 그 어떤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으로써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영웅적인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견결히 싸움으로써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쳐부시고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나게 고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반제자주력량의 승리였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새 세계대전을 도발하려던 미제의 무모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고수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제는 피비린내나는 자기의 침략전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으며 조선은 미제와 싸워이긴 첫 나라로 되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전쟁과 평화 문제해결에서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남기였다.

전쟁이 남기는 경험이 얼마나 교훈적인가 하는것은 전쟁의 특성과 그 결과에 의하여 규정된다.

계급사회가 생겨난 때로부터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체험하였으며 그 과정에 이러저러한 경험들이 쌓아졌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가장 귀중한 경험을 남긴 전쟁으로서 세계전쟁사에 기록되고있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각성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전쟁세력을 타승하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인민대중은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는 결정적력량이다. 그 어떤 전쟁세력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굳게 뭉친 인민대중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청소한 나라가 강대한 미국을 당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을 믿고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운다면 아무리 간악한 침략세력도 능히 쳐물리칠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전쟁의 운명이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은 핵무기보다 위력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각성된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는것이다.

조선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세계평화는 전쟁세력을 반대하는 진보적력량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 성과적으로 고수될수 있다는 경험을 남기였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사도》가 아니다. 참다운 평화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될수 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침략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국제로동계급과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의 련대성이 높이 발양되고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력사적행정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이였을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싸우는 조선인민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특히 형제적중국인민은 우리 인민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구호밑에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지원과 지지는 미제의 무력침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였으며 미제를 고립시키고 놈들의 정치도덕적패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자유와 독립, 진보를 념원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맞서 단호하게 투쟁한다면 능히 세계대전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위업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하나의 전투적뉴대로 결속시키며 그들의 단결된 힘은 불패인것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귀중한 경험들은 지난 30년동안 전쟁세력을 제어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새로운 세계대전을 방지하고 인류의 평화위업을 수호하는데 심각한 경험과 교훈을 남긴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2)

미제국주의는 새 전쟁의 도발자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침략적본질이 변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계속 남아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371페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다.

지구우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전쟁은 없어질수 없으며 전쟁유령은 항시적으로 배회하게 된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책동을 로골화하는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여 그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는 신식민주의적수법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는 한편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더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

조선전쟁이 끝난후 지난 30년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로골화되였다. 그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며 날로 강화되는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특수전쟁》, 《국부전쟁》을 벌렸으며 그것을 전면전쟁으로 확대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미국에서 레간행정부가 출현한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레간행정부는 침략과 전쟁을 업으로 삼아온 력대행정부들가운데서도 가장 횡포하고 호전적이다.

현 미국행정부의 로골적인 전쟁정책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어려운 처지를 반영하고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 수습할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였다. 미제의 지배령역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그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고립배척당하고있다.

미제는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약화되고있는 가운데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다. 거듭되는 경제위기는 미제국주의의 경제적기초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미국은 악순환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파국적인 경제위기는 정치적위기와 유착되여 미제의 내부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다.

미제는 그의 정치경제적힘이 약화되고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더는 제국주의세계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 없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날로 격화되고있는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전쟁방화정책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레간행정부의 전쟁정책은 미제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해주는것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침략전쟁, 열핵전쟁을 준비하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새 세계대전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42페지)

력사가 흐를수록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 전쟁광신자로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성은 더욱더 드러나고있다. 레간행정부야말로 선행자들을 능가하는 가장 악랄한 전쟁방화자이다. 미제호전광들은 지난날에 내놓았던 《평화》와 《긴장완화》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이른바 《힘의 정책》과 《핵전쟁》준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세계전략은 그들의 발광적인 전쟁정책의 집중적인 반영이다.

미국력대지배층들이 들고나온 세계전략과 그에 따르는 모험적인 전쟁책동들은 그때마다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현 레간행정부는 파산을 거듭하여온 선행자들의 세계전략을 대신하여 극히 위험한 《다발보복전략》과 《3대동시전쟁》론을 들고나오면서 임의의 시각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일시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 하고있다. 미제의 이른바 새로운 세계전략은 국제혁명력량을 말살하고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동시에 장악하며 그를 발판으로 하여 온 세계를 지배해보려는 가장 야심적이며 모험적인 침략계획이다. 이것은 현대의 가장 파렴치한 전쟁광신자, 세계평화의 교란자로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정체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세계전략에 따라 새 세계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에 그 어느때보다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준비책동은 군사비확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미제는 《강대한 미국의 재건》을 표방하면서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1982회계년도에 1977회계년도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1985회계년도부터 5년동안에는 도합 2조딸라라는 천문학적수자로 증대될것이 예견되고있다. 이것은 미국력사상 어느 행정부도 가져본적이 없는 막대한 군사비이다.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있는 미국의 군사비예산은 륙지와 바다, 공중에

서 그리고 우주에서 전쟁을 립체적으로 벌릴수 있는 현대적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돌려지고있다. 오늘 미제는 전략적 공격무기를 빠른 속도로 발전완성시키면서 핵군비경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 더 많은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신설확장하며 침략적군사쁠럭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새로운 군사쁠럭과 군사동맹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처럼 새 전쟁전략 수행에 모든 힘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자주력량을 반대하는 전쟁을 아무때나 일으킬수 있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군비확장정책과 군사쁠럭정책의 귀결은 다름아닌 전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가장 모험적인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다.

지금 전쟁의 위험은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뒤덮고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구라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이 주로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벌어졌다면 오늘 전쟁의 위험은 아세아나 구라파뿐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도, 아프리카대륙에도 있다.

중근동은 미제에 의하여 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는 지역의 하나이다. 중근동지역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틀어쥐고 아랍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는 오늘도 전쟁상태가 의연히 계속되고있다. 미제는 이스라엘을 《돌격대》로 내세워 레바논에 대한 범죄적침공을 감행케 하였으며 수리아에 대한 침략음모를 교활하게 꾸미고있다. 최근에 와서 미제는 중근동과 그 주변의 19개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간섭을 지휘할 새로운 《중앙사령부》까지 창설하였으며 그 관할밑에 전방본부를 두려 하고있다. 이것은 주요자원지대를 노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모험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미제의 무모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중근동은 아랍인민들의 근본리익과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류혈적사건이 빈번히 벌어지는 참극의 지대로 되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의하여 아프리카대륙에서도 정세가 긴장되고있다.

미제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사촉하여 나미비아인민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무력으로 압살하며 앙골라, 모잠비끄를 비롯한 전선국가들을 반대하는 무장침공과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케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 특히 중미주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한때 미국의 《세습령지》, 《고요한 뒤동산》이라고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에 겁을 먹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무력간섭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일관하게 추구하고있는 정책이다. 미제는 까리브해역과 메히꼬만에서 군사적도발을 련이어 일으키고있으며 특히 승리한 니까라과혁명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행위를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두라스반동들과 소모사잔당들을 부추겨 니까라과를 침공하는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일으키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저들이 직접 군사작전을 벌리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있다.

미제의 무력간섭과 침략책동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는 무장충돌이 그칠 날이 없으며 이 지역 인민들에게는 다시금 커다란 불행과 고통이 들씌워지고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반동세력과 반제자주력량사이의 대결은 첨예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에서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미제는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를 계속 늘이고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이 지역에 《퍼싱 2》미싸일과 순항미싸일 같은 새로운 핵공격무기들을 배치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구라파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이 지역에는 방대한 군사무력, 특히 핵무기들이 집결되여있으며 구라파는 또다시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발원지로 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곳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아지역이다.

미제는 광대한 면적과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있는 아세아를 시종일관 세계제패를 위한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왔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군사적요충지들과 그 주변에 수많은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항시적으로 배치하고있으며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간섭책동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로골화되고있다.

최근 미국반동지배층은 조선반도에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떠들면서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그곳을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전변시켰다. 남조선과 같이 좁은 지역에 각종 최신무기들이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는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미제는 지어 구라파의 나토성원국들까지도 그 배치를 반대하고있는 대량살륙수단인 악명높은 중성자무기를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일본본토와 오끼나와, 필리핀 등 조선반도주변과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저들의 륙해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그것을 조선에 즉각 투입할수 있는 출동태세를 갖추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작전을 언제라도 개시할수 있도록 저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의 전략적배비를 일단락지어놓았다.

조선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의 무모한 책동은 그들이 빈번히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군사연습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1976년부터 남조선에서 매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의 계단식확대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올해에 감행한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지역과 미국본토에 있는 미제침략무력과 방대한 전쟁수단들이 동원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입을 가상한 공중투하작전, 상륙작전, 도하작전 등 공격작전을 립체적으로 벌리였다.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은 《유사시》 조선반도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단시일내에 투입할수 있는 저들의 능력을 《검토》하는 모험적인 책동이였으며 그것은 사실상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시험전쟁》, 《예비전쟁》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팀 스피리트 83》전쟁연습의 포연이 채 가시기도전에 또다시 동해에서 일본《자위대》의 해공군무력과의 합동훈련을 벌렸으며 미제의 지령에 따라 전두환괴뢰도당은 이른바 《멸공—83》이라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고 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과 비상히 강화된 우리 나라의 위력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조선반도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소동은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한것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여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일본《자위대》무력을 새 조선전쟁에 끌어넣으려 하고있다. 미제는 일본의 재무장, 재군국화를 다그치고 그놈을 아세아의 《맹주》로, 이 지역에서 저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움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통제와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에 가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망상하고있으며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는 첫걸음으로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재침투를 노리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남조선괴뢰도당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지금 마감고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터지고 전아세아지역이 새로운 전쟁마당으로 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있다.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국부적인 지역전쟁으로가 아니라 쉽사리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으며 인류는 다시금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인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있으며 세계에는 또다시 새로운 전쟁에 말려들어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주권과 령토를 침해당하고있거나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결코 어느 한 대륙, 어느 한 지역의 나라들만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곳이 없으며 미제의 발길이 닿는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가 없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엄중한 사태는 미제야말로 세계평화의 파괴자이며 새 세계전쟁의 흉악한 도발자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의 모험적인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수 없다.

새 세계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야말로 진보적인류의 지상의 과업이며 현세대가 미래앞에 지닌 가장 숭고한 책임이다.

(3)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긴장되고있으며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세계의 이목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집중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과 전쟁소동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전쟁수행을 위한 물질적수단들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제국주의자들의 병기고에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이 차넘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전쟁소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핵전쟁의 위협을 막을수 없으며 인류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소동으로써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

벌려야 한다.

새 세계전쟁은 능히 방지할수 있다.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반제자주력량은 급속히 자라났다. 오늘 반제자주력량은 새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위력한 성새로 되고있다.

세계 진보적력량과 반전평화력량이 굳게 뭉쳐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힘있게 진출한다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소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단결은 곧 힘이다. 단결된 력량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단결된 힘이 없이는 적들의 공세를 막아낼수 없다.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단결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을 고립약화시킬수 있으며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그들에게 강한 타격을 안길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리간을 조성하여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쉽게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진보적력량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 대오에 서서 함께 나아갈수 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원칙적문제를 가지고 흥정하여서는 안된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은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에게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그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한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특히 광범한 반전평화력량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반전평화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세계의 모든 반전평화력량이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더욱 고립약화시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그의 손발을 얽어맬수 있으며 미제의 전쟁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강화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며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에는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망라되고있다. 거대한 물적인적력량을 가지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으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데로 공격의 화살을 돌려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고 다른 나

타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쁠럭은 랭전정책의 산물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항시적요인이다. 군사쁠럭들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있는 한 국제긴장상태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세계평화는 오직 지구우에서 모든 군사쁠럭들, 침략과 전쟁 수단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 비로소 항구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세계의 반제평화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쁠럭을 해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새로운 군사쁠럭과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그들의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와르샤와조약참가국들과 나토사이에 무력호상불사용및평화관계유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쏘련의 주동적인 제안은 군사쁠럭을 해체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 계기로 될수 있다.

군사쁠럭을 해체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요충지들에 무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며 다른 나라들에 있는 군사기지들에 의거하여 저들의 침략목적을 이루어보려고 광분하고있다. 미제는 해외에 수많은 군사기지들과 침략군대를 항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제헌병으로서, 새 전쟁 도발자로서의 역할을 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계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은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군대와 군사기지를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와 미제침략군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항시적인 요인이며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있는 모든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침략군대를 무조건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저지파탄시키고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절박한 요구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준비가 평화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군사력증강과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의 열띤 군비경쟁은 세계에서 이른바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 야당과 독점자본의 사환군으로서의 그들의 진면모를 드러내놓은것이다.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과학의 위력한 전취물인 원자력을 인간살륙의 수단으로 만들고 인류에게 열핵전쟁을 강요하고있다. 전쟁광신자들이 버리는 무기는 그들자신을 반대하는데 돌려진다는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미제국주의자들의 핵광증은 지금 극도에 이르고있다.

모든 반제평화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며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는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비핵지대, 평화지대의 창설은 쁠럭들의 대립지대를 좁히게 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의 발판을 제거하게 한다.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핵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는 조건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육

대하기 위한 투쟁은 많은 나라 정부들과 평화를 념원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고 그것이 공고한것으로 될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새 세계대전을 함부로 일으킬수 없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세아지대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발기는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현시기 세계 평화와 안전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이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에서는 평화와 안전이 교란되고있으며 적지 않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재난을 겪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는 쌍방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위업에 맞게 당사자들이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세계의 반제자주력량들은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에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디까지나 공정한 립장에서서 분쟁문제를 쌍방의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오늘 반제평화력량은 전쟁세력보다 훨씬 강대하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민족해방운동과 민주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 등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반동세력, 전쟁세력을 능히 타승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반드시 저지파탄될것이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은 튼튼히 수호될것이다.

* *

조선인민은 평화애호적인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평화롭게 살것을 바라고있다.

조선의 평화는 세계평화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한 부분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책동을 걷어치우고 남조선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침략전쟁을 즐기는자들은 결국 침략전쟁으로 망한다.

우리 인민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킴으로써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의 위대한 승리

백 학 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때로부터 30년이 된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내각수상, 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이끄시여 미제를 타승하시고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의 영예를 떨치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에서 자랑찬 년대로 빛나는 전승의 나날을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차넘쳐있다.

* *

조국해방전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승리한 위대한 혁명전쟁이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무력건설위업을 실현하며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 창시하시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신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군사리론, 군사전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 군사리론, 군사전법을 주체의 군사사상이라고 부르는것은 그것이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사상, 리론, 전법이기때문이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인민대중, 군인대중을 군사활동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들의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전쟁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불패의 전투적기치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

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23페지)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조선전선에 최신장비로 무장한 제놈들의 침략무력의 많은 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한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막대한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밀어넣었다. 미제는 미문은 말라로 길러낸 《상승사단》, 《무적사단》으로 불리우던 《정예》사단들을 모조리 조선전선에 끌어들였으며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서슴없이 동원하였다.

조선과 같이 크지 않은 나라를 반대하는데 이처럼 방대한 력량과 야만적인 전쟁방법에 매달린 전쟁광신자들은 일찌기 없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갓 해방된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맞서 싸우는것은 실로 힘겨운 일이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힘의 우세》로써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군사사상으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안기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주체의 군사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혁명전쟁에서 주체는 사람,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혁명전쟁이 승리하게 된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그 성격과 내용으로부터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주동적인 역할을 높이는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인민대중, 군인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의 근본열쇠였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전쟁의 승리가 매개 나라 인민대중자신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밝힌데 기초하여 혁명무력건설과 민족국방공업건설문제로부터 후방을 강화하고 강력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마련하며 군사행동지대를 철벽의 요새로 만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위적국방력건설의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로 하여금 필승불패의 자위력으로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또한 인민대중, 군인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주체전법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주체의 군사전법은 모든 국방상 잠재력을 전인민적, 전국가적 규모에서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며 군사행동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군대의 무장장비, 군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전쟁마당에서 군대와 인민의 슬기와 지략, 투지와 용맹을 높이 발양시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여온 주체의 군사사상이야말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게 한 불패의 무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데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사상의식은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50페지)

전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무기나 군사기술, 지형조건이 아니라 전쟁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 군인대중의 사상의식, 정치사상적힘이다.

무장장비의 현대화, 군사예술의 과학화 수준이 비상히 발전한 현대전에서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높은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없이는 전쟁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세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하는것,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군사령도의 근본원칙이며 방법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이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며 전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신으로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의 성격을 똑똑히 인식하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인민군대의 각급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시였으며 전반적부대들에 당단체를 내오시고 그의 조직교양자적역할을 높여 불타는 고지와 전호속에서 화선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시환경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해방된 조국의 아들딸들인 인민군군인들은 자기들을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은혜로운 조선로동당과 고마운 인민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조국은 곧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조국의 섬 월미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귀중한 청춘을 바친 리대훈해안포중대원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쳐 적의 화구를 막고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제낀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배출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1211고지전투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빛나는 전투였다.

우리의 인민군전사들은 적들의 맹렬한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바위가 부서지고 아름드리나무가 뿌리채 날아나며 다람쥐마저 숨을 곳을 찾아 전사들의 품속으로 뛰여드는 그러한 고지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밀려드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조국의 촌토를 끝까지 지켜나갔던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애국적헌신성은 실로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얼마나 값높고 숭고한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영웅전사들, 인민군용사들이 있었기에 그처럼 가렬처절한 전쟁의 시련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걸음마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백전백승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으로 미제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하신 여기에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군사사상의 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탁월한 군사 전략과 전법으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우리 당이 모든 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진공할 때는 진공하고 후퇴할 때는 후퇴하는 정확한 군사적지도를 하였기때문에 우리가 수량상으로 우세한 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348페지)

전쟁이란 사람, 집단들사이의 사상적 대결인 동시에 군사 전략과 전술, 전법의 대결이다. 싸움에서의 승리는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전략전술로써 상대방을 압도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혁명전쟁에서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령활한 전법을 가지고 싸워야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전쟁에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다. 그리고 작전과 전투마다에서 그들이 무비의 대담성과 완강성, 군사적 지략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할수 있으며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이며 령활한 군사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시여 전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 계단마다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침략자들에게 걸음마다 섬멸적타격을 안기시였다.

적들의 불의의 공격을 받으면 흔히 혼란에 빠지고 엄혹한 시련을 겪은 다음에야 반공격에로 넘어가게 되는것이 전쟁사에 기록된 기성 리론이며 전례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하여 즉시적이며 전면적인 반공격전과 련속타격전으로 적들을 처음부터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게 하시였다. 이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한다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시고 구사하실수 있는 백전백승의 군사전략전술이다.

바로 이러한 군사전략전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는 전쟁 3일만에 적들의 아성이였던 서울을 해방하고 한달 남짓한 사이에 남조선의 90%의 지역과 인구의 절대다수를 해방할수 있었으며 전쟁승리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전쟁의 첫 시작부터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 계단마다와 전투들에서 인민군대로 하여금 언제나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도록 하시였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모든 전투를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적들의 그 어떤 악랄한 전법도 제때에 과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변화되는 군사정치정세와 적들의 약점을 미리부터 꿰뚫어보시고 그에 맞는 군사전략과 전술로 적들에게 끊임없는 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

의 매 계단에서 적들의 기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탁월한 지략과 기묘한 전법으로 인민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전쟁이 일어난 첫 시기에 벌써 적들의 음흉한 계책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대병력을 증강하기전에 높은 기동력으로 적의 기본집단을 격멸소탕하도록 이끄심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집어삼키려던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리시였다. 또한 인민군부대들의 전략적후퇴를 조직지휘하시면서도 전쟁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재진격을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시는 한편 적후에 제2전선을 펼치시여 적들의 력량을 분산시키고 놈들을 앞뒤에서 강력히 타격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하나를 보고도 열, 백을 헤아리시는 비상한 통찰력으로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전쟁발전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당면한 임무와 전망적임무를 옳게 결합시켜 적들의 기도를 앞질러 분쇄하시며 불리한 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령도에 의하여 악명높은 침략자들의 모든 공세는 《죽음의 공세》, 《절망의 공세》로 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전법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작전과 전투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습격전과 포위소멸전, 산악전과 야간전,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땅크사냥군조운동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하신 독창적인 군사전법들은 적들의 공세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놈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하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나타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대전해방전투는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련속되는 패전에 급해맞은 적들은 피뢰들의 《림시수도》인 대전만은 고수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미제침략군 24보병사단의 전체 력량과 피뢰군병력으로 대전일대의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급히 미제침략군 1기병사단과 25보병사단을 대전방향으로 출동시키 어떻게 하나 대전을 내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최전선에 나오시여 강력한 정면타격과 익측, 후방으로의 타격, 민첩한 기동과 우회, 매복과 습격 등 다양한 전법들을 배합한 령활한 포위섬멸전으로 대전해방작전을 진두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작전적방침에 의하여 《정예》부대로 악명높던 미제침략군 24보병사단은 단숨에 녹아나게 되였으며 대전에 둥지를 틀고 있던 적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포위소멸되였다. 놈들의 이른바 《불퇴의 선》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뜨리고 《무적의 상승사단》을 전멸시킨 대전해방작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법과 령군술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 전략전술과 전법은 이처럼 침략자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곳을 원쑤격멸의 결전장으로 되게 하였으며 놈들을 헤여날수 없는 절망의 나락속에 몰아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선과 후방을 하나의 전투진영으로 튼튼히 꾸리시고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여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한몸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23

페지)

혁명전쟁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인적, 물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전쟁의 승패는 결국 전당, 전군, 전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하나의 목적에로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전쟁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당을 강화하고 그 두리에 전체 인민을 단결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 국방상 잠재력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전쟁시기 조직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전원회의와 제5차전원회의들은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회의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고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등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시환경의 요구에 맞게 로농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당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전쟁에서 후방을 공고히 하는것은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을 하나의 군사력량으로 통일시키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짧은 기간안에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고 전쟁승리를 위한 물질경제적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전시생산과 전선원호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고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체의 군수공업을 창설하고 무기를 비롯한 군수품의 생산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강력한 전투진영으로 꾸려지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유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었으며 미제는 전선에서 패배를 거듭하여 마침내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3년간에 걸친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게 되였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의 불패의 위력에 대

한 힘있는 시위였다.

우리 인민의 승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이러한 인민을 가진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큰 적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미제의 세계제패의 야망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혁명적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사에 찬란히 빛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이 승리한 때로부터 지난 30년동안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우리 당과 인민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설수 없다고 떠벌이던 원쑤들의 궤변을 짓부시고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오늘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전쟁위험이 항시 적으로 떠돌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를 1980년대의 《힘의 대결의 시험장》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으며 지어는 중성자무기까지 배치하려는 흉계까지 꾸미고있다.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린 《팀 스피리트 83》 군사연습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진 《팀 스피리트 83》 군사연습은 사실상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사시》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을 짧은 시일에 남조선에 투입하여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한 《예비전쟁》, 《시험전쟁》이였다.

지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남조선괴뢰들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침략전쟁정책은 극히 모험적인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불집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전쟁도발책동에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은 30년전에 조선전쟁에서 참패한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들로부터 왼뺨을 얻어맞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면 놈들이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오른뺨을 마저 얻어맞고 종국적멸망의 길을 걷게 될것이다. 놈들이 무모하게 덤벼든다면 우리는 단연 결판을 내고야말것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김　종　호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올해의 전투과업수행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아래단위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모든 일군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일관한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은 늘 현실에 침투하여 대중과 같이 숨쉬고 일하는것을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언제나 첫째가는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순천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속에서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아래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상하가 합심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지도에서 어떤 사업방법을 견지하는가 하는것은 그 당의 위력과 령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혁명적사업방법은 광범한 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옳은 사업방법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실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중을 도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보장된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이다. 인민대중은 실천과정을 통하여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생동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있는 선생이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하는것도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이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현실을 알수 없으며 따라서 정확한 지도대책을 세울수 없을뿐아니라 그렇게 되면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면할수 없다. 현실을 깊이 알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

자면 생산자대중이 살며 일하는 아래에 내려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지도의 과학성과 구체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현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지도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되는것이다.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과의 사업을 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55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대중령도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원형을 이룬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의 념원과 요구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따라서 그것은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의 본성적인 요구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언제나 군중과 같이 호흡하며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철칙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본성으로부터 당안에는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사업방법만이 있을수 있다.

우리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거기에 철저히 복종되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도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발동하여 수행한다. 인민대중을 떠난 우리 당의 사업과 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맺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이야말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적 당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고유한 사업방법으로 된다. 이 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끝까지 고수해나갈수 있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속에서 나온 우리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대중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일군으로 되여야 한다.

만일 우리 일군들이 지휘성원으로 된것을 그 어떤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의 직위를 벼슬자리로 그릇되게 생각한다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해나갈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결코 인민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가 되여

서도 안되며 인민과 동떨어져 사는 특수한 존재가 되여서도 안된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일군들은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일하며 언제나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 일하는 일군만이 주체형의 당의 참된 일군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참다운 사업방법의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가 넘는 혁명활동로정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몸소 현지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의 나날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이 과정에 로동계급의 참된 혁명적사업방법,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완성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해방후에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새 조국 건설의 거창한 투쟁에로 이끄시였으며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는 적탄이 우박치는 전선과 후방의 험난한 길을 이어가시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는 이상 또 다시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전후시기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형편과 당의 의도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당은 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장엄한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은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씩 내달림으로써 이 땅우에 천리마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서군과 청산리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더욱 심화시키신 고귀한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 2월 몸소 청산리에 나가시여 여러날 계시면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당사업과 농촌경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의논하시고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청산리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당 및 국가, 경제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그것은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현지지도는 나라의 모든 지역,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우리 인민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뜨겁게 미치고있다. 나라의 최북단으로부터 서해기슭의 자그마한 외진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는 한평생을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인민적수령의 참다운 력사이다. 이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사는 그처럼 위대하고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더 빛나게 계승발전되여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전당에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고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자기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방침, 방법론을 옳게 세우고 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방침 등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적인 방침들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도와주고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이 튼튼히 서게 됨으로써 당사업이 보다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임은 절대적인것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만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 땅우에 민족적 번영과 융성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품이며 당이 가리키는 길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떼래야 뗄수 없는 이러한 혈연적련계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위대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는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우리 당의 말단집행단위인 군당위원회 일군들인 경우에 있어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의 일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전적으로 군당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 군의 참모부로서 군사업의 모든 전선들, 모든 부문들을 다 틀어쥐고 당정책을 잘 침투시키고 조직사업을 잘하고 간부들이 앞장에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84~285페지)

군당위원회는 군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며 집행하는 우리 당의 말단 집행단위이다. 그리고 군당위원회는 군내 로동자, 농민들과 모든 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고 있다.

군사업이 잘되자면 군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와 그 일군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생산단위와 밀접히 련결된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요구를 듣고 해결하며 군중과 의논하고 그들을 이끌어나가야 군당위원회가 군안의 모든 사업을 틀어쥐고 옳게 조직집행해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순천군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1946년 2월 순천군농촌위원회 사업을 몸소 현지지도하여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우리 군을 찾아주시고 그때마다 군이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화학공장 하나밖에 없던 우리 군이 오늘에 와서는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위력한 석탄생산기지와 건재생산기지, 큰 규모의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 위력한 농업생산토대를 가진 큰 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나라의 전반적인 민경제발전에서 우리 군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일군들이 들끓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제시한 하부지도체계에 따라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일하며 생활하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우리 당은 이미 군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는 옳은 사업체계를 세워주었다. 이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군당위원회일군들이 당이 내놓은 혁명적인 사업체계의 요구를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당일군들이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처럼 늘 아래에 내려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당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주목을 돌려왔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간다고 하여 그것으로 곧 하부지도의 목적이 저절로 달성되는것은 아니다. 한때 군당위원회의 일부 일군들은 사무실에서 맴돌거나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군중속에서가 아니라 공장당위원회나 리당위원회 사무실에 들렸다가 오는 경향을 나타내고있었다. 군당위원회는 당사업방법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리가 군중속에 몸을 푹 잠그고 일하도록 진지한 투쟁을 벌려왔다. 여기에서 군당위원회가 모를 박고 사업한것은 일군들속에서 낡은 관점과 낡은 틀을 없애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조직진행한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우리 당이 대중을 령도하는 당인것만큼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한편 아래에 내려가 사업한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였다. 그리고 아래일군들을 무질서하게 불러올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 동시에 군당의 중요한 회의들도 생산현장에 나가서 기동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 군중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로서가게 되였으며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살며 일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지하막장과 기대옆, 포전길에서는 언제나 기름냄새, 흙냄새를 풍기는 작업복을 입은 군당지도원들을 비롯한 군안의 책임일군들을 만날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을 통하여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료해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군당위원회는 군전반사업을 정확히 장악하고 하부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당이 제시한 하부지도체계가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살고 일하며 군중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업체계라는것을 깊이 체득하

게 되였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조직진행한 사업의 다른 하나는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한것이다.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것은 하부지도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에게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똑똑히 알려주어 모든 부서와 단위의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통계자료가 요구되면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나 확인할 문제가 제기되면 자신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만나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사업하도록 하였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자신이 강연도 하고 선동도 하며 학습도 지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한두번의 강조나 조직사업으로써는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수 없는것이다. 한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아래에 내려가서 자신이 직접 사업을 조직하는것이 아니라 독촉과 지시나 하며 지어는 응당 자기가 작성해야 할 문건마저 남을 시켜 만드는 현상이 극복되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직동탄광 사업을 추켜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하부지도의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형식주의, 요령주의적 사업방법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었다.

매장량이 풍부하고 군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직동탄광 사업을 추켜세우는것은 군안의 많은 탄광들의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군당위원회는 직동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책임일군들이 해설담화제강, 선동자료들을 써가지고 지하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같이 일하면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기동예술선동대, 방송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경제선동을 들이대는 한편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선참으로 탄부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우리는 갱막장에서 탄부들과 같이 일하는 과정에 그들이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가지고 한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하고 있으나 보장사업이 따라서지 못하여 석탄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해당 부문 공장, 기업소에 나가 로동자들속에 정치사업을 들이대여 석탄생산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자재와 공구들을 사회적운동으로 생산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하였다. 우리는 또한 탄부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의 건설력량과 기관, 기업소, 가두인민반 력량을 동원하여 짧은 시일안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함으로써 탄부들이 근심걱정을 모르고 석탄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가 취한 이러한 조직정치사업은 탄부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주어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 창조된 하부지도의 실천적모범들은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였다.

우리의 경험은 자기 손오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이야말로 일군들을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동하여주고있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혁명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당원과 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이다.

지도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는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움직이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며 그자체가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군앞에 나선 방대한 건설공사나 새로운 전투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군당의 모든 일군들을 동원하여 어려운 모퉁이를 담당해나서도록 하였을뿐아니라 아래단위의 사업을 지도하고 도와주는데서 언제나 지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금천협동농장의 한개 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였다.

수십동의 다층문화주택과 상점, 회관, 숙영소, 체육관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건설공사를 군자체의 력량으로 짧은 기간에 완수한다는것은 매우 아름찬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협의회를 현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조직진행하였으며 가장 어려운 건설대상을 군당의 성원들이 직접 맡아수행하도록 하였다.

건설을 착수하고보니 자재를 비롯하여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 아니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직접 벽돌공장에 나가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벽돌생산을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굴착작업과 축조작업 등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에 서서 수행하였다. 이에 고무된 군안의 기관, 기업소 일군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서 자기 맡은 건설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끝냄으로써 금천협동농장의 한개 마을을 모든 문화후생시설과 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게 하였다.

생활은 당의 방침대로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여야 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군들의 사업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군의 전반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결과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군중속에서 더욱 활발히 움직이게 되였으며 당의 목소리가 군중속에 힘있게 울리고 군중이 당의 숨결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게 되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제때에 전달침투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이 모든 성과는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이 가져온 고귀한 열매인것이다.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

손 성 필

자력갱생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며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실천적경험은 자력갱생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계속 앙양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력갱생하는 공산주의적 혁명기풍,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1)

자력갱생은 자체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체의 힘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것이다. 자체의 힘을 주되는것으로 보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가 아니면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나가려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자력갱생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립장이다.

자력갱생한다는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며 난관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뚫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력갱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고상한 혁명기풍, 혁명정신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바와 같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자기의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체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과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빛나게 건설할수 있다.

자력갱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이 근본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무기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

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높이 켜들어야 할 전투적구호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한 혁명기풍, 혁명정신의 중요한 징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424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세계관에서뿐아니라 혁명기풍, 혁명정신에서도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기풍,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는것은 바로 자력갱생하는것이다.

자력갱생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혁명기풍이며 혁명정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혁명을 시작하는것이 아니며 또한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혁명사업을 하는것도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굳은 확신과 만난을 무릅쓰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서며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한몸을 바치는것을 크나큰 영예로 생각한다. 이러한 혁명적자각과 굳은 의지가 없는 사람, 남을 쳐다보면서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 사람은 결코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자각과 의지는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현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결코 그 누구에게 의존하여 혁명을 할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는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철저한 자주적인 투쟁기풍, 투쟁정신인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자력갱생은 또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창조적인 투쟁기풍,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인것으로 하여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한다. 이처럼 가장 철저한 자주정신, 창조적인 투쟁기풍,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인것으로 하여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혁명기풍, 혁명정신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자력갱생을 떠나서는 공산주의적 혁명기풍, 혁명정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도 보장할수 없다.

이것은 곧 자력갱생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혁명적립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기풍과 투쟁정신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자력갱생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산주의적 혁명기풍이며 혁명정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새롭게 풀어야 할 문제들도 수많이 제기되며 중첩되는 난

관과 시련에도 부닥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그 어떤 기존 공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는 옳게 수행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은 오직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여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하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과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물론 공산주의위업은 국제적성격을 띤다. 그러나 매개 나라 인민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며 투쟁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매개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되지 않을수 없다. 오늘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 하는것을 통하여 민족적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제적임무도 수행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주적으로 진행되는것은 현시기 공산주의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들을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켜나간다. 실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옳게 발양시키기만 한다면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과 투쟁정신은 이렇듯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하게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공산주의자들이 자력갱생을 자기의 고유한 혁명적기풍, 혁명정신으로 삼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자력갱생이야말로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며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나아가서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2)

자력갱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높이 추켜드신 전투적인 구호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고있는 고유한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하는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위력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와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과의 기본담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97페지)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전로정에는 간고한 시련과 엄혹한 난관도 헤아릴수 없이 많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광휘로운 햇발로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자신이라는 주체의 심원한 진리를 밝히시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도 항일혁명전쟁을 힘있게 벌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억세게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실로 항일혁명투쟁은 자력갱생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고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우리 인민은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할 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하였다.

민족적독립의 달성은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러나 해방직후 우리에게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경험도,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밑천과 기술도 없었다. 더우기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가로막히고 혁명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들이 겹쌓이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전진한다면 반드시 새 사회, 새 조선을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면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새 조국 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을 믿고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영예와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기풍으로 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불패의 생활력은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양되였다.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모든것이 파괴되여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준엄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 그 정신으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다시 새생활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안고 불사신처럼 일떠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들은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의 방대한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이처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력갱생하는 인민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불패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력갱생, 이것은 실로 우

리 인민들에게 불사신의 힘을 주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한 위력한 사상정신적원천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방대한 과업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로동당시대를 찬란히 빛내인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아보려던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은 산산이 부서지고 경제문화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확립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고 뒤이어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하게 되였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전례없이 방대한 건설을 예견한 제2차7개년계획 수행에서도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에는 자체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속도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침에 따라 일찍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고 오늘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거세찬 진군속에서 주체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어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대중적인 투쟁이며 자력갱생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풍과 억센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위대한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영원히 당과 수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굳은 신념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고넘으면서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을 이룩해놓은 영광의 행로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자력갱생하는 공산주의적 혁명기풍, 혁명정신의 생활력을 힘있

게 보여준 자랑찬 력사이다.

(3)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적기풍으로 되고있는 자력갱생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실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며 새로운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7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는 당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한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투쟁과업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자력갱생할것을 전제로 한 거창한 투쟁목표이다. 자력갱생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온 나라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게 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하는 공산주의적 혁명기풍,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요구대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은 곧 자력갱생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자체의 힘을 믿고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그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모든곳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기풍, 그 요구대로 투쟁하는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명정신,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간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다.

자력갱생하는 혁명기풍,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적기풍과 락원의 10명 당원들, 오늘의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의 전통적기풍은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또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오늘의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임무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 서서 어떻게 수행해나가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락원의 10명 당원들은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간고한 전후복구건설의 시기에도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만난을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불요불굴의 전투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이러한 자력갱생의 참다운 혁명기풍,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 때 못해낼 일이란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과 락원의 10명 당원들, 오늘의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언제나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자력갱생하는 혁명기풍, 혁명정신이 차고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자력갱생하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맡겨진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새로운 긍정적모범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적극 조장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하는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며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에서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과 공미굴종사상의 반동적본질

한 웅 식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고있는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 반동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와 그 왼잡이들은 저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널리 부식시켰다.》

남조선에 널리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잡다한 반동적인 사상조류들가운데서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 매국배족적인 사상이다.

숭미사대주의는 미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미제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상이며 공미굴종사상은 미제의 이른바 《강대성》에 겁을 먹고 미제의 온갖 침략과 략탈만행, 위협공갈과 강요에 굴종하는 사상이다.

숭미사대주의는 미제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추종하는 사상관점과 립장을 근원으로 하고있으며 공미굴종사상은 미제의 《강대성》에 겁을 먹고 억눌리여 미제에 대한 굴종을 숙명적인것으로 받아들이는 사상관점과 정신심리상태에 근원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같이 미제국주의를 떠받들고 섬기며 미제의 《힘》과 《도움》에 의거하여 살아가려는 철두철미 사대주의적 사상관점과 립장이라는데서는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신식민주의적인 침략정책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맹종맹동하는 매국배족의 반동적인 사상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는데서 군사적침략과 함께 언제나 사상문화적침투를 주요한 방법과 수단의 하나로 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군사적침략에 앞서 《척후병》의 역할을 수행하여 군사적강점을 용이하게 하며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리화하고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사상심리전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이미 한세기전부터 시작되였고 그것은 8.15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다음 더욱 심화되고있다.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식민지지탱점으로,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틀어쥐고 세계제패의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사상문화적침투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여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남조선에 널리 부식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왔다.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널리 부식시키는것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기본으로 된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현시기 미제의 세계적인 사상문화적침략의 기본방향으로 되

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 미제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설교나 자본주의제도의 《영원성》에 대한 고식적인 변호만으로써는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사상문화적으로 안받침할수 없게 되였다.

여기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적인 숭배와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어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혁명적인민들에게 또다시 식민주의의 멍에를 들씌우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켜 민족해방투쟁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데로 나가려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미제는 미국자본주의의 《우월성》과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조작해내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부식시키는데 모든 사상문화적 수단들과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세계적범위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이러한 사상문화적침략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족허무주의와 대미굴종의식을 강요하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남조선괴뢰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보다 교활한 방법에 매여달리게 되였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40년간에 걸쳐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왔으며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부식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여왔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준비하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해방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속히 높아지고있던 민족자주의식을 누르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막는 한편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본격적으로 부식시켜 남조선사회의 사상문화적령역에서 그것이 지배적인것으로 되도록 하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었다.

이로부터 미제는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사상, 교육, 문화 기관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그 페허우에 제놈들의 사상문화적침략체제를 꾸려놓았으며 그 토대우에서 미군정과 괴뢰정권을 통하여 미국식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도입》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을 통채로 남조선에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의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퇴페적인 교육과 문화 제도가 그대로 남조선에 옮겨지고 영어와 《미국식생활양식》이 수입되여 남조선사회에 전염병처럼 만연해갔다.

이 과정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후시기에 와서 한층 더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미제가 실토하고있는바와 같이 《미국문화가 남조선문화를 정복하는 〈최종전〉이 전개》되였으며 미국의 사상과 문화, 미국에 대한 숭배와 공포사상은 드디여 남조선에서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의 위기가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줄기차게 반전하고있던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부식책동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미제가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서 노린 주되는 목적은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더욱 깊이 뿌리박게 하는데 있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합리화》하고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반동적인 부르죠아 철학과 경제학, 사회학 리론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으며 미국문화의 《토착화》요, 《근대화》요 하면서 이른바 《토착화》책동을 조작하는데로 나아갔다.

그자들의 이러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

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이 더욱 깊이 뿌리박게 되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균렬이 생기고 대중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반미자주화투쟁에로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부식하기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미국문화의 《도입》이나 《토착화》가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을 이른바 《선진화》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간판을 들고나왔던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른바 《선진화》에 대한 궤변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주의식을 말살하고 숭미사대주의를 부식시키기 위한 교활한 책동의 하나이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사상의식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룩하자면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문화《교류》방식을 지난날의 《간접적》방식으로부터 《직접적》인 방식으로 바꾸며 그것을 훨씬 확대해야 한다고 황당하게 떠들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미제는 종전처럼 사상문화적수단을 통한 문화《교류》를 계속 벌리는 한편 주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사람들을 미국에 끌어다가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철저히 주입하고 그들을 매개로 하여 남조선에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더욱 깊이 부식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1981년에 제놈들의 새로운 사상문화적침투기구인 《남조선과 미국의 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민합동》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를 통하여 수많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사람들을 《류학》이나 《해외연수》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끌어가고있다. 그리고 《사절단》이요 《시찰단》이요 하면서 미국에 《초청》하는 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저들의 사상문화를 강요함으로써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부식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오늘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남조선에서 사상, 정신도덕 생활분야에서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미치고있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반동통치계급들은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이 골수에 찬데로부터 미국식사고방식에 물젖어있으며 남조선의 정치제도는 미제의 정치제도를 서툴게 모방하고 미행정부의 대내외정책적방향과 지시에 따라 《정치》를 하고있다. 경제《개발》전략과 경제운영방법도 역시 미제의 경제《원조》정책방향과 경기형편에 따라 변화되는 미국에서의 반동적인 경제운영방식을 따르고있다.

교육과 종교, 문학과 예술 등 문화령역에서 미제에 대한 숭배사상과 공미굴종사상은 더욱 뿌리깊이 박혀있다.

남조선의 교육은 그 리념과 체계, 내용이 철저하게 미국의것을 모방하고있으며 미국선교사들에 의하여 지배되고있는 기독교계는 미국의 《하느님》을 믿고 미국식설교를 강요당하고있다.

문학과 예술 지어 말과 글, 례의범절과 생활관습에서까지 미국의것이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부식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략정책의 산물이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체계적으로 감행해온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에서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먼저 그것이 미제에 대한 환상과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류포시켜 미제의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본성과 그 취약성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제를 미화분식하고 변호한다는데 있다.

미제국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가혹하게 짓

맑고있으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억압을 세계적범위에서 가장 악랄하게 결합시키고있는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미제국주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와 경찰, 첩보모략기구와 각종 파쑈적악법들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억압하고 탄압하고있는 가장 파렴치한 파쑈체제이다. 미제국주의는 또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이른바 《원조》와 《무역》으로 다른 나라의 자원과 로동의 열매를 악랄하게 긁어내고있는 가장 악착한 착취와 략탈 체계이다.

미제는 또한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는 장본인이다.

그러나 오늘의 미제국주의는 정치와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에 물젖은자들은 미제를 마치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궤치고있으며 미국자본주의를 《새로운 자본주의》, 《인민적자본주의》라고 떠벌이고있다. 그자들은 또한 미제는 공황과 파국을 예방하고 실업과 빈궁을 능히 《조절》할수 있는 이른바 《조절적자본주의》로 되였다고 하면서 미제국주의만은 《안정과 번영》을 누릴수 있게 된듯이 꾸며대고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마땅히 미제의 《보호》와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이와 같이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미제를 미화분식하고 그의 대외침략책동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변호하는데 복무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반동성은 또한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고있다는데 있다.

오늘 남조선은 민족적자주권이 여지없이 말살된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군사적강점밑에 있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은 미제에게 그 명맥이 장악되고 얽매여있다.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통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 맺어진 잡다한 《조약》들과 《협정》들에 의하여 이른바 《법적》으로 확인되고 합법화되고있으며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현지지배기구들과 이른바 《합동》기구들에 의하여 실시되고 감독통제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인 주인이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며 미제는 제 마음대로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략탈을 감행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군사적강점밑에 있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은 미제에 의하여 장악되고 지배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값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원천지로, 잉여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만들어놓았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제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 참화와 비운의 화근은 바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에 물젖어있는 자들은 조선민족이 마치 힘이 《빈약한 민족》이고 남조선인민들은 원래 《자립성이 결여》되여있는듯이 떠벌이면서 민족허무주의를 고취하고있으며, 미제의 《원조》와 《보호》를 받아야 《자립적으로》발전할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나오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을 마치도 자주적인 《독립국가》인듯이 선전하면서

괴뢰정권을 《민족정권》으로, 예속경제를 《자립경제》로 묘사하고있으며 식민지고용군대인 남조선괴뢰군을 《국방군》으로, 미국식퇴폐문화를 그 무슨 《민족문화》로 집요하게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놈들은 미제와 맺은 예속적인 여러가지 《협정》들을 마치도 독립국가의 주권행사의 산물인것처럼 선전하면서 저들의 매국배족적인 정체를 미화분식하고있다.

이처럼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남조선의 식민지적성격과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정체를 가리우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지향을 말살하고 민족주체적인 력량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조장하고 변호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널리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이러한 반동성으로 하여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빚어내고있다.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해독성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마비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다는데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의식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파쑈통치를 반대하는데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높이는것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남조선에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자기 민족과 계급 그리고 자신에 대한 렬등감과 허무주의를 고취하고 미제에 대한 숭배와 의존사상을 부식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남조선을 자주화하고 민주화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우리 민족과 자기 계급이 처하고있는 현실적인 처지를 옳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원쑤와 벗을 가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없게 하고있다.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이처럼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 사상적독소로 되는것이다.

남조선에 널리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해독성은 또한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과 미풍량속을 짓밟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귀중한 문화유산과 훌륭한 미풍량속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창조하고 보존하여온 이 고귀하고 훌륭한 문화유산들과 미풍량속들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로동과 생활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유산과 미풍량속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에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은 미제의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사상과 사고방식, 문학과 예술, 생활양식을 적극 끌어들이게 하는 한편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미풍량속을 유린말살하도록 부추기는 사상적독소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우리 말이 양키말에 바탕을 둔 잡탕말로 변하고 실존주의문학과 추상파미술이 판을 치며 약육강식의 《미국식생활양식》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깊이 파고들고있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패륜패덕, 황금만능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식생활양식》이 깊이 부식된 남조선에서는 색정적인 문학과 영화, 음악 등이 판을 치고 있다.

패륜패덕행위가 범람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돈을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자

식이 부모를 서슴없이 살해하고 민족과 인간의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는 이른바 《관광사업》과 같은 패덕적인 행위가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상에 자랑하고 있는 고귀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당하고 있으며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미국상전에 바치는 중요한 공물로 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기막힌 현실은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의 부식작용이 우리 민족의 고귀한 문화유산과 미풍량속을 얼마나 엄중하게 짓밟고 파괴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짓밟아버리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민족자주의식을 거세해보려 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이 널리 부식되고 그것이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는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일수 있으며 그들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더우기 오늘 남조선에서와 같이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이 널리 퍼져있는 조건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에 해독적영향을 주고있는 미제에 대한 환상과 숭배, 공포 그리고 민족허무주의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뿌리뽑을수 있고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체제를 청산할수 있으며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을수 있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근로자 1983년 제7호(루계 495호)

편집위원회

낸곳•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7월 1일 발행•1983년 7월 3일

ㄱ—3511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제 8 호(49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은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

인류는 오래전부터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공산주의는 오늘에 와서 먼 앞날의 숙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력사의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인류력사발전에서의 이러한 전환은 공산주의사회와 그 건설과정의 합법칙성에 대한 전일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힐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이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우리 당이 밝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은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를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는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로서의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심오하게 전개되여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은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그들의 생활환경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며 공산주의건설을 가장 올바른 길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것은 공산주의건설리론의 보물고를 새롭게 풍부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1)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를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건설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기본전략목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있다.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는 공산주의사회의 성격과 면모, 그 발전수준을 규정하는 근본징표들 그리고 공산주의건설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그 실현방도들을 집약적으로 구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는 공산주의건설과정에 제기되는 개별적과업수행을 위한 전술적목표들과는 달리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총적방향을 규정해주는것으로서 그것이 점령되면 공산주의사회에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전략적목표를 말한다.

우리 당은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을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목적지향성있게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은 사회생활의 2대 분야를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두 분야에서 다같이 실현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반드시 공산

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해나가야 한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목표이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상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다시말하여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상정신생활분야에서나 물질생활분야에서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총체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인간과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하리만큼 생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이 없이는 공산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다.

공산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는 사회생활의 2대 분야를 이루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문제가 이미 해결된 조건에서는 사회적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업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과 그의 생활환경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사상정신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들은 사회의 주인인것만큼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육교양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공산주의사회를 옳게 운영해나갈수 있다. 바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되고 완성되게 된다.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자면 생산력이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생산물이 끊임없이 그리고 전례없는 규모에서 생산되여야 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가 확립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와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는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에 확립되게 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고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와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는 과정에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 점차 없어지게 된다.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들이 극복되며 로동의 차이가 소멸되고 로동을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게 하는 사상적, 물질적 조건들이 마련된다. 그리고 력사상 가장 조화롭게 발전한 높은 생산력이 창조되는데 따라 사회성원들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도 극복되게 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를 점령하는 과정은 실로 복잡하고 심각한 변혁과정이며 동시에 력사에 전례없는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의 거대한 창조과정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기본전략목표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두 요새 점령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전략로선이다.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호상관계를 옳게 해결하는것이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물질적조건을 변혁하는 그들의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또 사상개조는 사회의 물질적조건과 동떨어져서 이루어질수 없다.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경제건설을 잘할수 있으며 다른 한편 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의 물질적조건을 개조하는 사업이 안받침되여야 그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훌륭히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사상개조와 자연개조의 이러한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만일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련결시켜 추진시키지 않아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 때 간고한 혁명의 과정이며 매우 폭넓고 복잡한 과정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편향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해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인간개조를 기본으로 하여 자연개조를 밀고나가며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사회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인 사람부터 개조하여야 하며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에서는 그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상을 개조하는데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워야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해나갈수 있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면서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원칙이 밝혀짐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를 곧은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로서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력사적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졌다.

공산주의혁명의 목표와 그 실행방도를 과학적으로 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진출하여 자주성을 위한 피어린 투쟁을 벌리면서부터 제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

커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게 되였을 때,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였을 때 공산주의는 실현되는것으로 인정되여왔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사회의 기본전략목표로서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을 밝힘으로써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 분야에서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조건을 개조할뿐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건설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해명한것으로서 우리 당이 공산주의혁명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화하는데 이바지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문제도 새롭게 해명되였다. 오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은 단순히 기술실무적사업인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물질생활에서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하나의 혁명과업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는것이 뚜렷하여졌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어떤 개별적문제가 아니라 그 전반적측면을 포괄적으로 해명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과의 련관속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요구를 밝히고있다.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은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에서 기본을 이루는 독창적인 리론이다.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로서의 두 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공산주의혁명실천은 새로운 력사적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혁명적인민들은 뚜렷한 목표와 정확한 전략전술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확신에 넘쳐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전투적기치이다.

(2)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 정확히 구현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실증되였다.

아무리 훌륭하고 과학적인 혁명리론이나 전략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령도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활력을 나타낼수 없다. 당과 수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실생활에서 빛나는 열매를 맺을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반드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

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의 제시는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다름아닌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인류해방투쟁력사에서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창조적사업이다.

우리 당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전개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념원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내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혁명의 방법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과정에 참으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린 결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없어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싸워나가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지시집행을 지상의 과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실현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또 그것은 그들자신의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얼마나 빨리 다그치는가 하는것은 그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사상적각오와 혁명적열의, 창조적적극성에 중요하게 의존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모든 일을 자각적으로

잡아하는 기풍,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였으며 사회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해나가는 과정에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그들의 생동한 모범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생활에 작용하게 되였으며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청소년교육교양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나가는 과정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지식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당의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 온 사회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령역에서도 력사적인 승리가 달성되였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안받침되여 물질적요새점령과정이 크게 다그쳐지고있다.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기술혁명, 특히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3대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인 기술혁명이 빛나게 수행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과업이 성과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의 기술적장비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가 더한층 완비되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생산관계, 사회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전인민적,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로동계급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 모든것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이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공산주의의 길로 가장 곧바르게 그리고 힘있게 이끌어주는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을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로 규정하고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정신도덕적, 문화적발전을 보장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가장 빨리, 가장 철저히 마련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3)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공산주의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로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 계속해야 할 혁명의 내용이며 이 세가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과 그에 따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로동의 차이,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이것은 3대혁명이야말로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은 혁명의 선행관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와 집단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도,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오늘 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푸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개조하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경제를 현대적인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

를 튼튼히 세우고 언제나 기발한 착상, 적극적인 발기, 대담한 실천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자면 또한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문화도덕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을 잘할수 있고 기술을 개조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잘할수 있다.

현시기 문화혁명의 중심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로동의 온갖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며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인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경험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3대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전군중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운동이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3대혁명의 앞장에 서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처럼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지니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능숙한 지휘, 대담한 작전으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받들고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을 앞당김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

박 일 범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문제는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고 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정확히 밝혀져야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기 위한 올바른 관점과 립장, 원칙을 세울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사회력사원리를 해명함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문제에 심오한 과학적해답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27페지)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따라서 주체가 있는 사회적운동에는 그에만 고유한 성격이 있다.

주체사상은 물질적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객관적성격을 시인하면서 이 운동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진행되는 운동이라는것을 밝힌데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성격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그 성격으로 볼때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성격을 띤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발전해나가는 운동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같은 단순한 자연생장적운동이 아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세계에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대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은 바로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힘으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활동과정이다.

인민대중은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여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해나간다. 사회력사적운동은 그 어떤 초자연적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숙명적과정이 아니며 단순히 물질경제적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연사적과정으로만 볼수도 없다. 사회력사적운동은 바로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능동적활동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가 개조되고 새것이 창조되는 운동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적진보가 이루어지는 창조적운동이다.

이것은 사회력사적운동에 그에만 고유한 창조적성격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운동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의 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해나가기때문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은 이 운동의 고유한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력사적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창조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며 창조적과정을 동반한다. 이것은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과 그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성격을 띤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은 이 운동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사람의 고유한 생활상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적운동은 사람의 운동이며 인민대중은 사람의 고유한 생활상요구에 맞게 활동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과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여나간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생물학적존재인 동물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연에 이미 주어져있는것을 그대로 리용하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살아나간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 사람의 이러한 생활상요구를 충족시킬 대상은 기성의 형태로 주어져있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새것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발전할수 없다. 때문에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자신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실현하여나가는것이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대상은 자연과 사회이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자연과 자기가 살고있는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만들며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한다.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벌림으로써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재부들을 만들어낸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생활수단이 있어야 한다.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사람의 생활수단의 원천은 자연에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에 있는것을 그대로 리용해가지고서는 살아나갈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하여 필요한 물질문화적재부들을 만들어내야 생활상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창조적활동을 벌리는것이다.

사람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창조적활동을 벌려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간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사회적집단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는 바로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집단이다. 사회도 자연과 함께 사람들이 생활하는 필수적인 환경조건을 이룬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다 인간에게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제도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서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줄수도 있으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줄수도 있다.

사람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며 자주적인 생활을 억제하는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

조하는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의 요구를 실현하여나가며 인민대중은 사람의 이러한 생활상특성에 맞게 활동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회력사적운동은 창조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또한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능력에 의하여 규제되게 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그들이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이 있다는것을 말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이 창조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창조적능력으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로부터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지향을 가지고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낡은것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것이며 새것이란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로부터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그것을 적극 요구한다.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려는 요구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추동하는 근본요인이다.

창조적활동의 목표와 내용, 창조적활동을 담보하는 의지력은 직접적으로 창조에 대한 요구와 관련되여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그들자신의 창조에 대한 요구가 목적의식적으로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자연과 사회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다.

인민대중에게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지식, 기술기능과 숙련 등이 있으며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조직되고 단합된 사회적힘이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은 곧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힘이며 사회의 생산력은 결국 자연을 정복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인민대중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창조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벌리게 된다. 창조적활동과 그 성과는 전적으로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대중은 이처럼 창조에 대한 요구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창조적활동을 벌리게 되며 이로부터 사회력사적운동은 창조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서의 이 운동의 본질과 자주적인 생활의 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여나가는 사람의 고유한 생활상특성, 인민대중의 창조에 대한 요구와 창조적능력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성격을 띤다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뚜렷이 실증해주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인류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인민대중은 창조적로동으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문화적재부를 만들어왔으며 낡은것을 변혁하는 창조적활동으로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하여왔다.

력사상 자주성을 위한 피착취근로대중의 첫 진출이라고 말할수 있는 노예폭동과 그리고 중세기농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나 봉건제도가 붕괴되였으며 지난날 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던 많은 나라 피압박인민대중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새 제도, 새생활의 길에 들어선것은 다 창조적투쟁의 결과이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창조적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켜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질문화적 재부를 만들어왔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해방혁명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으며 남들이 한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자랑찬 기적과 거대한 변혁을 이룩함으로써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으로부터 사회적진보와 번영에로의 위대한 비약의 력사를 창조하였다. 실로 이 땅우에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들과 모든 재부들은 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창조물들이다. 이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성격을 띤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은 끊임없이 강화되여나간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성격을 띤다는것과 함께 이 운동의 창조적성격이 끊임없이 강화되여나간다는것을 정확히 밝혀야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이 강화되여나가는 합법칙성을 심오히 밝힘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이 강화되여나가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들어내는 투쟁과정이다. 낡은것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청산되지 않으며 새것은 순탄하게 쉽게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다.

새것은 오직 낡은것과의 첨예한 투쟁속에서만 발생발전하며 승리하게 된다. 투쟁은 새것이 낡은것을 극복하고 다승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창조적과정은 낡은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며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록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더욱더 심화발전되게 된다.

특히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창조적과정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혁명은 원래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속에서 승리하며 전진한다.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창조적과정은 낡은 제도와 낡은 생활을 보존하려는 세력들과의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전제로 한다. 낡은 제도, 낡은 생활을 보존하려는 세력은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낡은 세력을 때려부시고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이 강화되여나가는 과정은 또한 인민대중이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더욱 힘

있는 존재로 키워나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나간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창조적투쟁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얻고 그것을 일반화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기능과 숙련을 쌓고 육체적으로 단련된다.

인민대중은 창조적투쟁과정에서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 유리한 자연적 및 사회력사적인 환경조건도 마련한다.

인류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왔다. 사회생산력의 발전력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힘이 장성하여온 력사이며 사회혁명의 력사는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이 강화되여온 력사이다.

인류력사의 려명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힘과 보잘것없는 로동도구에 의거하여 자연개조활동을 벌렸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자동화된 기계수단들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설비들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또한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사회적질곡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풍부한 투쟁경험을 쌓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은 그들의 창조적능력발전의 근본요인이며 창조적투쟁을 통하여 발전하는것은 창조적능력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사회력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면 그만큼 창조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높아지게 되며 인민대중은 보다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게 된다.

이처럼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은 결국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면서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여나가게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에 의하여 조직진행되는 공산주의운동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도 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양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의하여 비로소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창조자로 되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은 이처럼 투쟁을 통하여 그리고 인민대중이 자신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나가는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화되며 그것은 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휘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의 발전과 사회개조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력사에 대한 리해를 새롭게 혁신하였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류의 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7페지)

인류의 력사가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이라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으로부터 필수적으로 흘러나오는 력사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인 견해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인류력사를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로 새롭게 파악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

을 준다.

이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발전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인류사회나 력사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그 발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결과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이루어지고 발전한다는것은 력사창조문제에 대한 심오한 해명으로 된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사회적재부가 창조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사회적진보가 이룩되여온 력사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준다. 그리하여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인 동시에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이며 그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자연이 정복되고 사회적재부가 만들어지며 사회가 개조되여나가는 과정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는것이 정확히 해명되게 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강화되며 사회력사적운동이 심화발전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과정에서 사회력사적운동의 원동력인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자라나며 그에 따라 사회력사적운동이 더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류력사가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이 강화되여나가는 방향으로 합법칙적단계를 거치면서 상승발전한다는것이 심오히 해명되였다.

이처럼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인류력사의 창조와 그 내용, 력사가 발전해나가는 방향과 합법칙성을 정확히 해명해줌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인 인류력사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또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을 능동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옳바른 방법을 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지킬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을 능동적으로 다그쳐나가는 근본방법이 밝혀지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창조와 변혁으로 수놓아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실천에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의 의의와 불패의 생활력은 력사의 전진과 함께 더욱더 과시될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관한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윤 정 국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의 원천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다.

우리 당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풍모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당의 숭고한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반석같이 다져진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에 기초하여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이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 ※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의 원천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지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위력의 원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278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하는 정치적령도자이며 광범한 군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이다. 군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수 없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당은 위력할수 없다.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는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당은 인민대중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한다.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혁명과 건설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이다. 따라서

당이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할 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의 위력과 위대성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제때에 옳은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데 있다. 당이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당이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의 경험에서 배우며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야 객관적현실과 대중의 리익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만일 당이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로선과 정책 수립에서 주관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되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당이 로선과 정책을 옳게 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한편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관철되고 실현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고 그 직접적담당자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가장 믿음직한 혁명력량이다. 인민대중을 옳게 발동한다면 당이 내세우는 그 어떠한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당이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위력의 원천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따라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집권당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야 할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이 끝났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선다. 이 과업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을 개조해나가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 위업을 완성하자면 당이 인민대중에 더욱 튼튼히 의거하여야 하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대중과의 련계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런데 집권당의 경우에 있어서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이 나올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군중과의 련계문제는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쥐면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직권을 람용하여 대중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일하는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이 나올수 있다. 그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순탄하게 자라난 일군들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관료주의와 행정식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어긋나는 사업방법으로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엄중한 후과를 끼칠수 있다. 만일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사업과 당활동이 대중과 동떨어져 진행되

게 되며 이렇게 되면 주관주의를 범할수 있으며 당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집권당도 군중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고 관료화, 행정화되면 인민대중과 유리되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잃게 되여 무력해질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까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대중과의 련계문제는 집권당에 있어서 당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로,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투쟁이 발전하는데 따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그들을 적극 반동하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전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대중과의 혈연적뉴대가 마련되고 그것이 당중앙의 령도에 의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군중과의 련계문제를 혁명조직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모든 활동에서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안팎의 정세가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은 광범한 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수 있었다.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통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모든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고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는 일군들과 당원들을 통하여 대중속에서 침투된다. 따라서 일군들과 당원들이 인민대중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의 공고성은 당의 계급적지반이 어떻게 꾸려지고 얼마나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우리 당은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렸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성분이나 지난날의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하더라도 당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믿어주고 아량있게 포섭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중과의 사업이 폭넓고 실속있게 진행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훌륭히 해결되고

있다.

혁명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도록 한것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모든 사업이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으며 당은 인민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는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시킨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비상히 강화되여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 이룩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각계각층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동요없이 싸워나가고있다. 이처럼 대중과 혼연일체로 된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떤 힘도 우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깨뜨릴수 없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7~28페지)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있는 여기에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의 공고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의 공고성은 무엇보다 그것이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의 공고성은 당이 인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와 신뢰를 받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만이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련계가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련계가 그처럼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는것은 우리 인민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확신한데로부터 우러나온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력사를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이 지닌 영예와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연와같은 지지와 신뢰의 감정은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높은 령도적권위에 의하여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우리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이땅우에는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세기적인 변혁들이 이룩

되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와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중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삶의 보람도 영예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끝없는 충성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숨은 영웅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드높은 충성심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가장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그처럼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전체 인민이 불타는 충성심을 지니고 당을 받들어나가고있기에 우리 당은 그처럼 위력하며 우리 혁명대오는 필승불패의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의 공고성은 또한 우리 인민이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싸워나가는데 있다.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련계가 참말로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인민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에 모든것을 맡기고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해나가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한다.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각오와 결심은 인민들로 하여금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당을 따라나가는 길에 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있고 자신들과 후대들의 끝없는 행복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려는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당에 의거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일신상의 문제까지도 당에 스스럼없이 제기하여 풀어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길로만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간직하고 당정책을 국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이처럼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동요없이 당을 따라나가고있기에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혈연적련계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고있으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의 공고성은 또한 그것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굳세여진데 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결코 순탄한 환경속에서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속에서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 불패의 통일단결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비싼 대가로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간고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력사에 일찌기 알지 못하는 험난한 투쟁행로였다.

지난날 우리는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와 맞서싸워야 하였으며 온갖 혁명의 원쑤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안팎의 계급적 원쑤들과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련의 시기마다 머리를 쳐들고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도 함께 뚫고나가며 오로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갔다.

우리 당은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온갖 원쑤들의 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 나섰다. 당과 인민대중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간 과정은 그야말로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두터워지고 당의 위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진 빛나는 로정이였다.

난관과 시련을 함께 뚫고나가는 력사적행정에서 이룩되고 공고화된 우리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혈연적련계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이다.

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이러한 공고한 혈연적련계는 우리 당의 위력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준다.

당과 인민대중의 련계가 전례없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당은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하게 되였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반석같은 대중적지반우에 선 당이라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다.

우리 혁명의 끊임없는 전진과정에 하나의 운명으로, 혈연적인 뉴대로 굳게 결속된 우리 당과 인민의 련계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그 어떤 풍파도 뚫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가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강위력한 추동력이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도 때려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튼튼히 지킬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이다.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지니고있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언제나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휘황히 펼쳐준다.

우리는 준엄한 혁명투쟁속에서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우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튼튼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옳은 결합

리 원 경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대중동원방법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그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하는 립장과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과학리론적기초가 심오하게 해명되여있다.

론문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전면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실시하는 모든 정책들이 반드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을 정확히 구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이 천명되여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이 가장 정확하게 론증되여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하는 원칙적문제가 다시금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할것이다.

(1)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로동계급의 당은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 높여나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가지고있는 사회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이러한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로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은

그 본질적특징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의 첫단계이며 공산주의는 반드시 사회주의를 거쳐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생활원칙과 사회관계가 형성되며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완성되여나간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일정하게 남아있게 되며 이 유물은 새로운 사회관계가 공고발전하는데 따라 점차 없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나가는 과도적사회이며 공산주의사회에 비하여 그 성숙정도에 있어서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은 공산주의사회의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사회가 갖게 되는 고유한 특성이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은 이 사회의 내적이며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은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관심과 물질적관심을 낳게 하는 요인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무엇보다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한다. 여기에서는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리해관계와 사회 및 집단의 리해관계가 일치한다.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람들에게서만 발양되는 로동에 대한 새로운 리해관계가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관심을 이룬다.

그러나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관심과 함께 물질적관심도 가진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생산력이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을 정도로 높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로동에서 본질적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은 사회와 집단의 리해관계에 대하여서뿐아니라 자기 개인의 리해관계,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물질적리해관계를 반영하는 관심이 바로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관심과 물질적관심은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의하여 실현된다.

정치도덕적자극이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평가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도록 추동하는것이라면 물질적자극은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평가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이 두 자극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관심과 물질적관심의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다같이 높일수 있으며 그들의 로력적열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은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 복종하지만 그것들이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서 노는 역할은 서로 다르다. 이로부터 두 자극을 어떤 원칙에서 결합시키는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경험은 이 문제를 옳게 풀지 못할 때 근로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제대로 놀지 못하게 되며 경제관리에서 이러저러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

성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며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 등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는 옳은 정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는것은 두 자극을 결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성격이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그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하고 이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은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로동계급의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는것은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이 요구는 정치도덕적자극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는것은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 사회주의사회발전에서 노는 그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생산장성의 결정적요인이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이다. 근로자들의 정치적자각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정치도덕적자극을 기본으로 하여 두 자극을 결합시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더 커지지만 물질적자극의 작용은 점차 제한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반영하고있는 정치도덕적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반면에 낡은 사상 잔재와 그것을 반영하고있는 개인적물질적관심은 점차 없어지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가운데서 정치도덕적자극이 기본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물질적자극이 위주로 될수 없다.

정치도덕적자극에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는것은 두 자극을 옳게 결합하기 위하여 나서는 또하나의 요구이다. 이것은 정치도덕적자극이 기본이라고 하여 물질적자극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정치도덕적자극에 물질적자극을 반드시 안받침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관심과 함께 물질적관심을 가지고있는것만큼 물질적관심이 낡은 사회의 유물에 기초한것이고 또 그 의의도 점차 제한되여간다고 하여 그것을 무시하여 버릴수는 없다.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은 정치도덕적자극과 다른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고 생산력발전을 추동한다. 물질적자극은 근로자들의 개인적리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여줄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낡은 사상 잔

재를 극복할수 있게 한다.

물질적자극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반대로 홀시하여서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다.

만일 물질적자극만을 강조한다면 근로자들속에서 리기주의를 조성하고 그들을 돈이나 물질에만 매여달리게 하며 결국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부식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반대로 물질적자극을 무시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애써 일하지 않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관심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의 작용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그것과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방법과 형태들은 다양하다. 이 다양한 방법과 형태들을 혁명실천에 어떻게 잘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결합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놓았다. 이것은 대중동원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리론적공적의 하나이다.

(2)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신천적경험에 대한 총화에 기초하여 제시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을 자극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의 정당성은 우리 근로자들의 전례없는 로력적앙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199페지)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에 따라 인민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요구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던 력사적시기에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옳은 결합을 대중동원의 힘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두 자극을 밀접히 배합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이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로 대중을 적극 동원하는 어려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

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청신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중적인 로력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수 있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이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안받침한 결과 광범한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되였으며 생산적앙양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게 되였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요구를 사회주의건설실천에서 구현해나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하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며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어떤 편향도 범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적극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 당은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지 않고 정치도덕적자극을 약화시키거나 사상교양사업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속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과 로동을 즐기고 로동을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서로 도우면서 다같이 일하는 공산주의적태도가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지금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서 전례없는 방대한 교업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 어려운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사회주의건설에로 생산자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한결같이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 때 제2차7개년계획도 안당겨 완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도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의 로동결과에 대한 정치적평가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정치도덕적자극은 물질적자극과는 달리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정신도덕상태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앞세우는 집단주의정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려는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불러일으켜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워준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발휘되는것이 아니라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꾸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 의하여서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불굴의 혁명전사로 키워 그들이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각적으

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는것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평가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한 공동로동에서 삶의 보람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수훈, 영예칭호수여, 각종 표창등 여러가지 정치적평가형태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결부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물질적자극의 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고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자극은 그 규모가 알맞춤한것으로 되여야 사람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키우는 요인으로 될수 있다.

물질적자극의 규모를 알맞춤한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관철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한다.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는 물질적자극을 실현하는 기본형태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사회로부터 일정한 분배몫을 받는다. 그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를 통하여 사회의 공동재부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으며 또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자기의 분배몫도 커진다는것을 자각하고 사회적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가 물질적자극수단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자면 생활비와 로력일에 의한 분배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변천하는 현실에 맞게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생활비등급제를 옳게 실시하여야 생활비가 로동과정에서 소모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생산자들을 생산에로 자극할수 있다. 또한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농민들이 공동로동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성실히 참가하도록 할수 있다. 로력일평가는 기본농산작업에 중점을 두고 매개 협동농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자극은 로동에 의한 분배와 함께 가격, 원가, 리윤과 같은 가치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수 있다. 당면해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 생산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을 더욱 자극하는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편의봉사 사업을 더욱더 개선하는것이다.

상품공급과 편의봉사 사업을 개선하는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자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차례진 개인소득은 주로 상업망과 편의봉사망들에서 실현된다. 상업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근로자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그들의 생산의욕이 높이 발양될수 있다.

현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천과 일용품들을 상업기관들에 제때에 공급하며 상업망과 편의봉사망들에서의 주민봉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밀접한 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문제는 이 복잡한 방도들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그래야 그 어떤 편향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야 할것이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한 종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1958년 8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빛나게 완성한 때로부터 25돐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은 수천년동안 뿌리깊이 남아있던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한 위대한 혁명적사변이였으며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이 땅우에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경제와 기술이 락후한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들은 민족적독립을 실현하고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 *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려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계급적 지배와 예속이 남아있는 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그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여야 할뿐아니라 낡은 경제제도를 개조하여야 한다. 낡은 경제제도는 계급적 지배와 예속을 낳는 사회경제적근원이다. 낡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력사적위업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여 사회주의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여야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그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불패의것으로 공고히 할수 있다.

이것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뿌리깊이 남아있는 사적소유를 없애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전후 불과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할수 있었다.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하는것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짧은 기간에 협동화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벌렸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30페지)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농업협동화실현을 위한 결정적조건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실현을 위한 결정적조건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적개조를 어느때에 제기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현해나가는가 하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이 규정되게 된다.

종전까지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할만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된 다음 협동화를 하는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있었다. 이러한 리론과 경험은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관계가 변화발전한다는 원리를 사회주의개조분야에 적용한것이였다.

우리 당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를 협동화운동에 구현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모든 사회적운동과 마찬가지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도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결정적작용을 한다. 물론 생산력이 발전하면 협동화운동에 유리한 조건이 지어지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산관계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조건으로는 되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는가, 또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다. 비록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높지 못하다해도 사람들이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협동화운동을 추진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전후시기에 가장 성숙된 요구로 나섰다.

전후 우리 나라의 개인농민들과 도시의 수공업자들,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낡은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절실한 생활적요구로 제기하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부림소나 농기구조차 얼마 없었고 로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농민들의 생활형편도 매우 어려웠으며 령세농민이 농민의 거의 40%를 차지하였다. 그때에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도대체 농사를 지을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와 함께 농민들속에서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였다. 이것은 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제기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도시에서의 개인상공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원래 령세하고 보잘것없었던 우리 나라의 개인상공업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파산몰락되여 대부분의 기업가, 상인들이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같은 처지에 떨어졌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은 국가와 사회주의경제의 지원에 의거하며 자기들의 생산수단과 자금을 련합하여 공동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경리를 복구할수 없었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경리의 협동화가 절실한 요구로 나섰을뿐아니라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도 충분히 준비되여있었다.

우리 인민들은 민주주의혁명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였다. 반면에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반대할수 있는 세력들은 심히 약화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전후시기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로 규정하고 지체없이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힘있게 추진시켜나갔다. 그리하여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을수 있었으며 농촌경리를 빨리 복구하고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었을뿐아니라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만일 그때 조성된 유리한 조건들을 놓쳐버리고 공업화가 실현될 때까지 사회주의적개조를 뒤로 미루었더라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사업은 그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장애에 부닥쳤을것이다. 또한 파괴된 농업생산력을 빨리 복구발전시킬수 없는것은 물론 전반적경제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되였을것이다.

경험은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을뿐아니라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조직된 협동경리도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바로 여기에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협동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각계각층 군중을 사회주의의 길로 힘있게 이끌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있어서 당은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의 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69페지)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시기 우리 당이 견지한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사회혁명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과 사회주의개조과정의 특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모든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과정이다.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는 사회주의혁명의 과업도 그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밀고나감으로써만 경리형태를 사회주의

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결합시키는것은 자본주의상공업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본주의 상공업자들을 수탈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인간개조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사적소유자들인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의 주인으로 만드는 문제 다시말하여 인간개조문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상공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였다.

우리 나라의 민족자본가들은 불철저하지만 일정한 혁명성을 가지고있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민족해방투쟁도 하였고 민주주의혁명도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와서 자본주의상공업자들이 혁명의 대상이라고 하여 그들을 수탈할수는 없었다. 한편 일제의 민족경제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원래 그 경제토대가 매우 미약하였던 우리 나라 자본주의상공업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여 수탈하려고 하여도 수탈할것도 없었다. 더우기 대부분의 기업가, 상인들이 우리 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을 지지하여나온 조건에서 그들을 수탈할 필요가 없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전후에 개인농민경리와 함께 자본주의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기업가, 상인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받아들여 생산로동에 참가시킴으로써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은 수공업자들로 조직한 생산협동조합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업가들을 점차적으로 협동경리에 받아들이였으며 개인상인들로는 판매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점차 생산의 비중을 높여 그것을 나중에는 생산만 하는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주의상공업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개조방침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대책이였으며 공동로동과 생산실천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을 빨리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도로 되였다.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으며 개인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물론 자본주의상공업자들까지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될수 있었다. 이것은 생산관계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였을뿐아니라 인간개조를 위한 투쟁에서도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경험은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협동화운동의 본성적요구로 되며 사회의 계급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협동화를 통하여 자본주의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야말로 자본주의적경제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독창적인 방침이며 이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은 또한 협동화의 원칙과 협동경리의 형태 및 그 규모를 바로 규정하는것이 협동화운동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들을 미리 막고 광범한 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

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협동화를 실현하려면 자원성의 원칙을 지키고 옳은 계급정책을 실시하며 협동경리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농업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83페지)

협동화운동은 단순히 행정적지시나 강요에 의해서는 진행될수 없으며 오직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에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실물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경험적단계의 설정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경험적단계의 설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협동경리의 형태와 협동화의 속도를 규정하며 일군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의 조직과 운영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신심을 가지게 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협동화의 우월성을 실물을 통하여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빈농들과 농촌의 핵심들로 먼저 매개 군에 농업협동조합들을 몇개씩 조직하고 그것을 튼튼히 하는 기초우에서 협동화운동을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농민들 특히 중농들이 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망라되게 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대중적단계에로 넘어가 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확한 계급정책 특히 농촌계급정책을 옳게 실시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한 계급정책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제한하고 점차 개조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빈농의 핵심적역할을 높이는 한편 중농에 대하여서는 강제로 협동경리에 끌어들이거나 그들의 리익을 침범하여 중농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인경리와 협동경리의 경쟁을 통하여 중농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농에 대해서는 개조하되 협동화운동에 그들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적대세력의 큰 반항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이 이처럼 정확한 계급정책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온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이것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이한 계층의 리해관계와 계급적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고 계급정책을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국가적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는것은 협동화운동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협동화운동은 농촌에서는 주로 빈농들로 먼저 협동경리를 조직하고 도시에서는 수공업자들로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와 같이 경제토대가 빈약한 계층들을 망라하여 협동경리를 조직한 조건에서 그것이 개인경리에 비하여 충분한 우월성을 나타내게 하려면 국가적 지도와 방조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협동경리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물질재정적방조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협동경리들이 짧은 기간에 개인경리에 비할바 없이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협동화운동이 대중적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이미 조직된 협동경리를 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협동화운동을 완성시키는 방향에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경험은 협동화운동에 대한 로동계급

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가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고 협동화운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경제적처지와 리해관계, 의식수준이 서로 다른 각계층의 군중들을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망라시키며 협동화운동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를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각이한 계층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또 그들이 쉽게 접수할수 있게 농촌에서는 협동경리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작업만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 로력협조반과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로동을 운영하되 토지와 로력에 의하여 분배하는 반사회주의적형태,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통합하고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하는 사회주의형태가운데서 농민들자신이 임의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상공업경리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협동경리를 업종별로 조직하고 특히 로력과 생산수단에 의하여 분배하는 협동경리의 제2형태를 널리 적용하도록 하였다.

협동경리의 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협동경리를 처음 조직할 때에는 자그마한 규모로 조직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해지고 관리일군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규모를 점차 크게 만들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조치들은 각계층 군중을 협동화운동에 적극 참가시켜 사회주의개조를 짧은 기간에 수행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만일 그때 사람들의 준비정도를 타산함이 없이 협동경리의 형태를 처음부터 높은 형태로만 규정했더라면 사상적준비정도가 각이한 부류의 계층들을 협동화운동에 성과적으로 망라시킬수 없었을것이며 또 그렇다고 하여 낮은 형태만 내세워서는 협동화운동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없었을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적공동경리의 본질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협동경리의 규모가 큰것이 좋다고 하여 경리의 기계화수준이 높지 못하고 그 담당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관리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협동경리의 규모를 너무 크게 했더라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운영할수 없고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수 없었을것이다.

경험은 우리 당이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이 협동화운동을 편향없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며 도시와 농촌에서 다같이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개조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사회주의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은 실로 귀중한 경험들을 수많이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에 의하여 주체적인 사회주의개조방침의 정당성이 힘있게 확증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의 새로운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과정에 이룩된것으로 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되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리론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우리의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이 땅우에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우리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경험들을 빛내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의 확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30돐에 즈음하여—

김 철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30돐이 된다.

가렬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며칠밖에 안되던 1953년 8월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 전원회의에서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데다가 그것마저 전쟁으로 하여 여지없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짧은 력사적기간에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길을 밝힌 가장 정당한 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민음직하게 담보하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해놓을수 있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적로정과 이 행정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혁명적인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는 전쟁의 페허우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짧은 시일에 회복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경재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186~18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이 로선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고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 반영되여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근본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

현한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전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중심고리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었다. 자립적민족공업의 초석이며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파괴된 경공업과 농업을 성과적으로 복구발전시킬수 없었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할수 없었다.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인민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튼튼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마련하는것과 같은 모든 문제들은 오직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풀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만 힘을 돌리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뒤로 미룰수는 없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령락된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인민소비품과 식량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였으며 그러자면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였다. 또한 원래 경공업과 농업이 몹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서 이 부문들을 빨리 추켜세워야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사이에 있을수 있는 불균형을 미리 막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전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경제건설의 첫시기부터 인민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견지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근본방도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하는것이다.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독자적으로 확대재생산을 진행할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무엇보다도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며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하여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한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은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 등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생산부문들사이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중공업부문자체의 다면성과 종합성,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경공업과 농촌경리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의 발전은 중공업을 위한 생산수단의 생산과 함께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한 생산수단의 생산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그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며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또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은 자체로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게 하며 더 많은 자금을 조성하여 중공업

건설에 돌림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을 더욱 다그치게 한다. 또한 중공업발전을 위한 국내시장을 넓히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여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첫시기부터 인민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축성하는 문제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경제부문들과 재생산의 고리들 사이에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전제로 한다. 만일 경제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속도를 늦출수는 없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인것이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선차적발전을 보장하면서 여기에 경공업, 농업의 발전을 따라세움으로써 사회적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에서 가장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할수 있게 한다.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중공업과 같은 주도적부문의 발전속도에 맞추어 경공업, 농업의 발전속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설정할 때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밀접한 련계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주의경제가 가지고있는 모든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경제건설의 첫시기부터 생산부문구조의 자립성과 다면성을 확고히 보장할뿐아니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와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으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 *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빛나는 자랑찬 행로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빈터우에 위력한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확립해나간 위훈의 력사이다.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만행으로 하여 벽돌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남은것이란 오직 재더미뿐이였다. 당시 우리의 형편은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으며 우리앞에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어려운 조건에서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는 길은 바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

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요구에 맞게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의 단계와 선후차를 정확히 밝히시고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전반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후차를 가리며 경중을 따져서 순서있게 우리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8권, 56페지)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문제는 인민경제복구건설의 단계와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이였다. 복구건설의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경중을 따져가면서 경제건설을 다그쳐야 모든것이 부족했던 당시의 어려운 형편에서 짧은 기간에 전후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반년 내지 1년동안으로 되는 첫단계에서는 파괴된 경제를 전반적으로 복구건설할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고 둘째단계에서는 3개년계획을 수행하여 모든 부문에 걸쳐 전쟁전수준을 회복하며 셋째단계에서는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기본공업시설부터 건설하도록 복구건설의 선후차를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전망적인 투쟁목표와 함께 당면하게 나서는 과업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었으며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튼튼한 경제토대를 마련해나갈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선 중요한 문제는 또한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구체적인 방향을 규정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옳바른 련계를 보장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미 있는 중공업공장들을 복구하고 개건확장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 없던 공업부문들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였으며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방향에서 중공업건설을 더욱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키고 경공업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농촌에서는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하며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해나갈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업을 건설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튼튼히 확립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2폐지)

자력갱생은 혁명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옳게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고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확립할데 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으면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면서 그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의 힘과 우리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여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쌓기 위한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던 시기 우리 나라의 안팎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했으며 경제건설에서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당안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을 공격하여나섰다. 거기에다 방대한 5개년계획을 수행하자니 자재와 자금이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그때는 아직 어려웠다.

이 복잡한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원회의에 이어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발동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빨리 높아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공세도, 당의 경제건설로선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도 철저히 분쇄되였으며 대중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7개년계획을 수행하던 시기 새로 조성된 난국을 헤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을뿐아니라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때에도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끝낼수 있었으며 오늘은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들을 매해 넘쳐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험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힘과 우리 나라의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확립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전면적기술개건이 힘있게 추진되는 새로운 환경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당의 로선은 아주 정확한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로선을 집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며 동시에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어려운 과업을 해결할수 없었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79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는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확립하고 그것을 튼튼히 다진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은 결과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기지가 튼튼히 건설되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중공업의 핵심인 자체의 위력한 기계제작공업이 창설된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형 및 정밀 기계들을 자체로 생산해낼뿐아니라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대규모공장들의 설비를 일식으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일제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소농기구하나 자체로 번번히 만들어쓸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 이처럼 위력한 기계제작공업을 가지게 된것은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기계제작공업과 함께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기간적부문들을 다 갖춘 강력한 중공업으로,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중공업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현대적인 중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또한 자체의 현대적인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았다.

우리 나라의 경공업은 이미 오래전에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방직공업, 일용품공업, 식료공업 등 모든 부문들을 다 갖춘 현대적인 경공업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특히 현대적인 대규모중앙경공업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 지난날 인민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생산으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소비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공업을 건설한것이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물론 경공업도 자체의 원료기지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내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공업의 위력이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주되는 성과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어 식량과 공업원료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발전된 농촌경리를 건설한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하나의 빛나는 성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끝나고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다 갖춘 다각적인 경리가 마련되였다.

최근년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가물과 큰물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계속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지대나 중간지대, 산간지대 할것없이 전반적지역에서 그리고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인 생산적앙양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농촌경리가 빨리 발전한 결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할뿐아니라 상당한 량의 예비를 가지게 되였으며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강유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놓은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가져다준 가장 고귀한 열매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 확립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커다란 위력과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지금 일찌기 없었던 경제적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나라들이 원료위기, 연료위기, 동력위기, 식량위기를 비롯한 경제적난국을 겪고있지만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적파동과 경제위기의 영향에도 끄떡하지 않고 제발로 자신만만하게 빨리 전진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되며 이렇듯 생활력이 강한 경제를 건설할수 있게 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확립한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여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담보로 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고무하고있으며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자주, 자립을 이룩해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공동의 재부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혁명적로선

유 시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3년 8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힌 주체적인 로선이며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혁명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인 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인 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26페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과정에 맺어지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해명하고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이 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며 그를 위한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명되였으며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헌이 있는것이다.

* *

사회주의확대재생산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 관한 문제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의 확대와 그 실현조건을 밝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확대재생산문제를 옳게 해명하자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고찰하는 주체적인 방법론에 확고히 의거해야 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확대재생산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고 그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확대재생산문제를 대하여야 그 합법칙성을 정확히 해명할수

있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호상관계를 밝히고있다. 이러한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에 의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의 합법칙성,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생산의 확대와 그 실현조건에 관한 문제에 새로운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줄수 있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로선이며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로선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해명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 잘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379페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은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야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고 소비재생산에 생산수단생산을 확고히 앞세워 확대재생산을 계속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은 기술적진보가 이룩되는 조건에서 실현된다. 기술적진보와 이에 따르는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사회적로동의 지출에서 생산수단에 대상화된 로동의 몫이 빨리 늘어나며 산 로동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확대재생산에서는 생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로력보다 과거로동이 체화되여있는 생산수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소비재생산에 비하여 생산수단생산이 우선적으로 장성하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된다.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의 법칙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의 경제법칙으로 구체화된다.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인민경제의 중추적부문은 곧 중공업이다. 그러므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떠나서는 확대재생산 그자체가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이 확대재생산의 법칙으로 된다는것을 해명하는것만으로는 그 합법칙성이 완전히 해명되였다고 볼수 없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며 따라서 확대재생산도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것을 요구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이 제기하는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이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할 때에만 비로소 자기의 의의를 가지며 확대재생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는 바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졌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한다는것은 소비재생산과 직접 관련되였거나 비교적 짧은 경로를 거쳐서 소비재생산과 련결된 중공업부문들을 중심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공업의 건설은 생산수단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의 장성속도에 소비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의 장성속도가 가깝게 접근하도록 이들 사이의 호상관계를 설정하여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강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인민생활을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킬데 대한 확대재생산리론을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를 새롭게 밝혀준 혁명적로선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헌은 또한 사회주의확대재생산과정에서 맺어지는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에 새로운 과학적 해답을 준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후경제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에만 치중하는것이 아니라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9권, 5페지)

확대재생산에 관한 문제는 물질소재적면에서 볼 때에는 사회적생산의 2대부류인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이며 이 관계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것은 중공업이 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인 반면에 경공업은 소비재생산에 복무하는 부문이며 농업부문에서의 주되는 생산물도 소비재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합법칙성을 밝히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종전까지는 확대재생산의 일반적합법칙성이라고 할 때 생산수단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이 가장 빨리 장성하며 그 다음에는 소비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이 장성하고 소비재생산이 가장 완만하게 장성하는것만으로 알려져왔다. 이 일반적합법칙성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생산수단생산의 장성속도가 소비재생산의 장성속도보다 앞서지 못할 경우에는 확대재생산이 진행될수 없다는것을 밝혀준다.

그러나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에 관한 이 합법칙성은 어디까지나 확대재생산이 실현되기 위한 일반적조건을 밝혀주고있을뿐이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장성속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해명해주지 못한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바로 이 문제에 새로운 과학적해답을 준데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생산수단생산의 장성속도에 소비재생산의 장성속도를 최대한으로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이러한 호상관계는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합법칙성에 대한 또하나의 중요한 과학적해명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인민들

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재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여야 한다. 소비재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여나가야 생산의 확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생산에 인입되는 근로자들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다.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도록 소비재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이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생산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 기초우에서 소비재생산을 동시에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의하여 밝혀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의 목적에 맞게 확대재생산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의하여 밝혀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의 본질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의 본질은 속도가 기본이며 균형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균형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경제발전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되며 일시적으로 개별적부문에서 높은 속도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지연되지 않을수 없다.

경제발전의 균형이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게 하려면 속도에 균형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워야 한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발전속도를 늦추면서 거기에 경공업과 농업을 따라세우는것이 아니라 중공업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속도를 거기에 최대한으로 따라세움으로써 사회적생산전반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것을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가 확대재생산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제시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또한 축적을 우선적으로 늘이면서도 소비를 동시에 빨리 늘일데 대한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근본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것은 물질소재적면에서 볼 때 축적이 주로 생산수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소비는 전적으로 소비재로 이루어진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장성속도가 어떻게 설정되여야 하는가를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과학적해명을 준 바로 여기에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독창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헌은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 특히 공업과 농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밝혀준데 있다.

인민경제의 2대부문인 공업과 농업은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한다. 공업은 농업에 기계설비, 화학비료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공업상품을 공급하며 농업은 공업에 농업생산원료와 도시주민들의 식량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공업과 농업 발전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바로 전체로서의 공업의 발전속도를 농업

에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농업을 공업발전에 적극 따라세워 이 두 부문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줌으로써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기 위한 길을 뚜렷이 제시하여주었다.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전체로서의 공업의 발전속도를 농업에 앞세우는것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로 된다.

공업의 발전속도를 높여야 농업을 공업화하는데 필요한 생산수단을 원만히 보장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공업상품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려면 이와 함께 빨리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적극 따라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여야 공업생산물을 제때에 실현하고 농산물원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공업과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칠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늘여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조건과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앨수 있다. 또한 그래야 알곡과 남새, 축산물 생산을 늘여 모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공업과 농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요구들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야말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과 그 발전의 방향문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공업과 농업의 호상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라는것을 확증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여 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이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경제발전의 매 단계마다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정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과업을 뚜렷이 제시하시였으며 언제나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거기에 적극적인 균형을 따라세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며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실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활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이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우리 나라의 객관적현실을 옳게 반영한 가장 현명한 로선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40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확대재생산을 자체의 힘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인 경공업기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는 전후에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인민경제를 불과 2~3년사이에 복구하였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쳐 진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었다.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특히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통하여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속도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전후복구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생산장성의 비상히 높은 속도가 계속 공고하게 유지되고있는데 있다. 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던 1961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10년간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매해 평균 12.8%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진 1970년—1979년사이에는 해마다 15.9%라는 더욱 높은 속도로 장성하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속도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장성속도가 가깝게 접근하고있는데 있다. 1961년—1970년사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총생산액이 3.3배로 늘어났으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3.7배로, 소비재생산은 2.8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공업총생산액이 3.8배로 늘어나고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3.9배로, 소비재생산은 3.7배로 늘어났다.

사회주의경제발전속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경제발전의 가장 합리적인 균형을 공고히 유지하게 하며 그 기초우에서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경제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을 정확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사회적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민소득을 체계적으로 빨리 늘일수 있게 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빨리 발전시켜 인민소비품과 식료품을 더욱 풍족하게 생산할수 있게 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옳게 반영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 확대재생산의 새로운 높은 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것이다.

인민생활향상과 화학공업의 발전

박 동 주

지난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분석하고 화학고지와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앞당겨점령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가 제시한 이 방침은 먹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고 쌀에서부터 먼저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는 조건에서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전원회의가 이러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한것은 전체 인민이 신심과 긍지에 넘쳐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점령에로 억세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장엄한 현실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전원회의가 밝혀준 인민생활향상의 휘황한 전망목표를 실현해나가려면 화학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자체의 섬유생산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우리 당이 의도하는대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화학공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간적인 공업부문의 하나이다.

사회적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 및 농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바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화학공업은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시초원료를 공급받아 여러가지 화학제품과 화학원자재를 생산해낸다. 화학공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널리 쓰일뿐아니라 인민생활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원자재로 된다.

화학공업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업부문의 하나로 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다.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물질의 화학적변화를 리용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썼다. 비록 단순하고 유치한 화학적기술이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리용하여 물감, 유리, 종이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 썼으며 물질의 화학적성질에 대한 연구도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학은 단편적인 경험과 기술을 리용하던 단계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체계화된 과학으로 되였으며 그 리용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원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가공하는 전문적인 생산분야인 화학공업이 출현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생산력발전과 사람들의 물질생활령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경공업의 원료원천은 더욱 확대되고 농업생산이 빨리 늘어나게 되였다.

화학공업에 힘을 넣는것은 과학기술이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화학공업의 의의와 그 발전전망이 비상히 커진 현시기에 와서는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화학적기술이 발견되고 리용되여온 이러한 전력사적과정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특히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306페지)

화학공업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먹는 문제이며 그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쌀이다. 쌀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을것이 풍족해야 인민들의 의식상태도 더 좋아지고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가며 쌀을 수요에 따라 공급할수 있게 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쌀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데 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방도로 된다.

농작물의 생육에 절실히 필요한 질소, 린, 카리 비료와 미량원소비료는 다름아닌 화학공업에서 생산되며 화학비료를 얼마나 생산공급하는가에 따라 알곡수확고가 크게 좌우된다.

화학공업은 또한 여러가지 효능높은 농약을 생산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고 병충해를 미리 막아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게 한다.

이것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말해준다.

화학공업은 먹는 문제뿐아니라 입는 문제를 푸는데서도 큰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입는 문제는 먹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입고 사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의 생활수준이 나타나며 사회의 발전면모와 문명정도가 평가된다. 입는 문제의 해결을 떠나서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증대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여기에서 특히 현대적인 화학공업의 발전은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화학공업이 발전하기전까지만 하여도 인류는 무명실이나 명주실, 양털을 비롯한 자연섬유에 의존하여 입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섬유의 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품이 대단히 들며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섬유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다. 이 제한성은 화학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극복될수 있었다.

화학섬유의 생산은 그 생산기술공정의 특성으로 하여 자연섬유의 생산처럼 자연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로력도 적게 들고 원료도 손쉽게 얻을수 있다. 화학섬유는 그 성질도 좋은것이다. 인견사와 스프는 물론 최근에 와서 널리 쓰이고있는 비날론과 모비론, 아닐론과 나이론 같은 화학섬유들은 다

나무, 갈, 석탄, 석회석, 원유 등 자연계에서 채취공업을 통하여 얻을수 있는 것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것으로서 자연섬유에는 없는 좋은 성질들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늘 근로자들의 입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화학공업의 발전 특히 화학섬유생산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면 또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를 비롯한 화학제품들을 생산하여 값싸고 간편하고 보기 좋은 신발, 비옷, 가구, 문화용품, 어린이놀이감 같은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공급할수 있다.

이처럼 화학공업은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요구가 급격히 높아진 현시기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먹고 입고 쓰고사는 걱정을 모르게 된 우리 인민은 물질문화생활에서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특히 옷차림에 대한 요구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이러한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학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섬유인 비날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비날론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발견한 기술로 생산하는 주체섬유이며 우리의 손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20여년간 생산하여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섬유이며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충분히 확증된 훌륭한 섬유이다. 비날론생산을 늘이는 여기에 당이 제시한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앞당겨점령하여 인민들의 늘어나는 요구에 맞게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이 내세운대로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차례지는 천의 몫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이르게 되며 우리 근로자들은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은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제때에 해결하며 이 땅우에 공산주의리상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의 원료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현대적인 화학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주체적인 화학공업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에 벌써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닦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유기합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비날론연구집단까지 꾸려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후에 와서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파괴된 화학

비료공장을 복구건설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였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비날론공장과 염화비닐공장을 새로 일떠세우는 장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바로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화학공장들의 복구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전히 끝내고 우리나라 원료자원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은 물론 합성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화학공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던 1960년대에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이 다 갖추어지고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민경제의 화학화에 더 잘 이바지하게 되였다. 또한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다그쳐나가던 1970년대에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서의 면모를 더 훌륭히 갖추었으며 그 부문구조가 보다 완비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급속히 발전하여온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인민생활에서 그 역할은 비상히 커졌다.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한 결과 인민들의 생활에서 화학제품의 리용범위는 대단히 넓어졌으며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꾸려나가는 문제는 화학공업과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화학공업이 발전하여온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화학공업건설방침의 정당성과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짧은 기간에 화학고지와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화학공업발전의 방향과 명백한 투쟁목표가 우리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실현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억세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이 땅우에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경험이다.

우리에게는 또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능히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공업의 위력은 전후 비날론공장을 건설할 때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문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당이 제시한 화학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방침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화학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기적

과 혁신을 일으키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오늘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당면하게 순천지구에 10만톤 능력의 대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고 이미 있던 스프, 인견사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모비론, 아닐론, 나이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합성고무공업을 창설하며 염화비닐생산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바로 여기에 당의 의도에 맞게 대답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고리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숨은 영웅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특히 화학공업부문과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번 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중요한 단위에 서있는 높은 영예와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화학고지점령의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나가야 하며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고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였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화학공장건설장마다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 있다.

당의 방침대로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앞당겨점령하는데 필요한 섬유생산능력을 2~3년안에 조성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자면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을 진행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력을 충분히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현실은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것을 요구하며 조직사업을 잘한다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고 모든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과 인민 앞에서 지닌 자기의 중요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주체적인 화학공업기지건설을 위한 투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대중을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 창조에로 불러일으키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찾아내여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고 작전을 빈틈없이 하여 대화학공업기지건설장들에 요구되는 로력과 설비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원료와 연료를 생산공급하는 선행공정부터 건설하여 새로 건설하는 화학공장들에서 처음부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있는 화학공장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리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일군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기술연구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화학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술공정을 현대화하며 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

이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쥐고 화학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지도해나가는 일군들의 옳바른 일본새이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새로운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조국의 만년대계와 민족의 번영,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그 규모에 있어서 일찌기 류례없는 거창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난날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자연개조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섰던것처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대규모화학공업기지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비날론공장건설장, 석회석광산과 석탄개발전투장들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며 화학고지점령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혁신운동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은 화학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당면한 투쟁목표로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광범한 대중의 무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정확한 집행대책을 따라세워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화학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속에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결정을 깊이 침투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며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에 대한 실효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조직지도해나감으로써 화학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공업의 주체성과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리상사회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80년대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와 성과로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미일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전락된 남조선경제의 파국적후과

박 동 근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온 경제예속화정책과 력대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적이고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철저히 미일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전변되고 그 파국적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해지고있다. 남조선의 농업과 공업, 상업과 재정 등 경제의 모든 부문과 분배와 교환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은 지금 완전히 미국과 일본 독점자본의 경제부속물로 전락되였으며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처지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과 정치적불안정을 증대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　　　*

남조선경제는 철두철미 미일독점자본의 예속밑에 있으며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부속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경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 경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54폐지)

일반적으로 예속경제란 자립경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요구하는 생산적 및 소비적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나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예속경제란 자기 나라의 경제적수요를 자기의 경제적밑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자금, 원료, 기술 등에 의존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예속경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부문구조를 다 갖추고있는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일부 경제부문들만을 가진 극히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구조를 가진 경제이며 자체의 자금과 원료기지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가진 뒤떨어진 경제이다. 이것은 자립적인 민족경제와는 달리 식민지예속경제에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종주국경제의 한개 구성부분으로 되고있는것이 본질적특징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른 나라의 민족경제를 저들이 지배통제하는 단순한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팽창정책에서 일관하게 추구하고있는 주되는 목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독점자본의 해외팽창과 략탈을 가장 철저하고 안전하게 실현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다른 나라 경제를 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탐욕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예속화정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발판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미제는 8. 15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요하면서 일제때와 다름없는 식민지경제예속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오늘까지 근 40년동안에 걸쳐 수단과 방법,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가면서 남조선경제에 대

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체계적으로 감행해왔다.

1945년—1960년 기간에 미제는 남조선에 저들의 경제적지배체제를 완비하고 남조선경제를 일본경제의 부속물로부터 미국경제의 부속물로 완전히 돌려놓으려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었다. 미제는 이 시기에 이른바 《무상원조》에 의한 《경제부흥》을 표방하여나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정시기에 벌써 군정청을 통하여 인제의 재산을 몽땅 틀어쥐고 재정, 금융, 무역 등 중요경제명맥을 독점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저들의 경제적지배체제를 세우는 한편 민족공업발전의 길을 막고 남조선경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데로 나갔다.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조작한 다음 미제는 이 허수아비《정권》과 《경제원조협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쌍무적인 《협정》과 《조약》을 맺고 《경제원조》에 의한 저들의 경제침략을 합법화하고 본격화하였다.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남조선괴뢰사이에 이른바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맺게 하여 남조선경제를 틀어쥠으로써 남조선경제의 예속성을 한층 심화하였다.

전후시기에 미제는 《국제협력국원조》라는 명목밑에 《원조액》의 근 20%에 해당한 시설재를 끌어들이고 그것을 군사적성격이 강한 교통, 체신 분야에 돌렸으며 새로 《잉여농산물협정》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국잉여농산물침투를 합법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공업은 80.7%가 미국의 밀, 원면, 원당을 가공하여 군사비와 군수품을 현지조달하는 예속공업으로 되고 농업은 미국의 비료와 잉여농산물에 의존하는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또한 남조선괴뢰《정부》예산에서 미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충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르렀다.

이 모든것은 1950년대말에 와서 남조선경제가 미제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완전히 굴러떨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새로운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던 1960년—1979년시기에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예속화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미제는 《개발원조》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이른바 《근대화》정책을 표방해나왔다.

놈들이 새로 들고나온 이른바 《개발》과 《근대화》는 민족경제의 개발이나 근대화가 아니라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락시켜 식민지적략탈을 보다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이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지난날의 《무상원조》대신 《유상원조》로 경제침투방식을 바꾸었으며 1960년대에는 주로 《차관》을,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차관》과 함께 《직접투자》를 대대적으로 들이미는데로 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함께 1965년에 저들의 조종밑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사이에 여러가지 《협정》이 맺어진것을 계기로 일본독점자본을 남조선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게 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에 2중으로 얽매이게 되고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2중적인 경제부속물로 전락되게 되였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차관》과 《직접투자》는 무엇보다도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한 일부 공업부문들과 통신, 도로, 철도, 항만 부문 등에 돌려져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는데 리용되였다.

그것은 이른바 《수출산업》에도 투자되였다. 미국과 일본의 잉여농산물과 원자재를 싼값으로 가공하여 미국과 일본의 시장수요를 충족시킬것을 목적한 수출용 방적 및 방직업, 신발 및 합판제조업, 미국과 일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가정용 전자 및 전기제품생산산업 등이 그의 주되는 침투령역

이였다.

근 20년에 걸치는 놈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를 미일독점자본에 더욱 깊이 예속시키게 되였으며 군사비와 군수품을 현지조달할뿐아니라 막대한 식민지초과리윤과 값싼 소비상품, 일부 건설자재를 보장하는 부속물로 전락시키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금이 가고 경제파국이 더욱 심각화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한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요즘 남조선경제를 《선진화》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들고나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경제를 전면《자유화》하며 지난날 괴뢰《정부》가 《주도》하고 있던 경제운영방식을 《민간주도》로 고치고 《성장일변도》로 나갈것이 아니라 《안정》된 기반우에서 《성장》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떠들고있는 이러한 《경제선진화》책동은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있는 재정, 금융위기와 경제파국에 직면하고있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이 남조선경제를 훨씬 적은 밑천으로 철저히 예속시키고 부속물로 만들려는 가장 범죄적인 침략책동이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이 지배하고있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부속물로 철저하게 전락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건설과 경제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의 압도적부분을 미국과 일본 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82년말 현재 남조선괴뢰도당이 걸머지고있는 빚은 무려 380억딸라에 이르고있고 올해에는 그것이 400억딸라를 크게 넘게 될것이라고 한다.

남조선괴뢰도당이 1980년까지 도입한 외국《차관》 총액에서 미국독점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30.7%이고 미국의 지배밑에 있는 국제금융기구가 차지하는 몫이 18%로서 결국 미국독점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나 된다. 여기에 일본독점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15.3%를 합하면 미일독점자본은 《차관》총액의 64%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운데서 일본자본이 차지하고있는 몫은 50.6%이고 미국자본은 24.7%로서 미일독점자본이 7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철도, 체신 부문과 연료, 동력, 철강, 화학비료 공업, 은행 등 중요한 경제부문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괴뢰도당의 이른바 《관영》기업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자금을 《차관》으로 충당하고있으며 대기업—재벌기업은 미일독점자본과 은행으로부터 자기자본의 4～5배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들이고있다.

미일독점자본에의 자금의존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훨씬 더 높다. 지어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은행》이 끌어들인 《차관》 등에 자금을 의존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경제가 미일독점자본에 자금적으로 의존하고있고 금융적으로 예속당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연료, 원료, 자재의 해외의존률이 또한 높다.

미일독점자본이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조선경제의 예속화책동으로 말미암아 공업원자재의 해외의존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남조선경제에서 원자재의 해외의존도는 이미 1976년에 71.2%에 이르렀는데 그후 더욱 높아가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원유, 목화, 원당, 생고무, 양털, 알루미니움, 콕스탄의 100%와 원맥, 화학펄프, 소가죽, 동광석의 90%이상 그리고 철광석, 화학섬유, 파철, 통나무 등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특히 연료와 동력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졌다. 자료에 의하면 연료자원의 수입의존도는 1981년에 75%로 높아졌다고 한다.

식량의 해외의존률이 높아지고있는것은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부속물로 된 남조선경제의 또하나의 특징으로 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잉여농산물강매정책과 농민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곡물수입지대로 되고있다. 놈들은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미일독점자본가들과 그 안내자들인 매판재벌들만을 살찌우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알곡수입량은 년년이 늘어나고있고 알곡자급률은 매해 낮아지고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성화되기 시작한 남조선괴뢰들의 알곡수입은 1965년에 63만톤이였던것이 1981년에는 무려 814만톤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식량자급률은 1965년—1981년사이에 93.9%로부터 42.2%로 급격히 떨어졌다.

미일독점자본에의 연료, 원료, 자재, 식량의 의존정도는 남조선경제의 수입의존도가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수입의존도는 1961년의 5%에서 1981년에는 50%로 높아졌다.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보다도 3~4배나 높은것은 남조선경제야말로 미일독점자본에 의존하고 그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는 미국과 일본독점자본의 부속물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된다.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강화되고 개개의 경제부문과 재생산의 고리, 기업체들이 제각기 미국과 일본 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전락됨에 따라 남조선경제의 기형성과 편파성은 전례없이 심화되고있다.

농업과 공업사이의 생산적련계가 전면적으로 끊어져 남조선농업은 공업에 그 어떤 원료도 공급하지 못하고있으며 공업은 공업대로 농업용기계와 영농기자재들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고있다. 농업은 지어 도시주민이 소비하게 될 최소한의 농산물마저 생산하지 못하고있다.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련계도 거의 끊어진 상태에 있다. 얼마간 있다고 하는 석탄공업은 전적으로 민수용연료탄생산에 치중하고있으며 원료용 또는 산업용 석탄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채취공업이란 토목공사용 자갈이나 모래 채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보잘것없는 이러한 부문에서 리용하는 생산도구란 전, 삽, 곡괭이 같은것뿐이다. 가공공업안에서의 부문간의 생산기술적련관성도 거의나 없다. 민수생산에 비하여 군사적성격을 띤 산업부문이, 《내수산업》보다 《수출산업》이 기형적으로 자라나고있으며 생산부문보다 류통부문이 지나치게 팽창되고 공업제품의 대내거래보다 대외거래규모가 일면적으로 확대되여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성과 대내적으로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편파성이 이처럼 심한것은 남조선경제가 종주국경제의 부속물로 전락된 식민지경제의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근 40년간 남조선에 강요해온 식민지경제예속화정책과 력대괴뢰들의 매국배족적인 경제정책의 필연적귀결인것이다.

미일독점자본의 예속물로 전락된 남조선경제의 파국적후과는 오늘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남조선경제는 더욱 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54페지)

미일독점자본의 부속물로 굴러떨어진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의 가혹한 식민지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경제를 예속시키고 그것을 자기 나라 경제의 부속물로 만드는것은 그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략탈하고 로동력을 최대한으로 착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오늘 미일독점자본은 이른바 《선진화》의 간판밑에 남조선경제를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그에 토대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착취를 전례없이 확대강화하고있다.

미일독점자본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착취의 중요한 공간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은 《리자》와 《리윤》이다.

지난 한해동안만 하여도 미일독점자본은 남조선에서 《차관》원금의 첨가물인 《리자》만으로도 무려 38억딸라를 강탈해갔으며 같은 기간에 상환한 《원금》을 합하면 실로 그것은 58억딸라에 달한다.

미일다국적기업이 남조선에서 짜내는 기업리윤도 급속히 증대되여 최근 3년간에만도 2배로 늘어났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은 또한 남조선괴뢰들과의 식민지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리득을 얻고있다.

미일독점들은 남조선시장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할것을 강요하는 한편 자기나라에 들어오는 남조선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더 많은 상품을 일방적인 높은 가격으로 남조선에 강요하고 저들이 수입하는 상품가격을 한층 더 낮추고있다.

미국내에서 대당 1,400만딸라로 거래되는 《에프—16》전투폭격기를 남조선괴뢰들에게는 2,500만딸라로, 세계곡물시장에서는 톤당 250딸라인 미국산 쌀은 400여딸라로 남조선에 강매한 사실들은 미국독점자본이 자기 상품을 얼마나 높은 식민지독점가격으로 팔아먹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남조선에서 임가공한 상품을 생산원가의 50~60% 안팎의 낮은 값으로 강탈하여 해마다 40~50억딸라씩 짜내고있다.

이처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조》를 미끼로 막대한 군사비와 군수품을 현지에서 수탈하는 동시에 해마다 100억딸라이상의 식민지초과리윤을 빼앗아가고있다. 바로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일독점자본의 파렴치한 착취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며 놈들의 부속물로 전락된 남조선경제가 어떠한 파국적후과를 초래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미일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전락된 남조선경제의 파국적후과는 남조선에서의 경제위기가 장기화, 첨예화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경제적 침략과 략탈 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의 현경제위기는 이미 5년이상 지속되고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는 거대한 규모로 늘어나고 《외채위기》는 날에 날마다 엄중해지고있다. 전반적조업률은 70%밑에 있으며 파산, 휴업하는 기업들과 조업단축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남조선에서는 2,185개의 기업이 파산 혹은 휴업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조업을 단축하였다.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실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1979년초에 비하여 1983년초에는 실업자수가 무려 2배로 늘어나 실업률은 전체 로동인구의 31.3%에 이르렀다. 실업자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실업기간이 끊임없이 길어지고있다.

취업로동자들의 로동조건도 더욱 한심한 형편에 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로동정책과 매판자본가들의 이른바 《경영합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은 날로 길어지고 로동강도는 해마다 10%이상이나 더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발생하는 로동재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로동자들의 실질소득도 또한 해마다 떨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80년에 16.2%, 1981년에 25%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사태는 달라지지 않고있다. 로임의 체불현상이 계속되고 지어 《예금통장》을 리용한 로임지불이 강요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되고 위험한 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의 3분의 1도 못되는 기아임금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농민들의 처지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다. 농산물가격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된 반면에 공업상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보다 완화된것으로 하여 농산물가격과 공업상품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농가의 실질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가격차이는 1980년에 2.8%, 1981년에는 8.4%나 더 커졌다. 이러한 실정에서 남조선의 농가부채는 최근 3년동안에 다시 50%이상 늘어났다.

농촌경리가 더욱 령락되고 농민들의 생활처지가 계속 악화되는데 따라 농촌을 떠나가는 리농민이 대량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최근 3년동안에만도 200만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됨으로써 지금 남조선의 여러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령농가》와 《유령마을》이 생겨나게 되였다.

도시소상인들과 수공업자, 중소기업가들도 상업불황, 경영조건의 악화로 전례없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

근로대중의 교육, 보건, 주택 조건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완전히 굴러떨어졌으며 날을 따라 더욱 엄중한 파국적후과를 빚어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괴뢰도당은 또다시 일본반동들에게 구걸하여 40억딸라의 《차관》을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경제를 일본독점자본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일독점자본의 예속화정책이 강화되는 한 남조선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고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개선될수 없다.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함으로써만 남조선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이 열려질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수 있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야망과 해외팽창책동

김 성 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때로부터 근 40년이 된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민족적자주권이 유린되고 전쟁참화를 강요당하였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은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자들의 란무장으로 되지 않고 평화애호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은 오늘 또다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나까소네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본반동들의 재군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의 부활과 군사적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　　　　*

일본반동들이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는 《군사대국화》야망과 해외팽창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식민주의적지배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전후 일본정부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이고 호전적인 나까소네정부가 추구하고있는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 정책의 당면한 목표는 미제가 도발하는 전면전쟁, 세계전쟁에 가담하고 섬제공격작전을 벌릴수 있는 침략무력을 강화하여 전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 있다.

나까소네정부가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는 침략무력의 증강과 군사적침략책동은 해외팽창을 꿈꾸는 일본독점자본의 요구이며 미제의 세계전략과 아세아전략의 산물이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 책동은 무엇보다도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일본독점자본의 해외팽창 야망을 반영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 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21폐지)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고 생존수단이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조선을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여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을 세워보려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추구해온 변함없는 침략적야망이다.

미제의 비호밑에 전후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선행자들의 그러한 범죄적인 야망을 그대로 꿈꾸고있으며 거기에 복수주의까지 첨가되여 보다 흉악하고 악랄한것으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군사대국화》야망과 해외팽창책동은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적 본성의 산물이다.

일본반동들의 재군국화와 해외팽창책

동은 또한 일본독점자본주의발전의 필연적귀결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비호밑에 부활되고 조선전쟁과 윁남전쟁 시기에 얻은 막대한 전쟁리윤으로 급격히 장성된 일본독점자본은 오늘날 팽창될대로 팽창되여 로골적으로 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해외침략을 위한 물질적기초로써 군수산업을 부활시키고 일본공업을 전쟁전수준의 몇배로 장성시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놓은 일본독점자본은 국내시장이 협소해지고 원료난에 직면하고있는 등 여러가지 난관을 겪고있으며 그것은 1970년대중엽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하여 더욱 심각화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짐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내시장이 좁아지고있다. 더우기 경제위기가 날로 심각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파산되고 실업자가 격증되고있다. 일본은 완전실업자만 하여도 150만명을 넘고있는 형편이다.

자본주의세계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일본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로 하여 일본독점자본의 해외시장도 심히 제한당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에 있어서 연료와 원료문제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석유와 쇠돌을 비롯한 주요한 연료와 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일본공업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원천지를 확보하지 못하고있으며 매우 불안한 상태에 처해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와 같은 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며 안정된 시장과 원료공급지를 확보하고 독점리윤을 짜내는데서 찾아보려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군사대국화》야망과 해외팽창책동은 해외침략을 갈망하는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일본반동들의 무력증강과 해외팽창책동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세계전략 특히 아세아전략의 요구로부터 나온것이며 그 전략의 일환이다.

심각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빠져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처지를 구원하며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흉악한 야망을 가지고 등장한 레간정부는 그 위기로부터의 출로와 방도를 침략전쟁에서 찾고있다.

력대 미국정권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이고 호전적인 레간정부는 방대한 군비확장책동과 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제놈들의 추종국가와 앞잡이들을 침략전쟁수행에 끌어들이려고 꾀하고있다.

미제는 특히 일본반동들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과 아세아침략전략 수행에서 대리인으로 리용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은 방대한 인구와 경제력을 가지고있고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경험도 가지고있다. 일본은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를 침략하는데서 군사전략상 유리한 지리적위치에 놓여있다.

미제는 미일간의 동맹관계를 유지강화하는것을 저들의 《아세아전략의 초석》이라고 떠벌이면서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 적극 부추기고있으며 일본의 모든 군사적잠재력을 동원리용하려고 꾀하고있다.

다른 한편 일본반동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미제의 요구에 적극 수응해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러한 미일독점자본에 복무하며 그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는 철저한 집행자이다.

나까소네정부가 등장한 첫날부터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독점자본의 해외팽창은 경제적팽창과

함께 군사적침략을 동반한다.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은 제국주의자들이 안정된 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확보유지하고 각종 자원을 제마음대로 수탈하기 위하여 감행하는 상투적수법이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고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에 가담하는 길을 침략무력을 증강하여 《군사대국화》하는데서 찾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군사대국화》하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그것이 마치 일본의 운명과 국제적권위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는것처럼 주장해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한때 일본인민들과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내걸었던 이른바 《전수방위》전략을 줴버리고 로골적인 침략전쟁전략인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선제타격》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있으며 《경제안보》대신에 《군사안보》에 대하여 더욱더 떠들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로골적으로 미제의 침략적인 세계전략에 가담하고있으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위한 《대리전쟁》을 담당해나서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반동들이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는 《군사대국화》야망은 침략적인 지역전쟁과 세계전쟁을 담당수행할수 있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와도 대결할수 있는 방대한 군사력준비를 목적한것으로서 철두철미 침략적인것이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야망은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군비확장책동에서 드러나고있다.

반동적인 나까소네정부가 내놓은 1983년—1987년 제5차무력증강계획은 방대한 현대적공격무기로 장비하고 장기전과 선제공격 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있는 범죄적인 무력증강계획이다. 일본반동들은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5년간에 군사비로 총 15조 6,000억엔 내지 16조 4,000억엔을 지출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1950년부터 1971년까지 20년간의 일본의 군사비와 맞먹는 방대한 제4차무력증강 5개년계획에 비하여 약 3.5배나 된다.

군사비의 이러한 증가률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으며 그 절대액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무력증강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무력증강 제5차 5개년계획의 침략적성격은 그 계획지표와 무장장비의 성능면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이 기간에 륙상《자위대》는 새형의 땅크와 장갑차, 포 등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 화력과 기동력은 더욱 증대되게 된다.

항공《자위대》는 《에프—15》전투폭격기를 비롯하여 조기경보기, 정찰기, 수송기를 더 많이 받게 된다. 특히 항공《자위대》의 《주도기》로 되고있는 《에프—15》전투폭격기는 핵무기까지 실을수 있고 조선반도와 동남아세아지역까지 작전범위로 삼을수 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는 계획기간에 미싸일로 장비되고 대형 호위함과 잠수함, 최신형반잠수함초계기를 많이 가지게 되며 기뢰부설항공단도 창설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반동들은 이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1억딸라이상분의 해상대해상미싸일과 지상대공중미싸일을 구입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자위대》는 병력수와 장비면에서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제5위권에 속하게 되고 그의 화력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의 일본침략군대에 비하여 수십배로 강화되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최신형전투폭격기보유대수에서 제2위를 차지하게 되고 호위함과 잠수함 보유수에서도 6번째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나까소네정부의 이러한 군비증강책동은 결코 그 어떤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침략을 위한 공격을 목

격하고있는 흉악한 《군사대국화》책동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은 또한 무장장비를 현대화, 《국산화》한다는 간판밑에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는데서도 표현되고있다.

일본의 전문군수품생산기업체수만 하여도 1960년초에 1,000개 수준이였다면 1980년에는 그것이 무려 2,177개로 늘어났다. 무기개발연구비도 1970년—1980년기간에 2.5배로 증가하였다.

오늘 일본의 군수산업은 최신형의 땅크와 전투폭격기, 직승기적재호위함 등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반동들은 오늘 최신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까지 하고있으며 핵무기생산이 현행헌법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파렴치하게 떠벌이면서 핵무기를 연구개발하여 소유할데 대한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적극 편승하여 제놈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확대강화하고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출판물까지도 나까소네가 내놓은 제5차무력증강계획은 일본을 《군사대국화》하는 《중대한 단계》로 들어서게 하는것이라고 폭로하고있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일본반동의 우두머리인 나까소네는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되지 않을것이라느니, 일본의 무력증강이 《자위적》이고 《방위적》인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이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은폐하기 위한 어리석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의 침략적야망과 호전성은 《군사대국화》책동에서만 아니라 일본을 미제의 핵기지로 전변시키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미제는 핵무기를 손에 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과 공갈, 침략과 전쟁의 기본수단으로 삼아왔다.

미제에 아부굴종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핵전략을 적극 지지하면서 일본을 아세아침략의 핵무기고로,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있다.

오끼나와는 극동최대의 핵공격기지로 전변되였고 이와구니를 비롯한 일본의 미군기지들에도 핵무기가 배치되여있으며 핵무기를 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행기와 함선들이 일본에 빈번히 드나들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미제와 공모하여 아세아인민들에게 범죄적인 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아세아제패의 야망을 쉽게 실현해보려는 핵광신자들의 분별없는 망동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반동적인 나까소네정부는 《군사대국화》와 함께 국내에서 전쟁체제를 갖추기 위한 정치적반동화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핵무장과 군사적인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려 하고있으며 이른바 《유사시법》을 조작하여 전시파쑈체제를 합법적으로 세워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리고 온갖 사상문화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군국주의를 례찬하고 고취하기 위한 책동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놈들이 일본국내에서 침략전쟁준비와 림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는것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책동과 함께 해외팽창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흔히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앞세우고 군사적침략에 의하여 그를 유지공고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른바 경제《원조》와 《차관》을 수단으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 특히 아세아지역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감행해왔다.

그리하여 일본독점자본은 지금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하여 경제명맥을 장악하고 남조선경제를 제놈들의 예속물로 만들었으며 일부 아세아발전도상나라들의 시장에도 광범히 침투하고 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오늘 침략무력으로 안받침된 해외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확보할것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독점자본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군사적인 해외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른바 《방위선》을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고있는것은 그들의 군사적팽창책동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주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방위선》을 극동지역뿐아니라 말라카해협으로부터 인도양까지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침략야망을 드러내놓았었다.

반동적인 나까소네정부는 이러한 침략야망을 더욱 구체화하여 태평양과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한 이른바 1,000마일 《해상교통로방위》를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또한 놈들은 《해협봉쇄》와 《일본열도의 불침항공모함화》라는 호전적인 작전계획도 꺼리낌없이 내놓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떠벌이고있는 《방위선》이란 다름아닌 선행자들이 꿈꾸던 《대동아공영권》판도 그대로인것이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망발과 오만한 책동은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림전태세확립 책동을 합리화하고 군사적침략의 대상지와 식민주의적지배권에 대한 흉악한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은 특히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적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조선반도는 일본반동들의 첫째가는 해외침략목표로 되고있다.

력사적으로 일본반동들은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였으며 여기서 무엇보다도 조선을 침략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나갔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상투적인 침략전략이며 고질적인 침략수법이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범죄의 력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망상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을 아세아침략의 대리인으로 만들려는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밀접히 유착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한것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이후시기에만도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은 남조선괴뢰들의 《운명선》인 동시에 《일본의 운명선》이고 《일본에 있어서 전진기지, 전제진지》라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지어 어떤놈들은 일본국회에서 《일본이 선제공격하는것은 자위권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할데 대한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놓기까지 하였다.

선행한 전쟁범죄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나까소네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은 지금 미제와 공모하여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와 함께 이미부터 아세아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리기 위한 《공동작전계획》을 작성해왔으며 최근에는 《극동유사시연구》라는 간판밑에 아세아나라 특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전쟁계획을 짜는데 골두하고 있다.

그리고 미일남조선사이에 3각군사동맹조작을 마감고비에서 서두르면서 이미 작성한 《3개와살작전》, 《날아가는

동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등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계획들을 검토보충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일본《자위대》와 미제침략군, 남조선괴뢰군 사이의 작전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추진시키는 한편 공동군사훈련도 빈번히 벌리고있다.

이미 일본《자위대》의 중앙지휘소와 남조선에 있는 《련합사령부》사이에 지휘통신선을 련결시켰고 미일남조선사이에 《대항공조기경보체계》와 《군사정보교환체계》, 《긴급출동체계》를 세워놓았다.

일본《자위대》의 우두머리들은 남조선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남조선괴뢰군의 우두머리들과 전쟁모의를 벌리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시험전쟁》, 《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에까지 서슴없이 가담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이 군사적침략의 첫발을 조선반도에 내디디려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해외팽창에 혈안이 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은 또한 3각군사동맹을 모체로 하여 태평양연안나라들을 망라하는 《나또》형의 이른바 《아세아태평양집단안보체계》를 창설하려고 꾀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동남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철저히 저지파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적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인민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미제국주의와 일본반동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8호(루계 49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8월 1일　　발 행•1983년 8월 3일

ㄱ—3511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9 호(497)

차 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5돐에 즈음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35돐이 된다.

지난 35년동안 우리 공화국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륭성번영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면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였으며 우리 조국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그 수위에 서시여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 인민이 유구한 민족사에서 오늘처럼 륭성번영하는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를 가져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전력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로 수놓아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의 위력을 과시한 빛나는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력사를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공화국의 끝없는 번영에서 자기들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국땅우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확고히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득차있으며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열의를 내여 투쟁하고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에 기초하고있는 위력한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확고한 정치적지반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남으로써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 동맹을 기초로 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37페지)

국가의 위력은 그 국가가 의거하고있는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지반의 공고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적지반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력량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적지반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군사적지반은 혁명무력을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인 방위체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사회주의국가의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지반은 국가정권의 위력을 보여주는 기본징표이다.

정치적지배의 무기로서의 국가가 민족적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튼튼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착취계급의 국가와는 달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통일된 력량에 의거하는 새로운 류형의 국가이며 그 정치적지반은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할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확고부동한 사상적기초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야만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가장 공고한 정치적지반을 가지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뭉쳐진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속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가장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온 사회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전변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기초하고있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는데 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공고한 정치사상적통일은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의 생명이며 그 위력을 낳게 하는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이며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수령은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된다.

인민대중은 오직 탁월한 수령을 중심으로 그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투쟁함으로써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대렬의 통일단결을 언제나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것으로 끗끗이 이어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의 위력은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고 있는데 그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현대혁명투쟁력사에서 류례가 드문 간고하고 시련에 찬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과 같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힘있고 존엄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이며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아가는 길에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륭성번영의 길이 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부터 확신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불패성과 우리 공화국의 위력의 근본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오늘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중앙에 의하여 더욱 숭고하고 더욱 억센것으로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전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자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전도를 담보하는 거창한 설계도가 작성되고 구현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당의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부강한 우리 공화국의 오늘의 자랑찬 현실과 더욱 찬란한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이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미래를 의탁할수 있는 혁명의 위대한 품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자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이처럼 전체 인민이 우리 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우리 당을 위대한 령도중심으로 하여 굳게 결속되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거창한 위업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공화국이 기초하고있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위력은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전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서 중요한것은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만이 공고한 통일이다.

하나의 사상은 다름아닌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는 참다운 지도사상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있으며 높은 사상적각오와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 투쟁을 통하여 전체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대오로 되였으며 온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또한 그것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할 때에만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것으로 된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투철하여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간직할수 있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한생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것을 자기들의 드팀수 없는 혁명적본분으로, 의리로 여기고있다.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신렬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

이며 드팀없는 신념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으며 날에 날마다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참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우리 공화국 정권의 위력을 담보하는 고귀한 재부로 된다.

(2)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고 혁명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여기에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7폐지)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력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나간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이 저절로 발휘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그들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되여야 높이 발양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단결하고 협력하여야만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사실상 창조적존재로 될수 없으며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단결된 민족, 굳게 뭉친 인민을 가진 나라는 위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과 나라는 강해질수 없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무엇보다도 그들모두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인민정권을 깊이 신뢰하고 진심으로 받들어나가게 함으로써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결정적조건을 마련한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군중은 인민정권의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이다. 군중을 떠나서는 인민정권이 존재할수 없으며 군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위력할수 없다.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군중의 신뢰를 받는 여기에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인민정권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와 지지는 그들이 수령의 두리에 뭉쳐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수령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며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사회주의국가는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간다. 수령의 권위와 존엄을 떠나서 사회주의국가의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수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떠나서 국가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와 지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신뢰는 곧 공화국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와 지지로서 표현된다.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신뢰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통일단결되여있는데로부터 오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있음으로 하여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간직하게 된다. 이러한 신념을 지닌 인민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삶의 참다운 보람을 빛내여나간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인민정권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또한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위대한 창조력을 가진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이다.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목적의식적이며 창조적인 사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지향을 어떻게 조장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혁명대오를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당의 의지로 움직이는 순결한 대오로,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한 전체 인민의 자각적인 부대로 만든다. 전체 인민이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인 통일체로 결속되고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최상의 높이에서 발휘되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결된 화목한 대가정속에서 혁명적열정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져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또한 그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고수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믿음직한 조건을 마련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남아있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위협도 없어지지 않는다.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는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동반한다.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은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력량이다.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의 반혁명적행위들이 아무리 교활하다 하여도,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 하여도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한결같이 떨쳐나선다면 놈들의 반혁명적기도들을 제때에 철저히 분쇄해버릴수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침해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여 싸우는것을 응당한 의무로 간주하

고있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굳센 의지에 의거함으로써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공고한 국가사회제도로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음으로 하여 륭성번영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일대 전성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으며 공화국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29페지)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로운 전성기에 놓여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국가와 사회의 진보성과 그 발전정도는 중요하게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정치생활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국가의 관리와 운영도 인민대중에 의하여 진행되며 근로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가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정책과 시책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에 마련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경제적락후성을 매우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생산물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국내생산으로 확고히 보장하고있으며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생산장성을 이룩해나가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 경제는 세계적으로 원료, 연료 위기가 휩쓸고 경제파동이 극심하였던 최근년간에도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경제와 풍만한 열매를 맺고있는 우리의 과학기술과 문학예술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금성철벽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선 자위의 나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으며 온 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도 철저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군사적힘을 가진 위력한 나라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며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닌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고 온 누리에 위용을 떨친 때는 일찌기 없었다.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의 전변, 이것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력사를 개척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우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꽃피는 힘있고 존엄있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계신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에서 이룩된 모든 귀중한 전취물들, 조국땅우에 마련된 가장 선진적인 국가사회제도와 끝없이 소중한 물질문화적재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의 전로정을 현명한 령도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도 왕성한 정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비약과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3)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공화국정권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공화국정부의 력사적사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하루빨리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움으로써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이 있는 이상 우리앞에는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혁명대오의 강력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고 굽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과 정부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모두의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지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간직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 혁명적신념을 영원히 간직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끝없는 륭성번영의 근본원천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단련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인민정권이 각계 각층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옹호자로서, 조국과 혁명의 보위자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고있다.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때 인민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가게 될것이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과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적극 발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침투하고 대중과 의논하여 그 수행방도를 찾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륭성번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 진군속도를 더욱더 다그쳐야 한다.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을 걷고 남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으로 달려나가는 혁명적기세를 견지하여야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3대혁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것이다.

인민정권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

강 성 산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을 민족의 크나큰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지난 35년동안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력사적로정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지난날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으며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공화국정권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과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혁명정권으로 자라났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정권은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으며 오늘 온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륭성번영에서 보다 휘황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하루빨리 건설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1)

우리 인민정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최종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혁명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공화국정부의 력사적사명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의 력사적사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자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정치적무기이다.

우리 인민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위한 모든 사업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실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정권의 숭고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인민정권이 모든 활동에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며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적극 보장하여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자주적인 활동과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높아지며 사회력사발전에 미치는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창조적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벌어지는 사회적변혁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은 인민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준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는 그들의 자주적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데 따라서 나타난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집대성되고 실현된다.

인민정권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가장 높은 단계에서 실현할것을 요구하는것만큼 그들의 자주적권리가 높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게 되며 그에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밑에서만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행사할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도 인민정권에 의하여 높이 발양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조직과 단결에 있다.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사실상 창조적존재로 될수 없으며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리는 위대한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이 사업은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조직에 망라하고 교육교양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을 위대한 창조력을 가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적극 보장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정치조직으로 되고있다.

인민정권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도록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은 사회생활의 2대분야를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두 분야에서 다같이 실현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자면 근로인민대중에게 정치생활뿐아니라 물질문화분야에서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여야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떠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인민정권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수단들을 장악하고 그를 관리하고있는 인민정권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비롯한 나라살림살이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잘 조직지도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여 그들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그것은 이 사업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들을 극복하며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진다. 따라서 사상과 기술, 문화 분야에서 온갖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로

정에서는 적대적요소들의 반항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남아있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도 남아있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고 침해하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계급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믿음직한 보호자이다.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통해서만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할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이라도 약화시긴다면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없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없다.

인민정권은 권력 기구들과 수단들을 가지고 온갖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심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철저히 보장하여 준다.

삼으로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2)

우리 인민정권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위력한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정권이 강화발전되여온 자랑찬 로정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우리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빛나는 행로였다.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은 해방후 우리 당과 우리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인민대중을 온갖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정권이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으며 정권사업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인민정권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선진적인 새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착취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은 민주

주의혁명을 수행한데 뒤이어 곧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공화국북반부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세기적으로 내려오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수행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혁명적전환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을 이끄시여 우리 나라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신것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불멸의 공적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정권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가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인민정권의 최종목적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 문화혁명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보다 현대화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문화건설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특히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많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이 끊임없이 창작보급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실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인민정권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활동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정권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기관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일하며 모든 문제를 그들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고 인민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진척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는 더욱 조직화되며 사회생활은 보다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사회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을 인민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옳바른 사업체계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체계를 똑바로 세워야 인민정권기관들이 경제건설, 문화건설,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옳바로 지도할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내오시고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새로운 법규범들을 제정하시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가장 우월한 국가, 경제 관리체계가 서고 국가활동에서 정연한 제도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였으며 공화국정권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인민정권기관들의 활동과 국가건설

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사상과 명령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되였다.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인민정권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정권기관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당의 령도밑에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그들속에서는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우리 당은 특히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당은 공화국정권앞에 무겁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설 때마다 그 수행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혁명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온 나라에는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인민정권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에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이 땅우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더욱 활짝 꽃펴날 희망찬 래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정권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기 활동에서 그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만 우리 인민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공화국북반

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1페지)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에 달려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다.

우리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무기이다.

우리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 인민정권은 자기의 최종목적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완성할수 있다.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것은 우리 인민정권기관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정권기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정권활동이 당의 의도에 따라 한결같이 조직전개되여나가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움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이 명실공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각급 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정권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 사회를 개조할데 대한 당의 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과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이다.

우리 나라에서 정권활동은 당의 지도밑에 진행되며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모든 정권활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할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인민정권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똑똑히 알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훌륭히 풀어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은 매우 무겁고 거창한 사업이며 생소한 사업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이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정권기관일군들은 당정책학습을 강화하고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을 깊이 연구하여 정권활동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을 강화발전시키며 그 위력을 더욱 빛내이는것은 우리 인민의 영예이며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

정 준 기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이룩한 커다란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조국과 인민 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적로정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행로였으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민족의 끝없는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빛나는 투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20세기의 새 력사를 빛내이며 조선땅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인민의 락원이다. 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바라던 모든 념원들을 빛나게 실현해가고있다. 지난날 남에게 억눌리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조국이 지닌 높은 영예,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에서 보다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고 있다.

(1)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37페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제도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작용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제도라야 인민대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고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력사의 주체로서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의 손에 틀어쥐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우선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쥠으로써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제도이다.

사람들의 사회적지위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는가 못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제도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자면 무엇보다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던탓으로 하여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 예속과 굴종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된 조국땅에 참된 인민의 주권기관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높은 존엄과 긍지를 가지게 되였다.

정권을 누가 쥐고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해당 사회제도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은 경제적지배권을 가질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한다.

인민대중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자면 국가주권과 함께 반드시 생산수단을 틀어쥐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고 있다.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우리 인민은 나라의 모든 자원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전반적경제를 발전시키는 생산의 주인으로,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제도이다.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징의 하나이다.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실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실제적담보가 전면적으로 마련되여있는 사회제도이다.

국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실시되고 사회의 재부가 누구에게 돌려

지며 사람들의 인격과 권리가 어떻게 존중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모든 재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돌려지며 사람들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되는 사회만이 참다운 인민적인 사회제도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적인 사회제도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실로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제도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징이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이러한 본질적특징으로 하여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제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4페지)

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사람들의 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선결조건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자주성은 생명이다. 정치적자주성이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가치와 존엄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모든 사회활동과 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비록 사람이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의 정치적자주성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정권의 주인이 되여 국가사업과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에게 있다. 우리의 국가는 인민대중에게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정치생활령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는 사회정치생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으며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란 없다.

우리 나라의 공민들은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 모든 사회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정치적자주성은 확고히 보장되고있으며 사람들의 인격과 권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는것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의 하나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제도이다.

국가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뿐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사회정치생활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물질적기초우에서 진행되게 된다. 국가사회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정치적조건과 가능성이 보장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지로 담보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보장되여야 사람들은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은 공화국정권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와 안정된 로동조건,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활까지도 국가가 책임적으로 보살펴주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비롯하여 온갖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돌보고있으며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일할 나이까지 무료의무교육을 받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비록 호화롭게는 살지 못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치료받을 걱정, 공부할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을 위한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인민적인 사회제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또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데 있다.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다.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장하여줄수 있다. 그것은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 기본분야이기때문이다.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는 그만큼 풍부해지며 이에 따라 나라가 륭성번영하게 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더 향상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과학과 기술이 계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모든 생산부문이 높은 속도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특히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은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

복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일하고있다. 그리하여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의 조건에서도 우리의 인민경제는 그 어떤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함이 없이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게 될 새로운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더 높은 혁명적진군속도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경제가 빨리 발전할뿐아니라 문학예술이 날을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 훌륭히 복무하고있다.

경제와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된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는것은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날로 강화발전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며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합된 불패의 정치적력량으로, 하나의 화목한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의지적통일,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충성의 대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참다운 모습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이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민주주의적제도이며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가지고있는 가장 공고한 사회제도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는 그 본질적특징으로 하여 우월성과 생활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높이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옳은 령도에 의해서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된다.

끊임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의 혁명사상과 비범한 예지, 능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그대로 구현되여 이룩된 고귀한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온갖 원쑤들의 비방중상과 파괴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으나 비상한 견인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36페지)

자주, 자립, 자위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에게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이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자면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강력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고 주체를 튼튼히 세울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풀어나갈수 있었다.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높은 권위와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존엄과 영예는 바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온데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제적기초가 약한 사회제도는 결코 공고할수 없고 우월성을 발휘할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경제의 자립성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위력한 경제로 강화발전되였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며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위적인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온 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책동도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실로 지난날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존엄있고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높이 자랑떨칠수 있게 되였다.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결과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의 로동조건과 문화생활조건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활기와 랑만에 넘쳐 흥겹게 일하면서 문화적으로 생활하게 되였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사회주의제도가 공고발전되는데 따라 사회는 더욱 조직화되며 사회생활은 보다 다양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발전할수록 이 제도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전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요구에 맞게 국가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인민정권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대한 인민정권기관의 통일적지도가 강화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철저히 실시됨으로써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모든 정치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은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

쳐나가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수풀처럼 일떠서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전면적자동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활짝 펼쳐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그 어느 세대도 누려본적이 없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고있다.

공화국이 창건되여 35년,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여 25년의 기간은 인류의 장구한 력사에 비하면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 짧은 기간에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높이 칭송되고있으며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조선은 《얻을것이 많고 배울것이 많은 나라》로 되고있다.

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우리 인민은 이 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륭성번영과 행복의 근본원천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이 제도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규정들은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우리는 사회주의헌법과 국가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공화국공민의 신성한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이 극복되고 그 공산주의적성격이 강화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당이 이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더 반석같이 다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것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한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

황 장 엽

인민정권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개되여온 우리 혁명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인민정권은 우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정권이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속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가장 우월한 국가정권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공고화되여온 과정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혁명정권의 발전과정이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한 자랑스러운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정권건설리론은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정권건설의 력사적경험에 대한 리론적총화이며 새로운 형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건설의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면서 국가주권문제를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인민정권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결실을 가져왔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큰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　　　*

국가정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기본문제이며 어떤 정권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국가정권을 가지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다 철저히 옹호할수 있고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일수 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리론을 내놓음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하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한 우리 당의 주체의 정권건설리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인민정권형태를 발견한것이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의 시대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동계급의 정권건설에서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특히 혁명의 사회계급적지반이 전례없이 넓어지게 된 시대적조건은 로동계

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혁명력량을 묶어세울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권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비할바없이 확대된 력사적시대, 특히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조건에서 정권형태문제의 해결이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던 시기에 새로운 정권형태인 인민정권에 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이 로선은 이미 조국해방투쟁당시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정권에 관한 리론은 선행시대와 구별되는 력사적시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독창적리론이다.

종래의 국가정권리론에서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로서는 1871년 빠리로동계급에 의하여 세워졌던 콤뮨과 같은 형태와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쏘베트형태만이 알려져있었다.

이러한 정권형태들은 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정도로 발전한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 계급적제관계에 맞게 규정된 정권형태들이였다. 선행시기의 이러한 정권형태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하는 정권형태들이였으나 거기에는 주로 도시로동자들의 대표만을 참가시켰거나 로동자와 빈농, 병사들만을 참가시켰던것이다.

이러한 정권형태는 물론 당시의 력사적조건에 적응한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들이였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고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한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그 기치밑에 로동계급뿐아니라 더욱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집결시켜왔으며 우리 시대에 와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투쟁에 널리 참가하게 되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농민, 근로인테리 및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혁명에 참가할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접수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력사적조건은 보다 넓은 사회정치적지반을 가진 새로운 정권형태를 요구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리론은 바로 혁명의 사회정치적지반이 비상히 넓어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정권건설에서 제한된 계급적울타리를 벗어나 광범한 계층의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정치적권력의 담당자로 되게 하며 그들에 의거하는 정권건설의 길을 밝혀준다.

인민정권은 종래의 어느 정권형태에 비하여서도 보다 넓은 대중적지반에 기초하고있는 정권으로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이다. 인민정권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등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혁명단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우월한 정권으로 된다.

참으로 새로운 인민정권형태의 발견, 이것은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자주시대 정권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인민정권형태가 발견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정권을 건설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건설에 참가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정권형태를 새롭게 창조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매 혁명단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킴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는데 따라 북반부에서는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발전시킬 과업을 내놓았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18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단꺼번에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혁명발전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상응하게 정권앞에 나서는 임무를 옳게 규정하고 정권건설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혁명단계에서나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단계에서나 다같이 알맞는 정권형태로 된다는것을 밝히면서도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정권의 성격과 그것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경제적임무를 옳게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력사적단계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 혁명단계에서의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 상응한 정치적지배권이며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제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점차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력사적임무를 수행하는 정권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민주력량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정권으로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를 수행하는데 복무한다.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범주에 속하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주의정권과 공통성을 가진다.

우리 당은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리론에 기초하여 인민민주주의정권을 강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정권건설리론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이 사회주의정권에로 강화발전하게 되는것은 인민정권자체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적변혁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망라하는 정권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를 확고히 지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시기에 와서 구태여 이미 수립된 정권을 마스고 다른 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권을 세울 필요는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은 이처럼 자체의 계급적본질과 인민

적성격으로 하여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주의정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할수 있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킨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정권건설리론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정권수립의 기초가 마련되고 주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지체없이 사회주의정권으로 전환시키는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사회주의정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민주주의적선거의 방법을 취하는것은 사회주의정권수립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방도이다.

사회주의정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수립의 새로운 방도를 밝혀준 이 리론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거치게 되는 보편적인 로동계급정권건설로정을 명철하게 해명한 창조적인 리론이다.

우리 당은 인민민주주의정권을 거쳐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는 길을 밝힘으로써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낡은 정권을 폭력으로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 경우와는 다른 새로운 정권건설의 길을 개척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과도기의 과업이 끝난 다음에도 인민정권을 계속 강화발전시키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더 나아가 세계혁명을 다그쳐나간데 대한 독창적리론을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를 수행하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된다고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혁명을 다그쳐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도 점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업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며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의 호주이며 보호자인 인민정권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참으로 인민정권의 새로운 형태와 그 강화발전로정을 밝힌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권건설리론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한 독창적리론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한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정권활동의 원칙과 방법을 새롭게 해명한것이다.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이 어떤 원칙에서 건설되여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자기 활동을 벌려야 하는가 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높여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부과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정권활동의 원칙과 방법을 옳게 확립하지 못할 때 국가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인민정권의 성격과 사명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정권활동의 원칙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정권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

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인민정권이 각계각층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기본무기이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할데 대한 인민정권의 임무와 사명에 맞게 모든 정권활동을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를 튼튼히 담보할수 있었으며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권건설의 경험은 인민대중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정권활동의 원칙과 방법을 확립하는것이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 경험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한데 바로 우리 당 인민정권건설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을 세우고 령도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귀중한 경험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인민정권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과 정권활동의 기본방식, 정권기관들의 대중지도방법을 비롯하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구현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권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들이다.

로동계급의 정권활동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국가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근본초석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국가정권의 창건자, 최고령도자이며 정권의 정치적지반을 반석같이 꾸리고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에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편향없이 곧바로 벌려나갈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이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초석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창조적역할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건설의 전반행정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여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같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불순분자들의 침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보위할수 있게 하고 그들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새롭게 정식화하시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방식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민주주의는 그 본질적내용에 있어서나 실현형식에 있어서나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활동의 기본방식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으로 하여금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모든것을 그들의 의사와 리익에 복종시키는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를 실시할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를 법적으로 선포하고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급로선과 함께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그러한 정권만이 참다운 민주주의적정권이라고 할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인민정권의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국가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이 문제는 대중에 대한 지도방법, 당정책집행에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국가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그래야 또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인민정권의 혁명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이렇듯 정권기관과 일군들이 견지하여야 할 대중지도방법까지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국가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방도를 남김없이 해명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의 본질과 형태만이 아니라 정권활동의 원칙과 방법까지도 포괄하는 백과전서적인 정치리론으로,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혁명리론으로 빛나고 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인민정권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정권리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위대한 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주체사상을 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는 정권건설리론으로서 로동계급의 국가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정권건설의 제반 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전개하고 체계화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에 의하여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정치생활에 널리 참가하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모든 정책이 실시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는 명실공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국가정권을 건설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독창적인 사상과 비상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국가건설리론이다.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에는 로

동계급의 국가정권의 본질과 형태, 인민정권 건설과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원칙과 그 실현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참으로 자주적인 국가정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나서는 국가정권건설문제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고있는 백과전서적인 리론이다.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이다.

실천은 진리의 기준이다. 모든 리론의 진리성과 과학성은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정권건설 및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영광스러운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조국땅우에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이 로정에서 그 기능과 역할은 끊임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에 기초한 위대한 정치적력량,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강력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혁명정권으로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주권문제의 빛나는 해결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리론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다지며 우리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는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을 담보하는 물질적기초

한 희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35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지난 기간 새 사회 건설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강화발전되였다.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온 불멸의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한나라, 한민족의 력사에서 3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이렇듯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결과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온 자랑찬 투쟁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1)

우리 공화국정권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고있는 위력한 혁명정권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는 국가정권의 위력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정권의 위력을 강화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성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국가정권을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첫시기부터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일대 전성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으며 공화국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29페지)

지난날 우리 인민은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도 못가지고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민족의 쓰라린 력사는 영원히 끝장났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전진하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권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공화국정권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위력한 정권이다.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고있는데 있다.

공화국정권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정치의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위력한 정권이다.

공화국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실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사회주의정치의 우월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고있다.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공화국정권의 위력의 불패성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며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련계와 협조를 강화해나가는 위력한 경제로 전변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는 가장 생활력이 강한 경제이라는데 있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를 튼튼히 축성하고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의 대부대를 마련해놓음으로써 자립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경제를 가지게 되였다.

부문구조가 완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또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우리의 인민경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부문구조에 기초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을 실현해나가고있다.

자립성과 다면성이 보장된 위력한 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 공화국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근원을 청산하고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는 가장 힘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되였다.

우리 인민이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는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을 확고히 담보하는 물질적기초이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무엇보다도 공화국정권의 정치적자주성을 물질적으

로 튼튼히 안받침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발표하며 정치적문제에서 어느 나라에도 맹종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것은 우리 나라에 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건설되여있기때문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341～342폐지)

정치적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국가의 위력은 정치적위력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서 나타난다. 정치적자주성이 강한 정권이라야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국가의 정치적자주성은 경제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여야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어떤 국가든지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자주권을 지킬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못한 정치적독립이란 형식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나라의 정치적립장을 따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공화국정권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그에 의거함으로써 정치적자주권을 떳떳이 행사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설계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셔야 하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으면서도 자기의 정치적립장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은것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있은것도 바로 경제적자립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해온데 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또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는 물질적기초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성원이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떠밀어나가는 기본력량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국가정권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그 국가정권은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정권으로 되게 된다.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힘있는 력량으로 되게 하려면 그들을 정치적 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물질생활분야에서의 온갖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그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고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정권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고있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물질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해주고있다.

경제가 제발로 걷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되면 사람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마비되고 그들속에 사대와 굴종의 사상이 생기게 된다.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건설된 결과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이 철저히 극복되고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영예, 민족적자주정신과 혁명적자존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다.

이것은 자립적민족경제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해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또한 국방에서 자위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해주고있다

국가정권의 존엄과 위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자체로 보위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국방에서의 자위를 보장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자기를 보위하는것이 인간의 본성인것처럼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존엄과 안전을 튼튼히 지킬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켜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왔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권의 자위적군사력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고있음으로써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야말로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의 튼튼한 물질적기초이며 우리 인민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2)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자립적민족경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하여놓은 고귀한 재부이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공화국정권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놓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30여년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가장 큰 긍지를 가지는것은 우리 나라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입니다.》(《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화》, 단행본, 13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정권의 물질적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것이다. 여기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고찰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주체적립장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여나가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 이 사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자주독립의 물질적기초를 마련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보물고

를 풍부히 하고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이바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공업화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참으로 어려웠다. 전후시기 우리에게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말이 아니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 문제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인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섰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부닥친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짧은 기간에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밝혀준 길을 따라 경공업과 농업에 복무하는 중공업건설에 중점을 두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빈터우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경제,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이다.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담보하는 자체의 강력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기술로 장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공업화와 기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을 창설하며 그와 밀접히 결합시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할데 대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단계와 구체적인 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명확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이처럼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정권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또하나의 불멸의 업적이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사회

주의경제건설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고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제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주로 우리 인민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반대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새것을 창조해나가도록 이끄시여 아무것도 없던 빈터우에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일며세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짧은 기간에 튼튼히 닦을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으며 경제건설의 속도를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한 위력한 추동력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전개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으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이처럼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대중적운동으로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남들이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었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8페지)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모든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에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며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있는 밑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혁명적구호들을 제시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특별히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한것이다.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사업전개원칙이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늦잡지 않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빨리 해제끼면서도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 이것이 바로 속도전의 본질적특성이다. 속도전의 방침은 속도가 빠르면 질을 보장할수 없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발전속도를 높일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던 종래의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견해들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때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속도전의 방침은 그 혁명성과 거대한 견인력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오늘도 그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은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매 시기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을 정확히 설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하여 대담한 작전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대중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1974년에 《70일전투》를 발기하고 그것을 승리에로 이끎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마련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고있다.

실로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놓으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 마련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거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을 발휘하고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그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의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은 정치적독립을 달성하고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되고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빈터우에서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운 우리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면서 우리 인민의 성과와 경험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참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공화국정권이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위대한 혁명적전취물이며 그 견인력과 생활력이 비할바없이 큰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우리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도 크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업도 방대하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하고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밝힌 력사적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 40돐에 즈음하여—

리 종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마흔돐이 된다.

1943년 9월 15일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연설은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급격히 전변된 정세를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임무를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은 조국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혁명적 신념과 불굴의 의지,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안겨주고 전민족을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되였으며 일제 침략자들의 종국적패망을 앞당기는데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급변하는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혁명가들이 주체적립장을 계속 튼튼히 견지하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력사적 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을 앞두고 발악하고있으나 국내외정세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혁명정세가 아무리 성숙되였다고 하더라도 조선혁명의 지도력량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41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에 관통되여있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가지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상정신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한것이다.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혁명가들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은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그 나라의 구체적환경에서 진행되며 그 나라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

면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인민대중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혁명투쟁을 편향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시 변화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혁명가들이 주체적립장을 더욱 견결히 고수하는것을 항일혁명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제시하시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새로운 국내외정세는 조선의 혁명가들로 하여금 주체적립장을 더욱 견결히 고수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한 일본, 독일, 이딸리아 등 파쑈국가들은 1943년에 들어서면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반파쑈투쟁에 의하여 파멸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었다. 파쑈독일의 운명은 기울어져가고있었으며 이딸리아는 이미 패망하였다.

파쑈독일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확신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중국과 동남아세아 그리고 태평양상의 넓은 전선에서 패전을 거듭하며 급속히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군사정치활동과 우리 인민의 적극적인 반일대중투쟁에 의하여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었다.

멸망에 직면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에서 련이어 참패를 당하는것을 만회해보려고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강제적략탈을 악착스럽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기울어져가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파쑈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여놓고 야수적만행을 다하였을뿐아니라 《동조동근》이니, 《내선일체》니 하면서 민족동화정책을 더욱 로골적으로 실시하고있었다. 일제식민지통치자들은 우리 나라의 유구하고 찬란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외곡말살하고 《황국신민》의 《무사도》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횡포하게 책동하였다. 이것은 놈들의 단말마적인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놈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항일혁명투쟁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은 가까와오고있었다.

최후결전을 앞둔 이 결정적시기에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며 광복된 조국땅에 자체의 힘으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였다.

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여야만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안고 일제에게 결정적타격을 줄수 있었으며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우리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광복된 조국땅에서 새 조선을 건설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변천된 정세의 요구에 대처하시여 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혁명투쟁에서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할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천명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낮추보고 멸시하는 반동적사상조류이다. 사람들이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물젖으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려는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질수 없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치게 된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한 이 중대한 시기에 만약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사로잡혀 남이 도와줄것만 바라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일제침략자들을 조국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낼수 없을뿐아니라 조국이 광복된 다음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옳게 수행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조선을 잘 알아야 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자기 조국을 잘 아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관점과 태도를 철저히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작은 바로 조선의 혁명가들이 조선을 깊이 알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혁명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반드시 광복하며 아름다운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숭고한 리상과 확고한 결심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로작에 의하여 주체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가 뚜렷이 천명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우리 인민의 힘으로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귀중한 사상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또한 조선혁명가들을 참다운 애국자,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 혁명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더욱 깊이 학습하며 조국의 력사와 지리를 비롯하여 조선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47페지)

혁명의 핵심력량은 혁명대오를 확대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혁명의 핵심력량이 마련되여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핵심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앞둔 당시의 정세하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멸망에 직면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필사적인 발악을 짓부시는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정확한 전략전술을 소유하고 과학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는 유능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마련되여야 하였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새 제도를 세우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는 혁명의 핵심력량이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하였다.

로작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전사들이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조국에 대한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방도를 밝힘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킬수 있는 확고한 길을 열어놓았다.

조선혁명가들을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핵심력량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숭고한 조국애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잘 수행하여 인민대중을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자기 조국과 인민을 떠난 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떠난 참다운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자기 조국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짓밟힌 조국을 구원하

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조국애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 민족허무주의에 빠져 자기 조국과 민족의 귀중함을 알수 없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없게 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있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아는데 기초하여 생기며 높아진다.

로작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전통을 잘 알고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잘 알게 함으로써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숭고한 조국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외래침략자들과 력대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용감한 민족이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민족이다.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선인민은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굴함없이 지켜냈으며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의 반제민족해방투쟁사를 찬란히 빛내인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이 투쟁에 의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는 자랑찬 투쟁의 새 장이 펼쳐지고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창조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예로부터 자기의 창조적로동과 뛰여난 재능으로 인류문명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슬기를 빛내여왔다.

우리 인민은 이렇듯 투쟁과 창조로 빛나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이며 력사의 전진과 진보를 위한 귀중한 재부를 끊임없이 창조하여온 자랑스러운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함께 조국의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산천을 잘 알게 함으로써 조선혁명가들이 높은 민족적긍지와 참다운 조국애를 지니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에 떨쳐나서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혁명가들을 참다운 애국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이처럼 로작은 조선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육성의 옳바른 방도를 밝힘으로써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광복된 조국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핵심력량을 준비하는데서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또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조국광복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함으로써 항일혁명전쟁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옳바른 전략과 전술은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세워져야 혁명전쟁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을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타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다가오는 새로운 혁명정세를 깊이 분석하시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결정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

여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체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41페지)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조국광복을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견지하여 오신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닦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리는것은 조국광복에서 신음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이미 항일혁명투쟁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과정에 그 본래의 생활력이 확증되였다.

1936년 5월 조국광복회가 창건된이래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압록강, 두만강 연안일대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이 광범히 꾸려지고 백두산동북부와 국내의 여러곳에 조국광복회 조직망이 확대되여 각계층 인민이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결속되게 되였다.

그러나 반일민족통일전선에는 전국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충분히 결속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애국적인 모든 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확고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묶어세우는것은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열쇠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더 많이 국내에 파견하여 각지에 반일민족통일전선하부조직을 결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력량을 결속하는 조직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시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빠른 시일안에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그에 의거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로작에서 국내에 강력한 조직적거점으로서의 혁명기지를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국내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꾸리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로 보나 혁명근거지를 꾸릴수 있는 대중적토대로 보나 현실적가능성이 있는 매우 정당한 방침이였다.

로작은 랑림산맥, 태백산맥 등 국내의 깊은 산속에 혁명근거지를 꾸리며 일단 정황이 조성되면 곧 주력부대들이 함북, 함남, 평남, 강원도, 황해도 등 지구별로 산중을 차지하고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부대에 받아들여 최후결전을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밝혔다. 이 방침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골간으로 전민족을 하나의 전투대오로 편성하여 반혁명무력에 비한 혁명무력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는 방도가 밝혀짐으로써 일제침략세력을 일거에 격멸소탕할수 있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주도적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을 강화하는것은 무장대오가 조국에 진출하여 일제의 마지막 식민지아성을 때려부시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게끔 꾸릴데 대한 혁명적방침들을 제시하여 모든 지휘관들과 전사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되고 과학적인 군

사전략전술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소유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로작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성원들이 공격작전, 상륙작전, 항공륙전대작전 등 현대전법을 익히기 위한 전술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힘으로써 이미 소유한 풍부한 유격전쟁경험과 현대적군사기술을 배합하고 령활무쌍한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결합하여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를 전략전술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소탕해버릴수 있는 옳바른 지침을 제시하여주었다.

로작에 제시된 혁명적방침들에 의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전략전술 및 투쟁 형식과 방법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전국적범위에 확대발전시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은 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과 억센 투지,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는 사상정신적원천이였으며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완전히 타파하고 항일혁명투쟁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로작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항일혁명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갔다.

일제의 마지막발악으로 하여 투쟁이 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치군사훈련을 맹렬히 벌려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령활한 유격전법과 함께 현대적인 군사전법과 전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국내각지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및 정치공작원들은 사선과 혈로를 헤쳐야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조국광복전선에 굳게 결속하고 전인민적항쟁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과 여러가지 형태의 비밀조직들 그리고 무장봉기조직들이 전국도처에 출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애국적인 종교인 등 광범한 대중이 반일항전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맹렬한 최후공격작전과 국내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무너지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와 새 조국 건설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 불멸의 횃불이였다.

로작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의 찬란한 년대기를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계속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로작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내용과 그 정당성으로 하여 그것은 오늘도 우리 인민뿐아니라 싸우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봉사사업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

오 형 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이 방침에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생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모든 일군들은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을 더욱 빨리 향상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 *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마련하여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으로 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투쟁하는 종국적목적도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려는데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대표자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뿐아니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행복한 생활과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우리 당에 완전히 의탁하고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물질적부의 생산을 더욱 늘이는것과 함께 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봉사사업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생활적수요를 제때에 충족시켜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나가는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해주는 보람찬 사업이다.

봉사부문에는 상업부문과 사회급양부문, 편의봉사부문과 도시경영부문 등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부문들이 속하여있다. 이러한 부문들을 발전시켜 봉사사업을 개선해나가면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고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여 사회

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봉사사업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봉사업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봉사사업이 돈많은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복무하며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3페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한줌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봉사시설들이 극소수 특권층놈들의 방탕한 생활을 보장하는 도구로,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다. 지주, 자본가놈들은 바로 봉사시설을 리용하여 저들의 저속한 취미를 충족시키며 부패타락한 생활을 일삼는다. 자본주의봉사업에서의 《친절성》은 곧 지주, 자본가놈들의 사치와 향락을 보장하며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긁어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설사 봉사시설을 리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착취만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봉사시설들이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생활적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 인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문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봉사시설들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봉사사업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을 받들어섬기는 사업으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주는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되고 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봉사사업이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과정에는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적수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물가를 낮추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고 근로자들의 화폐소득을 높여나가는것만으로 인민생활이 저절로 향상되는것은 아니다. 질좋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고 인민들의 수입을 높인다 하더라도 생산된 소비품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제때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다.

봉사사업은 생산된 소비품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여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봉사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 상품공급원칙과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골고루 제때에 공급하여줌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적상품공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에게 최대한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는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 상업망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상업시설들을 현대화하며 상업부문일군들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일 때 모든 근로자들이 상품구입에서 편의를 보장받게 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인민생활향상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소비품의 가공과 수리수선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게 소비품을 원만히 공

급할뿐아니라 공급된 소비품을 더욱 분한있게,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소비품가운데는 직접 소비할수 있는것도 있지만 옷감과 같이 다시 가공하여야 소비할수 있는것들도 적지 않다. 또한 소비품을 리용하는 과정에는 다시 수리수선하여 써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특히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전에는 가정들에서 자체로 가공하여 소비하던것도 사회적으로 가공하여줄데 대한 요구가 나선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봉사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면 근로자들에게 가공된 여러가지 맛좋고 영양가높은 주식물과 부식물을 공급하여줄수 있고 그들의 기호에 맞는 옷을 제때에 지어줄수 있으며 부엌세간과 문화용품을 비롯한 소비품을 편리하게 질적으로 수리수선하여줄수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보장하여주고 그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인민생활향상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줄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모든 근로자들이 정서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도록 할수 있으며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생산열의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다.

봉사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집을 제때에 보수해주고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 비롯한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주며 목욕, 리발, 미용, 빨래 등 위생문화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휴식을 충분히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봉사부문에서는 주식물과 부식물의 가공, 빨래와 옷수리 등 근로자들의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일들을 사회적범위에서 담당하여 해결해준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가게 한다.

봉사사업은 또한 상업망을 통하여 도시의 공업상품을 농촌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제때에 공급해주며 농촌편의시설들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위생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이 모든것은 봉사사업이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요구가 빨리 높아지고있는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년간에 봉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구호를 내놓고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봉사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봉사사업이 적지 않게 개선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 분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도일군들이

봉사사업에 더 큰 관심을 돌려 봉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4페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상요구가 빨리 높아지고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살 걱정을 모르면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에는 먹고 입고 쓰고살것만 보장되면 만족했던 근로자들이 오늘은 다양하고 맛있는 주식물과 부식물, 여러가지 청량음료를 요구하고있으며 옷도 더 질좋은 천을 가지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만든것을 철따라 입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집도 문화적인 생활조건이 더욱 훌륭히 보장된것을 쓰려고 하며 가구들도 이불장이나 찬장정도로 만족하는것이 아니라 텔레비존과 가정용랭동고를 비롯한 현대적인것을 갖추어놓으려 하고있다.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봉사를 제공받으려 하고있으며 소비품의 수리수선도 제때에 질적으로 알뜰히 해줄것을 바라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적수요가 이처럼 높아지고있는 오늘 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중의 열의를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봉사사업에 관한 사상과 당의 방침이 우리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또한 최근년간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봉사시설들이 많이 건설되였고 봉사일군대렬도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에게는 이와 함께 그 어떤 과업도 능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과 발전된 경공업이 건설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봉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공급하고있으며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게 소비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내고있다. 이와 함께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해마다 대풍을 이룩함으로써 식량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도 충분한 예비를 가지게 되였으며 남새와 과일, 고기와 알 공급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였다.

문제는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업망에서 일하는 일군들이나 편의봉사망에서 일하는 일군들 그리고 수매부문일군들은 사회주의상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깨닫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173페지)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봉사

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높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수 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봉사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일군들속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봉사부문일군들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이 자기의 숭고한 의무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생활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의 배려가 우리 인민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

봉사부문일군들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적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모르고 맡은바 혁명과업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적극 보살펴주어야 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봉사사업은 방대한 량의 소비품을 직접 다루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전개되여있는 봉사망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지 않고서는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봉사조직을 잘 짜고드는것이다.

봉사조직을 짜고들어야 생산된 소비품을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골고루 공급하여줄수 있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봉사망 리용에서 최대의 편의를 보장받게 할수 있다.

봉사부문일군들은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상품공급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모든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상품을 제때에 골고루 공급하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봉사시설을 적극 리용할수 있도록 봉사시설리용질서를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누구나 다 일하고 세대마다 여러가지 가구들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고정된 장소에서만 봉사활동을 벌려가지고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봉사부문에서는 이동봉사, 주문봉사, 집중봉사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봉사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또한 봉사망을 더욱 늘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사업은 봉사망을 통하여 진행되는것만큼 그것을 더욱 늘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지 않고서는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없다.

봉사부문에서는 인구비례에 맞게 봉사망을 배치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전망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봉사부문일군들은 단과식당과 간이식당, 청량음료점을 더욱 늘이고 그것을 현대화하여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식생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지방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것은 오늘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봉사사업은 지방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며 주로 지방적수요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것은 봉사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를 가나

크고작은 공장들이 있고 지방마다 풍부한 자연부원과 농산물이 있는 조건에서 일군들이 머리를 쓰고 노력만 한다면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를 자체로 능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지방의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여러가지 청량음료들과 당과류, 고기와 남새 가공품, 초물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잘 보장할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봉사사업은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마땅히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며 그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봉사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이끌어주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봉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 그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봉사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맡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봉사일군들을 존경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모범적인 봉사 기관들과 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봉사인군들모두가 인민의 충복된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봉사사업은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조직전개되고있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직접 담당하고있는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이다. 지방정권기관들은 해당 지역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있는 호주이다. 그러므로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다.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봉사사업을 개선하려면 지방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지방정권기관들로 하여금 우리 당이 제시한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하며 봉사기관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통제하도록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권기관들이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당적지도를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

김 재 서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는 전례없는 높은 속도로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끊임없는 앙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되는 동시에 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1)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며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보장받게 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경제발전의 옳은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속도와 균형은 밀접한 통일속에서 서로 작용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합리적인 균형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이룩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낡은 균형은 새로운 균형으로 끊임없이 바뀌여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속도와 균형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합리적인 균형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이룩될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전제로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200페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합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룬다.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자면 여러가지 형태의 균형들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요소들사이의 균형도 맞추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도 맞추며 재생산계기들사이의 균형도 보장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무엇보다도 생산요소들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

로동력을 가진 사람과 로동수단, 로동대상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며 이 세가지 요소가 옳게 결합되여야 사회적생산이 빨리 발전할수 있다.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인 비례로 결합시키자면 여러가지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원천을 옳게 타산하고 그것을 잘 맞물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로동력과 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확대재생산과정을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의 물질적부를 빨리 늘여나갈수 있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이와 함께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적분업이 세분화되고 물질적부의 생산이 전문화되는 조건에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생산과 수송 등 각이한 경제부문들은 서로 유기적인 생산적련계를 맺고 발전하며 따라서 련관된 생산부문들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자면 재생산계기들사이의 균형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 분배, 교환, 소비는 사회적재생산의 서로 련관된 계기들이다. 생산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며 생산된 생산물이 소비에 이르자면 분배및 교환의 계기들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계기들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사회적재생산이 진행된다.

확대재생산과정에 창조된 국민소득은 축적과 소비에 리용된다. 축적은 확대재생산의 물질적원천이며 소비기금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원천이다.

그러므로 재생산계기들사이, 축적과 소비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경제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의 향상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생산이 빨리 발전하자면 여러가지 생산요소들, 인민경제부문들, 재생산계기들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이 보장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되고 생산적련계가 파괴되여 개별적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늦어지지 않을수 없다.

경제발전 속도와 균형의 이러한 호상관계의 합법칙성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확고히 보장되는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아 재생산의 균형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경제는 언제나 전진과 퇴보, 상승과 하강의 곡절을 거치면서 매우 완만하게 발전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이 객관적법칙으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생산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한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합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속도와 균형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경제균형이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01페지)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의 관계에서

속도가 목적이라면 균형은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에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속도를 조절하는가 아니면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것은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건설의 성과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물질적부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 나타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높은 경제발전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달성된다.

물론 계획경제, 균형경제인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만 발전할수 있으며 옳은 균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다. 그러나 경제발전에서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균형을 맞추는것도 경제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균형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지만 속도와 균형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수단은 언제나 목적에 복종되여야 하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균형은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균형을 전제로 하고 균형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 여기에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의 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속도와 균형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균형을 안받침하는것이다.

경제가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객관적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굽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속도를 규정하는데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합법칙성을 옳게 타산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담보하는 균형은 적극적인 균형이다. 적극적인 균형의 기본특징은 앞서나가는 주도적고리에 다른 부문의 발전을 따라세우는 원칙에서 설정되는 균형이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한 기초우에서 설정되는 균형이며 생산력과 기술이 발전되는데 따라 혁신적으로 설정되는 균형이라는데 있다. 생산잠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뒤떨어진 부문을 앞서나가는 부문의 수준에로 추켜세우는 원칙에서 대담하고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할 때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확고히 담보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것이 어렵다고 하여 소극적인 균형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발전속도를 규정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립장이다.

물론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수록 균형을 맞추는것이 어려운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경제발전속도를 늦추면서 균형을 맞추려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무시하고 속도와 균형의 관계에서

균형만을 절대화하는데로부터 나오는 소극적인 편향이다. 이러한 립장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풀어나가면 사회주의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도 없다.

속도와 균형 문제해결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는 또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균형에 엄격히 의거하여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높은 발전속도를 예견한다는것은 환상적인 속도를 추구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속도를 무시하고 균형만을 절대화하는것이 소극적인 편향이라면 균형을 홀시하고 환상적인 속도를 추구하는것은 모험주의적인 경향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소극과 보수를 배격할뿐아니라 모험주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합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균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관적으로 높은 발전속도를 추구한다고 하여도 실현할수 없다. 현실성이 없는 환상적인 속도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불균형을 피할수 없고 전반적인 경제발전속도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적극적이고 동원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균형에 확고히 의거할 때 사소한 불균형도 허용하지 않고 경제를 안전하게,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속도와 균형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비상히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2)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찬 행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에 숨어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물질적조건과 가능성을 엄격히 타산하는 동시에 간고한 투쟁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믿고 언제나 적극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으며 대중을 그 수행에로 동원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01페지)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며 대중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혁명적립장에 서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균형들을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반영하시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

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실천에서 제기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축적과 소비사이의 호상관계를 옳게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밝혀져있는 속도와 균형의 특징은 적극적인 균형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이 로선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거기에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따라세우며 축적의 선차적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도 동시에 빨리 늘이는 원칙에서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파괴되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부터 경제건설의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계획화사업에서 옳게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계획화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균형을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와 객관적현실을 잘 타산하여 계획을 세워야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인민경제균형을 옳게 설정하는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지면 옳은 균형을 설정하는것이 보다 어려운 일로 된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여 이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전반적경제발전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시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경제발전의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계획화 체계이며 방법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는 계획화사업에서 현실성과 과학성, 적극성과 동원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경제발전에서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의 요소를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는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생산적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사업을 통하여 설정된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전투형식을 옳게 밝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을 옳게 밝혀야 그에 의거하여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의 기

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최단기간안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속도전의 방침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속도전이 언제나 경제건설에서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며 그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전투형식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위력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을 제시한 바로 여기에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공적이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던 시기에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천리마속도》, 《평양속도》, 《비날론속도》와 같은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방대한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에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비약적인 진군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특히 1970년대에 와서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 《70일전투속도》와 같은 놀라운 속도가 창조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으며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자랑찬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천리마의 기세, 속도전의 기세로 억세게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은 오늘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전투장마다에서는 새로운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길은 더욱 다그쳐지고있다.

이렇듯 우리의 인민경제는 복구기로부터 시작하여 개건기를 거쳐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파동도 모르고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속도와 균형 문제해결의 원칙적요구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위력과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감으로써 1980년대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위장물

서 치 련

남조선의 괴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통치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며 신식민주의적통치수단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이 그 무슨 《독립국》이고 괴뢰정권이 그 어떤 《독립정권》이라도 되는듯이 가장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온갖 변장술을 다 쓰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아무리 교활하고 음흉한 기만술책을 써도 남조선괴뢰정권이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조작되고 조종되며 유지되고있는 꼭두각시정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결코 숨길수 없다.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는 자주적인 정권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뿐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결코 남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없고 아무런 자주권과 실권도 없는 철두철미 매국배족적이고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허수아비정권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의하여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 ⁂

남조선괴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미제에 철저히 복무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괴뢰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소위 〈대한민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54페지)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가 만들어내고 철저히 미제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예속《정권》이다.

일반적으로 괴뢰정권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저들의 앞잡이들로 만들어놓은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있지 못한 허수아비정권이다. 이것은 괴뢰정권이 본질에 있어서 매국배족적이고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식민지괴뢰정권을 세워놓고 그것을 저들의 식민지정책집행의 도구로, 침략과 략탈을 가리는 위장물로 써먹는것은 오늘 현대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리용하고있는 신식민주의의 주되는 수법으로 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신식민주의적통치수법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8.15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미제는 일제의 총독정치와 다름없는 《군정》에 의한 직접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나라의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와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군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다치게 되자 미제는 지난날의 직접적인 통치를 괴뢰정권에 의한 신식민주의적통치로 바꾸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제는 1948년 5월에 저들의 침략군과 테로단을 동원하여 남조선전역에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이른바 《유엔

감시〉하의 단독선거를 감행하고 괴뢰정권을 조작해냈다.

미제는 저들의 총칼에 의하여 만들어놓은 남조선괴뢰정권을 마치도 독자적인 《정권》인듯이 내세우는 한편 괴뢰도당과 《과도기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협정》을 비롯한 각종 《협정》을 맺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및 군사 부문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미국인《고문》을 통하여 괴뢰정권에 지령을 주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남조선괴뢰정권을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정권으로, 저들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단순한 도구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는 위장물로 전변시켰다. 조선전쟁시기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과 맺은 괴뢰군의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협정》들과 전후시기에 맺은 이른바 《호상방위조약》 등 여러가지 《협정》과 《조약》들에 의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의 허수아비로서의 성격은 더욱 심화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실제상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실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되였으며 그것을 이른바 《헌법》과 《법령》, 시행《세칙》 등을 통하여 합법화해놓았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는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갖추게 되였고 따라서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이것은 지난날 일제가 중국의 동북지방에 세웠던 괴뢰《만주국》과 같은 허수아비정권이 바로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세워졌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우두머리를 보다 《쓸모있는》 새 괴뢰로 갈아놓음으로써 이미 확립된 신식민주의적통치체제를 그대로 보존하여왔다.

8.15후 남조선에 괴뢰정권이 처음으로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우두머리들을 여러차례 교체하였으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제는 이러한 기만극으로 남조선괴뢰정권을 더욱더 친미사대주의적이고 매국배족적인 파쑈《정권》으로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의 수립과 교체의 전과정은 미제야말로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이며 남조선괴뢰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다. 그것은 남조선괴뢰정권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파쑈통치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위장물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기 위하여 리용하는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적위장물을 리용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고 보다 헐하게 할뿐아니라 피압박 민족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책동한다.

지난날 식민지에 대한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총독정치를 실시한 제국주의자들은 주로 저들의 령토적병합과 민족적동화정책을 합법화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령토적병합이나 민족적동화를 설교하는것이 아니라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거기에 독자적인 《정권》이라는 외피를 씌워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정체를 가리는데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괴뢰정권을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저들의 횡포한 전횡과 야수적만행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가장 악랄하고 교활하며 음흉한 식민지통치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하수인으로 리용되고있다.

력대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의 이른바 《헌법》과 《국회》 그리고 모든 대내외 《정책》과 《시책》들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보장하고 유지강화하는데 복종시켜왔다.

남조선의 괴뢰 립법, 행정, 사법 기관들과 어용정당들은 전적으로 미제에 의하여 조종되고있고 그의 식민지통치의 직접적집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있을뿐이다.

남조선의 괴뢰정권은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부지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정치적지배밑에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자주권과 정치적자유, 민주주의적권리를 유린말살당하고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괴뢰정권이 철두철미 미제의 앞잡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제놈들에게 나라와 민족까지도 서슴없이 팔아넘길수 있는 매국노들을 체계적으로 키워 력대 괴뢰우두머리들로 앉혀놓고 그를 통하여 식민지파쑈독재를 실시하여왔다. 악명높은 리승만도당이 그러하였고 매국역적 박정희도당 역시 그러하였다. 오늘 남조선괴뢰정권을 가로타고앉은 파쑈살인광 전두환도당도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미제가 길들인 룩무인것이다. 전두환도당은 수많은 남조선청년들을 남부웰남에 끌고가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고 광주인민봉기때에는 미제의 지령에 따라 수많은 동족을 무참히 살륙한 천추에 용납 못할 인간백정이다.

미제는 이러한 괴뢰도당을 내세워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현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과 맺은 각종 침략적인 《협정》과 《조약》들 그리고 남조선주재미국대사관을 비롯한 방대한 현지지배기구들을 통하여 미제는 남조선괴뢰정권에 정치적지령을 주며 괴뢰정권을 감독통제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정치제도와 그 운영방식으로부터 경제정책과 생산구조, 괴뢰정부의 예산편성, 사상문화와 군사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장악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복종시키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대내정책》뿐아니라 《대외정책》까지도 장악하고있는 미제는 괴뢰정권의 모든 대외관계와 활동을 직접 조종하고 통제하고있으며 그것을 국제적으로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정체를 가리우는데 리용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괴뢰정권은 아무런 정치적실권도 발언권도 가지지 못한 미제의 수중에 장악된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정권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다음으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국독점자본의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마름이다.

경제적략탈은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식민지통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궁지에 빠진 현대제국주의는 저들의 신식민주의적정책에서 이러한 음흉한 목적을 더욱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합리화하고 적극 보장해주는 역할을 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와 여러가지 매국적인 《협정》과 《조약》을 맺고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제의 지배권을 합법화하였으며 미제가 남조선에서 제 마음대로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감행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매국배족적인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와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과 《경제원조협정》, 《잉여농산물협정》 등 각종 《협정》을 맺고 미제에게 남조선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겨주었으며 남조선을 미제의 잉여 상품과 농산물의 판매시장으로 전락시켰다. 지어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와 이른바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고 미국독점자본에게 남조선에서 모든 형태의 기업활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과 치외법권적인 권한까지 서슴없이 맡기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로동자들의 경제투쟁까지 《법》적으로 금지시키였다. 그놈들은 또한 미제의 예속적인 《원조》와 《차관》을 받아들이고 미국독점자본의 무제한한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더욱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미제는 이미 8.15직후에 《군정법령》으로 한푼의 딸라도 들이지 않고 남조선재산총액의 80%이상을 일시에 점탈하여 남조선경제의 실제적지배자로 군림하였다.

그후에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 침략과 략탈은 이른바 《원조》와 《차관》, 직접투자의 형태로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미제는 지난 37년동안 남조선에 64억딸라의 이른바 《경제원조》를 투입하여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짜냈고 잉여상품과 잉여농산물을 대량투입함으로써 남조선의 민족공업발전의 길을 가로막았으며 남조선을 만성적인 기근지대로 전락시켰다.

미국독점자본은 각종 명목으로 남조선의 모든 《관영》기업들과 매판자본기업들에 침투하고 중소기업과 농업, 수산업 부문에도 략탈의 촉수를 뻗쳤으며 차관리자와 자본투자리윤 등으로 해마다 50억딸라를 략탈해가고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에 수출산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남조선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저들의 잉여 원자재와 농산물, 낡은 시설들을 비싸게 팔아먹는 한편 남조선상품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눅은 값으로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막대한 리윤을 략탈해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괴뢰정권이야말로 미국독점자본의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가리워주고 보장해주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또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고 유지강화하기 위한 상투적수법이다.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그에 기초한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괴뢰정권에 대한 미제의 지배권이 바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에 기초하고있다는것과 관련된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을 합리화하며 남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송두리채 미제의 침략적인 아세아전략과 세계전략 수행의 리용물로 전락시키고있다. 지어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와 매국적인 《호상방위조약》과 같은 각종 군사《조약》을 맺고 이른바 《련합사령부》까지 만들어 미제에게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과 작전지휘권까지 넘겨주었다. 그리고 미제와 이른바 《병기개발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생산된 무기 및 장비의 장악과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미제에게 넘겨주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을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식민지지탱점으로, 군사교두보로 전변시켰으며 괴뢰군을 미제의 완전한 고용군으로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남조선전역에 꾸려놓은 해기지와 공군기지를 비롯한 180여개의 군사기지들에 4만 2,000여명의 륙해공군무력을 배치하고있으며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륙무기를 수많이 끌어들이고 지어 중성자무기까지 배치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괴뢰군을 완전히 장악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군으로 하여금 사실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보충하는 한갖 고용병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미제는 이른바 《련합사령부》와 군사《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고 70만에 달하는 방대한 괴뢰고용군을 유지하고 통제하고있으며 수백만의 민간무력까지 거머쥐고있다.

남조선괴뢰군의 작전지휘권뿐아니라 병력의 규모와 구성, 징병과 훈련, 군사예산편성과 군사물자보급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있는 미제는 저들의 군사《고문》들에 의하여 그 집행을 장악통제하고있다.

그리고 제놈들이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사용기간과 보상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징발리용할수 있고 유사시에는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강제동원할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이러한 군사적예속화정책의 목적은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전략과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영원히 틀어쥐자는데 있는것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바로 이러한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1950년 6월 침략적인 조선전쟁을 도발하였고 오늘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이렇듯 남조선괴뢰군은 민족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철두철미 남조선에 대한 미제식민지통치와 새 전쟁 도발책동에 복무하는 값눅은 식민지고용병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력사적사실과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괴뢰정권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총칼밑에 연명해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길잡이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는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미제는 남조선괴뢰정권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주입시키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와 결탁하여 이른바 《교육합동위원회》, 《한동심하위원회》, 《문화교류위원회》 등 각종 기구들을 만들고 미국독점재벌의 《재단》들과 여러 기구들을 설치해놓고있다. 이것들은 그 모두가 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적극 보장해주기 위한것이다. 그리고 괴뢰정권안의 관계부서들과 교육문화기관들을 통하여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직접 집행하게 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근 40년동안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지금 남조선의 교육, 문화, 예술 등 사상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색채가 흐려지고 퇴폐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이 판을 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정권을 사촉하여 지난 시기 《고문단》, 《사절단》, 《교육조사단》 등을 남조선의 교육문화기관들에 끊임없이 들이밀어 사상문화적침투를 감행하였고 최근에는 제놈들이 직접 길러낸 친미사대주의자들을 통하여 보다 로골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감행하고있다. 최근에는 매해 수백명의 청년학생들을 미국에 끌어다가 직접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 《반공》사상을 주입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의 교육기관들에 친미분자들을 박아넣어 저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담당집행하게 하고있다.

남조선의 대학들에만 하여도 교원의 48.4%가 친미분자들로 꾸려져있는 형편이다.

미제는 남조선의 교육제도를 개악리용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책동에 의하여 1981년에만 하여도 무려 수만명의 청년학생들이 학원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미제는 또한 이른바 《문화교류》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에 부패타락한 사상과 생활양식을 묘사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침투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

기기 위하여 종교적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1980년현재 남조선에서 종교적침투를 강행하고있는 미국선교사수는 800여명에 달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에 와있는 외국인선교사수의 75.5%를 차지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에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 《반공》사상이 부식되고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동적인 미국식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물젖어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동적인 미국식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의 부식으로 하여 민족문화의 전통과 유물들,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남조선의 현실은 남조선괴뢰정권이 미제식민지통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의 충실한 길잡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조작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미제침략자들에게만 복무하면서 매국배족과 반인민적인 길을 밟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사회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마련된 세상으로 되고있지만 인민대중에게는 생지옥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75페지)

오늘 남조선은 정치적자주성이 유린말살되고 한가닥의 자유와 민주주의도 없는 암흑천지로 화하였으며 민족 경제와 문화가 없고 사람들이 살길이 없어 아우성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의 매국배족적인 정체를 가리우고 멸망의 운명을 모면해보려고 온갖 기만책동과 변장술을 다 쓰고있다.

놈들은 날로 높아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정부》투쟁을 탄압하려고 미쳐날뛰는 한편 《개방과 자유》,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같은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해보려고 온갖 회유기만책동을 벌리고있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기운을 다른데로 돌려보려고 북과 남의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전쟁도발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놈들은 또한 저들의 국제적고립에서 벗어나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얻어보려고 어리석은 책동도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아무리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을 다한다 하여도 미제의 신식민주의적통치의 도구에 불과한 가련한 진면모는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으며 대내외적고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여가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으며 그를 청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있다.

력대 남조선괴뢰도당의 우두머리들은 례외없이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반《정부》투쟁에 의하여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1960년에 있었던 4.19인민봉기는 만고역적 리승만도당을 파멸하게 하였으며 1979년 10월에 벌어졌던 부산과 마산의 대중적봉기는 미제의 손때묻은 파쑈독재자 박정희도당의 종말을 가져왔다.

영웅적광주인민봉기는 포악한 인간백정이고 군사파쑈깡패이며 친미, 친일사대매국노인 전두환도당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얼마나 배격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으며 놈들의 멸망을 선고하였다. 영웅적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게 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오늘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남조선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준렬한 규탄을 받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욱더 고립당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교포들 속에서 전두환매국배족도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인은 현 남조선괴뢰정권은 《현대조선사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정부》라고 공개적으로 규탄하였으며 어떤 종교인은 남조선이 미제의 《경제적식민지》라고 개탄하였다. 어느 한 해외교포신문은 현 남조선괴뢰정권은 《외세의 충견》이라고 폭로규탄하면서 그러한 《정권》을 인정한다는것은 마치 매국역적인 리완용을 애국자로 전도시켜 평가하는것과 같다고 썼다.

특히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과감히 벌린 남조선의 한 청년학생은 남조선의 《모든 정치악》은 《미국이라는 시어머니가 이 땅의 독재자를 조종》하여 발생시킨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은 괴뢰도당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이 규탄을 받고있으며 마땅히 타도되여야 할 대상으로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자주성을 지향하고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로부터도 고립배격당하고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속에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고 놈들과 관계를 끊는 나라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자본주의나라 인민들로부터도 규탄을 받고있다.

외국의 한 사회활동가는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전두환정권은 실권이 없는 괴뢰정권》이라고 락인되었으며 일본의 한 대학총장은 조선인민이 오래동안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에 그 요인이 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인민들속에서도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괴뢰정권이 철두철미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신식민주의적통치의 도구이고 위장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충견》이라는 반동적성격과 나라와 민족 앞에 저지른 매국배족적인 범죄 그리고 동족을 대량살륙한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으로 하여 응당 인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청산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9호(루계 497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9월 1일 발 행·1983년 9월 3일

ㄱ—35117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제 10 호(49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여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문헌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가 발표된지 한돐이 된다. 이 문헌은 조선로동당의 억센 뿌리가 내린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기간 꿋꿋이 이어져온 당의 혁명적성격을 끝까지 고수할데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이 문헌에 일관된 기본사상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데 있다.

문헌에서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고 당을 창건강화하는 문제로부터 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본질적특성과 징표를 갖추며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히고있다.

오늘 우리는 문헌에서 밝혀진 길을 따라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1)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당발전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한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조직령도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조류는 우리 당안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가진 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10페지)

당은 어떠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그 당의 계급적성격이 규정되는 동시에 어떠한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가, 어떠한 사상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가에 따라 또한 그 성격이 규정된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면모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진로를 밝혀주는 지도사상이며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 작성의 기초이고 우리 당의 생명선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을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나 대렬의 조직적공고성,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를 지닌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있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이는 길도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적지침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이 당 건설과 활동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은것도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

침으로 삼은데 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고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특히 지난날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공산주의운동에서 심하게 나타났던 우리 나라 형편에서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외세에 의하여 당이 롱락당하지 않고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는 립장을 견지하시고 주체를 세우는데서 주되는 장애물인 사대주의, 교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우리 당이 모든 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주체의 원리를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당안에 오직 주체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사상을 당의 기치로 끝까지 틀어쥐고나가면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총적방향을 명시한 탁월한 방침이다.

이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은 명실공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굽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에 차넘치게 되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서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이다.

어떠한 사상에 기초하여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속되는가 하는것은 당의 위력과 생명력을 규정하는 주되는 내용의 하나이다. 당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당의 지도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와 같이 결속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유지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당이 불패의 힘을 가진 위력한 주체형의 당으로 되는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데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기본로선이며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고수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

켜고나가야 할 일관한 방침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의 창건자, 령도자의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다.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이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며 따라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

조선로동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전과정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해방후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이 계속되였고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파괴책동이 심하였던 우리 나라 형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우리 당 건설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가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투쟁이 간고해질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그와 어긋나는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들을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안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이 청산될수 있었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은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종파의 오물이 청산된 다음에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우리 당중앙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사업의 본질을 밝히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여왔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당안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당의 령도적권위가 비할바없이 높아졌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고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 근본문제, 당을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로 튼

튼히 꾸리는 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적힘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을 벌리는것은 주체형의 당의 근본특징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일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력사적위업이다.

그러므로 당이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대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수 없다.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고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대중과 유리되고 대중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당은 무력해지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과의 련계문제를 언제나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강화발전되여온 로정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온 자랑스러운 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제기되는 어려운 혁명과업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풀어나가시였다.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는 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높은 령도적권위에 의하여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고있다.

특히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폭넓고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해나가고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당을 따라나가는 길에 자신들과 후대들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그 어떤 산악과 진펄이라도 헤쳐나갈 결의로 들끓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고 당과 대중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다그쳐나가는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지금 조선로동당은 자기 발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창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단련되였으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확신성있게 진진하고있다.

(2)

혁명의 미래와 인민의 장래운명은 당의 전도와 잇닿아있다.

당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당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인다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우리 당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2페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해나가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당이며 우리 당원들은 수령님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다.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혁명전사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사상과 령도에서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전당주체사상화위업의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곧 수령의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벌려나가는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수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가장 큰 긍지를 가지게 되는것은 바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한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는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당원들을 유일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전당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며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는것은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교양하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높이 발휘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그 구감으로 내세우고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따라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충성을 다하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언제나 가장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을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혈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리론,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말한다. 그것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당의 혈통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게 되고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끗끗이 이어나가게 된다. 만일 당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굳건히 계승해나가지 못할 때에는 로동계급의 위업은 중단되고 당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의 혈통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구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가장 굳건한 조직사상적터전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뚫고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해올수 있었다. 우리 당의 전도도 이 위대한 혈통을 어떻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체의 혈통을 계승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이다. 당이 자기 혈통의 순결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불피코 변질되게 되고 혁명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

우리는 현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굳건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혈통이 형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온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의 혁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여야 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그것을 저애하는 자그마한 불건전한 요소들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전당에 주체의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일수 있게 하는 필수적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질뿐아니라 옳은 령도방법, 당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옳은 당사업방법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제기하고 모든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뿐아니라 방법까지도 몽땅 받아안은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안에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사업방법이 지배하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전당에 주체의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이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고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라는 옳은 립장을 가져야하며 아래 일군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줄 아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독창적인 당사업리론, 당사업방법론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사람과의 사업,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능숙하게 해나가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과 혁명의 밝은 전도와 휘황한 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

백 능 기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의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라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이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1)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향도적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수 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1페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만이 관통되고 지배하게 한다는것이며 전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당안에 사상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있다.

사상의 유일성은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상의 유일성이 보장되여야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행동상일치성을 실현하고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해나갈수 있다. 또한 령도의 유일성은 사상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여야 당안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울수 있으며 사상의 유일성을 실천적으로 보장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사상의 유일성은 령도의 유일성에 의해서만 참답게 보장되며 령도의 유일성은 사상의 유일성에 기초할 때에만

빛나게 실현된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의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요구이며 그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당의 혁명적성격이 고수되고 유지되여야 당이 수령의 당으로 존재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당의 혁명적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지도사상이다.

지도사상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이 자기의 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가 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당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일관한 지도사상으로 삼아야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일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존재의 전기간 언제나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여야 하며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은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당의 사상적유일성은 전당에 수령의 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될때 실현된다.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수령의 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일관하게 견지해나가야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할수 있으며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일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안에 수령의 사상이 아닌 딴 사상이 있거나 그것이 허용되고 조장되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잃게 되고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을 그 본성에 맞게 수령의 당으로 만들자면 당안에 하나의 지도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무기이다. 그런것만큼 당은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삼는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전당이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굳게 결속되여야 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일치하게 움직여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다.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수령의 령도는 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며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령도를 떠난 당의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난 당의 사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의 몸에서 뇌수의 유일적인 지휘하에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되고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가듯이 로동계급의 당도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고 실현하여나갈 때만이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될수 있다.

당안에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명령지시에 따라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여야 온갖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행동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다. 따라서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된 당만이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함께 수령의 령도가 전당에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당, 이러한 당만이 바로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본성을 고수하고 수령의 당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력사적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는 력사적위업인것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당도 마땅히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보존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그 성격과 사명을 대를 이어 고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이 문제는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모든 혁명투쟁이 조직되고 령도되며 그 승리가 마련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은 확고부동하며 절대적이다. 때문에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야 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결국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문제는 수령의 당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끝까지 고수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여 나가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 존재하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 사업,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이와 같이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하며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참으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할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은 그 위대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2)

우리 당은 자기의 력사적뿌리를 내리고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였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다.》(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이 로동계급의 선봉대, 조직된 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중심과 기본에 관한 문제는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중심과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정확한 방향과 뚜렷한 목표밑에 여러가지 형식과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대렬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심화발전시켜야 할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제반 원칙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불패의 대오로로 공

고발전되게 되였다.

실천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으며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한것이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당의 존재와 발전의 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하여야 당안에 수령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할수 있으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는데 언제나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확고한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도록 한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기초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만이 진정한 통일단결이며 가장 공고하고 힘있는 통일단결이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 어떤 신무적인 단합이 되여서는 안되며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단합으로 되여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전당에 주체사상만이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게 되였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끊임없는 완강한 투쟁이 없이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는 그 어떤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들을 극복하는 투쟁과정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반종파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원칙은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실천투쟁속에서 진행한것이였다.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반종파투쟁은 아무런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고 우리 당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고 반당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하고 전당에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실현하였으며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실현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1970년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력사적 시기였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전과정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여온 과정이였으며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더욱 강화되여온 자랑찬 행로였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당건설방침을 내놓았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을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내용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조직전개됨으로써 당건설과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기초를 쌓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왔다.

당의 기초를 쌓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원칙적요구이며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이다.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기초를 쌓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당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수립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이 확립되게 되였다. 또한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이 더욱 강화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통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 그러므로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당을 전투적이고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으로 만들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을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오늘 우리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섰으며 오래동안 우리 당 사업을 저애하던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이 없어지고 당사업전반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되여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 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이 모든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여기에 바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이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이 쌓아올린 위대한 공적이 있다.

* *

오늘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키고있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현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우리 당의 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이 매우 정당하고 현명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가장 큰 긍지를 가지게 되는것은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온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당과 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유일한 혁명적세계관이다.

우리는 전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사상만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전력사적 과정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당건설과 당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힘있게 벌려 전당과 온 사회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가며 우리 당을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계속 철저히 보장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야 할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 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

한 국 주

우리 당은 튼튼한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빛나는 전통을 가진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참다운 공산주의적전위조직인 《ㅌ. ㄷ》를 결성하시여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실현하고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 귀중한 원천으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 마련되고 당창건의 주체적인 로선이 제시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적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옳바른 지도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당의 성격과 면모, 권위와 존엄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며 당의 위력은 곧 위대한 지도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창건되고 향도되는 당만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는 과정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 그리고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당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확립하시였다. 지도사상이 확립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조직건설사업을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옳바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는것은 당을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창건방침이 정확히 제시되여야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막고 당을 제때에 건전한 토대우에서 창건할수 있으며 불패의 대오로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에서 중요한것은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원래 로동계급의 선각자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자주적인 운동이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 당을 창건하는 사업도 그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결코 그 누가 대신하여 해줄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목적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며 그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과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하여야 창건된 당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창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대렬안에 기여든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추악한 종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각기 국제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무슨 승인을 받아 당을 창건하려고 책동하고있었던 조건에서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사업을 외세에 의거하여 진행하려고 하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책동의 본질을 낱낱이 발가놓으시고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시였으며 당창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조직건설사업에서는 자주성의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조건에 맞게 당조직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원칙은 장기간에 걸치는 당조직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중요한 요구이며 당창건을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다. 당창건사업을 아래로부터 올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공고한 토대우에서 당을 창건할수 있으며 창건된 당이 처음부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당을 조직하여야 조직사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을 빨리 키워낼수 있으며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묶어세워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수 있었다.

당창건에 앞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올데 대한 방침은 이처럼 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육성되고 단련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게 함으로써 우리 당창건이 공고한 토대우에서 실현될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은 투쟁속

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핵심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과 함께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여러가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였던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자라나고 단련되며 준엄한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혁명대오는 투쟁력이 강한 전투적인 부대로 꾸려지게 된다.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혁명의 핵심력량,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키워내는 준엄한 실천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지에서 모여온 로동자, 농민 출신의 열혈청년들을 항일혁명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여 당창건의 튼튼한 골간을 마련하시였으며 혁명대오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시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투쟁속에서 단련된 공산주의핵심들로 혁명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은 당을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전반기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총화하시고 이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공고한 지반우에서 창건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창건된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에 기초하여 당조직건설사업을 적극 벌려오시는 과정에 당건설의 귀중한 성과와 업적을 이룩하시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당창건의 기초축성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업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이 나오고 그에 기초하여 기층당조직들이 무어졌으며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된것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시원으로, 모체조직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내오는것은 기층당조직을 꾸리고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당건설방침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의 하나였다. 첫 당조직을 잘 꾸려야 그것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확대해나갈수 있었으며 당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몸소 키우신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동지들을 비롯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력사적시원으로 되는 전위

조직의 탄생이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향도적력량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지도밑에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조직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기층당조직을 각지에 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워야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당조직건설사업을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국내외의 여러 지역들에 기층당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그리하여 1930년 10월초에는 국내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기간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기층당조직들이 수많이 꾸려지게 되였다.

기층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된것은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울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대적조건과 혁명조직의 구성상태, 당원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현에는 현당위원회, 혁명조직구에는 구당위원회, 부락에는 당세포를 내오시였다. 그리고 반일인민유격대안에 련대에는 당위원회, 중대에는 당세포, 소대에는 당분조를 조직하시고 정연한 당조직체계에 따라 활동하게 하시였다.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내온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모든 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전반적인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930년대후반기에 당조직들을 국내에 널리 확대하고 전반적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국내와 만주 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들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이와 같이 기층당조직들이 여러 지역에 나오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됨으로써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당의 통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에서 이룩된 성과와 업적은 또한 수많은 공산주의적지도핵심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마련된것이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산주의적핵심,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조직적골간, 공산주의적혁명투사들을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여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대오안에 당조직을 내오고 무장투쟁과 대중정치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여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시키심으로써 그들을 장차 창건할 당의 믿음직한 조직적골간으로 튼튼히 키워내시였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데서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과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그 어떤 종파나 분파적 요소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한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그 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고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을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대오안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공산주의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강철같은 통일단결이 실현되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철저히 서있었다. 이것은 당조직건설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 창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것이였다.

대중적지반이 꾸려져야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당창건사업을 편향없이 진행할수 있으며 창건된 당이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시종일관 줄기차게 벌려오시였다. 특히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결속시키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조직되고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육성되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 당의 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된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안에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운동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 시기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함으로써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것이다.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이 제시되고 투쟁의 앞길이 정확히 밝혀져야 혁명운동을 아무런 편향과 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당 및 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에서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전반적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명확한 투쟁방향과 지침을 가지고 싸워나갈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는데로 조직동원하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무장투쟁이였으며 당의

령도에서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어진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해설침투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여러 지역들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교양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 당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마련되고 당조직건설의 고귀한 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언제나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온갖 원쑤들의 방해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였던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강력한 새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은 혁명앞에 가로놓인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령도해나가는 가장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을 당건설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 당사업과 당활동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진행할데 대한 방침 등 혁명적인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보다 심화됨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공고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 대렬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적권위가 비상히 높아짐으로써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당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뿌리와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박 춘 식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올린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로정에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경험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대중적당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킨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데서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은 당원들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근로대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이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여야 당대렬을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끊임없이 확대강화할수 있으며 당을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불패의 전투부대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통일단결될 때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자면 로동계급의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것은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대중적당건설의 필연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조성된 정세와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중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였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생소한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였다. 또한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된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당안에 잠입한 반당종파분자들의 악랄한 분렬파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대중적당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극히 짧은 기간에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 고귀한 경험들을 창조할수 있었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형태와 구성성분을 옳게 규정한것이다.

당의 조직형태와 구성성분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종전까지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의 계급적지반을 주로 로동계급에 두고 계급의 전위대를 건설한 경험만이 알려져있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의 력사적조건과 당건설경험을 반영한것이였다.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건설하자면 당의 조직형태와 구성성분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당을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전체 근로대중의 전위대로, 로동계급과 함께 근로 농민과 인테리들도 당의 구성성분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당은 로동자들속에서만 자기의 력량을 확대하는 당으로 머물러있을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진보적인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많이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적당으로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18～319페지)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간다. 그러므로 당의 조직형태와 구성성분도 어디까지나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규정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에는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도 혁명투쟁에 광범히 참가하게 된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광범히 묶어세우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하여야 혁명투쟁을 옳게 전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더우기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참가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으며 로동계급은 아직 청소하였다. 그리고 농민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있었으며 그들은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을 이루고있었다. 근로인테리들도 반제혁명의식과 애국적열의가 높았으며 새 사회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무시하고 선행리론의 명제와 다른 나라의 경험에 기계적으로 매달려 당이 로동계급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대렬의 계급구성에서 로동계급성분만을 절대화한다면 당대렬을 빨리 늘일수 없었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도 없었다.

우리 당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당의 조직형태와 구성성분 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제때에 건설함으로써 로동자들은 물론 광범한 농민들과 인테리들 속에서 당대렬을 빨리 늘이고 당이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릴수 있었다. 또한 우리 당을 전체 근로대중의 유일한 전투적선봉대로 발전시킴으로써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혁명력량

을 더욱 확대강화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조직형태와 구성성분 문제를 옳게 규정할 때만이 근로인민의 참다운 대중적당을 건설할수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당이라야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한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는 방법으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한것이다.

대중적당건설의 방도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대중적당건설의 방도를 옳게 규정하여야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는 방법으로 전체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조직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결성하시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0～11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는 방법으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것은 여러개의 근로자당들이 존재하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대중적당건설로선을 가장 빨리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공산당과 함께 다른 근로자당인 신민당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신민당은 주로 농민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대표하는 소자산계급의 당으로서 공산당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러나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공산당과 함께 신민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것은 점차 근로대중의 행동통일을 강화하는데 일정한 지장을 주게 되였다. 특히 신민당에 잠입한 종파분자들은 당을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는데 리용하였으며 공산당에 맞서 로동자, 농민들 속에까지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신민당을 그대로 두고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 길로 나간다면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은 창건할수 없는것은 물론 혁명대오를 분렬시키려고 책동하는 원쑤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었다. 근로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하였으며 그것을 가장 빨리 순탄하게 실현할수 있는 방도는 공산당이 신민당과 합당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신민당과의 합당사업을 실현하는데서 철저히 민주주의적원칙을 견지하였다.

합당사업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행하는것은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합당사업이 근로대중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들사이에 진행되는것만큼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할 때만이 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당으로 만들수 있다.

우리 당은 두 당 중앙위원회 확대련석회의에서 합당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 초안을 전당적으로 토의하게 하였으며 합당사업을 밑으로부터 올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두 당을 합당하는 방법으로 대중적당을 건설함으로써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위업을 매우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완성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당대렬을 급속히 늘이고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서 령도적지위를 더욱 높일수 있었으며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는 방법으로 통일적인 당을 창건하는것이 혁명력량의 분렬을 막고 근로대중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보다 넓은 사회계급적지반우에서 대중적당을 건설하는 옳바른 방도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우리 당의 중요한 경험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하면서도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한것이다.

당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대중적당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령도를 더 잘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만큼 당이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할 때만이 대중적당건설사업을 철저히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게 진행할수 있다.

당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하는 문제는 우리 당이 소자산계급의 당인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발전한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당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합당을 계기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포기하고 당의 조직규률과 통일단결을 약화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당을 근로대중의 구락부로, 소자산계급식우의단체로 만들려는 위험한 경향이였다. 당의 근본성격,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우경적경향을 극복할수 없었으며 대중적당건설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진행할수도 없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하면서도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하기 위하여 당의 지도사상과 혁명적당조직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당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당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견지하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면 로동계급의 성분비률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당의 근본성격,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시기까지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의 특성으로부터 당의 구성성분에서 농민성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견지하고 주체적인 혁명적당조직건설로선에 따라 당을 건설함으로써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을 참말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었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옳게 결합시킨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대렬을 적극 늘여야 합니다.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가운데서 선진분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당력량을 끊임없이 장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을 질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83～384페지)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대중적당을 건설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이다.

당대렬을 늘이는것은 대중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여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당력량을 합리적으로 포치할수 있고 광범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

화할수 있으며 당이 인민대중의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합당후 당대렬을 보다 넓은 지반우에서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로동계급뿐아니라 근로 농민과 인테리들, 아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충분히 무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애국심과 혁명성이 강한 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 주민들의 구성과 그 실태에 대한 옳바른 분석에 기초한 과학적인 방침이였으며 당의 대중적 성격에 맞게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강유력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새로운 당장성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이 급속히 늘어나고 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더욱 튼튼히 뿌리박게 되였다. 1946년 합당 당시에 당원수가 36만 6,000여명이였던것이 1948년 1월에 와서는 그것이 70만 8,000여명으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당대렬에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당대렬을 량적으로 늘이는것만으로는 당을 공고히 할수 없으며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당의 참다운 위력은 어디까지나 그 질적 공고화에 있는것만큼 당대렬의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끊임없이 따라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당대렬이 빨리 늘어나는데 따라 질적공고화를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심문제로 내세우고 당세포의 강화, 당사상사업의 개선, 당의 조직적, 사상적 통일의 보장 등 당의 질적 공고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의 질적공고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안에 핵심을 키우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늘인것이다.

당핵심을 키우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는것은 대중적당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일관한 조직로선이였다.

물론 우리 당안에는 처음부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이 망라되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소자산계급의 당인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빨리 발전하고 또한 당대렬에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온것만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수준에서는 각이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수십만의 당원들을 한꺼번에 똑같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은 어렵고 힘든 문제였다. 그러므로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자면 먼저 당안에 핵심을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새로운 핵심들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나가야 하였다.

당핵심을 키우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는것은 당대렬의 급격한 장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는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수준상 차이를 없애고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전당을 강화하는데서 기초로 되는 당세포를 강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였다.

당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빨리 자라나고 당세포가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됨으로써 당대렬이 질적으로 공고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옳게 결합시켜야 당대렬을 늘이는데서 나타나는 좌우경적 편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당을 량적으로 늘이는 사업과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사업을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은 참으로 고

귀한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들은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경험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경험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창조된것으로서 여기에는 대중적당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를 비롯하여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이 경험들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문제를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경험은 특히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들에서 혁명적당건설의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경험은 이미 우리 당건설과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것은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오늘 우리 당중앙에 의하여 빛나게 고수되고 발전풍부화되고 있다.

우리 당중앙이 밝힌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방침,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모든 리론과 방침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 무기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각계각층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위대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통이 큰 작전과 세밀한 조직사업

권 진 상

통이 큰 작전과 세밀한 조직사업은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근본특징의 하나이다.

령도예술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방법, 묘술, 수완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은 당의 위력과 령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옳바른 령도예술을 가져야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대담한 작전과 세밀한 조직사업은 당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대중령도방법이다.

통이 큰 작전은 무슨 일에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잡도리를 크게 하며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도록 한다.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은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목표를 높이 내세워야 담이 크게 생각하고 작전과 설계를 대담하게 하여 일판을 크게 벌려나갈수 있다. 높은 목표에 기초한 대담한 작전은 혁명발전의 전망을 예견성있게 내다보면서 언제나 원대한 포부와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한다.

세밀한 조직사업은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포치한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무리 통이 크게 작전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구체적인 조직사업은 작전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세밀한 조직사업에 의하여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와 대책이 세워지게 된다. 대담한 작전에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따라세워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대담한 작전은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는데서 첫공정으로 되며 세밀한 조직사업은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자이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은 우리 당이 모든 사업을 언제나 대담하게 작전하고 설계하며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세련된 조직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온 자랑찬 행로이다.

시대와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빛발로 우리 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먼장래까지 내다보시고 혁명의 매 단계마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대담한 작전과 탁월한 조직적수완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웅대한 구상,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높은 목표를 내세우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탁월한 령도적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도 더 좋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10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면서 다음단계의 사업을 예견성있게 포치하시며 혁명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휘황한 전망을 펼치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새 조국 건설의 위대한 강령이 뿌리내리고 민주주의혁명시기에 사회주의혁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전쟁의 불바다속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웅대한 강령과 설계도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인민은 언제나 힘차게 선진하여올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은 온갖 기성 상식과 관념을 마스고 새로운 높이에로 끊임없이 비약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데서 언제나 구체적인 지도로써 설정된 높은 목표를 점령해나가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실 때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일단 포치하신 문제는 끝장을 볼 때까지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히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데서 언제나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중심고리를 포착하시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며 몸소 현지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직사업, 탁월한 조직적수완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곧바른 길을 따라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전진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예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투쟁도 단 20일동안에 수행하고 온갖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도 전후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었으며 남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진행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도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실로 이 땅우에 이룩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적인 성과들은 모두가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고 세련된 조직적수완으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령도예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예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서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높은 단계의 투쟁구호이다. 이 구호가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을 가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통이 큰 작전과 혁명적전개력으로 이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1970년대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위력을 뚜렷이 확증해준 자랑찬 년대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하여 내세운 대담한 투쟁목표들은 그 어느것이나 보통으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원대한 구상과 높은 요구를 담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전개력과 대담한 실천력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떤 높은 목표와 어려운 과업도 위대한 결실을 맺고있다.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대담하게 돌진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방법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그처럼 방대한 사업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면서도 일단 설계하고 포치한 문제들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세밀한 조직사업으로 제때에 끝까지 수행해나가고있다.

혁명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웅대한 구상에 기초하여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 혁명적대담성, 일단 포치한 문제를 결단성있게 내밀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완강한 전개력,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발동하며 전당, 전국, 전민을 하나의 목표수행에로 동원하는 조직적수완,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우리 당의 대담한 작전과 완강한 전개력, 세련된 조직적수완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간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람과 사회, 자연이 몰라보게 달라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에로 비약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전례없이 통이 큰 작전을 세우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패기있는 조직지도사업으로 1970년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켰던것처럼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고있다.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당, 전사회적으로 더욱 조직화, 적극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세련된 조직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검덕의 건설자들이 1,500만톤의 선광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공사를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으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사업과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위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통이 큰 작전과 세련된 지도는 수많은 기적과 위훈을 낳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대담한 작전과 세밀한 조직지도사업으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방법은 일군들이 대중지도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이며 일본새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모든 일군들이 당의 령도예술을 구현하여 언제나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세밀하게 조직하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과 당의 웅대한 구상에 맞게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해야 할 숭고한 임무를 지닌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조직지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이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입니다.》(《신년사》, 1981년 1월 1일, 단행본, 13페지)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전망목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된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대 비약의 리정표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전망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의 사상적각오와 혁명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나라의 경제형편도 매우 좋다. 우리가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 창조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지도일군들이 경제건설전투를 옳게 조직하고 지휘해나가는 것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와 앙양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경제건설투쟁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세밀하게 조직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우리의 진군운동은 비상히 빨리 다그쳐지게 될것이다. 대담한 작전, 세밀한 조직사업, 바로 이것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웅대한 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지도일군들은 드높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건설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조직지휘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언제나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일본새를 소유하여야 한다.

혁명가는 언제나 담이 커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늘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알아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는 강의한 의지와 패기가 있어야 한다. 오물쪼물 앞뒤를 재면서 과감히 전진하지 못하는것은 혁명하는 시대 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며 이러한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오늘의 벅찬 진군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갈수 없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비상히 빨리 전진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앞에 나선 류례없이 방대한 혁명과업은 일군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생각하고 실천해나가는 혁명적일본새로 사업할것을 요구한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업기풍을 가지고 일하여야 무슨 일에서나 잡도리를 크게 하게 되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결단성있게 내밀수 있다.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립장에 설 때에는 담벽이라도 뚫고나갈 용감성이 생기지만 난관을 두려워하고 조건타발을 하면 열려진 문으로도 나갈수 없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에서 보고 대담하게 실천해나가야 하며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혁명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며 이 투쟁속에서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일군들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일본새를 가지고 일하여야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울수 있고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모든 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기 위하여서는 진취성이 강해야 한다. 진취적인 립장에 설 때에는 모든것을 새로운 안목에서 보고 모든 일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굽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기풍으로 일해나가자면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로쇠현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혁기왕성하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만일 일군들이 낡은 관점에 사로잡힌다면 발전하는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설계할수 없고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제대로 할수 없는것이다.

일군들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에 맞게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하며 전진에 방해되는 보수주의, 소극성,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현상의 조그마한 요소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작전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굽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다.

사업실태를 깊이 료해장악하고 구체적으로 총화하며 재포치하는것은 대담한 작전과 세밀한 조직사업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실태를 잘 알아야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모든 일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똑바로 찾을수 있으며 일단 포치한 문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밀고나갈수 있다.

현실은 굽임없이 발전하며 새로운 과업은 련이어 제기된다.

일군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혁명과업이 련이어 새롭게 제기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사업을 굽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열가지, 스무가지 과업을 받아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같이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복잡하게 나서는 여러가지 과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일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긴급한 과업들을 수행하면서도 전반을 다 틀어쥐고 전망성있게 사업을 밀고나갈줄 아는 일군, 바로 이러한 일군이 조직적수완과 지휘능력이 있는 유능한 일군이다.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구체적으로 짜고들기 위하여서는 높은 정치실무수준을 소유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주관적욕망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없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다. 아는것이 곧 힘이며 알아야 앞을 내다보고 확신성있게 일해나갈수 있다.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옳바른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낼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못하고 수준이 딸리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밀고나갈수 없다. 일군들은 불타는 정열에 높은 지식을 겸비함으로써만 오늘의 벅찬 혁명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것만큼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복잡하고 방대한 경제건설전투를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한편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추세도 잘 알며 기업관리수준도 굽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은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우리 인민의 새로운 혁명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문예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한 중 모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당의 이 방침은 문학예술을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하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지침이다.

철학적깊이를 가진 문예작품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282폐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은 문학예술의 기본사명이다. 문학예술은 인간생활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며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져야 한다. 문예작품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사상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문예작품의 철학적깊이는 그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예술적형상의 품위를 다같이 규정한다.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과 생활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낸 문예작품은 높은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가지며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큰 감화력을 나타낸다.

문학예술에서 철학적깊이라고 하면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 사회적의의가 큰 문제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여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낸 무게있고 품위있는 문예작품의 질적특성을 말한다.

문예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은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 형상의 깊이에 달려있으며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생활의 론리에 따라 그것을 깊이있게 풀어냄으로써 보장된다. 산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 사회적의의가 있는 문제를 심도있게 해명한 작품은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다운 삶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을 밝혀준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문학예술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문학예술은 인간학이다. 인간학인 문학예술의 본성은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있다. 문학예술은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하며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생활은 사람들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반영하고있으며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을 때 철학성을 띠게

되며 이러한 인간생활을 심도있게 반영한 문예작품은 철학적깊이를 가지게 된다.

문예작품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을 옳바로 살리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본성에 있어서 공산주의적인간학이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문학예술을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철학적심오성은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한 작품의 높은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공산주의적인간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철학적기초를 둔 새로운 인간학이다. 공산주의적인간학은 주체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그리며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풀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그린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한다는것을 말하며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푼다는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지키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 문제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다는것을 말한다.

주체의 관점에서 사람을 진실하게 그리며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푸는것은 력사의 새시대인 주체시대 인간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예술적으로 전형화하며 혁명하는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가장 의의있는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으로 하여 문예작품에서 철학성을 뚜렷이 구현하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인간형상창조와 인간문제해결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철학적깊이를 가진 문학예술작품의 빛나는 모범으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였다. 불후의 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 그들의 성격성장과정을 통하여 혁명투쟁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밝혀낸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문예작품은 인간과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여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에 철학적해답을 줄 때 사람들에게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주는 시대의 거울로, 인생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생활의 길잡이로 될수 있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 문학예술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문학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문학예술이 참으로 가치있는것으로 되려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생활이 달라지며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사회적성격과 사상예술적특성도 변화발전하게 된다. 작품의 철학성도 그것이 반영하는 생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현실이 발전할수록 더욱 심화되게 된다.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 거창한 력사적사변들과 혁명적변혁들로 가득찬 혁명하는 우리 시대의 생활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부한 철학적내용을 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누리기 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생활

은 심오한 철학적내용으로 충만되여있다.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영화실효투쟁이 널리 벌어지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변혁되여가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키려면 마땅히 우리 인민들의 이 보람찬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 중요한 사회적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철학적무제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꾸어 감명깊은 형상속에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야 한다.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등이 그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널리 불리우고있는것은 이 노래들이 깊은 철학성을 띠고있는데 있다. 이 가요들은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이 동트던 영광의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오직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온 그 신념, 그 의지로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품창작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방침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사상적측면에서나 예술적측면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과 인식교양적의의는 새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고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실로 철학적심오성은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높은 가치와 품위를 규정하는 본질적속성으로, 커다란 인식교양적기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예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문학예술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나서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 인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만 아니라 그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야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문제를 풀며 심오한 사상을 밝히는것은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이며 창작과정의 합법칙성이다.

문예작품은 어떤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데 따라 그 가치와 품위가 좌우된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도 얼마나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얼마나 깊이있게 해명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문예작품은 사람의 운명개척,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참된

삶의 보람 등과 같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밝혀낼 때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게 된다.

문학예술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심도있게 해명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보람있는 생활이다. 따라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 가장 중요한 사회적문제로서 깊은 철학성을 띤다.

문학예술이 내세우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적생명을 말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하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데 사회적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다.

문학예술은 바로 정치적생명과 관련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 혁명적인생관을 가지게 할수 있으며 그들을 순간을 살다가 죽어도 영생하는 참다운 삶의 길, 보람찬 투쟁의 길로 이끌어줄수 있다.

문예작품에서 취급하는 인간문제의 가치는 어떤 인간의 전형을 내세우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훌륭히 형상하지 않고서는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중요하고 가치있는 문제를 내세울수 없으며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도 없다. 문예작품은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적형상을 창조하여야 자주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의 수령의 결정적역할,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충실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동지애 등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지키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며 문학예술에서 밝혀야할 철학적문제들이다. 문예작품은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통하여 이러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여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은 어떤것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과 같은 생활의 진리를 밝혀낼수 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오늘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일군들을 진짜배기혁명가로 교양하는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되고있는것은 주인공 차석빈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려면 어떤 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는데 있다.

영화의 주인공 차석빈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바탕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자리잡고있으며 그의 모든 사업과 생활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일관되여있다. 차석빈이 중유추가신청서를 찢어버리고 기사장을 자기 하나의 리익을 위해서는 순간에 간신으로 변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엄하게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이 당에 필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절절하게 말하는 장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을 따라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영원히 한길을 가는 사람만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충신으로 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영화에서 차석빈이 외딸을 탄광분교 교원으로 보내기 위하여 설복하는 장면은 언제나 당과 수령의 은덕을 잊지 않고 혁명적의리를 지킬줄 아는 사람만이 한생을 충성으로 빛내이며 보람있게 살아나갈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뜻깊은 화폭이다. 이렇듯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있기에 주인 자석빈은 옥천강발전소의 전력생산 제를 풀기 위하여 침식도 잊고 아글 글 애쓰며 마침내 그 문제해결의 기본 쇠로 되는 2,000톤의 석탄을 증산하고 화로를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는 《이제는… 당에서 한시름 놓게 됐 나! 당에서…》라고 절절히 말하면서 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어떤 생활을 반영하 지 인간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 그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 야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보람과 행 이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가르쳐주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륭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될수 있다.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 로 일반화하는것은 문예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철학적인 깊이는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데서 생기는것이지만 생활의 본질도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할 때에는 예술에서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할수 없다. 예술에서는 인간성격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폭넓게 밝혀내고 사건의 깊은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낼 때, 그리고 한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 때 형상이 철학적심오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나서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는 인간생활의 본질과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며 가치있는 인간문제, 심오한 사회적문제는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적인 생활속에 깃들어있다. 문예작품은 진실하고 감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심도있게 일반화할 때 중요한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 인간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여 철학성을 띤 사상을 밝혀내게 된다.

문예작품은 어떤 주제를 취급하든지 인간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일반화하여야 감동적인 형상속에 심오한 진리, 의의있는 사상을 밝혀내여 사람들을 인간과 생활에 대한 깊은 철학적사색에로 이끌어갈수 있다.

인간의 생활과 운명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하게 하는것은 인간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고 심도있게 형상한 무게있고 품위있는 문예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람들은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한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을 보면 하나의 장면을 두고도 인간과 생활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찾으며 아름답고 고상한것에로 지향하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에 대한 예술적일반화를 실현하여 의의있는 사상을 밝혀내고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사색을 불러일으키려면 형상을 집약화하여야 한다.

형상의 집약화는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예술적으로 전형화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일반화한 집약화된 형상은 능히 작은것에서 큰것을 보여주며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리게 한다. 작품에서는 하나의 성격, 하나의 생활, 하나의 사건이라도 집약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야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그마한 일화나 세부를 통해서도 많은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할수 있다.

형상을 집약화하려면 세부묘사를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작품창작에서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인간의 사상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해나가는 생활의 단면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려내여야 인간성격의 본질적특징과 생활의 깊은 뜻을 생동하게 밝혀낼수 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생활의 구체적인 단면들을 파고들어가서 세부를 깊이있게 그려 형상을 집약화함으로써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도 생활의 본질과 깊은 뜻을 밝혀내여 철학적사색이 흘러나오게 한 무게있고 품위있는 대작이다. 가렬처절한 첫날 전투가 끝난 다음 섬에 찾아온 대대장이 주인공 리태운에게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일제통치밑에서 식민지노예로서 모진 고역과 빈궁 속에 신음하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품속에서 비로소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사상감정,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영화는 여러 세부들과 장면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이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였고 오늘과 래일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이 담보되고있다는 월미도의 영웅적방위자들의 철석같은 신념,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데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의 길이 있다는 그들의 확고한 신조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참다운 조국애의 정신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해준다.

문예작품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속에서 시대의 특징과 사회적본질을 체현한 전형적인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여 진실하게 그려내여야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리상을 안겨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줄수 있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예작품은 창작가들의 깊은 사색을 전제로 한다.

문학예술은 형상적사유에 의한 생활의 반영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작품에 반영된 모든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립장과 예술적견해에 비추어 선택되고 분석평가되고 예술적으로 일반화된것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이 인간생활을 전형화하고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 가치와 품위를 보장하려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여야 한다.

창작적사색은 창작가들의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령감》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예술적준비정도의 반영이며 표현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이 높아야 사색을 깊이있게 할수 있다. 창작가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풍부하게 체험하며 예술적 소양과 기교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색을 깊이하여 문예작품의 철학적심도를 보장할수 있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품위있는 우수한 문예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위대한 전통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33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 참전한 때로부터 33돐이 된다.

조선인민은 이날을 맞으면서 조선전선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형제적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장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었던 조중친선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조중친선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단결에 기초하고있는 참다운 친선관계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사회주의력량이 출현한 이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들사이에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 형제적친선단결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과 지향, 같은 계급적처지로부터 출발하고있는 숭고한 관계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계급적전우들사이의 국제주의적친선단결에 관한 감동적사실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

조중친선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의 모범을 창조한 빛나는 력사이다.

조선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친선과 단결을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왔으며 그 과정에 참다운 동지적관계가 깊고도 억세게 뿌리내리게 되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계급적형제로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여왔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호상관계는 그 깊은 력사적뿌리로 하여, 그 불패성으로 하여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각별한 친선관계로 되고있다. 조중친선관계야말로 떼려야 뗄수 없는 순치의 관계이며 혁명적전우의 관계이며 피로써 맺어진 혈연적관계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조중친선의 년대기를 빛나게 수놓은 뜻깊은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중 량국 인민의 친선과 호상협조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량국 인민들의 단결은 류례없이 강화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185페지)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 참전하던 때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과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어려운 싸움을 벌리고있던 때에 형제적중국인민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지원군을 조선전선에 보내여 우리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싸웠으며 대중적영웅주의와 고상한 자기희생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나날 중국인민지원군속에서는 많은 영웅중대들과 영웅구분대들이 나왔으며 양근사, 황계

판과 같은 수많은 영웅렬사들과 수십만의 공신들, 모범전투원들이 배출되였다.

조국의 고지들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그들의 영웅적투쟁의 자취가 깃들어있다.

자기 당과 자기 수령의 가르침에 충실한 중국인민지원군은 언제나 조선인민을 친형제와 같이 대하고 조선의 산과 들을 자기의 고향산천처럼 귀중히 여기였으며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귀한 청춘과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중국인민이 낳은 훌륭한 아들인 라성교렬사가 생명을 바쳐 조선소년을 구원해낸 아름다운 소행은 중국공산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중국인민지원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잘 보여주었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혈연적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빛나는 구감으로 되였다.

《내
침략자의 총탄에 맞아
쓰러져도 동무여!
내 시체앞에 걸음을 멈추지 말라
천백만 조선인민을 위하여
희생된동지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전진하라!》

라성교렬사가 남긴 이 시구절은 결코 그 혼자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전선에 달려나온 중국인민지원군 모든 장병들의 공통된 결의이기도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바로 이러한 심정, 이러한 결의로 전투장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높이 발휘하였으며 우리 인민과의 전투적우정과 형제적친선관계를 두터이하였다.

간고한 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발휘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고결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였으며 그들이 남긴 빛나는 전투위훈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조선 인민과 인민군대의 친선의 감정은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을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전우로서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을 친혈육과 같이 성심성의로 돌보아주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을 적극 원호하여 그들속에서 우리의 마을들이 《용군모범촌》으로, 우리 녀성들이 《지원군의 어머니》로 불리우고 박재근농민이 원쑤의 총탄을 자기의 몸으로 막아 부상당한 지원군을 구원해낸 감동적인 사실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피여난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화폭들이였다.

이렇듯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친선관계는 굶을래야 굶을수 없는것으로 공고화되였으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는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혈연적으로 련결된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가장 숭고한것으로 된다.

어려울 때 참된 벗을 알수 있는것처럼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도 간고한 시기에 그 진실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것이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난관과 시련을 같이 극복하였으며 이 과정에 전투적우정을 길이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발휘한 이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은 조중친선을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꽃펴난 친선관계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라야 거목으로 싱싱하게 자라듯이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도 굳센 력사적뿌리에 토대할 때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수 있는 억센 힘을 발휘하는것이다.

조중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외래제국

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형제적친선단결을 강화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인민의 조국광복을 위한 위대한 투쟁이였을뿐아니라 중국인민과의 형제적친선과 전투적단결의 깊은 력사적뿌리가 내린 성스러운 투쟁이기도 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중국인민들과 손잡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함께 벌리면서 중국의 광야에 자기들의 고귀한 피를 흘리였다.

중국인민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계급적형제로 따뜻이 대해주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었다.

조중친선관계는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과정에서 깊이 뿌리내리였으며 그것은 두 나라 인민들을 하나의 운명으로 련결시키는 력사적원천으로 되였다.

조중친선은 1930년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1950년대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거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공고발전되였다.

조중인민들은 다같이 어려운 처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두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들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극복해나가면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조중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 건설에서 이룩한 경험들을 허심하게 나누어왔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워왔다.

생활은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이 혁명의 한길에서 항상 어깨겯고 함께 전진하여왔으며 그들사이의 친선은 하나의 계급적뉴대로 튼튼히 이어진 가장 공고한 친선관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찬란히 개화만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력사적인 전통을 가지고있는 위대한 조중친선이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 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중친선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오늘 뜻깊은 사변들로 장식되고있다.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지도자들사이에 존재하는 우정과 신뢰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중친선은 두 나라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주 래왕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가장 친근한 동지적관계와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튼튼한 뉴대가 마련되고 공고발전되였다.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중국인민과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중 두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시여 모택동동지와 주은래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과 매우 따뜻한 친교를 맺으시였다. 또한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의 우정과 친분을 두터이 하였다. 조선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래왕하면서 의견을 나누며 단결을 강화해나가는것은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훌륭한 전통으로 되고있다.

지난해에 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국방문과 존경하는 호요방동지, 등소평동지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에 이루어진 친선의 전통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튼튼히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 방문을 통하여 조중관계는 과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갈라질수 없는 불패의 친선관계로 더욱 굳게 다져지게 되였다.

올해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의 위대한 전통을 계속 빛내여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영원히 활짝 꽃피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있으며 조중친선의 위대한 력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는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이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친선과 혁명적단결을 강화발전시키는 위업에 특출한 기여를 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였다.

지난 9월에 있은 팽진동지를 단장으로 하고 호계립동지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의 국경절을 뜻깊게 하고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불패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조중친선은 동방의 강유력한 사회주의보루인 조선과 중국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오늘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다.

형제적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나라의 모습을 몰라보게 전변시키고있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이후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전국의 안정과 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중국혁명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중국대지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열정이 맥박치고있으며 인민들은 신심과 투지에 넘쳐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한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오늘 중국공산당이 실시하고있는 사회주의현대화건설강령은 중국의 실정에서부터 출발한것이며 중국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정책이다.

형제적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회결정과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결의를 관철하여 중국을 고도로 문명하고 고도로 민주주의적인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국제정세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은 대만을 귀속시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이 정당한 방침과 숭고한 위업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중국땅에서 일어나고있는 전변과 성과들은 중국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투쟁력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세련된 당이며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중국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혁명적당이다.

중국인민은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중국공산당만이 자기들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뭉쳐나가고있다. 자기 당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지와 신뢰의 감정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이 통일단결의 위력은 사회주의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

중국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사회주의의 위력을 증대시키며 아세아와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중국당과 중국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자신의 성과와 같이 여기고있으며 중국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중요한 혁명적의무로 삼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펼쳐준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굽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고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은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미룰수 없는 중대한 과업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변함없이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부동하게 서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

조중친선의 위대한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조중친선의 길우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중국은 우리 나라와 한줄기의 친선의 강을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광활한 중국대륙은 우리의 믿음직한 후방이다. 앞으로 세계에서 어떻게 정세가 변하고 어떤 사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언제나 한전선에서 함께 싸워나갈것이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공동으로 이룩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조중친선을 굽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 인민은 준엄한 투쟁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중국인민과 맺은 혁명적우정과 계급적의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꽃이 더욱 활짝 피여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대를 이어 계승되며 영원불멸할것이다.

생산의 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

리 동 춘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이 장엄한 로력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계획은 곧 국가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계획은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들과 직장, 작업반들에서 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37～238페지)

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은 있는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국가의 생산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도 더욱 합리화할수 있다.

우리 당은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나라의 경제규모와 생산잠재력이 커짐에 따라 이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은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진 조건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것을 예견한 방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거창한 설계도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해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일찌기 그 류례가 없는 이 방대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자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해야 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생산의 정상화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은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이 철저히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인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 균형적으로 발전한다.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하고 밀접해질수록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 사이의 련계가 복잡하고 밀접해진 조건에서 만일 개별적 부문이나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을 제정된 기일안에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와 련관된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에는 물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보장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해야 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게 함으로써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적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켜 경제건설을 계속 다그칠수 있게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 사이의 협동생산을 강화하고 확대재생산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생산의 정상화는 또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빨리 늘이려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해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적극 늘일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자금수요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나라의 생산잠재력이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커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대규모중앙공업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으며 그 생산능력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방대한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위력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있다.

생산의 정상화는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더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며 공업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또한 설비들을 혹사하거나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랑비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고 기업관리전반을 더욱 개선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앞에 나서

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생산의 정상화는 제품의 질제고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제품의 질을 높인다는것은 생산물을 보다 알뜰하고 쓸모있고 견고하게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제품의 질제고는 생산물의 량적장성과 같은 경제적효과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문헌, 398페지)

제품의 질을 높이면 그 사용기간이 늘어나므로 해당 제품의 생산을 더 늘이지 않고도 일정한 기간 그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많은 원료와 자재, 로력과 설비를 절약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제품의 질제고는 또한 보기 좋고 쓸모있는 일용품과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 현대적인 가구들을 더많이 생산하여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인민생활이 빨리 향상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해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설비를 혹사하고 표준조작법을 어기는것과 같은 현상들을 없애고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며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생산을 진행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 생산의 정상화는 또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에 정통하게 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어 현대과학기술을 빨리 소유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생산의 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 문제는 반드시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 모든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당의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단체들은 매개 공장, 매 근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493페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방침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문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당의 이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낸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드는것이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수 없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없다.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설비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생산조직에서의 하나의 원칙이다. 설비를 아끼고 잘 거두며 점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낼수 있으며 고장이 생겨 생산을 못하는 현상도 없애고 설비의 수명도 늘일수 있다.

설비관리를 잘하려면 기계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설비보수자재를 제때에 대주어 점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설비를 직접 다루는 로동자들이 기계설비를 사랑하고 알뜰히 거두며 설비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움직이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설비사고를 미리 막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생산을 진행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재보장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이다.

생산과정은 곧 원료, 자재의 소비과정이며 따라서 원료와 자재, 협동생산품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생산현장까지 내리공급해주며 자재공급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 매 순별로 다음 순에 쓸 자재를 미리 대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협동생산품을 매달 15일전으로 먼저 생산보장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자재를 사장시키거나 망탕 써서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고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만부하를 걸어 월초부터 생산을 정상화해나갈수 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사회적생산과정은 곧 로동력을 가진 사람이 기계설비를 가지고 원료자재를 가공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로력관리를 잘하여 로동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

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 480분로동시간을 가장 효과있게 리용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로력관리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지휘에서 기동성을 철저히 보장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기동적인 생산지휘를 보장하여 생산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련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맞물려주고 원료와 자재, 설비와 로력에 대한 추가적수요를 제때에 충족시켜야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야 하며 언제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새로 나타나는 정황에 맞게 기동적인 생산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규률을 강화하여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하며 순별계획을 수행하면서 다음순생산준비를 갖추고 월계획을 수행하면서 다음달생산준비를 앞세우는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성과도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바로세우고 그 수행에로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고 그 관철에로 적극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에 대한 실효투쟁을 당면한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모범적인 사실들을 제때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사업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그리고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근로자들을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윤 서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26～27페지)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자기자신을 개조함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간다.

로동의 역할을 높여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려면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하여야 한다.

로동생활을 정규화한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로동생활규범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도록 제도화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전반을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생활의 정규화는 사회주의적로동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사회주의적로동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통일적인 보조를 맞추면서 일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통일성과 조직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산만성과 무규률성이 허용되면 집단로동자체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주의사회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다. 다시말하여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대규모사회주의적집단로동의 필수적요구로 될뿐아니라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로동생활의 정규화는 또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생산과 건설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는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이며 따라서 그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킬 때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려면 로동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하여야 한다.

로동생활의 정규화는 대규모사회주의

적집단로동과정에 근로자들의 행동상 통일성을 보장하고 제정된 로동시간을 완전히 그리고 능률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휴식과 학습을 제도화,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힘을 충분히 보충하고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사회주의적로동의 본성적요구이며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생활을 정규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법이 자연을 보호관리하고 개조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면 사회주의로동법은 전적으로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의 로동생활을 규제한 법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1페지)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려면 그 실현을 위한 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한다. 규범과 준칙을 떠나서 로동생활의 정규화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생활의 정확한 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근로자들의 로동활동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고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세울수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사람들의 로동생활을 규제한 법인것으로 하여 로동생활의 정규화를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무엇보다도 로동생활조직원칙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사람들의 생활과정에는 물질적부의 생산을 위한 로동과 함께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요구도 제기된다. 보람찬 로동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학습도 정상적으로 하고 휴식도 충분히 하는것이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생활이며 그들의 한결같은 지향인것이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를 옳게 실현하려면 로동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할수 있도록 그 조직원칙부터 똑똑히 밝혀야 한다. 로동생활조직원칙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로동생활조직원칙을 정확히 밝혀야 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옳게 결합시켜 로동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할수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관철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옳게 배합하여 로동생활을 정규화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는것이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또한 로동생활조직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과업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로동생활조직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규범들이 없다면 로동생활의 정규화를 제대로 실현할수 없다. 로동생활조직원칙이 로동과 학습, 휴식을 어떤 호상관계속에서 조직화하여야 하는가를 밝혀준다면 그 실현을 위한 행동규범은 구체적으로 로동은 어떻게 하고 학습과 휴식은 어떻게 보장하여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규제해준다. 그리므로 로동생활정규화의 요구에 맞게 수백만 근로대중이 일치하게 움직이면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자면 로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이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에 대한 근로

자들의 의무와 휴식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로동생활전반을 통일적인 규범에 따라 철저히 제도화,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는것이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으로 사회주의로동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위대한 로동헌장이며 로동생활을 정규화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제기하고있는 절실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새로운 로력적위훈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로동은 더욱 헐하고 흥겨운것으로 되고있으며 로동과 함께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발전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려면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다 480분동안 성실하게 일하는것을 공민의 의무로, 응당한 사회적 직분으로 알아야 하며 모든 부문에서 여덟시간로동, 여덟시간휴식, 여덟시간 학습하는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366～367페지)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세워야 한다.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단순한 행정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하여줄데 대한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속에서 당면한 생산과제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로동생활의 정규화를 옳게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 사업을 실무적으로 대하는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 표현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이 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로동생활의 정규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와 관철방도를 철저히 체득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로동법전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로동법을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와 구체적인 관철방도를 깊이 체득

하여야 하며 로동법의 요구대로 로동생활의 정규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조직하고 지휘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이다.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로동생활에서 비조직적이고 무규률적인 현상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철저히 제도화, 조직화하여나갈수 있다. 조직사업이 잘되지 않는곳에서는 반드시 무규률성이 조장되여 막대한 사회적로동이 랑비되게 되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된다.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8시간로동제는 로동법령으로 정해진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국가의 법이다. 원래 8시간로동제는 로동계급자체가 들고나온 구호이다. 로동운동이 발생할 때부터 로동계급은 다른 혁명적인 구호들과 함께 8시간로동, 8시간휴식, 8시간학습의 구호를 들고나왔던것이다. 로동계급자신이 들고나온 구호이고 로동계급자신이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이 8시간로동제를 로동계급자신이 응당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일군들은 누구나 다 국가의 법으로 제정된 로동시간을 지키도록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정연한 출퇴근질서, 로동시간리용질서, 작업교대질서를 철저히 세워 제정된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려면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일별, 순별, 월별로 전투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하며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로동조건을 잘 보장하여주는것은 제정된 로동시간을 완전히 그리고 능률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열의가 아무리 높아도 로동조건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는다면 생산을 정상화할수도 없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도 없으며 나아가서 로동생활을 정규화할수 없다.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원료와 자재 등을 기대앞까지 날라다주며 로동보호조건을 철저히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제정된 로동시간을 충분히 리용하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의 요구에 맞게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3페지)

사람들은 로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 휴식을 하여야 한다. 더우기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오늘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군대에서 대원들이 휴식을 충분히 하여야 전투를 잘하는것처럼 근로자들이 로동시간안에는 긴장하게 일하고 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을 충분히 하여야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제기된 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로동법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정확히 보장해주며 그들이 충분히 쉴수 있도록 문화생활조건을 잘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작업이 끝난 다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가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고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일군이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된 일군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능숙하게 이끌줄 아는 훌륭한 지휘관인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의 요구에 맞게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본보기공장을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본보기공장은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데서 실물교육의 본보기로 될뿐아니라 실천적모범으로 다른 공장, 기업소들을 이끌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본보기공장을 잘 꾸리며 거기에서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로동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은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과도적성격으로 하여 착취사회의 낡은 로동생활방식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하여서는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낡은 로동생활인습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낡은 로동생활인습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로동생활을 정규화하여 전사회적범위에서 근로자들의 로동활동을 조직화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로동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옳게 진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로동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며 로동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온 사회에 사회주의로동생활규범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는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다.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외래어의 《공해지대》로 전변된 남조선사회

리 종 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국토의 인공적분렬은 나라의 북과 남에서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분야에서도 대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우리 말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아름답고 풍부하게 발전하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외래어가 범람하여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민족의 슬기가 깃들어있는 우리 말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의 언어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현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민족어말살정책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반동정책의 산물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우리 말이 겪고있는 수난과 위기는 우리 인민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현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 *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책동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적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저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악랄한 침략정책의 일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 깃들어있는 우리 말은 오늘 남조선에서 엄중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283페지)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킴으로써 저들의 침략목적을 손쉽게 달성해보려 하고있다.

민족어말살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문화적침투의 상투적수법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언어가 바로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며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저들의 식민지들에서 민족어동화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외래어를 식민지들에 부식시켜 민족어를 간접적으로 말살하는 교활한 수법을 쓰고있다.

지난 38년동안 미제는 남조선에서 우리의 민족어를 말살하고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를 부식시키기 위한 반동적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여왔다.

미제의 민족어말살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켜 저들의 남조선강점과 신식민주의적정책을 미화분식하고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어를 말살하려고 《군정청》을 통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포고문》까지 발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영어를 사용할것을 강요하였다. 놈들은 지어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과 방송들에서도 영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8.15후 남조선에서는 일제의 민족어동화정책으로 하여 심히 혼란되였던 조선어가 정화를 이룩할 사이없

이 또다시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에 오염되여 빛을 잃게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과 어용학자들을 조종하여 《조선어의 렬등성》과 《조선어의 미개성》이라는 허황한 반동적 《리론》을 조작하게 하여 조선 말과 글을 천대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과 영어를 숭배하는 사대주의사상을 부식시켰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2중주구로 전락된 남조선괴뢰도당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영어를 우선적으로 부식시키는 한편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규정하고 일본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또한 우리의 고유한 조선어대신에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어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며 지어 옛 한자어를 되살리고 새로운 한자어까지 만들어쓰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러한 매국배족적인 사대주의와 복고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고유조선어와 한자어, 영어와 일본어 등 여러가지 언어가 뒤섞이게 되고 민족어의 체계와 규범이 심히 파괴됨으로써 언어생활에서는 일대 혼란이 조성되였다.

남조선의 언어분야에서의 혼란은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이 조작된후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에 미제의 부추김밑에 전두환괴뢰도당은 우리 말을 《미국식표음법》에 따라 표기하게 하는 이른바 《글자표기법개정안》을 내놓는 황당한 놀음까지 벌려놓고있으며 지어 일본식한자략자를 끌어들여 《보급》하는 후안무치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우리 말이 본래의 민족적특성을 잃고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것은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미제의 신식민주의적인 민족어말살책동의 산물이며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언어《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어체계가 심히 파괴되고 언어생활에서 일대 혼란이 조성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우리 말은 그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잡탕말로 변하여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83페지)

매개 민족어는 자기의 고유한 문법구조와 그 사용과 표기에서의 규범을 갖출 때만이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보장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조선말의 문법구조와 표기규범이 정연한 과학적체계우에서 정리되지 못하고있다.

또한 조선말을 여러가지 외래어와 마구 섞어쓰고있으며 지어는 우리 말과 외래어와 뒤섞여진 《어휘》까지 마구 만들어지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아무런 문법구조와 규범도 없으며 우리 말도 아니고 외국말도 아닌 잡탕말들이 출판보도물로부터 학교와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회생활에 홍수처럼 범람하고있다. 우리 말은 날이 갈수록 그 순수성과 고유한 특성을 잃고 잡탕말로 변화되고있으며 남조선사회는 외래어의 심한 《공해지대》로 전변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과 방송, 텔레비존에서 외래어들이 망탕 쓰이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어용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한 신문은 하루에 외래어를 평균 830여개의 단어나 쓰고있다고 한다. 신문들이 외래어를 얼마나 꺼리낌없이 쓰고있는가 하는것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 한 녀자의 일과를 소개하는 원고지 한장의 짧은 기사에서 쇼핑(장보기), 파트너(배우자), 칵테일파티(서서 하는 소연회) 등 무려 13개의 영어어휘를 쓰고있는 사실에서

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의 출판보도물들은 조선말과 외래어를 마구 섞어쓰며 우리 말로 할수 있는것조차 외래어로 씀으로써 외국어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근로대중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출판보도물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어말살정책에 복종하고있는 어용출판보도물이며 외래어로 말하는것을 《자랑》으로 삼고있는 남조선의 특권층의 사대매국적인 관점과 심리를 반영하고있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선전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은 또한 잡탕말과 외래어를 마구 쓰고 보급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속에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부식시키고 문화와 언어 생활에서의 민족적특성을 흐리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신문과 잡지들, 방송과 텔레비죤을 보고 들으면 마치 《말의 잡초속에 들어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개탄하고있으며 외국사람들도 영어와 일본어로 된 책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있는 《남조선을 미국인지 일본인지 분간 못하겠다.》고 비웃고있다.

남조선에서 외래어는 문학예술,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도 많이 침투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쓰고있는 기술용어의 대부분은 외래어로 표기되고있어 조선말이라고는 거의 찾아볼수 없는 실정이다. 각종 농기구와 농업기술용어들도 거의 외래어로 되고있다. 어업관계서적과 선박설비, 어구이름은 물론 지어 물고기이름조차 일본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근로대중은 물론 청소년학생들까지도 우리 말과 외래어를 분간하지 못하고 외래어가 뒤섞인 잡탕말을 쓰고있다. 그리하여 언어생활에 적지 않은 고충을 주고있으며 혼란을 빚어내고있다. 어린 학생들이 《우와기》(저고리)와 《즈봉》(바지)과 같은 수많은 일본어휘와 《앨범》(사진첩)과 《센스》(감각) 등 많은 영어어휘를 우리 말인것으로 잘못 알고있으며 농민들은 외래어로 된 살초제를 살충제로 알고 잘못써서 농사를 망치는 비극이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외래어의 범람은 인민들로 하여금 민족어를 잊어버리게 하고 외래어를 알지 못하고서는 생활해나갈수 없는 새로운 형의 《문맹자》로 되게 하고있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한 출판물까지도 민족어를 도외시하면서 외래어를 숭상하고있는 남조선의 이른바 교육문화와 과학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족속들의 비애국적인 정신과 생활태도》는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쓰고있으며 한 해외교포는 《환경공해》는 육체를 오염시키지만 《언어공해》는 그 민족의 《혼》을 오염시켜 민족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의 극심한 《언어공해》를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 외래어의 범람은 특히 거리에 내건 간판과 광고, 상품들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서울, 부산과 같은 큰 도시들에서는 거리에 붙어있는 간판의 80% 이상이 외래어로 되여있으며 지어 서울거리에는 무려 20여개 나라의 언어로 쓴 간판들이 나붙어있어서 《외래어의 전시장》으로 변하고있다. 남조선상품가운데서 약 50%는 상품이름이 외래어로 되여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당과류와 빵류의 상표는 90%이상이 영어와 일본어로 씌여 있다.

남조선에서는 일상생활용어에서도 잡탕말이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의 괴뢰특권층속에서는 미일상전들과 대화를 하거나 제놈들끼리 담화하고 전화를 할 때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잡탕말을 쓰는것이 생활풍조로 되고있다.

영어를 써야 《유식》하고 《문명》하며 일본어를 알아야 출세와 축재의 길이

열린다는 특권계층의 사대매국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풍조는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남조선사회에 널리 부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듣는것마다 외국말이여서 자기가 남조선에 살고있는지 외국에 살고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래어의 홍수에 의해서뿐아니라 고유한 조선말을 미국식으로 변경시키거나 우리 말과 외래어를 《합성》한 《어휘》들에 의해서도 언어생활이 심히 혼란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조선말과 여러가지 외래어를 마구 섞어쓰는것은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있다.

조선말 《드시오》가 《드숑》과 같이 뜻을 알수 없는 《어휘》로 변형되였는가하면 심지어는 우리 말과 영어, 일본어를 마구 섞어서 쓴 괴상망측한 말이 마구 쓰이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최근에 조작한 반동적인 《글자표기법개정안》은 영어를 숭상하고 조선말을 천시하는 놈들의 책동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조선말을 《미국식표음법》에 맞추려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책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글에서 ㄱ과 ㅋ, ㅂ과 ㅍ, ㅈ과 ㅊ 사이의 차이가 영영 말살될 엄중한 형편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달》이 《탈》로, 《발》이 《팔》로, 《장녀》가 《창녀》로 쓰이게 될 위험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이것은 조선어를 말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하고 발광적인 범죄적책동에 의하여 산생된 비극인것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오늘 외래어의 《공해지대》로 전변되고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책동은 남조선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그들속에 사대주의 특히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부식시키고있는데 있다.

조선인민이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힘이다. 조선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있었기때문에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풍습과 문화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올수 있었다.

그런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는 조선어로 말하는 사람을 《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여기고 남의 말과 글 특히 영어와 일본어로 말하는 사람을 《유식》한 사람으로 여기며 상품도 외래어딱지가 붙은것이면 덮어놓고 좋은것으로 여기는 민족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젖어 헤매이고있다.

민족허무주의, 숭미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퍼짐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또한 부패한 《미국식생활양식》대로 입고 쓰고살며 행동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망국적인 사회풍조가 생겨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책동의 후과로 초래된 이러한 풍조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책동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는데 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이다. 피줄이 같고 한령토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고 한령토에서 살아온 단일한 민족이다. 지금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이다.

그런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조선말이 밀려나고 다른 나라 말과 잡탕말이 판을 치고있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차이가 생겨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언어상의 공통성이 흐려져가고있다.

만일 남조선사회에서 외래어와 잡탕말이 지금처럼 계속 활개치게 된다면 북과 남의 언어생활에서의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며 그것은 결국 민족을 갈라놓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케 될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어말살정책은 바로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매국배족적인 책동인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의 민족어말살책동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적인 후과를 빚어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조선어말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언어적공통성을 고수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외래어의 침습을 막으며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고수하고 혼탁된 언어생활을 바로잡아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외세에 짓밟힌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을수 있으며 민족어의 자주적발전도 이룩해나갈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성숙된 절박한 문제

김 수 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남남협조에 관한 이 방침은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이 신식민주의적체제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방침이다.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벌려야 할 성스러운 반제투쟁이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와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력사적과제이다.

* *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요구이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는것입니다.》

남남협조는 본질에 있어서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이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지리적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에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방면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경제적협조관계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예속과 의존성을 청산하고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새 사회와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새로운 류형의 국제경제관계이다.

남남협조는 그 본질과 내용, 성격과 목적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들고 있는 위선적인 《남북협조》와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남북협조》란 발전도상나라들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경제적협조를 하여야 모두가 다 잘살수 있다는 제국주의자들의 황당한 궤변이다.

《남북협조》는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발전도상나라들은 주로 원료만 생산하고 발전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공업완제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는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론리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략탈적이고 불공정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수법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조작해낸 철두철미 기만적인 간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협조》론은 자주성에 대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강화발전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교활한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제2차세계대전전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오직 종주국에 의하여서만 식민지나라의 경제를 개발할수 있다는 이른바 《식민지개발》론으로 저들의 로골적인 식민

지략탈을 미화분식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식민지개발》론의 기만성이 전면적으로 폭로되자 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하게도 이른바 《후진국개발》론을 새로 조작해내고 옛 종주국과 식민지사이의 《협력》과 《원조》라는 새 수법으로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진국개발》론의 허위성이 날날이 드러나자 교활한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이른바 《남북협조》와 《남북협상》이라는 새 간판을 꾸며내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상품과 자본의 침투를 합리화하는데로 나아갔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의연히 이 간판을 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고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남남협조는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을 반대하고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전략이다.

올해에 진행된 제7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선언》에서는 남남협조에 대한 전략적방침을 일치하게 확인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모든 성원국들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남남협조는 그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강화되고있는 간섭과 침략, 리간과 회유기만 책동으로 말미암아 착실히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형편에 있다.

지금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성숙된 요구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남협조가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하루빨리 끝장낼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끝장내는 문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사활적인 요구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면 제국주의자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한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중요한 공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본성으로부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오늘의 현실은 그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고 남남협조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정치경제적압력과 간섭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 제11차특별총회와 1981년 메히꼬에서 있은 《남북수뇌자회의》, 올해 베오그라드에서 있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제6차총회》에서와 같이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집요하게 반대하여나서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환상을 가지거나 그놈들과의 《협상》의 방법으로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한사코 고수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반드시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남협조가 실현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경제적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간다면 매개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한 의존성과 그놈들의 착취와 략탈도 점차적으로 없애버릴수 있을것이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그 실현과정자체가 바로 새로운 국제경제 관계와 질서의 형성발전과정으로 된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면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별적인 나라들의 경제력이 아직 미약하다 하더라도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집단적경제력을 비상히 증대시킬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을것이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집단적경제위력에 기초한 협상력과 대항력을 증대시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력과 간섭을 물리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요구를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이와 함께 저들의 《차관》과 《원조》, 《기술봉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마치도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오만하게 떠벌이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리석은 망상과 궤변도 철저히 분쇄할수 있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과 맺고있는 불공정한 경제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서로 단결하여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반대하고 남남협조를 실현해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은 싫든좋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것은 결국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발전과정도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질서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의식적이고 자원적인 협조관계인 남남협조관계에는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와 질서의 본질적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간다면 서방자본주의나라들도 부득불 그러한 질서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경제관계가 점차 세계적범위에서 확대될 때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전면적으로 그리고 공고히 세워지게 될것이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조성되고있는 경제적난국을 극복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지금 적지 않은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앞에는 어려운 경제형편을 극복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후에도 경제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편파성, 대외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있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은 중요하게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통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이 계속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자료에 의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불평정한 무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화물자동차 1대를 사는데 5년전보다 3배의 목화, 2배의 커피, 9배의 담배를 수출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은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제국주의자들과의 무역에서 약 2,000억딸라의 손실을 당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조》와 《경제적협조》와 같은 허울좋은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에 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주요 공업부문과 자연부원을 장악하고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침투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일부 경제부문과 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침해당하고있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경제적지위에서 제국주의자들과의 경제교류를 계속 진행한다면 어려운 경제형편을 개선할수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어려운 경제형편을 타개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수 있는 길은 오직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경제적잠재력과 현실적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딘아메리카 나라들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가지고있다. 특히 세계 석유총생산량의 70%, 동생산량의 80%이상, 생고무의 대부분이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생산되고있다.

또한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이룩한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서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와 같은 지역적협조기구를 창설하고 협조를 강화하고있는 좋은 경험도 있으며 1981년 평양에서 진행된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와 같이 새 사회건설과정에서 이룩한 경험과 기술을 서로 허심하게 나눈 실례들도 많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면 이러한 경제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조성된 경제적난국을 능히 해결할수 있고 자립적민족경제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로 원료와 자재, 자금을 돌려쓰고 기술과 경험을 교류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갖출수 있으며 부족되는 자금과 민족간부 문제도 능히 자체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과 놈들의 《원조》와 《협조》에 대한 의존심을 철저히 버리야 하며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경제기술적협조를 실현할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그것을 지체없이 실천에 옮겨야 할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375페지)

남남협조를 착실히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긴급한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호상협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선 농업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자체로 농업을 추켜세워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겪고있는 식량위기를 극복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호상협조를 통하여 농법을 개선하고 관개공사만 잘하여도 식량을 능히 자급자족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토론회는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한 훌륭한 경험도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서로 협조하여 매개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새로운 농법을 연구개발하고 관개건설사업과 육종사업, 농업과학연구사업과 농업기술일군양성사업 등을 발전시켜 식량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농업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마련할수 있고 식량을 정치경제적 압력과 간섭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도 분쇄할수 있다.

남남협조를 착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분야로부터 사회문화분야에 이르기까지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한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벌리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속에는 경제와 문화 건설과 관련한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있으며 자금을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있는 조건에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줄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남남협조를 통하여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면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경험을 제국주의자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 자금문제만 보더라도 일부 나라들이 원유와 그밖의 원료와 연료를 판 돈을 적지 않게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그 돈을 서로 돌려쓴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차관》을 받지 않고도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쌍무적, 지역적, 대륙적 협조기구들과 재정금융기관과 같은것을 창설하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동원하여 서로 협조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남남협조는 평등과 내정불간섭, 유무상통과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앞선 나라들과 자원, 자금이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사심없이 도와주어야 착실하게 실질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 원칙적요구에 맞게 남남협조가 실현되여야 그것이 매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의 자주적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고 남남협조의 위력과 생활력을 과시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오늘 충분히 성숙되고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남남협조를 착실히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남협조의 실현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해보려고 온갖 기만술책과 위협공갈책동을 다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집단적반격을 가하고 그를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남남협조가 가지는 커다란 정치경제적의의와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아직 《남북협조》에 환상과 기대를 가지는 경향도 응당 극복하여야 한다.

남남협조를 착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남남수뇌자회의를 시급히 열고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실천적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뇌자회의는 나라들사이의 국가관계를 토의하고 대내외정책적 방향을 협의하고 조절하며 합의된 문제에 대한 정치적공약을 맺는 중요한 정치적회의이다.

특히 유무상통과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많은 나라들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남남협조를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수반급의 대외적인 정치적공약과 매개 나라에서 그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필요하다.

지난날 발전도상나라들은 호상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문가회의와 부장급회의를 열고 호상협조할 내용과 형식, 방도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일련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1976년이후에만도 수많은 결정과 문건을 채택하였으며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것은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막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적극 실천에 옮기자면 이미 우리 당이 발기하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국제회의에서 주장한 남남수뇌자회의를 하루빨리 열고 그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남수뇌자회의는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토의하고 좋은 안을 제기함으로써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을것이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수뇌자회의가 시급히 소집되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의소집을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 성숙시켜나가야 한다.

남남협조를 빨리 실현하자면 이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나라들만이라도 먼저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실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주동이 되여 남남협조를 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며 남남협조를 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남남협조를 실현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끝장내고 자주적인 새 사회, 새세계를 빨리 건설해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10호(루계 498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10월 1일 발 행•1983년 10월 3일

ㄱ—3512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제 11 호(49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 일 성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및문화부장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1983년 9월 26일

존경하는 세계 여러 나라 교육, 문화 부장들과 외국의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자주, 독립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는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문화부장회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문화인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성대히 열리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 건설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교육문화발전의 효과적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 교육, 문화 부장들의 력사적인 첫 국제적회합이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교육, 문화 부장들과 국제기구대표들 그리고 모든 외국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회의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

로 축원합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 교육, 문화 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문화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이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토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회의는 교육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앞에는 이미 쟁취한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자주적인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민족을 문명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은 문화이며 민족의 발전은 바로 문화의 발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야 사회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우매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뒤떨어진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없습니다.

교육은 새 사회 건설의 성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새 사회 건설은 그 담당자인 사람

들을 교육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 교육을 옳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교육을 민주화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반동적인 노예교육제도를 철저히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세움으로써 새 사회 건설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유롭게 배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의 교육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간부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것입니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능력있는 민족간부가 있어야 국가도 관리할수 있고 자립적민족경제도 건설할수 있으며 과학과 문화예술도 발전시킬수 있고 나라의 방위력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민족간부양성사업에 국가적인 힘을 넣어 국가관리간부와 경제관리간부, 교육문화일군과 군사간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민족간부들을 자체로 많이 키워내야 할것입니다.

지식은 곧 사람의 창조적능력이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을 새 사회 건설의 역군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성인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맹을 하루빨리 퇴치하고 근로자들의 전반적지식수준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또한 후대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할것입니다.

진보적인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고상한 도덕과 아름다운 정서로 교양하며 그들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혁명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민족문화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진보적인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

세로 나서는것은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것입니다.

문화건설에서 낡고 반동적인것을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와 민족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거부하는 민족허무주의는 다같이 민족문화의 창조적발전을 저해하며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는데 장애로 됩니다. 민족문화의 고유한 전통과 우수한 유산을 살리며 그것을 현대적미감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만 참다운 민족문화예술을 창조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반동문화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고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독소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반동문화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그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참다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려면 문화건설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이 건설하여야 할 참다운 민족문화는 주체가 선 문화, 주체적인 문화입니다. 주체적인 문화란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는 문화이며 인민대중이 그 창조자로 되고 향유자로 되는 문화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발전하는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인민들이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민족문화는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기 인민의 지혜와 재능으로 민족적특성에 맞는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모든 문화적재부를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오랜 력사와 훌륭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일찌부터 뛰여난 재능과 근면한 창조적활동으로 자기의 민족문화를 찬란히 발전시켰으며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왔습니

다.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문화 유적과 유물들은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한 이 지역 인민들의 지혜와 재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근대에 와서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게 된것은 결코 그들이 《렬등민족》이 되여서 그런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와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정책이 빚어낸 후과입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멍에를 벗어던지고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다음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긴밀히 협조한다면 민족문화건설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학술토론회와 강습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며 교원, 전문가, 학자 대표단과 예술단, 체육단의 광범한 교류를 실현하고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문화시설을 꾸리는 사업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흥세력나라들의 예술축전과 체육축전 같은것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는것도 필요하리라고 인정합니다.

지난 기간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를 위한 행동계획이 마련되고 쁠럭불가담나라 교육및 문화 부문 조절국들이 임명된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도를 공동으로 찾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그것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민족문화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민족간부가 매우 적었으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문맹자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락후성을 하루빨리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사

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떠한 문제도 바로 해결할수 없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문화혁명을 새 사회 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 사회 건설에서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육사업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교육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으며 지금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새세대들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일하면서 공부하여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같이 배우며 발전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해방직후 새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던 우리 나라에 지금은 180여개의 대학이 일떠섰으며 우리는 이미 120만의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양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우리가 자체로 키워낸 민족간부들에 의하여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과 과학, 문화 기관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교육사업에서 우리가 이미 이룩한 성과도 크지만 우리의 전망은 더욱 휘황찬란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온 사회의 인테

리화방침에 따라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고등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이 실현되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문예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문화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화예술입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은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문화예술의 대전성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비록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라 하더라도 정확한 민족문화건설로선을 내세우고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간다면 교육과 문화예술 발전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시련을 겪고있으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에는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분렬 책동을 짓부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서로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는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어야 하며 정치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문화적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투쟁대오를 굳게 결속하고 일치한 보조로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분렬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고수하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할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이 분야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입니다.

나는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문화부장회의가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문화인들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좋은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문화건설에서의 빛나는 성과를 위하여,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위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교육, 문화 부장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모든 외국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공화국창건 35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할데 대하여 다시금 중요하게 강조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비약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거창한 설계도인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으로 수놓아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자랑찬 력사를 계속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1980년대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년대로 더욱 찬란히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1)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경제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이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터의 천,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것, 바로 이것이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2차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새로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당 제6차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심으로써 경제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길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넓은 길을 열어놓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여야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이다.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농업의 공업화를 다그쳐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빨리 없앨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경제건설에서 앙양을 일으켜 새로운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야 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기술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바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중공업부문들과 경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도달하여야 할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뚜렷이 제시하고있다. 이 목표를 실현할 때 우리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요구에 맞게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있다.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는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점령해야 할 전례없이 높은 고지들이 밝혀져있으며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적극적인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하고 생산소비적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기 위한 중요지표들도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이것은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적극적인 균형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빈틈없이 담보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들은 모두 기술혁명을 다그쳐 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적토대의 기술장비수준은 비상히 높은 수준으로 빨리 올라서게 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은 빛나게 수행되여나가게 된다.

이처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려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지난날의 중산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실천을 통하여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알곡과 수산물, 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힘으로써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부터 원만히 해결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이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또한 중공업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중요고지들을 뚜렷이 제시함으로써 중공업제품에 대한 경공업 및 농업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고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생산적련계를 밀접히 보장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해준다.

이 모든것은 1980년대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이 목표들을 실현할 때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인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장엄한 로력투쟁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4대자연개조방침을 높이 받들고 알곡 1,500만톤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남포갑문 건설을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여 화학고지

와 15억메터의 천교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에서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할데대한 우리 당의 구상은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길은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검덕의 건설자들이 1,500만톤의 선광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공사를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한것이다. 우리 나라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종합기업소에 대규모의 선광장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으며 경제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현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제2차 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를 계속 견지한다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2)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전개되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인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를 찬란히 빛내인 《천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완수되였다면 오늘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통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진군속도가 창조되고있다. 다시말하여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경제발전속도를 비상히 높여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다. 경제발전속도를 더욱 높이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방대한 과업들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열쇠가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되고있는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속도, 《80년대속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

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비상히 높은 속도이다. 《80년대속도》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빛나는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매우 높은 속도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김철의 로동계급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봉화를 추켜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년 남짓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박차를 가해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지닌 사람만이 언제나 높은 혁명적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과 오늘의 벅찬 현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경제과업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지도일군들이 경제건설투쟁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투쟁목표가 뚜렷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은 오늘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건설을 얼마나 패기있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조직적수완과 지휘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하고 밀접해진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이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지 못하거나 경제조직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도 없다.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언제나 경제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혁신적안목으로 대하여야 하며 기존 경험이나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높은 목표를 대담하게 내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지도일군들이 생산지휘

를 능숙하게 하는데 있다.

지도일군들은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재보장을 비롯한 경제관리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새롭게 조성되는 정황을 제때에 포착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보장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실정에 맞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은 생산지휘를 능숙하게 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생산 조직과 총화 사업에 이르는 경제관리전반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세밀하게 지도해야 하며 생산자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지도일군들의 일본새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경제사업을 옳게 이끌어주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경제사업전반을 튼튼히 틀어쥐고 정책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장엄한 로력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며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에 대한 실효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조직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날로 고조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자.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력사를 빛내인 위대한 령도

박 용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스물다섯돐이 된다.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연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심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참다운 길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간개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력사적인 로작이 발표된후 2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지만 날이 갈수록 로작에 담겨진 사상과 리론은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인간개조 사상과 리론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에서는 빛나는 력사가 창조되고 자랑찬 업적이 이룩되게 되였다.

* *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숭고한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9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아니라 사람들자체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원래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옳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사람들이 변질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는것은 물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말아먹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인간개조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힘있게 조직전개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간개조의 본질과 목표,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주체적 인 인간개조 사상과 리론을 밝히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반봉건적사회경제관계를 변혁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섰던 민주주의혁명시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조직전개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회경제적변혁에 비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뒤떨어져있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일제사상잔재는 혁명발전을 저애하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근본적으로 개변하지 않고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할수 없었으며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변혁과 조성된 정세,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일제가 부식한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기풍을 청산하고 그들을 새로운 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전군중적운동으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건국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됨으로써 사회성원들을 새 조국 건설에 헌신하는 애국심과 건전한 민주사상으로 무장한 새 사회의 주인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게 되였다.

참으로 전군중적으로 벌어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인간개조사업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된다는 위대한 진리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참다운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의 첫단계에서부터 예견성있게 밀고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주의혁명시기에 더욱 힘있게 전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던 사회주의혁명시기에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성원들을 사회주의적인 근로자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구속하던 낡은 경제적 및 계급적 질곡들이 극복청산되게 되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활동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담보가 마련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경리형태의 개조와 밀접히 결합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풍모도 더욱더 몰라보게 달라지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인간개조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면 낡은 사상이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지반은 없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여전히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그리고 공산주의교양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은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고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하시여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심화발전되는 행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이 강화되고 인간개조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개조의 기본방도로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제시하시고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목적은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려는데 있다. 인간개조의 이러한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은 그 계급적본성과 사회경제적처지에 있어서 자주성이 가장 강한 혁명적인 계급이며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갈수 있는 힘과 능력을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해나갈 때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의 근본목적과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들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들을 개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더욱 훌륭히 발양되게 되였다.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력사에서 1970년대는 새로운 성과와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자랑찬 년대였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이르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전면에 내세우고 공산주의적인간육성문제를 더 높은 수준에서 이끌어나가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간개조의 총적목표를 명백히 밝혀준것이다.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것은 인간개조사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간개조사업도 그 목표가 뚜렷이 밝혀져야 정확한 방향에 따라

목적지향성있게 올바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우는것을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여주었다.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총적목표가 밝혀짐으로써 사람들을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참된 공산주의자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을 인간개조의 총적목표로 제시하여주었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해나가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육성하는데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전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3페지)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그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고 규제한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은 돈이나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사회와 집단,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할바없이 커지며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척될수록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며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론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가장 정확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하는데서 사람들의 사상적각오와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사업이 첫공정으로 되고있으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고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철저하게 수행해나가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그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인간개조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상사업의 총적목적과 과업, 대상의 의식정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

계마다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목적지향성있게 규정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키워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사상교양의 모든 내용을 여기에 복종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 이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며 특질이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여야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될수 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교양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왔으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심화시켜왔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을 심화시킴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사상교양의 내용과 함께 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사상교양사업자체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인간개조사업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내용은 일정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달되고 침투된다.

인간개조사업은 특히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성격, 심리상태, 그들이 처한 사회적처지와 임무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또한 그들이 사상의식을 규제하는 객관적요인들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처럼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사업을 추상적인 구호나 천편일률적이며 도식적인 방법으로는 옳게 수행할수 없다. 더우기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속에서 오랜 세기를 거쳐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인간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며 교양, 강연, 선동 망을 통하여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실천활동 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사상사업분야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이 마사지고 사상교양사업이 보다 참신하고 패기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인간개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우리 당은 또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산 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당적,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긍정적인 모범을 통한 교양사업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의 하나이다. 긍정적인 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것으로서 사람들의 혁명적개조를 다그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긍정적인 모범은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며 대중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혁명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온 사회

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배출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의 주인공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투쟁을 광범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우도록 한 우리 당의 구상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숭고한 뜻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이 발견되고 그들의 모범이 온 사회에 일반화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들처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지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불패의것으로 강화된것은 우리 당의 인간개조사업의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드팀없는 신념으로써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우리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대를 이어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인간개조를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어떤 임무를 맡아 수행하든지 개인의 출세나 명예,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현실은 우리 당의 인간개조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간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공고히 하며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초석

리 성 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며 그 전체계와 내용에 관통하고있는 근본원리이다.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독창성, 리론적심오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그 철학적원리에 원천을 두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려면 옳바른 철학적원리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옳게 풀고 현실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철학적원리를 기초로 삼은 세계관이라야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히며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철학적원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에 기초한 세계관의 내용과 성격, 그 특징이 규정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며 사람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현실세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사람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물질세계발전의 최고산물인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세계관의 초석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5페지)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것은 이 위대한 사상이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계관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초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을 위주로 하여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에 해답을 준 원리라는데 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주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따라 철학의 다른 모든 문제해결의 방향이 결정되며 세계관의 내용과 성격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려면 무엇보다먼저 철학의 근본문제부터 바로 설정해야 하며 그에 해답을 주는 원리를 옳바로 밝혀야 한다.

지난 시기의 세계관들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았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물질이 일차적이냐 의식이 일차적이냐 하는 문제로서 세계의 시원을 밝히기 위한 문제이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를 근본문제로 삼은 지난 시기의 세계관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유물론적세계관과 세계가 의식의 산물이

라는 관념론적세계관으로 갈라졌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세계가 물질로 통일되여있다는것을 론증하고 그 변화발전의 객관적법칙을 밝힌 로동계급의 선행세계관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인 운동법칙이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였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세계를 사람과 주위세계로 나누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물질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보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설정한 문제이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과 세계가운데서 어느것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어느것이 주동적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을뿐아니라 그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배적지위와 세계에서 노는 결정적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바로 사람위주의 원리인것으로 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초석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초석이라는것은 그것이 이 세계관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라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사상적기초를 이룬다.

철학은 사람들의 근본요구와 지향,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의 근본적리해관계를 세계관으로 표현하는 사상의식의 한 형태이다. 세계관을 주는 철학은 원리들의 전일적인 체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들가운데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원리가 세계관의 사상적기초를 이루는 철학적원리로 된다.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세계관의 다른 모든 원리와 명제들의 성격이 규제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려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받음이 없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나가며 자신의 창조적인 활동과 투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나갈것을 가장 절실히 요구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이러한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주체의 세계관의 사상적기초로 되며 이 세계관의 다른 모든 원리와 명제들이 전개되는 출발점으로 된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바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사상적기초를 두고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근본요구에 기초하고있으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려는 지향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그 전반체계와 모든 내용이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을 고수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앞

길을 밝히는데로 지향되여있다. 주체의 세계관의 모든 원리와 명제, 정식화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명시하고있기때문에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 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이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람중심의 혁명적인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사상적기초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또한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리론적기초를 이룬다.

철학이 밝혀주는 세계관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를 준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전일적인 리론체계로 되여야 과학성이 보장될수 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사물현상과 다양하고 복잡한 련관이 있으며 세계의 변화발전을 규제하는 여러가지 합법칙성이 작용한다. 세계관이 세계에 대한 견해를 전일적으로 밝혀주려면 세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를 반영한 원리에 기초하여야 한다. 바로 세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를 반영한 원리가 세계관의 리론적기초로 된다.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이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사람이 아니면 주위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세계가 변화발전하며 또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고 전체로서의 세계가 더욱더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조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바로 세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인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힌 원리이다.

주체의 세계관은 이러한 철학적원리를 리론적기초로 하고있기때문에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리론적내용으로 하고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주체사상의 견해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데 기초하고있으며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사상의 견해는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을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사람을 위주로 세계에 대한 전일적인 견해를 천명한 새로운 세계관으로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밝혀짐으로써 세계를 철학적으로 파악하려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세계를 주동적으로 지배하고 능동적으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의 힘있는 리론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이와 같이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밝히고 사람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움으로써 사람중심의 과학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의 리론적기초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다음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방법론적기초를 이룬다.

철학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주려면 옳바른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옳바른 방법론은 사람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현실세계의 합법칙성에 맞게 사물현상을 다루는 지침이다. 세계관은 사람의 근본요구를 구현하고 현실세계의 기본적인 합법칙성을 반영한 철학적원리를 방법론적기초로 삼아야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근본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사람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현실세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를 반영하고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야 사람의 근본요구와 현실세계의 합법칙성에 맞게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밝힐수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철학적방법론이 전개된다. 이 방법론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데로부터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하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

주체의 철학적방법론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데로부터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키는 지침을 제시하여준다.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데로부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공정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길을 밝혀준다.

이처럼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근본요구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현실세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주체의 세계관의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주체의 세계관의 전일성과 체계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초로 된다.

세계관이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되려면 사람의 근본요구를 표현한 사상과 세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리론 그리고 인식과 개조의 일반적방법론을 통일적으로 담아야 한다. 철학이 이러한 세계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리론적, 방법론적 기초가 하나의 철학적원리로 통일되여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세계관이라야 전일성과 체계성이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선행철학이 나오기 이전 시기의 세계관들에서는 그 기초를 이룬 원리에서 사상과 리론, 방법의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 물질이 일차적이라는 유물론적원리는 대체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진보적계급의 리해관계와 일치하고 의식이 일차적이라는 관념론적원리는 대체로 현실을 외곡하려는 반동계급의 리해관계와 일치하였다. 그렇지만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 관한 원리는 계급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던것만큼 사상과 리론의 통일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었다.

또한 지난 시기의 세계관들의 기초를 이룬 원리들에서는 많은 경우에 리론과 방법의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 의식, 정신이 일차적이라는 관념론적원리를 리론적기초로 한 세계관이 변증법적방법에 의거하기도 하고 형이상학적방법에 의거하기도 하였으며 또 물질이 일차적이라는 유물론적원리에 기초한 세계관이 변증법적방법에 의거하기도 하고 형이상학적방법에 의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의 세계관들은 흔히 리론과 방법이 모순되는 비과학적인것이였다.

맑스주의는 리론과 방법사이의 모순을 선행철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의 하나로 보고 유물론과 변증법을 결합시켜 변증법적유물론을 창시함으로써 세계관에서 리론과 방법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담고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현실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반영하였으며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게 하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사상, 리론, 방법을 하나의 체계속에 정연하게 통일시킨 전일적인 세계

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속에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오로부터 출발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는 관점, 립장을 밀접히 결합시킨것이 주체의 사회력사관이다.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계관에서 사상, 리론, 방법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한것은 주체사상이 세계관발전에서 이룩한 거대한 공적이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인식개조활동에서 세계관의 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한 획기적사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확립하였으며 세계관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력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7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혀주는 세계관으로서의 구성체계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되였다.

세계관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해뿐아니라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가져야 할 관점과 립장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까지 밝혀주어야 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게 함으로써 세계를 단순히 반영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조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세계관적 문제들을 밝히게 한다.

주체사상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혀주는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과 력사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는 사회력사관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구성체계로 하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세계관이 갖추어야 할 구성체계를 전면적으로 담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함으로써 또한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의 과학적인 사상리론적내용을 전면적으로 담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세계관적문제들을 사람을 위주로 하여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에 대한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을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으로 고찰하고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을 밝혔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 주

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지도적원칙을 밝혔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함으로써 또한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은 주체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세계를 개조변혁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참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에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조들을 철저히 짓부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확증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

김 기 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통적인 학습방법이다.

지금 온 나라에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과 생활기풍이 활짝 꽃피고있으며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오늘처럼 학습이 철저히 생활화되고 학습열의가 높아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은 우리앞에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 *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혁명의 량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구호의 하나는 학습입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우지 않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발전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29～230페지)

혁명가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사람들이다.

혁명가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칭호를 빛내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을 끝까지 할수 있는 높은 각오와 자질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혁명가의 높은 자질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갖추어지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실천투쟁과 함께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은 혁명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체득할수 없으며 높은 계급적안목과 혁명적식견을 가질수 없다. 혁명에 필요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혁명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없다.

학습의 중요성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혁명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심화발전한다. 혁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도 더욱더 커진다.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자면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그들의 의식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하여야 한다.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요구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에게 있어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아는것은 힘이며 아는것이 많아야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정책을 모르며 정세와 현실에도 어둡고 과학기술에도 밝지 못하면 어떤 일

이든지 자신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높은 정치적안목과 풍부한 지식, 넓은 시야와 예리한 안광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제기된 임무와 조성된 정세, 대상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없으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해나갈수 없다.

매우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학습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는다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으며 비상히 커진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훌륭히 조직해나갈수 없다.

특히 우리앞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경제리론, 선진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가자면 일군들은 학습을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여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학습을 강화하는데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은 그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학습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유격대원들의 학습을 세심히 지도하시였으며 그들이 혁명투쟁에 실지로 이바지하는 산 지식을 체득하고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확고히 지닐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항일혁명투쟁의 어렵고 복잡한 시기마다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대대적인 군정학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적과 싸우는 전투행정에서 군정학습을 조직진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곤난을 몸소 헤치시며 대원들의 군정학습을 마련하시였다. 백석탄밀영에서의 군정학습, 마당거우, 화라즈 밀영학습들은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유격대원들을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그들을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로 훌륭히 키워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학습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법이 빛나게 구현되는 과정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학습전통이 이룩되였으며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이 창조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학습방법은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학습방법에서 중요한것은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중단함이 없이 생활화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용감히 싸웠으며 언제나 규률있고 질서있게 학습하고 생활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242페지)

항일유격대원들은 학습을 생활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로 무장하는 사업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전투의 여가에나 행군하는 길에서나 그리고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학습하고 또 학습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학습에서 좋은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거나 환경을 탓한 일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행군할 때에는 앞사람의 배낭뒤에 글자를 써붙여가지고 그것을 익히였고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는 문답식방법으로 이미 학습한 내용을 공고히 하였다. 배낭에 식량이 떨어지는 일은 있어도 항일유격대원들의 손에서 책이 떨어지는 때는 없었다.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혈전을 벌리면서도 언제나 자신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하여 전투적으로 학습한 혁명적학풍,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학습방법과 학습기풍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학습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격식과 틀이 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조직한것이다.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그 성과를 결정짓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아무리 학습내용이 좋고 학습기풍이 섰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옳게 서있지 못하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혁명적인 학습방법을 널리 적용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깊이 체득하였다.

개별학습과 집체학습, 정기학습과 집중학습, 강의와 토론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학습 방법과 형식들은 유격대원들의 각이한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생활력있는 귀중한 경험들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학습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한것이다.

학습과 실천을 결합시키는것은 배운 내용을 산 지식으로 체득하게 하며 사람들을 실천능력을 가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된다. 학습을 실천활동과 결합시켜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체득할수 있으며 혁명활동에 써먹을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하며 장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하였으며 그것을 철두철미 유격투쟁과 군중정치사업, 군사정치적과업수행 등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전투를 조직할 때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격전법에 대한 학습을 앞세웠으며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기초하여 자기들의 군사활동을 총화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법을 실천활동을 통하여 더 깊이 체득하였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학습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학습열의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학습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실천적모범으로 창조하신것으로 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간고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매우 큰 감화력을 가지며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위력있는 학습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학

습방법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길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학습방법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과 학습기풍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과 학습기풍을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이 구호에 담겨져있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본받아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전투적으로 배우는 기풍을 전당과 온 사회에 확립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학습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첫공정으로, 정치사상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내세우고 모든 부문에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특히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벌리도록 하고있으며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당과 온 사회에 세워진 정연한 학습체계에 망라되여 학습을 실속있게 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로, 기술문화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되고있다.

지금 온 나라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문답식학습경연은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우월한 학습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게 된것은 이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현실에 맞게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내놓고 유격대원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였으며 오늘은 〈천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놓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30폐지)

우리들은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과 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그것이 더욱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과 기풍을 세워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학습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학습에서 성과를 거두는가 못거두는가 하는것은 조건이 좋거나 불리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단하루도 살수 없고 혁명할수도 없다는것을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하였기에 그토록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학습하였으며 하나를 배워도 조선혁명에 써먹을수 있게 배웠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비할수 없이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며 일하고있다. 우리에게는 학습을 잘할수 있는 온갖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과업을 다하고 시간이 있으면 학습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학습하는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실천활동에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학습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특히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문답식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하나인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적인 낡은 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하나를 배워도 그것이 혁명적량식이 되게 하는 참다운 학습방법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은 또한 학습에서 집단적통제와 동지적협조를 강화하여 집단안에 강한 학습기풍을 세우며 실천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우리 당은 문답식학습방법의 본질적우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일찌기 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지도하면서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열의를 높이자면 문답식학습경연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답식학습경연을 마치도 학습을 총화할 때나 하는것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그것을 집단과 집단, 부문과 부문 사이에서 실속있게 활발히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문답식학습방법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많은 대중이 여기에 참가하여 대중적인 통제속에서 학습열의를 높인다는데 있다.

우리는 문답식학습을 실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그에 대한 총화도 제때에 하여 온 나라에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이 더욱 활짝 꽃피나게 하여야 하며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속있게 하는것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똑똑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혁명의 량식으로 만들수 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언제나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학습을 격식과 틀이 없이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학습을 낡은 틀에 매여달려 걸치레식으로 하며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없이 이것저것 산만하게 학습하거나 아무런 연구도 없이 학습교재를 외우는 식으로 학습하는것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우리는 학습을 수박겉핥는 식으로 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하나를 배워도 실천투쟁에 써먹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이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며 배운 지식이 혁명과업수행에서 크게 은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학습규률을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학습은 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들의 자각성에만 맡겨서는 원만히 진행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학습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하지 않

거나 제울리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만 혁명적학습기풍이 철저히 설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규률을 세우고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학습을 실속있게, 꾸준히 해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학습에서도 솔선 모범을 보이며 집단안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앞장서야 한다.

혁명은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며 그에 따라 당의 새로운 로선과 정책도 련이어 제시된다. 발전하는 현실은 지난날에 얻은 경험이나 지식만으로는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선진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조금도 전진할수 없다. 현실은 누구나 다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지식있고 기술있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제지식, 과학기술지식을 넓고 깊이있게 소유하며 맡은 사업에 정통하기 위한 실무학습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당,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활에서 철저히 견지하고 구현하여야 할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학습방법이다. 이 전통적인 학습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고히 세우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백두밀림에 차고넘쳤던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을 본받아 정열적으로 학습하여 혁명적세계관과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신념과 의리

공산주의운동은 숭고한 신념과 의리를 지닌 견결한 혁명가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굽임없이 전진하여왔다.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한생을 빛내인 혁명영웅들의 이름들로 아로새겨져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의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서만 어떠한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에 기초한 혁명적신념이며 수령님을 다함없이 경모하고 우러러받들어나가는 고결한 의리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는 숭고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감으로써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고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올수 있었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나가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가장 고상한 의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 *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아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12페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가장 투철한 사람들이다. 인류력사에 기록된 신념과 의리에 관한 감동적사실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는 혁명가의 마음의 기둥,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신조이며 혁명적의리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이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의 진리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한 확신인것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량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높은 자각을 가질수 있게 하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굽히지 않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게 한다.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동지적사랑에 기초하고있는 인간관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와 집단, 혁명동지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숭고한 도덕적량심을 가지게 한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다같이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규정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 혁명적신념은 의리와 결합될 때 가장 고결한것으로 되며 혁명적의리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야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확고한 신념과 순결한 의리를 다같이 지닌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지킬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혁명이 어렵고 복잡하며 장기성을 띨 때 신념과 의리가 굳세지 못한 사람은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없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설수 없다.

공산주의혁명가는 확고한 신념과 의리를 간직하여야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일수 있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다. 대세와 추세에 따라 변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흔들리는 신념이 없고 의

리가 없는 사람은 혁명가의 영예와 가치를 빛내일수 없다.

력사는 투철한 신념과 의리를 지닐때만이 자기 조국과 인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배신의 길에 굴러떨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가장 고결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신념과 의리가 가장 숭고한것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3페지)

혁명의 령도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닐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체득한데 기초하여 가지게 되는 끝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신이며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석같은 확신이다.

수령은 혁명가들에게 혁명의 지도사상을 밝혀주고 그들을 하나의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며 준엄한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이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자기 운명이 수령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것을 굳게 믿기때문에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끝없이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이다.

혁명가들의 수령에 대한 믿음과 수령을 받드는 혁명적각오는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가장 견결하고 공고한것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끝없이 경모하고 높이 우러러모시는 가장 순결한 혁명적량심이다.

수령은 혁명전사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은혜로운 어버이이다. 혁명전사들은 수령으로부터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음으로써 참다운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며 한생을 값있게 살아나가게 된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자기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을 주고 삶의 참다운 보람을 안겨준 혁명의 령도자를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흠모하고 따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것을 혁명적 의리로, 본분으로 깊이 간직한다.

혁명의 령도자,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 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이처럼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티없이 순결한 혁명적량심인것으로 하여 혁명적 신념과 의리의 정화로 되는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을 고결한 혁명적신념으로, 드팀없는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의 참다운 구감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였으며 수령님께 나라와 민족, 혁명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흠모하고 높이 모시였다.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었고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그 간고한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것은 결코 앞날에 차례질 공적이나 그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데 짓밟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 참다운 담보가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였기때문이였다.

혁명의 진정한 령도자를 찾아 헤매이던 혁명시인이며 열혈청년이였던 김혁동지가 지은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의 감격과 긍지가 얼마나 컸으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과 혁명적신념과 의리가 얼마나 숭고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숭고한 정신세계,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디참없는 충실성을 본받아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것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순결한 혁명적의리로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한순간을 살고 일생을 살아도 오로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성다하는 여기에 주체형의 혁명가의 혁명적 신념과 의리의 참다운 순결성이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신념과 의리가 가장 고결한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지고 공고화되였다는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의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개별적사람들의 인정적의리인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는 혁명가들의 신념과 의리이다. 그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되고 끊임없이 굳세여진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책동과 반항을 극복해나가야만 승리할수 있는 가장 준엄한 투쟁과정이다. 원쑤들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권위를 헐뜯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데 주되는 공격의 화살을 집중한다. 원쑤들의 온갖 공격과 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령도자,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이다.

이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신조를 키워나가며 오직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순결한 의리를 깊이 간직하게 된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단련된 혁명가의 신념과 의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조선혁명의 로정우에 가로놓인 모진 풍파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과정에서 공고화된것으로 하여 더없이 굳세고 고결한것이다.

시대의 새벽길을 개척하여온 우리 혁명은 헤아릴수없이 엄혹한 시련의 고비를 수많이 넘어왔다.

조국과 인민, 혁명 앞에 준엄한 시련이 조성될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모든 난관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시였으며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승리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하여나갔다.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는 물론 주권을 잡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인민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받들

의 신념을 굳게 다지였으며 불굴의 투쟁정신을 키워왔다.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전후시기는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나날이였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고 나라에는 자금과 자재도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아직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진》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고 반당종파분자들은 당의 로선을 시비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다. 우리 혁명은 그 전진을 억세게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엄중한 좌절을 당하느냐 하는 엄혹한 시련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굳게 믿고 수령님을 따라나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억세게 싸움으로써 우리 혁명에서 력사적전환을 이룩할수 있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선의 로동계급이 6만톤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밀어낸 그 영웅적기적의 기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들의 드팀없는 충성심,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놓여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 일에 자기의 한몸을 바치는것을 생활의 신조로 삼았으며 어떤 어려운 때에도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것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의무로, 숭고한 의리로 여겼다.

우리 인민은 그러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지니였기에 각양각색의 혁명의 배신자들이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해치려고 악랄하게 날뛰던 시기에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면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을 훌륭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엄혹한 시련의 력사속에서 굳세여진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간직되여있으며 그것은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그처럼 숭고한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과 더불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되는 신념과 의리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대를 이어 완성되여나가는 혁명의 력사적과정에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충실성, 수령의 혁명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가들의 충실성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간직되여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여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순결한 충성심만이 굽임없이 계승되고 완성되는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는데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혁명적신념이 아니며 참다운 의리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재부들은 선행한 세대에 이룩된것이 새로운 세대에 와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어질 때 굽임없이 전진하는 력사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깊이 지녀야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굳건한 터전우에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신념과 의리는 바로 세대에 세대를 이어 굳세여지는것으로 하여 영원불멸한것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로정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고 확고히 자리잡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욱 튼튼히

이어지고 굳세게 다져지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가슴깊이에 드팀없이 자리잡게 되였으며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백두밀림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그 고귀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오늘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는 정신도덕적원천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에 대한 움직일수 없는 확신을 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대를 이어 튼튼히 고수해나가려는 각오를 안겨준다. 신념과 의리가 굳세야 자신은 물론 후대들까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을 받들고 끝까지 따르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숭고한 신념과 의리는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져도 결코 변치않을것이며 그것은 더욱더 순결한것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 ❀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닌 신념과 의리는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한다. 인민대중의 의식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혁명운동은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승리는 앞당겨지게 된다. 혁명투쟁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깊이 간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가슴속깊이에 뿌리내리게 된것이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일관되여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숭고한 신념과 의리를 지니고있기에 주체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었으며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었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체득하기 위한 투쟁은 시간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지니게 하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전기간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속에서 깊이 간직되고 높이 발휘된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수령님만을 믿고 따른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생명수로 삼고 그 기치밑에 투쟁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것으로 하여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것이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굳건히 다지는 사업은 한시도 중단되여서는 안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더욱 굳게 지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

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당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다.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우와 같은 문헌, 34페지)

신념과 의리는 단순한 감동이나 흥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령의 사상을 원리적으로 파악한데서, 수령의 고매한 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깊이 새기는데서 생겨난다. 수령의 위대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실지 생활을 통하여 체득하여야 수령을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가질수 있으며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신념과 의리를 깊이 간직하게 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철저히 인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서 나오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할 때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을 자각하게 되고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할 각오와 의지, 수령에 대한 신뢰의 정을 튼튼히 다지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한다는것은 수령의 사상의 진리성,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 수령의 풍모의 숭고성을 체득한다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진리를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며 당과 수령의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낌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더욱 굳게 다지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충실성의 산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한 실천적 본보기, 참다운 전형을 거울로 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그 사상정신적높이를 체득함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한 혁명적 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이다.

우리 당은 충실성의 산 모범을 따라배우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충실성을 구감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의 주인공들의 숭고한 모범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선렬들이 이룩한 충실성의 고귀한 전통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며 영화의 주인공들의 산 모범을 성실하게 따라배워야 세월의 흐름에도, 그 어떤 모진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않을 절대적인 신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어버이로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가장 순결한 의리를 지닐수 있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들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드놀지 않는 사상의지로 만들수 있다.

혁명조직들은 사람들속에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행동하며 수령의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

이다. 혁명적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벌리는 과정은 곧 사람들의 사상의지를 굳세게 하는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관념을 바로세우고 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튼튼히 키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혁명적실천은 확고한 신념과 고상한 의리를 간직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상의지를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그 어떤 역경에도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을 확고히 가지게 된다.

혁명적실천은 신념과 의리를 굳건히 간직하게 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신념과 의리의 공고성정도를 가늠하는 기본척도로도 된다.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적실천과정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사람이 진실로 충실한 사람이며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사람이다. 말로는 충성다한다고 하면서 실지 행동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념과 의리가 확고하지 못한 사람이다.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신념과 의리를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어떤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다질수 있으며 수령의 은덕에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로 보답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순결하게 지니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마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며 한생을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난관과 시련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드놀지 않는 확신과 당과 수령의 높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일편단심 혁명의 한길을 굳세게 걸어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정서교양과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사업

최 청 의

정서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정서교양은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품격은 어느 하나의 교양방법으로써 원만하게 형성되는것이 아니다.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교양과 함께 정서교양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높은 사상의식과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그것을 생활에 구현할줄 아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은 정치사상교양과 함께 정서교양에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과 품격형성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귀중한 경험을 쌓아놓았다.

정서는 사람들이 사물현상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의 체험상태와 그 과정으로서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심리적특징이다. 사람들이 고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옳게 나타낼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서교양을 통하여 해결된다.

혁명적정서교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척도로 하여 아름답고 고상한것과 그렇지 못한것을 똑바로 가려내고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사랑과 증오 등을 옳바로 체험하고 표현할줄 알게 한다.

혁명적정서교양을 잘하는것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공산주의적인간은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하고 혁명적이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풍부한 혁명적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일도 잘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 웃기도 하며 인정미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33~234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바쳐싸우는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데서 참다운 보람과 만족, 기쁨을 느끼며 혁명의 한길에서 슬픔과 괴로움도 이겨낼줄 아는것이 바로 공산주의자이다.

공산주의자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저속하고 추악한것을 끝없이 미워할줄 아는 참다운 인간이다.

우리는 다정다감하고 숭고한 정신세계와 풍만한 혁명적정서를 지닌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모범을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위업에 몸바쳐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다. 누구보다도 고상한 혁명적정서를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였기에 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향도성으로,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신 우리 인민의 한없는 감격과 기쁨을 승화시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조할수 있었

으며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 락천적으로 살며 싸웠다.

고상한 감정, 풍만한 정서를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우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정서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사람들은 혁명적정서를 가져야 낡고 부패하며 추악하고 반동적인것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으며 새롭고 아름다우며 고상하고 선진적인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혁명적정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울과 비관을 모르고 혁명적랑만에 넘쳐 생기발랄하게 일하며 생활하는 정열과 패기를 간직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미적향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미학적정서, 예술적정서를 가져야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될수 있으며 사업과 생활, 주위환경을 보다 문명하고 고상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정서가 메마른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도 거칠고 문화성이 없으며 생활도 무미건조하고 저속하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혁명적정서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에서 정서교양이 노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혁명적정서교양을 잘하는것은 또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사람들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아무리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공산주의적인간이라고 말할수 없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정서교양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람들의 정서와 세계관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정서는 세계관에 기초하면서 그 형성을 힘있게 다그치게 한다.

혁명적세계관은 착취사회의 본질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를 끝없이 미워하는 정서적체험을 중요한 계기로 하여 형성된다.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철저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질수 없는것이다.

혁명적정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성에 대한 요구와 미적리상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에서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인 각오를 굳게 가질수 있게 한다.

혁명적정서를 가진 사람만이 혁명동지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을 뜨겁게 지닐수 있다. 이것은 혁명적정서교양이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키워주고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정서교양이 공산주의적인간의 세계관확립과 품격형성에서 노는 이와 같은 역할과 관련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혁명적정서교양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혁명적정서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되는 사회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선진적인 사회이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날수록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게 될수록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높아질수록 정서교양을 잘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게 제기된다. 정서적소양은 하루이틀사이에 생겨날수 없으며 그것은 적극적인 정서교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참다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을 훌륭히 감수할줄 아는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자면 혁명적정서교양을 쉬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정서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서교양을 정치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정서교양을 정치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정서는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세우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한다. 건전한 감정, 정서는 현실을 옳게 파악하고 주위세계를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는데서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낳게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정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사물현상이 저절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사상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물현상을 대함으로써 감정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사람들의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정확히 보장될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떠나서는 혁명적정서와 감정이 생겨날수 없다.

가장 숭고하고 혁명적인 정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적사상의식에 기초한 정서이다. 이러한 정서를 지닌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은 언제나 건전하고 혁명적이다.

정서교양이 정치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그것이 진실로 참다운 혁명적인 정서교양으로 될수 있으며 사람들의 정서생활과정이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할수 있다. 만일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하고 정서교양사업일면에만 치우친다면 그것은 정서교양의 계급적성격을 거세하는것이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교양사업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을 정서교양의 선차적과업으로 제기하고 정서교양의 전과정이 그것으로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존경과 흠모, 충성심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한데로부터 우러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는 정서교양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하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도록 교양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정서교양에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의 내용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공산주의적사상감정에 기초한 혁명적정서를 키워주어야 한다. 소설이나 시 한편을 읽어도, 예술영화나 그림을 하나 감상하여도 먼저 거기에 깃든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을 똑바로 알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감정에 깊이 공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풍만한 혁명적정서를 가진 공산주의

적인간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미관, 고상한 미적감정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적인간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요구에 기초하여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느끼고 리해할줄 알며 그것을 사랑하고 창조할줄 아는 인간이다. 특히 정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의 미적견해와 밀접히 결합되여있으며 아름답고 고상한것에 대한 지향과 느낌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집을 하나 지어도 보다 보기 좋고 아름답게 지으며 방안을 꾸려도 문화적으로 깨끗이 꾸리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살려는것 등은 다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학적정서의 표현이다.

혁명적정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미학관을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미관, 미적감정으로 교양하여야 사람들을 혁명적정서를 풍부히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시킬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주체적미학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현실에서 아름답고 고상하며 혁명적이고 영웅적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느낄줄 알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또한 저속한 부르죠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미관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켜 사람들이 퇴폐적이며 추잡한 정서에 오염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정서를 옳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것은 혁명적정서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정서와 뛰여난 재능과 강의한 의지를 가진 근면한 민족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99폐지)

민족적정서를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정서를 옳게 계승하여야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민족문화도 발전시킬수 있다.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자기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우리 인민은 슬기롭고 근면할뿐아니라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문명한 민족이다. 연하고 부드러우며 우아하고 점잖은것을 좋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 인민들의 정서도 달라지는 법이다. 오늘의 우리 시대에 와서 지난날 봉건시대의 선비들이 사랑방에 앉아서 시조를 읊던 그런 식의 정서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민족적정서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하여 낡은것을 그대로 되살리려는 복고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전통적인 정서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정서를 키우는것은 혁명적정서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감정과 정서를 체현할 때 혁명과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된다.

우리 시대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에서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생기발랄하고 락천적이며 명랑하고 활달한 정서를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아름다운 정서가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정서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문학예술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보적인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고상한 도덕과 아름다운 정서로 교양하며 그들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4페지)

문학예술은 정서교양의 위력한 수단이다.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인식시키며 건전한 사상을 심어줄뿐아니라 그들을 정서적으로도 교양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현실속의 인간처럼 기쁨에 넘치기도 하고 울분에 잠기기도 하며 깊이 사색하기도 하고 소리치며 웃기도 하는 산 인간과 그의 운명을 생동하게 그리면서 어떠한 생활이 아름답고 숭고하며 어떠한 생활이 추악하고 저속한것인가를 그대로 펼쳐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과 고상한 정서를 풍부히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닌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화관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사회문화교양기관들과 출판보도선전수단들의 역할을 높여 그것이 근로자들을 문화정서적소양이 높은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예술소조활동과 군중문화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일터와 거리마다 혁명적랑만으로 흥성거리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정서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풍부하고 고상한 정서를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영화실효투쟁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

최 정 길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사상교양방침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영화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당의 령도밑에 올해에 전례없는 폭과 깊이에서 벌어진 영화실효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사업 태도와 기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현실은 영화실효투쟁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하여 주고있다.

* *

영화실효투쟁은 영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당의 사상과 의도로 무장시키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영화실효투쟁은 당이 요구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생동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사로 키울수 있게 한다. 영화실효투쟁은 특히 당정책을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관철해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을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며 일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한다.

영화실효투쟁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영화예술의 특성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대중교양방법이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영화는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혁명교양의 위력한 무기입니다.》

영화예술은 그 어느 예술형식보다도 현실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영화예술은 문학, 음악, 미술 등 여러 예술형식의 표현 수단과 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생활을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영화예술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생활을 직관적인 화폭에 그대로 담아 펼쳐보여줄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특히 영화예술은 시각적이며 청각적인 형상 수단과 방법으로 현

실에 있는 모든것을 화면에 되살려내여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함으로써 커다란 정서적감화력을 가진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적가능성과 특성으로 하여 당이 구상하고 의도하는 문제들을 예술적화폭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있게 보여줄수 있는 우월한 예술로 된다.

당일군들에게 군중로선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가정혁명화를 잘할데 대한 문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강습을 주자고 하면 수많은 제강을 써야 할것이며 며칠을 두고 강의를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그런 문제를 매우 짧은 시간에 생동하고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영화예술은 생활반영의 폭과 깊이에서 무한한 형상적가능성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그 보급의 대중성과 기동성으로 하여 다른 예술에 비하여 우월하다.

영화는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보급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영화는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나 돌릴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한다. 그렇기때문에 영화는 단번에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체득시킬수 있다.

생활반영과 보급에서의 이러한 우월성은 영화예술로 하여금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한다.

영화실효투쟁은 바로 영화예술의 이러한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한것으로 하여 선전선동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영화실효투쟁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생동한 본보기를 통하여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빛나게 구현한 새로운 형식의 사상교양방법이라는데 있다.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교양하는것은 대중교양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영화실효투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영화의 주인공들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숭고한 높이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긍정감화교양방법으로 된다.

영화예술이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은 결코 모든 영화작품들을 다 실효투쟁의 무기로 삼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화예술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삼을수 있는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감화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영화작품들을 가지고 실효투쟁을 벌릴 때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영화를 가지고 대중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된것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영화예술을 건설하여놓았기때문이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언제나 당보의 사설과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에 제때에 옳은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동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의 영화예술은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본보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형상한 특출한 성과작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앞장서나가는 3대혁명전위들과 로력혁신자들,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형상을 보여주는 이러한 영화작품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

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지난해에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와 같은 훌륭한 영화작품들이 창조된것이다. 이 영화작품들은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 80년대에 우리 당이 해결하려는 의도와 정책적요구들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거기에 폭넓고도 깊이있는 철학적해답을 주고 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김혁, 차광수와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빛나는 전형들을 창조하였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숨을 쉬여도 당의 숨결로 숨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여도 당의 사상과 의지로 말하고 행동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전에는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우리 영화예술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본보기로 되는 이러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영화예술을 건설하는 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이처럼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준 영화작품들을 수많이 창조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양문제를 영화를 통하여 훌륭히 해결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영화실효투쟁방침은 기성관념과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더욱 참신하고 패기있게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준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그것을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공산주의위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영화실효투쟁을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관철하여 사상사업에서 해결하려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 실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 전사회적 규모에서 성과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영화실효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어떤 애로와 난관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사로 키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 전사회적 규모에서 폭넓게 전개하고있는것은 어디까지나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화의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자신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영화실효투쟁은 마땅히 이 목적

을 칠저히 실현하는 방향에서 조직전개되여야 한다.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적특징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영화의 주인공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그러므로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화의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그들의 일본새를 적극 따라배울 때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할수 있으며 그 어떤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투사로 자신을 훌륭히 준비할수 있다.

영화실효투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당이 해결하려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는 바로 당이 해결하려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는 훌륭한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투쟁을 실속있게 벌린다면 그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반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며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은 영화실효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이 해결하려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일군들이 모두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갈 때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영화실효투쟁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이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영화실효투쟁을 격식과 틀이 없이 참신하게 조직진행하는것이다. 특히 출판물을 통하여 일찌기 없었던 규모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지상토론은 영화실효투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제시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방도들은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조직전개하며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화의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워 그들처럼 살며 일하도록 힘있게 추동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계층별특성에 맞게 해당한 영화들에 모를 박고 실효투쟁을 진행하며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영화실효투쟁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할데 대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영화실효투쟁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이 당사상교양사업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밝히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영화실효투쟁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영화실효투쟁방침의 정당성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에 대한 실효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영화의 주인공들처

령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이룩되고있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당의 지도밑에 진행되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함께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영화실효투쟁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화의 주인공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본받아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남포갑문 건설을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련일 빛나는 성과들을 거두고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하였는가를 스스로 묻고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여 맡은바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세인을 경탄시킨 검덕의 영웅적건설자들이 세운 로력적위훈은 그 빛나는 확증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검덕의 건설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1,500만톤의 선광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공사를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이룩함으로써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선구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생산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리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더 큰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을뿐아니라 지도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능숙한 정치활동가, 수완있는 지휘성원으로 자라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영화실효투쟁방침을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사상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진행하며 당정책관철에서 전환을 일으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무겁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영화실효투쟁방침을 더욱 힘있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이 보다 큰 은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화예술이 제2차7개년계획을 완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축성의 근본방도

김 기 호

인민경제의 주체하, 현대화, 과학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보람찬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49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다는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과학기술로 장비함으로써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튼튼히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하며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서로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통일적과정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 적극 복무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방향을 규정하며 그 성과적실현을 확고히 담보한다. 한편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주체화를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떠난 현대화, 과학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목적에 부합될수 없으며 현대화, 과학화를 떠나서는 주체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며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은 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이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선 다음에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고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여야 할 과업은 남아있게 된다. 또한 인민경제를 최신과학기술로 장비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투쟁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아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같이 다그쳐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된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 축성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아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게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자체의 강력한 경제력에 의거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

이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

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근본요구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원료와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며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모든 생산순환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창설하여 경제의 종합성과 다면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동력을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고 모든 경제부문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근본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주체화된 경제일뿐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보장할수 있도록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른 경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뿐아니라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도록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과학기술로 장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전반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만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물질적부를 풍요하게 생산하여 공산주의적분배원칙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 의하여 뒤떨어진 기술이 발전된 기술로 개조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이 개선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과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생산력발전수준을 보장할수 있도록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자면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쳐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떠나서는 자기 나라의 힘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과학기술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

계 발전시켜 높은 생산력발전수준을 이룩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기본요구를 실현할수 없으며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할수 없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나갈 때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기 나라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기술적진보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 축성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뿐아니라 도달하려는 목표의 수준에서 매우 거창한 사업이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견지하는것은 나라의 공업화가 실현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진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이 절실한 요구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고리들 사이의 균형이 확고히 유지되고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생산이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될때에라야만 실현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자기 나라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리용하고 인민경제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생산순환의 모든 고리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킴으로써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재생산고리들사이, 생산공정들사이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맞추어나갈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균형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실현할수 없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임으로써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특히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며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게 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쌓을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곧바른 길

을 밝혀준 현명적인 로선이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부문구조의 자립성과 다면성에 있어서나 원료, 연료의 자급률에 있어서 그리고 기술장비수준에 있어서 더욱 위력한 경제로,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생활력있는 경제로 되였다. 실로 우리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위력은 대단하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밑천으로 된다.

그러나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자면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와 생산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을 개조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며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우리의 인민경제를 고도로 과학화된 경제로 전변시켜나가야 한다.

기술을 혁신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창설하여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모든 부문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옳바른 민족간부육성방침에 의하여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120만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있다. 이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떠밀어나가는 위력한 력량이다.

이 위력한 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어떠한 과학기술적문제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우리 나라의 자원과 기술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숨은 영웅들처럼 과학연구사업에서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생산자들속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기술발명, 기술혁신의 싹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완성시켜 생산에서 은을 낼수 있도록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하며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의 방침에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로부터 그 실현방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기만 한다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목표와 단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하며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기술혁신운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생산과 건설에 제때에 받아들여 은을 내도록 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실험설비들과 자재들을 충분히 대주고 실험공장을 지어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해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고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성과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것이 생산에서 충분히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다그쳐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리 형 점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오늘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제시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결코 행정경제일군들의 실무적인 조직사업만으로는 옳게 관철할수 없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위원회들앞에 나서고있는 책임적인 사업이며 그것은 당적지도가 안받침될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려야 하며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9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오늘 우리의 당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건설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경제건설을 옳게 령도하는것이며 경제과업을 푸는것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위원회들은 경제과업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고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매개 단위에서 생산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것은 그 단위의 당위원회들이며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도 각급 당조직들이다. 당위원회들의 당적지도를 떠나서는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풀어나갈수 없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할수 없다.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 여기에 생산을 정상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매 시기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위원회들이 생산정상화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다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한다는것을 말한다.

지난 기간 평양시당위원회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커다

란 성과들을 거두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월초부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으며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키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생산정상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으며 당위원회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힘있게 벌린다면 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행정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생산정상화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우는것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떤 사업에서든지 성과를 이룩하려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립장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제기된 혁명과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워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그것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에서의 성과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립장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요구들을 제대로 관철해나갈수 없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선차적으로 주목을 돌린 문제는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며 현시기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균형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 서로 치차처럼 맞물려돌아간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개별적부문이나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지표별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와 련관된 다른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월초부터 철저히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경제의 규모와 생산잠재력이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경제관리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정상화문제의 이러한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여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평양강철공장의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종전에만 하여도 이 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한다고는 하였지만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그런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일별, 순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어 어떤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월말이나 분기말에 가서 력량을 집중하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을 벌리는것을 피할수 없는 일인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시당위원회는 평양강철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가 결코 원료나 자재 공급 같은것을 개선하면 해결되는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질 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였다. 이로부터 시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시당위원회는 공장당조직을 발동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였으며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그날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해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과정에 공장안의 모든 관리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정상화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해낸다는 혁명적기풍으로 월초부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평양강철공장에서는 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험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워나가는것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당조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작전을 잘하는것이 당위원회가 경제사업을 옳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전은 해당 단위의 참모부인 당위원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해당단위에서의 사업의 성과는 결국 당위원회가 작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평양시가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시당위원회가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작전을 잘하고 이 사업을 옳게 이끌어나간데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모를 박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는데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는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와 비서처회의들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매 부서들의 임무와 활동방향을 명백히 주고 그에 따라 사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직부와 선전부를 비롯한 시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하부지도사업내용에 생산정상화문제를 반영하고 사업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아래단위의 당조직들에서도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지난 8월상순계획을 수행하던 때였다.

만경대구역당위원회는 계획수행을 위한 전투를 조직하기에 앞서 조직부와 경제사업부 그리고 행정경제일군들을 통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구역당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해당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작전계획에 따라 조직부는 아래 당조직들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광범히 토의하게 하였으며 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총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전부에서는 모든 선전력량과 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벌렸으며 경제부서일군들은 직접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을 로력적앙양에로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당위원회가 작전과 지휘를 구체적으로 짜고들면서 경제사업을 실속있게 밀어주고 도와준 결과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계획과 보장계획을 맞물리며 자재를 선행하고 설비점검보수를 정상화하는 사업으로부터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관리전반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고리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높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당적인 관심과 력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온 시를 우리 당의 생산정상화방침관철을 위한 앙양된 분위기로 들끓게 할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을 당의 의도에 맞게 추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이 공장, 기업소들을 맡아가지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도록 하였으며 시안의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본보기공장을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리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가 취한 이러한 조치는 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키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적극 높이게 하였으며 전반적인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현실은 당위원회가 작전을 잘할 때 아래당조직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을 옳게 발동시킬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철저히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 경제, 문화 기관들이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사업을 제때에 검열총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281페지)

일단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 그 집행정형을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조직사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창조된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옳게 풀수 있으며 나타난 부족점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다.

우리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요구에 맞게 생산정형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순별계획수행정형을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순별총화는 구역별, 부문별, 공장, 기업소별로 생산실적을 통보하고 다음순생산을 원만히 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안들을 찾는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위원회의 매 부서들의 사업은 어떻게 개선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는 어떻게 짜고들어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동원하는 사업에서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료해장악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하여 재작전, 재포치 사업을 적극 다그쳐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나가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의 이러한 장악과 총화, 재포치 사업은 일군들로 하여금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틀어쥐고 내밀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할수 있게 추동하였다. 이리하여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평양제사공장, 평양목재종합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월초부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이것은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철저히 장악하고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생산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영화실효투쟁을 옳게 조직진행하는것이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영화실효투쟁방침은 영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교양방침이다. 영화실효투쟁과정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게 되며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게 된다.

시당위원회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에 대한 감상모임을 빠짐없이 조직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는 한편 영화의 사상주제적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에서 구현하기 위한 강연과 강습, 학습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실속있게 지도하였다. 이와 함께 영화실효투쟁을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특히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천활동에서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숭고한 충성심과 혁명적사업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영화실효투쟁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와 밀접히 결부하여 생산현장에서 실효모임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는데 있다. 영화실효투쟁은 그 자체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는것만큼 마땅히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해야 하며 생산자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참신하게 조직전개해야 하는것이다.

지난 8월초였다.

평양전구공장에서는 고압수은등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뜻하지 않은 애로가 제기되였다. 생산이 빨리 장성하다보니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그중 일부 자재들은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당위원회는 이러한 실태를 제때에 포착하고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효모임을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과 초급선동원들을 동원하여 일대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들이대도록 짜고들었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전쟁시기 맨주먹밖에 없는 처지에서 수류탄을 생산해내고 전후 재더미속에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내던 혁명적기풍과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는 영화실효투쟁이 이와 같이 힘차게 조직전개됨에 따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휴자재를 동원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리하여 짧은 기간에 그처럼 어렵게 생각되였던 자재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영화실효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시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35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제2차7개년계획을 완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생산정상화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이 의도하는대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나갈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

리 도 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하고 숭고한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데 대한 제안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는것은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며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 의거하여야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선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기본내용과 그 정당성을 밝히시고 통일국가의 운영방식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실현하는것이다.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한다는것은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으며 련방형식의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 민족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련방형식의 통일국가가 단일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제도우에 서있는 특수한 형태의 련방국가이며 제도상통일이 아니라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직접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바로 여기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적특징이 있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중요내용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련방회

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내오는 방법으로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최고민족련방회의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구성되며 련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련방회의에서 조직할것을 예견하고 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를 어떤 원칙에서 구성하는가 하는것은 통일국가의 구성과 운영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는 북과 남이 같은 수로 참가하는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강요나 불평등과 같은것을 없애고 통일국가의 구성과 운영을 원만하게 보장할수 있게 한다.

련방국가에 조직되는 하나의 립법기관에 북과 남이 같은 수로 참가하게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자명한 론리이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로 이루어지는 통일정부는 전민족을 대표하는 련방국가의 최고립법기관, 최고주권기관으로 되는 동시에 최고집행기관으로 된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면서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할 권한과 의무를 지닐것을 예견하고있다.

다음으로 련방국가창립방안의 중요내용은 통일정부의 지도밑에서 북과 남이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대내외정책을 실시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의 지역자치제가 전민족적인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감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자치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의 지역자치제는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하나의 민족안에서의 자치제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있는 다민족국가들에서 단일한、사회제도에 기초한 각이한 민족들사이의 자치제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련방국가의 구성과 권한, 의무를 규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법적지위를 옳게 규정하는것이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전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이며 련방국가의 지역정부는 자기 지역만을 대표하는 정부이다.

통일정부는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중앙정부이며 북과 남의 지역정부는 통일정부의 지도밑에 자기 지역안에서 주권적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밝혀진 중요한 내용은 또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를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륜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륜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를 륜번제로 운영하는것은 권한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반영할수 있게 하며 련방국가운영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원만하게 보장할수 있게 한다.

통일국가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이 통일정부의 의장과 위원장의 직권을 독차지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제도와 주의주장을 강요하거나 특권을 행사할수 없게 하며 련방국가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방국가의 운영방식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심으로써 련방국가운영에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빠르고 확신성있게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오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 방안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통일방안이 실현성있는 방안으로 되려면 그것이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어떤 방안이든지 그것이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으면 그런 방안은 실현불가능하며 한갖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들이 들고나오는 이른바 《총선거안》이라는것이 바로 그러한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단일제도에서 하고있는것을 그대로 본따서 이른바 《총선거》의 방법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통일》을 실현할것을 떠벌이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들고나온 이른바 《총선거안》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과 남조선에 존재하는 파쑈정치를 그대로 둔채 그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것인데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것이며 결국 《두개 조선》을 조작해보려는 책동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분렬된 다른 나라들에서 해온 통일방식과도 다른것이다. 일방의 제도를 다른 일방에 연장하여 제도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될수 없다. 이러한 통일방식은 상반되는 두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이 다른 지역의 제도를 스스로 받아들이기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을수 없고 어차피 충돌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분렬된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있는 민족통일방식들은 어느것이나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오늘의 구체적현실에 알맞는 방식으로 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이러한 방식들과는 달리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형태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게 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통일방안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리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북과 남 쌍방의 리익에 맞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방안의 공정성은 련방국가의 구성과 권한분배, 운영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이 북과 남의 두 지역과 두 제도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에서 공평하게 규정한데 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에서는 통일국가를 창립하는데서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를 뽑아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

제 되여있다. 여기에는 남조선괴뢰들이 념불처럼 외우는 이른바 《인구비례제》가 적용될수도 없다.

만일 최고민족련방회의를 북과 남이 같은 수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수적인 우세》로 권한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국가운영에서 불평등을 조성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상대방에 대한 강요를 면할수 없게 한다.

남조선괴뢰들이 《인구비례제》를 집요하게 떠드는것은 저들이 권한을 독차지함으로써 이른바 《승공통일》야욕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련방국가의 구성을 같은 수로 하는것은 량원제로 되여있는 다민족국가들에서의 국가운영과는 달리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두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에서는 지역자치제도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조건에서 실시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어느 한쪽보다 다른쪽이 더 큰 권한을 행사할수 없게 하려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현실성과 공정성은 통일국가의 구성과 운영에서 북과 남이 똑같은 지위와 권한과 의무를 지니게 할뿐아니라 누가 누구를 누르고 눌리우는 일이 없고 령도권을 다투는 일이 없도록 규정한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를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륜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것은 통일국가운영에서 권한을 어느 한쪽이 독차지하는 편향을 없애게 하며 활동원칙에서도 공정성을 기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이상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전민족적리익과 북과 남 쌍방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반영하고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방안은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 원칙에서 작성된 구국방안이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민족은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고있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우선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존재하는것이며 계급해방이나 인간해방에 대하여 말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진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데서는 민족문제가 계급해방이나 인간해방에 관한 문제보다 더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게 된다.

련방국가창립방안에서는 어느 한 계급계층이나 당과의 리익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민족의 리익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련방국가의 구성과 권한, 의무, 활동원칙 등이 규정되여있으며 지역자치제도 전민족의 리익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시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고있는 애국적인 통일방안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관련하여 제시하신 사상과 방침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통일국가의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것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 방안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가장 절박하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투쟁과업에 대해서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선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족자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성한 권리를 짓밟고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와 나라의 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책동은 오늘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새 전쟁 위험, 핵전쟁위험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긴장상태를 가시고 새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민족적 화해와 단결의 실제적조건을 마련할수 있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해나갈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남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파쑈악법을 폐지하고 폭압통치기구를 없애며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애국적인민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는 반공소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과업에는 전민족의 할결같은 의사와 념원이 반영되여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와 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국땅우에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평화애호적인 통일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 어떤 장애와 난관도 과감히 뚫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

정 동 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다시금 제시하시였다.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위대한 전략사상이다.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성스러운 투쟁과업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세력이 제 마음대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계급적지배와 민족적 착취와 억압을 감행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력사는 지난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고있던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인류력사의 흐름을 힘있게 전진시키고있는 새로운 자주성의 시대로 바뀌였다.

오늘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있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서 새로 독립한 수많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면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인민들도 자주성을 지향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를 구원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고있으나 력사는 의연히 자주의 길로 확고히 전진하고있다.

반제자주의 거세찬 투쟁은 지금 모든 대륙과 지역에서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세기를 두고 지속되여온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지배와 예속 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주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새세계를 한결같이 요구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념원하는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이러한 자주화된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지배와 예속관계가 없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에 기초한 자주적관계가 확립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이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자주적관계가

완전히 확립된 새세계는 오직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종국적으로 청산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수 있다.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주되는 근원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난날 자주권을 짓밟히고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거나 지금도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민족들과 인민들은 력사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한결같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주화된 새 사회와 새세계를 요구해나서고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으로 련합하여 저들이 지배하던 낡은 세계질서를 유지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은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고 반제자주를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고 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 의하여서만 보장될수 있으며 자주화된 세계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확립되고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발전과정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으로 되고있다.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그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침략과 전쟁이 없고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며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새 세계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날로 증대되고있는 전쟁의 위험성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진보적인류의 자주적인 발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새 세계전쟁,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는 원흉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로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는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확장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발전도상나라들을 또다시 예속시키고 지배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주요전략지대와 군사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늘이면서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국제무대에 조성된 현실은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침략과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인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완전히 청산할수 있으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제반미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간다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말려들거나 리용당하는 일이 없게 될것이다.

참으로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투쟁을 통해서만이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하려고 날뛰는 새 세계전쟁을 저지파탄시키고 지역적분쟁과 무장충돌도 방지할수 있다.

모든 사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이야말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인 세계혁명전략이며 인류공동의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5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인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다시금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거세찬 시대적흐름에 적극 합류하여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력사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한결같이 수행하여야 할 인류공동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원래 자주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나라와 민족의 고유한 속성이다. 나라와 민족은 자주성이 있어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며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망국과 예속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절대적인 요구이며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 세계에는 지휘하는 나라와 지휘를 받는 나라,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없어지게 되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될수 있다.

오늘 조성되고있는 복잡한 국제정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하게 되면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과 모략에 의하여 또다시 예속당하게 되고 자기 운명을 롱락당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의 온갖 모략과 간섭 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대내외 정치관계에서 자주권을 철저히 행사하는것이다.

대내외정치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며 선결조건이다.

정치에서 자주권을 행사한다는것은 바로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을 고수하며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지향에 맞게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기술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덜 발전한 민족은 있을수 있지만 지배하는 나라와 민족, 지배를 받는 나라와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으며 또한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세계무대에서 상하관계와 주종관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호상 평등과 존중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원칙이 준수될 때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이 강요하는 불평등한 국가관계와 국제관계를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갈수 있는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과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지금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제국주의, 지

배주의 세력이 감행하고있는 착취와 략탈,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강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통일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시키고 그 성원국들사이에 리간과 분쟁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에 대하여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하며 공격의 화살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에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온갖 침략과 간섭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와 새세계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또한 자주성과 평등, 내정불간섭과 호혜의 원칙에서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완전한 민족적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자주성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반대하는 한편 《원조》와 《차관》, 《남북협조》와 같은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신식민주의적략탈체제를 유지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본성으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그 어떤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나 경제적자립을 결코 선사할수 없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걸거나 환상을 가질것이 아니라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현시기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남남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지체없이 실천에 옮기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부터 선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농업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도 실현하여야 한다.

특히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건설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교육문화건설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교육, 문화 분야에서

의 교류와 협조를 위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탐구하고 이미 마련된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도를 공동으로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그것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조치를 취하고 남남협조를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남남수뇌자회의를 시급히 열어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낡은 국제경제질서와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끝장내고 자주화된 새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세계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근본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전략을 과학적으로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다.

세계혁명은 모든 나라와 민족, 인민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세계혁명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반제자주력량의 굽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완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혁명리론에 구현하시여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착잡한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세계혁명력량을 새롭게 편성할수 있는 정확한 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자주성의 시대적조류가 거세차게 흐르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혁명력량관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오늘의 세계혁명력량에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 민주주의운동 등 여러가지 성격과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혁명운동이 포괄되여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력량,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쁠럭불가담운동은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력량관계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세계혁명의 동력과 투쟁대상을 명백히 규정하시였다. 그리하여 세계혁명력량을 새롭게 편성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작성할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하시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독창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또한 우리 시대의 다양한 혁명운동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고 세계혁명력량들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가면서 전반적세계혁명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밝혀주고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오늘의 혁명투쟁은 각이한 혁명임무와 사회력사적조건을 가지고있는 민족국가단위로 벌어지고있으며 따라서 세계혁명도 전례없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다양하게 전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세계혁명운동의 이러한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매개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자주적인 새사회를 건설해나가는것이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길이며 바로 여기에 세계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여

러 혁명력량들이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방도를 명시한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제자주의 거세찬 시대적흐름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인민들을 자주화된 새 사회와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때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침략과 전쟁이 없고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자주화된 새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11호(루계 '99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11월 1일 발 행•1983년 11월 3일

ㄱ—3513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평 양 근로자사 19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2 호(500)

차 례

김 일 성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 하 여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및문화부장회의에 참가한 부장들앞에서
한 연설 1983년 9월 27일

나는 여러분을 어제 만난데 뒤이어 오늘 또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쁠럭불가담나라의 교육, 문화 부장들이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줄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문화부장회의에 참가한 대표단들이 많기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만날수 없으므로 오늘 이렇게 집체적으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지 못하고 집체적으로 만나는데 대하여 량해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부장 여러분을 집체적으로 만나는것으로 여러분과의 상봉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 국가수반의 친서를 가지고 온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주석이나 총리 혹은 부장들에게 전달하여주기 바랍니다. 그밖의 실무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해당 부문 일군들과 구체적으로 토론할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만난 기회에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가하여 진행하고있는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문화부장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번

회의에 참가하여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얻은 좋은 경험을 많이 나누고 또 새로운 결의들을 다진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앞에는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민족문화건설은 국가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험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민족교육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민족교육사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해야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신생독립국가들이 먼저 돈을 벌어가지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 사회 건설이 늦어집니다. 신생독립국가들은 돈도 없고 경제력도 약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교육사업을 뒤로 미룰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내야 경제건설도 잘할수 있고 빠른 시일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지금 신생독립국가들이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큰 애로는 민족간부가 부족한것입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들에서 민족간부를 양성할 조건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다가 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은 다 민족간부가 부족합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대학졸업생이 얼마 없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때 우리 나라에는 일본제국대학의 분교라는것이 서울에 하나 있었을뿐입니다. 거기에는 자연과학과 기술공학 계통의 학과는 하나도 없고 문학이나 법학 같은 인문과계통의 학과들만 있었습니다.

일본대학의 법과에서는 일본천황을 옹호하는 법률을 배워주었는데 일제가 망하게 되자 그런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였습니다. 문과를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우리들이 소설이나 쓰고 시나 읊으면서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오랜 기간의 항일무장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가들, 정

치간부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이나 쏠줄 알고 연설이나 잘하였지 국가를 운영하고 경제를 관리할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만 가지고서는 새 조국을 건설할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을 가진 인테리, 민족기술간부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새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인테리가 절실히 필요하기때문에 우리는 조선로동당마크에 상징한대로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를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로동자, 농민이 혁명의 기본력량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인테리에게서 지식을 배워야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를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고 인테리들을 새 조국 건설에 적극 끌어들인 우리 당의 정책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여러곳에 흩어져있던 인테리들을 다 모았을뿐아니라 해외에 있던 인테리들도 조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북조선에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조선에 있던 인테리들도 우리를 찾아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인테리들을 다 모았지만 100명이 되나마나하였습니다. 그가운데서 기술인테리는 불과 몇명밖에 안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되는 인테리들을 귀중한 보배로 여겼습니다. 인테리들이 비록 일본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것을 조금도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다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서 어미닭과 같이 원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인테리들을 밑천으로 하여 종합대학을 창설하였습니다. 종합대학의 창설은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선차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첫 승리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합대학을 처음 창설하였을 때에는 매우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때 그렇게 시작한 결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회연설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120만명의 민족간부를 양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어떤 분야나 민족간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하여 하고싶은것은 무엇이나 다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신생독립국가들은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선차적으로 잘하여야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흥세력나라들이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서 주체화를 실현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나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쓸모있는 민족간부를 양성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여야 경제건설을 비롯하여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는데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식민지노예교육제도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제국주의식민지노예교육제도는 인민들을 우매하고 몽매하게 만드는 교육제도인것만큼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간부를 훌륭히 키워낼수 없습니다.

둘째로,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교육하지 말고 자기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하는 문제입니다. 해방후 우리는 민족간부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류학을 적지 않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류학을 간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온 기술은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서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부 농업기술자들은 부침땅이 많은 나라에 가서 되는대로 씨를 뿌리고 되는대로 가을걷이를 하는 농법을 배워왔는데 그런 농법은 부침땅이 적어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해야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돈을 쓰면서 오래동안 공부하고 왔지만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것은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서 자기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농법을 발전시키면서 지난날에 쓰던 농업대학교과서들과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번역출판하였던 농업대학교과서들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개작하였습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였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도 주체적으로 발전하고있고 공업도 주체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한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원유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원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공장도 건설하고 화학수지공장도 건설하였으며 원유발전소도 건설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그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려면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그런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원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눅기는 하였지만 어느때 원유값이 올라갈지 알수 없는 조건에서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가 원유값이 올라가는 때에는 녹아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화학섬유와 화학수지도 생산하고 화학비료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원유발전소 대신에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을 리용하여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킨 결과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올라갈 때 많은 나라들이 원료난, 연료난으로 하여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우리 나라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물건값이 올라가도 우리 나라에서는 물건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는 일부 기계설비들을 다른 나라들에서 사오다보니 기계설비값이 올라갈 때 그 영향을 좀 받았을뿐입니다. 그러나 전반적경제발전에서는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의 말을 듣고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켰더라면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을 때 우리도 역시 그 위기에 말려들어갔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경험은 자기 나라의 원료에 의거하여 자기 식으로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민족간부를 양성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조선에서는 어떻게 되여 인민들이 그처럼 규률이 있고 조직성이 강하며 혁명적열의가 높은가고 자주 물어보는데 사람들을 강제적방법이나 법률로 다스려서는 그들이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하도록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일정한 문화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좀 들더라도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을 다 교육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고 지금은 전반적11년

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으므로 60살아래의 사람들은 다 중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대부분이 중등교육을 받았기때문에 문화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당의 정책과 국가의 시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제정된 규률을 잘 지키며 열성적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앞날에 고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대학졸업 수준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가서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규률을 더 자각적으로 지키고 창의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350만명의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나고있으며 500만명의 학생들이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다 합하면 850만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나며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집단적으로 교육교양하여야 그들의 자질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새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할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텔레비존방송에도 나왔지만 우리 나라 어린이들가운데는 네댓살난 나이에 영어도 잘 알고 독주도 잘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교육교양하면 훌륭한 인재들을 더 빨리 키워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물론 새세대들을 다 교육교양하려면 국가의 부담이 큰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가예산에서 교육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사업에 들이는 돈보다 더 큰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것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은 오랜 력사와 발전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가운데는 훌륭한 고대문화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근대에 와서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게 된것은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지난날 어떤 학자가 나에게 우리 나라에서 왜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산

업혁명을 하지 못한것은 봉건제도가 너무 강하였기때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일본이 《명치유신》이후 산업혁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개혁을 실현해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자본주의혁명을 주장해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탄압에 의하여 자본주의적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살해되였고 자본주의적개혁운동은 실패하고말았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오늘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것은 결코 그들이 《렬등인종》이 되여 그런것이 아닙니다. 봉건통치배들의 탄압이 심하여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산업혁명을 할 때 그 나라들과 같이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뒤떨어지게 된것입니다.

지금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에게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있으며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져있습니다.

인민들의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키고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려면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족도 다른 민족에 못지않으며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박혀있는 큰 나라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사대주의와 숭배사상을 뿌리빼야 합니다. 지금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나라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사대주의와 숭배사상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해방직후에 큰 나라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숭배사상이 많았습니다. 그때 일부 일군들가운데는 마치도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숭배사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경제건설도 제대로 할수 없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킬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속에서 민족허무주의와 큰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발전된 나라에 대한 숭배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적자부심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렸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

에서 만드는것을 거의다 만들고있는데 이것은 인민들속에서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숭배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 성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기기관차를 처음 만들 때 있은 일을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 나라에 와있던 어떤 나라의 대사는 조선에서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자기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대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을뿐아니라 철도전기화도 우리자체의 손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사대주의와 다른 나라에 대한 숭배사상이 없어진 결과에 이룩된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인공위성 같은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지 못하는것은 우리에게 기술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제적밑천이 모자라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달나라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땅우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무엇때문에 달나라에 갈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 발전된 나라에 대한 숭배사상에서 사람들을 해방하여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숭배사상을 반대하는것은 결코 발전된 나라들에서 기술을 배우는것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발전된 나라들의 선진기술을 배워 새 사회건설에 리용하여야 합니다. 과학이란 모를 때에는 어렵고 신비하게 생각되지만 배워서 알면 쉬운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배격하는것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썩어빠진 반동문화를 절대로 받아

물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반동문화는 청년들을 부패타락시키는 해독적작용을 합니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의 주력군인데 그들이 부패타락하여 일하기를 싫어하면 새 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뒤떨어진 나라들을 발전하지 못하게 하여야 계속 지배하고 착취할수 있기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썩어빠진 반동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것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성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회의에서 민족문화건설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많이 나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100여개나 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발생발전하여온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발전된 나라들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발전된 나라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선물》하지 않고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발전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선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일수록 더 부자가 되고싶어하는것입니다.

1981년에 메히꼬의 깐꾼에서 있은 남북수뇌자회의에서 발전된 나라의 국가수반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선물》하지 못하겠다고 내놓고 말하였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나아갈 길은 오직 남남협조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남협조를 실현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남협조를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가운데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한지 50년이 되는 나라도 있고 40년이 되는 나라도 있으며 30년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일정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후 페허우에서 도시를 건설하다보니 건설경험이 있으며 관개공사경험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기 때문에 광산을 개발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좋은 경험과 기술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잘 잡는 나라도 있을것이며 집짐승을 잘 기르는 나라도 있을것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가금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꾸바동지들의 방조를 받아 가금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좋은 기술을 한가지씩 내놓는다고 하여도 100가지의 기술을 교류할수 있습니다.

기술자들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끼리 교류하는것이 좋습니다. 발전된 나라의 기술자를 한사람 초청하자면 한달에 1,000딸라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발전된 나라의 기술자들은 좋은 승용차와 휴양소를 달라고 하며 이러저러한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루에 몇시간밖에 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끼리 기술자들을 교류하면 1,000딸라가 아니라 200딸라나 100딸라 정도 주고 먹을것이나 보장해주면 될것입니다.

기술문건 같은것도 발전된 나라들에서 사오자고 하면 몇십만딸라나 몇백만딸라를 주어야 하지만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에 교류하면 기술문건을 복사한 복사비만 주면 될것입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는 기술문건을 돈을 받지 않고 거저 넘겨줄수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발전된 나라들은 농업분야에서 자기들이 만든 1대잡종종자를 비싼값으로 팔아먹기 위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육종방법을 배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분야에서 육종방법을 서로 배워줄수 있습니다.

1981년에 우리 나라에서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동서아프리카에서 온 농업부장들에게 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선언문을 채택하여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의의가 없으며 빈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 농업연구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방조를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후에 농업연구소를 기네에 하나 건설하고 탄자니아에 하나 건설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나라들에 갈 때 그들을 직접 만나 조선의 농사경험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

니라 기네와 탄자니아의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그 나라들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나라들에 가서 일을 시작한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기네의 세쿠 투레대통령각하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대통령각하가 우리 나라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돌리고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발전도상나라의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훌륭한 농법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농업분야, 보건분야, 건설분야를 비롯하여 서로 교류하고 협조할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며 새로운 경제질서를 세운다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교육과 문화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발전된 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숭배사상을 버리고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것으로도 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교육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나가면 오히려 지금과는 반대로 발전된 나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것입니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잘 조직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과학기술을 교류하는데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 문화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협조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라면 힘을 합쳐 농업대학을 잘 꾸리고 공동으로 농업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협조할수 있을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면 귀국의 국가수반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건강할것과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나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합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리론 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근로자》 500호발간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근로자》는 올해 12호로 그 500호를 발행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창간된 잡지 《근로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출판물이며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는 당리론선전의 위력한 무기이다.

당기관지 《근로자》는 우리 혁명의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로정에서 언제나 당과 함께 숨쉬며 전진하여왔다. 잡지 《근로자》가 걸어온 근 40년간의 력사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권위있는 정치리론기관지로 강화발전하여온 빛나는 로정이였다.

《근로자》는 지난 기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편집활동을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잡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보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은 《근로자》의 리론적권위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의 원천이였다.

《근로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과 업적의 위대성, 심오한 주체의 원리들을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의 리론적대변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잡지 《근로자》가 자기의 전투적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여온 력사적과정은 우리 당리론선전이 심화발전되여온 로정의 중요한 일환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리론선전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리론선전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에서는 지난 기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그것은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모든 리론선전일군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심화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1)

리론선전사업은 당사상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리론선전이란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사상교양의 한 형식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리론선전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 혁명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해나간다.

사람들은 론리적사유의 방법으로 자연과 사회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으며 모든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혁명의 한길을 따라 드팀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 리론선전은 주체사상원리선전을 강화하여 사람들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깊이 체득시키며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극복하고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주체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한 사람만이 공산주의혁명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상과 풍모를 확고히 소유할수 있다. 당리론선전은 그 내용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모든 사회성원들을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철저히 복무하는것으로 하여 사상사업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47페지)

당사상사업의 모든 내용과 형식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철두철미 복종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 사업의 일관한 원칙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만이 지배하게 하기 위한것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며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기 위한것이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묶어세우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전당과 온 사회에 차고넘치도록 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철저히 체득하고 그것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여야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선전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심도있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한다. 그것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사상리론적업적,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당의 혁명전통, 당의 력사적인 투쟁경험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도록 한다.

바로 여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는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리론선전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왔다.

리론선전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새로운 혁명리론이 없이는 새로운 혁명실천이 있을수 없다.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선진 사상과 리론으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선진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며 전진한다.

혁명의 원리와 전략전술을 모르고서는 사람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혁명투쟁에 참가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은 사물현상

에 대한 원리적인 깊은 인식과 파악이 있을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략적과업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밝히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자기의 신념과 의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상사업, 리론선전사업을 앞세워나갔다.

로동계급의 당의 리론은 혁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심화되는것만큼 이에 맞게 리론선전사업도 심화발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는 과정에 끝없이 귀중한 혁명업적과 경험들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과 리론, 업적과 경험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삼고 리론선전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해방후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선 우리 당앞에는 집권당으로서 리론선전사업을 새롭게 조직전개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리론선전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주시고 리론선전의 방향과 구체적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리론선전은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손길아래에서 잡지 《근로자》를 비롯한 당리론선전물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대중을 새 사회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당건설로선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해설하는데 리론선전사업을 집중시켰으며 그것이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새 조국 건설에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적아간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치렬한 사상적대결이였다. 이 힘의 대결에서 우리 당은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정치사상적우월성에서 찾고 리론선전도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데 집중시켰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기본을 두고 리론선전을 조직전개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부패성,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의 성격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당은 준엄한 전쟁의 조건에서도 《근로자》의 발행사업을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자위의 군사리론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리론선전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전후시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리론선전사업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다.

우리 당은 리론선전을 강화함으로써 종파주의,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릴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리론선전사업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들을 옹호고수하고 널리 해설선전해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제기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에 의하여 새롭게 제기된 중대한 문제이다.

이미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멀리 전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하는것은 먼 앞날의 리상이 아니라 당면한 실천적과업으로 나섰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과 인류사회발전의 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와 완성의 합법칙성, 그 발전의 혁명적로정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시대가 제기한 이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리론,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점령과 3대혁명에 관한 사상,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 관한 리론 그리고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에 관한 리론 등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들이였다.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빛나게 고수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광범히 해설선전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당리론선전에서 1970년대는 새로운 전환이 이룩된 력사적시기였다. 이 영광스러운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진공적으로 조직진행됨으로써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현시기 우리 당 리론선전의 출발점이다.

우리 당은 리론선전사업의 모든 내용과 수단들이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도록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이 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전개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조치들을 취해주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의 기본임무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그것을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정연한 리론선전사업체계를 세워주었으며 리론선전일군대렬을 꾸리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당은 지난 기간 사상사업분야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리론선전을 보다 생기있고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완성을 위하여 수많은 독창적인 리론들과 방침들을 내놓았으며 당리론선전도 여기에 복종시켜 진행되도록 하였다.

주체형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는 문제, 유일사상교양,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벌리는 문제, 속도전과 사상전, 경제선동방침, 공산주의인간학을 근본핵으로 하는 주체적인 문예리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 등은 우리 당이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새롭게 내놓은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이다.

당리론선전사업은 당이 내놓은 이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

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리론선전이 심화발전되여오는 과정에 그 내용과 방법이 새롭게 개선되고 당의 리론선전기지가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있게 체득시키며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광범히 선전하는 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게 되였으며 당리론선전사업은 혁명실천과 더욱 밀접히 결합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설선전하는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2)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서고있으며 그것은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리론선전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키울수 있으며 그들이 당정책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할수 있다.

당리론선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기본추세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체사상선전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당리론선전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선전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88~28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는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발전풍부화되고 새롭게 제시된 사상과 리론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리론적해답이 주어져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의 기초를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선전하는데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기본교재는 주체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불멸의 총서이며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인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당문헌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에는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고 구현하여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이 밝혀져있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그 구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이 제시되여있다. 거기에는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에 대한 연구선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과학리론사업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

모든 과학리론일군들은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상리론들을 심오히 해석선전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들을 폭넓게 연구선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들로 더욱 풍부히 하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전개한 품위있는 리론선전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것은 오늘 당리론선전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체사상학습이 심화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진 오늘의 현실은 문제성있고 품위있는 리론선전물들을 많이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과학리론일군들과 출판보도일군들은 형식주의, 도식주의, 경험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주체의 관점과 안목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의도를 깊이있게 해설한 참신하고 무게있는 책과 글들을 더 많이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책과 글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널리 읽힐수 있으며 그들의 정치리론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우리는 책과 글의 사상리론적심도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통속화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리론선전물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어떻게 통속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리론선전사업은 론리적사유를 계발시키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에 작용하는 사상사업형식이다. 그러므로 리론선전물을 통속화하여야 사람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명백히 파악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관,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글이란 마치도 창문을 열면 푸른 산이 보이고 강들이 보이고 큰 길, 작은 길이 다 보이듯이 명백하게 써야 한다. 글은 누구든지 읽고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이 잘 안겨오게 써야 한다. 리론적심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까다로운 론리와 어려운 표현으로 글을 쓴다면 그러한 글은 결코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문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문필활동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글을 통속화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당의 리론은 내용이 깊고 풍부하면서도 누구나 다 알수 있게 전개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다 인민적인 표현들로 쉽게 리해할수 있게 씌여져있다.

우리 리론선전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리론선전을 통속화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현시기 리론선전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 담당자인 리론선전일군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우리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려면 모든 일군들이 사물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62페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론선전사업의 성과도 중요하게 이 부문 일군들의 준비정도에 크게 달려있다. 리론선전일군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리론선전의 성과를 보장할수 없으며 따라서 당의 의도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리론선전일군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

리론선전일군들은 진지한 탐구력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전공부문에 대한 연구를 굽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정통하여야 한다.

리론선전일군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리론선전일군들은 높은 자각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분초를 아껴가며 학습을 꾸준히 하는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리론선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자이고 문필활동가인것만큼 남보다 몇배, 몇십배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학습을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비고 능력이 딸리게 되며 결국 리론선전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게 된다.

학습토론회, 연구토론회 등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당정책의 본질, 그 정당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리론선전일군들은 전공분야에 따르는 과학토론회를 보다 실속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당의 방침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론증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 사조들 반대하는 투쟁은 주체의 사상리론의 순결성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리론선전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사상리론은 온갖 반동적사상조류와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그 순결성이 튼튼히 고수된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사이에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이 투쟁은 사상리론분야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여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모험적인 전쟁정책과 침략정책을 더욱 로골화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에 부르죠아반동사상조류들을 퍼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놈들은 저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반영한 부르죠아철학사상과 각종 반동적리론, 썩어빠진 생활문화를 류포시킴으로써 싸우는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 민족적자주의식을 마비시

키며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을 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자그마한 비계급적, 비혁명적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모든 리론선전일군들은 부르죠아사상조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체계적으로 폭로비판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며 우리의 사상리론전선을 철옹성같은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경험은 사상리론선전이 자기의 전투적역할을 높이지 못하고 반동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리론선전에서 당성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리론선전을 혁명실천과 옳게 결부시키는것은 그 심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리론선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천의 무기를 버리기 위한것이다.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한다고 하여 리론선전 사업이 실천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리론을 위한 리론은 혁명실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주체사상선전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깊이 느끼고 주체의 신념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원리선전이 실천과 밀접히 결부될 때 혁명리론은 단순한 리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의 위력한 무기로, 행동의 지침으로 될수 있다.

리론선전사업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리론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이 당면하게 해결하려는 절실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리론선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당정책이 힘있게 관철되고있는 현실속에 들어가 그것을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분석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모든 리론선전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새기고 리론선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리 영 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생활의 모든분야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맞게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면 사람들을 혁명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혁명적실천투쟁과 함께 꾸준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사람들을 주체의 사상체계,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시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동시에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하나로 련결시키는 유일한 혈맥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굽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원천이며 거기에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이 집대성되여있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울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1권, 507페지)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것은 바로 그들의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들을 개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는것이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자면 혁명관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혁명투쟁

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힘있게 벌어지고 승리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은 언제나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과 전략전술을 관철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적의지로 되였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한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모범은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고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체득시킬수 있으며 그들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력사적 체험에 기초할 때 옳바로 세울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며 전진한다. 따라서 혁명적수령관은 혁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간고하고 복잡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령도의 현명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일관되여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체득할수 있으며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한데로부터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들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목숨으로 헤쳐나가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그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것을 서슴지않았다. 아직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그 엄혹한 투

쟁의 나날에 그들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것은 결코 그 어떤 보수나 앞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있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참다운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하는데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준비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이 혁명화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람들을 그 어떤 어려운 시련도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소유한 열렬한 혁명가로 만든다는데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자면 혁명의 온갖 시련을 용감히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멀고 험난한 길이다. 혁명가들은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가져야만 그 어떤 시련앞에서도 비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은 가장 포악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이였으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하는 어렵고 간고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우는 강의한 혁명적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조직성과 규률성 등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정신적재부들이 담겨져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몸소 헤쳐나가시면서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혁명적의지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은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선혁명이 엄혹한 시련을 겪을 때에도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동요없이 싸워나갔다. 그들은 또한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환경속에서도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혁명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이 준 혁명임무를 목숨바쳐 수행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고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한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시킬수 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로정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여있을뿐아니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위대한 모범으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나날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들을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돌보시였으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한 인민적품성을 지니시고 그 숭고한 모범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이끄심으로써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가 차넘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한홉밖에 안되는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돌려주시는 그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한없이 고무되면서 혁명적랑만과 신심에 넘쳐 살며 싸워나갔다. 그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참다운 혁명적동지애로 결합되여있었기에 개인의 안일과 향락보다도 먼저 혁명 집단과 동지들을 생각하였고 동지들을 위하여서는 자기를 희생하는것도 서슴지않았다.

항일혁명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된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휘된 고결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따라배울때 자신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해나갈수 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하기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사람들속에서 어떻게 공명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것은 긍정적모범의 내용이 얼마나 숭고하고 심오하며 생동한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그 본질적특성과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되였으며 거기에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참다운 본보기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을 창조와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거울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력사적인 사실과 모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으로 하여 특히 간고한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그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

참으로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위대성,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그 생동한 감화력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에 빛나게 구현되여온 전로정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이 끊임없이 심화되여온 자랑찬 행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을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이 사업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시고 거기에 맞게 혁

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이 심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개조과정은 비상히 촉진되게 되였으며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였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1970년대는 의의깊은 년대로 빛나고있다.

이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당중앙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놓은 이 구호가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단행본, 11～12페지)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전투적구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힘있게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하였다. 그리고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당의 령도밑에 혁명전통교양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한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이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생동한 사실과 실물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그들의 혁명화를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정중히 꾸리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왕재산과 삼지연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정중히 꾸려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이러한 교양방법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생동한 자료와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교양방법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전기》, 《붉은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수록한 수많은 도서들을 출판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들에 재현하여 널리 보급하며 그에 대한 실효투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은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워 충성심을 열렬히 키우고 혁명정신과 혁명적의지를 단련하는 훌륭한 학교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전통교양이 새로운 높이에서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가 더욱 다그쳐지고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주체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오늘 숨은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전당적으로,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져 그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은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켜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결과 그들의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이 혁명적대진군속에서 검덕의 건설자들은 1,500만톤의 선광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공사를 1년동안에 완공하였으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서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타번지며 모두가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이끌어온 결과이다.

생활은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사람들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정치에 관한 리론

리 성 갑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이며 기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올바른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정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였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정치의 본질과 기원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으며 사회 생활과 발전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회주의정치의 담당자로서의 로동계급의 당과 정권에 관한 문제,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정치의 운명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리론과 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정치리론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며 그들의 운명개척의 길을 정확히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자기들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과 자기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돌이켜볼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정치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칭송하며 그 구현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투쟁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1)

정치의 본질, 사회 생활과 발전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과학적인 정치학을 확립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출발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바로 해명하여야 정치학의 체계와 내용을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세우고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혁명적인 립장과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를 넘는 오랜 기간 간고하고도 복잡한 조선혁명을 령도해오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인류력사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신데 기초하여 정치의 본질과 사회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입니다. 정치가 없이는 사람들의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어느 사회에나 있게 되며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4페지)

정치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기능이다.

사회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다. 사회는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리해관계를 조절하여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공동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이 살아나갈수 있으며 사회가 발전할수 있다. 만일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리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지배하여 파괴되고말것이며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합쳐 공동활동을 벌리지 않는다면 집단의 리익은 물론 개인의 리익도 실현할수 없게 될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각이한 리해관계와 요구,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사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은 사람들을 직접 틀어쥐고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지위를 가지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지도통제하는 사회적기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바로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 정치이다. 다시말하여 정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업,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는 사업이다.

사람을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는 경제와 구별된다. 경제는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재부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물질적재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경제활동을 벌릴 때에도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한다. 그러나 사람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자체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이다. 경제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업인것이 아니라 물건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정치는 경제와 구별될뿐아니라 문화와도 일정하게 구별된다. 문화는 교육사업이나 보건사업, 문학예술이나 체육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에 필요한 사상과 지식을 넣어주며 그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그러므로 문화자체는 주로 사람자신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지 결코 그들에게 사회적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사업은 아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의 활동을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은 오직 정치에만 고유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가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라는 고전적명제를 정식화하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의 본질과 특징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정치 리론과 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옳바른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정치의 본질에 관한 주체적리해로부터 사회생활과 력사발전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42페지)

정치는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재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 생활과 발전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고 말하는것이다.

사람이 살아가고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정신적재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생활에서 정신문화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 문화는 서로 대신할수 없는 자기의 령역을 가지고있으며 다같이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정치와 경제,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다. 정치가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에 영향을 주는것처럼 경제와 문화도 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 문화가 각각 사회 생활과 발전에 주는 영향이나 그것들이 서로 상대방의 발전에 미치는 작용은 같지 않다. 정치는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에 대하여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자연을 정복하여 물질적재부를 생산하며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을 관리하는 사업,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인 정치는 경제나 문화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것이다.

정치적권한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휘할 권한인것만큼 그것을 쥐면 물건을 처분할 권한과 사람들을 키울 권한을 다같이 가지게 된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정치적권력이 인정하는 소유관계만이 지배적인 경제제도로 발전할수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봉건사회의 말기에 경제적으로 지주계급보다 우세를 차지하였던 자본가계급이 그에 만족하지 않고 부르죠아혁명을 하게 된것도 결국은 정치적권력을 쥐여야 부르죠아적소유관계를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제도로까지 발전시킬수 있고 자기들의 근본적인 경제적리익을 충족시킬수 있기때문이였다. 로동계급이 정권문제를 혁명의 기본문제로 내세우고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는것도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될수 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정치의 본질, 사회 생활과 발전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주도적지위와 결정적작용과 함께 정치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밝혀주었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인것만큼 그것은 사회가 있고 집단생활이 있는한 어느때든지 있기 마련이다.

정치는 계급과 계급적대립이 있는 계급사회뿐아니라 미래 공산주의사회에서도 필요한 사회적기능이다. 물론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사회의 정치에서는 계급사회의 정치에 고유한 계급적성격을 띠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가 무정부주의나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인것만큼 그때에 가서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인 정치는 반드시 있게 될것이다.

정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강화발전하게 된다.

력사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정치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같지 않고 변화해왔지만 그 추세는 끊임없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의 맹아라고 볼수 있는 원시공동체사회의 추장의

지휘권이나 군사적민주주의가 지배하던 때로부터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기간 정치는 약화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강화발전해왔다.

정치의 역할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것만큼 공산주의사회에서 그것은 조락하는것이 아니라 가일층 발전완성되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수령과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역할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 생활과 발전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주도적지위와 결정적역할, 정치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밝히신것은 로동계급의 정치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수행에서 헤아릴수 없이 큰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에는 정치를 경제적토대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부구조적현상으로 보면서 사회생활과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와 역할을 응당한 높이에서 강조하지 못하였다. 정치의 주도적 위치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어디까지나 경제의 규정적작용을 인정하는 테두리안에서 언급하였던것이다. 더우기 지난 시기에는 정치를 계급적대립과 계급투쟁과만 결부시켜 리해하는데로부터 계급과 계급적대립이 없는 미래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정치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의 본질을 새롭게 규정하시고 사회 생활과 발전에서 정치가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며 정치는 어느 사회에나 있게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정치에 대한 리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정치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정치의 본질과 특징, 지위와 역할, 그 운명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히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사상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신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2)

로동계급의 정치리론을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발전완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조직에 관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치문제들을 해명하고 풀어나가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는 일정한 형태의 정치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며 정치조직의 성격과 역할은 사회제도마다 다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4페지)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정치를 실지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맡아 수행할수 있는 정치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치조직은 정치실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사람이 없으면 어떠한 형태의 사람의 활동도 있을수 없는것처럼 일정한 형태의 정치조직이 없이는 어떠한 정치도 실현될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를 실현하자면 일정한 형태의 정치조직이 있어야 하지만 정치조직의 성격과 그것이 정치실현

노는 역할은 사회제도마다 다르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며 단
하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
는 사회에서는 정치조직이 사회공동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단으로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리해
계가 대립되여있는 계급사회에서는
치조직이 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한다.

자본주의를 비롯한 착취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이 계급으로 갈라져있고 그들
이의 리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
있기때문에 정치조직들이 그에 의하
대표되는 어느 한 계급의 리익을 옹
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만 복무하게
다. 오직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일치
하며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
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정치
조직들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
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되게 된다.

정치조직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
를 차지하는것은 당과 국가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
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정치
조직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통찰
하시고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의 본
질과 사명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
시였으며 그 강화발전을 위한 가장 옳
바른 방침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
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
며 로동계급의 정치조직가운데서 최고
형태의 조직이다. 당의 옳바른 령도밑
에서만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유와
해방을 찾을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성
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정치실현에서 차지하는
당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
의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더 커
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
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
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1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
를 움직여나가자면 당과 같은 강한 조
직력을 가진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
가 있어야 한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당의 령도가 없
이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
루어질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수 없다.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는 반드시 필
요한것이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
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될것이며 이 투쟁과정에서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것이다. 당과 같
은 향도적력량의 령도가 없이는 이러
한 사업을 옳게 벌려나갈수 없으며 사
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당의 령도는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
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
한 문제로 나선다. 한 나라 혹은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자본
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내외원
쑤들의 침략과 파괴의 위협을 면할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당의 령도에 의
해서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
대분자들의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
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보호될수 있다.

당은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
업수행, 로동계급의 정치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
와 역할로부터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
시킬데 대한 요구가 흘러나온다.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며 당과 수령의 호상관계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이다.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워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 때 비로소 당은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해나간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활동에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당이 로동계급의 정치조직으로서 당대렬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반드시 당사업의 기본을 정확히 규정하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시였다. 이 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혁명적학설인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하여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정치조직인 당의 모든 활동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간다.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당의 본성을 고수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당에 관한 리론은 당을 명실공히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준 탁월한 리론이다.

당과 함께 국가주권은 강력한 정치조직을 이룬다.

국가주권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정치적지배권이다. 국가주권에 의하여 그 국가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휘권과 모든 물건에 대한 처분권이 행사되게 된다.

사회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국가주권을 쥐려고 하는것도 결국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국가주권을 틀어쥐여야 자기 당의 의사와 지휘권을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실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집권당의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틀어쥐고있기때문에 그 당의 정책이 곧 국가의 정책으로 전환되여 집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로

—동계급의 주권건설경험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심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국가주권형태는 인민정권으로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독창적으로 반견하시였으며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정권의 성격과 특성, 그 기능과 역할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인민정권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적극적인 집행자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국가정권형태로서의 우리 인민정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우월성은 바로 그것이 인민을 위한 정권이며 인민자신의 정권이라는데 있다. 인민정권의 주인은 인민대중자신이며 인민정권을 운영하고 떠밀어나가는것도 인민대중자신이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인민정권의 정치는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정치로 되게 된다.

인민정권의 정치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 그들자신의 정치로 된다는것은 인민정권이 자기의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조직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정치활동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활동방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가주권도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활동방식을 옳바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7페지)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은 그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데 의해서 규정되며 그것은 그 국가주권의 성격과 본질을 직접 표현해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있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인민정권은 민주주의를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삼는다.

원래 민주주의란 인민이 주권을 쥐고 있는것을 말하며 그것은 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하는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런것만큼 참다운 민주주의는 인민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있는 사회주의하에서만 실시될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옳바른 정치방식이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다.

오직 나라의 정책도 인민이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는것도 인민이 하는 인민적인 정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민주주의적정치만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인민정권의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반동세력에 대한 독재는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물론 인민정권의 기본활동방식은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인민정권의 주인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

자신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

인민정권의 국가활동에서 반동세력에 대한 독재는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를 더 잘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인 민주주의는 적대계급에 대한 독재를 배제하지 않으며 그와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부르죠아국가를 비롯한 착취사회의 모든 국가는 착취계급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있기때문에 국가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에서 착취계급의 본성을 나타내게 된다. 착취사회의 그 어떤 국가든지 그것은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삼고있기때문에 근로대중을 억압하는 반인민적통치방식에 매달린다. 설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들의 가혹한 반인민적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것을 자기의 근본목적으로 삼고있는 우리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 우리의 혁명정권의 인민적성격과 본질적우월성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주체형의 당과 인민정권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심으로써 주체의 정치학설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인민적인 정치를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길을 명시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또하나의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주체의 정치학설은 이미 우리 나라의 현실에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정치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참다운 정권을 창건하시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오시였으며 당과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은 주체의 정치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정치리론을 혁명과 건설에 더욱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

리 진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3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이 력사적인 로작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통일전선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며 각계각층의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통일전선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민족해방혁명과 새 사회 건설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적문제인 혁명력량편성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일층 풍부히 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　　　*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전략전술적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혁명력량을 잘 편성하여야 합니다. 통일전선문제는 대중을 전취하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문제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497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 계급, 계층, 세력들을 최대한으로 전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투쟁의 성과여부는 결국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힘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혁명투쟁에서 발휘되는 인민대중의 힘은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계층의 참가정도, 그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여하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계급과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민대중의 힘은 그만큼 위력한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최대한으로 전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적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문제의 하나

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각 계급, 계층, 세력들을 주되는 적을 반대하는 투쟁전선에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옳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통일전선문제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을 제시하시여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은 통일전선운동을 각계각층 군중과의 일시적인 련합, 일시적인 행동통일에 관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혁명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원칙적문제로 제기하고있다.

혁명투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따라서 통일전선사업은 혁명의 준비단계로부터 혁명의 승리를 공고화하는 단계에까지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그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 주체적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참다운 통일전선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전선문제를 어느 한 혁명단계에서의 일시적인 전술적문제로서가 아니라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에서는 물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시기에도 계속 강화하여야 할 전략적문제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전과정에 걸쳐 각이한 계급, 계층, 세력들을 하나의 통일전선에 묶어세워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력량편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간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1930년대초부터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1936년 5월에는 드디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우와 같은 문헌, 169폐지)

통일전선을 결성하는것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는 군중의 계급적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그들의 정치적동향도 각이하다. 그러므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여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된후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 나라에는 사회계급적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조성되여있었다.

특히 1920년대말~1930년대초 일제의

식민지적략탈과 파쑈적폭압이 강화됨에 따라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는 전민족적범위에서 급격히 앙양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나라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그리고 혁명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반일력량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데 대한 민족통일전선사상과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과 전략적방침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광범한 반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우리 혁명의 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나갔다.

항일혁명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가 결성된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 계층별 대중단체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다같이 망라시킬수 있는 포괄적이며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는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일제의 폭압이 강화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상설적통일전선조직체를 내와야만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었으며 혁명력량의 결속을 옳게 보장할수 있었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계급적처지, 정치적 및 종교적 견해, 지식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묶어세워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반일통일전선사업을 더욱 조직화하고 체계화할수 있게 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민족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성과적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그 두리에 보조적력량을 묶어세우는 문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문제 등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통일전선운동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뿌리로 되였으며 우리 당 통일전선정책의 기초로 되였다.

우리 당은 해방후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각이한 혁명단계의 요구에 맞게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해나갔다.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광범한 군중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워 짧은 기간안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간것은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의 경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는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

하여서는 로동계급과 농민뿐만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32페지)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우리 인민앞에는 어려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게 되자 그에 기대를 걸고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제국주의세력의 음모책동에 반맞추어 새 조선 건설을 방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이자들은 반동세력을 규합하여 각종 반동적 정당들과 단체들을 조작해내고 민족의 애국력량을 분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한편 혁명의 배신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어중이떠중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보다 자기 개인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앞세우고 혼란된 정세를 리용하여 인민대중을 지마다 자기편에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미제와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들과 그리고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혁명력량은 사분오렬된 위협에 처하여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민주주의기치밑에 새 민주조선 건설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구체적임무와 계급적력량관계, 나라의 조성된 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은 광범한 애국력량을 분렬시키려는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각계각층 군중을 가장 빠른 시일안에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형성에서 우리 당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기초하여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며 동요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단결과 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그리고 해방후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직된 조건에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항일혁명투쟁시기와는 달리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전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같은 우당들과의 통일전선에서는 그들이 남조선반동들과 련계를 맺지 않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적극 참가하며 공산당과 우호관계를 가지는 조건에서만 통일전선을 맺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당들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는 한편 우당들과의 사업에서 하층통일과 상층통일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통일전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나갔다.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상층과의 통일을 옳게 배합하여야만 우당의 하층군중을 반동들의 영향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진보적인 방향에로 이끌어나가게 할수 있었으며 우당의 상층들도 옳은 길로 나가게 하여 하층통일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상층과의 사업은 상층안의 진보적력량을 강화하고 동요하던 사람들을 돌려세우며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보적세력들이 우세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층과의 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협조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단결이 강화됨에 따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협의기관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리하여 민주주의기발아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도

시 소부르죠아지, 기업가, 상인, 종교인, 민족주의자 등 광범한 군중들과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망라되게 되였으며 따라서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각계각층 군중을 전취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대중전취문제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으며 이 행정에서 새롭고 귀중한 통일전선경험이 창조될수 있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이룩된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무엇보다도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발전의 요구와 대중의 정치사상적각오에 맞는 옳은 정치적구호를 제기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은 사회발전, 혁명발전의 요구와 대중의 정치적각성정도 그리고 그들의 지향에 맞게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울 때에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모든 혁명력량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치운동으로서의 통일전선운동도 혁명의 성격과 대중의 정치경제적요구에 맞는 옳은 정치적구호를 제기할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기반을 높이 들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재산과 지식정도, 신앙과 성별에 관계없이 통일전선의 기치아래 하나로 결속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건국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집권당으로 된 조건에서는 당이 계급, 계층별로 유일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다른 우당들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혁명적인 영향을 주어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것이 반동세력들의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전선운동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해방직후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되고 정치활동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계급, 계층별로 대중단체들을 조직함으로써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아무런 정치적혼란과 편향이 없이 광범한 민주력량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울수 있었다.

통일전선사업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이룩된 통일전선운동경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통일전선의 성격은 혁명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통일전선의 임무도 혁명의 기본임무를 해결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통일전선운동은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 결합되여 진행됨으로써 이 운동이 공고한 정치적기초우에서 보다 힘있게 발전할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또한 통일전선운동을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계각층 군중이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빨리 각성될수 있었으며 통일전선이 새로운 사회경제관계의 기초우에서 공고발전할수 있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을 진행하는 행정에서 이룩된 력사적경험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혁명적재부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통일전선운동의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전선운동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이 과정에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그에 맞게 통일전선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같이하려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15페지)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공통적인 리해관계로 결속시킬수 있는 전제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혁명시기에도 통일전선을 이룩하여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시기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통일전선운동을 사회주의혁명의 성숙정도와 당면한 혁명임무, 조성된 혁명정세 그리고 매 력사적시기에 맞게 진행하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통일전선운동은 사회주의적성격을 띠면서도 그것이 매 력사적시기에 적응하게 전개되여야 하며 특히 통일전선사업을 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진행해야 새로운 사회경제토대우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사회주의기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계속 민주주의기치밑에 모든 민주력량을 단합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주의기치아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울데 대한 조치는 당시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관련되여있었다. 우리앞에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야 할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장 사회주의구호를 전면에 제기할수도 없었으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과만 통일전선을 할수도 없었다.

민주주의기치아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우는 문제는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날 일제놈들과 반동분자들의 악선전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지 못하고있었으며 그것을 접수할만한 사상적준비도 철저히 되여있지 못한 사정과도 관련되여있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도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민주주의기치밑에 광범한 애국력량을 묶어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당앞에 제기되고있었던 혁명임무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통일전선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과도기 첫시기의 통일전선운동은 이미 마련된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반부의 혁명기지에 의거하여 남북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결속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성과적으로 창건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면한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사회주의력량, 민주주의력량 등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반제력량을 결속하여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애국적반제력량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게 된것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당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전면에 나선 사회주의혁명시기에도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시기 통일전선운동에서 우리 당은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상응하게 사회주의기치를 전면에 제기하고 통일전선사업을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각계각층 군중들의 사회생활전반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전후 사회주의혁명시기 통일전선운동은 새로운 사회경제적토대우에서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뭉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완수된후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통일전선경험은 이 운동이 사회주의적성격을 띠면서도 그것이 매 력사적시기에 적응하게 전개되여야 하며 특히 통일전선의 구호를 구체적조건에 맞게 제기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와 해방후 내외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창조되고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과 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통일독립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여러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단합된 전민족적인 력량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적극 지지해나서고있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현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과 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이야말로 민족의 자주권확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가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통일전선방침을 구현하는 바로 여기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옳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과 통일전선운동경험을 철저히 구현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우리 인민은 벌써 근 4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과 재난을 겪고있다.

조선인민이 오래동안 겪고있는 이러한 민족적불행은 바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데 있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최근에 이르러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더욱 분별없이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얼마전에 있었던 국제의회동맹 제70차총회와 버마의 랑군에서 있은 폭발사건을 계기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더욱 커다란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세계인민들의 숭고한 지향에 배치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제로 된다.

*　　　*

현시기 미제의 대조선전략의 기본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두개 조선〉 정책을 현시기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43페지)

미제의 이른바 《두개 조선》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의 북과 남을 서로 다른 두개 나라, 두개 민족으로 영원히 분렬시켜 통일된 조선, 단일한 우리 민족의 존재를 영영 없애버리려는데 있다. 이것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이 북과 남의 통일을 반대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분할하여 통치하려는 로골적인 식민주의적정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분할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작고 약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거나 강요하여 하나의 주권국가와 민족을 인위적인 국경과 경계선으로 분할하여 통치하는 방법으로 제놈들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고 확장해나가는 교활한 수법을 써왔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수법으로 광대한 식민지를 확보하고 령토를 확장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도 그 수법을 사용하였다.

분할하여 통치하는 수법은 오늘 현대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그대로 답습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수법은 발전도상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신식민주의적 지배와 통치방법으로 변형되고 분장되여 리용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권을 확보하였거나 분할해낸 지역에서 주권을 박탈하고 령토를 병합하며 민족을 동화시키는 수법을 쓰는것이 아니라 식민지통치체제의 위장물인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괴뢰국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통치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이러한 신식민주의적인 통치와 지배를 가장 교활하고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는 원흉이다.

미제침략자들은 《독립》을 존중하고 《안전보장》을 《지원》한다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경제군사적《원조》와 《차관》을 준다는 구실밑에 세계도처에 친미괴뢰정권을 만들어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우리 나라의 국토를 량단하고 민족을 분렬시켜 《두개 조선》을 조작해보려는 미제의 책동은 놈들의 상투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그의 가장 중요하고도 전형적인 내용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전면적으로 파산당하고있던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른바 《두개 조선》 정책을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놈들은 남조선괴뢰정권에 씌워오던 《합법적정부》의 감투를 벗겨버리고 인위적으로 분렬된 조선의 북과 남의 쌍방을 각기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사이에 《평화적공존》과 《호상불가침》의 원칙이 적용되여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떠벌이면서 민족분렬정책을 들고나왔다.

민족분렬의 고정화와 《합법화》를 당면목표로 내세우고있는 《두개 조선》 정책은 결코 미제의 대조선정책에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정책의 연장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은 《힘》에 의거하여 전조선을 단번에 먹어보려던 종전의 침략정책을 일시적으로 미루어놓고 조선의 분렬상태를 유지하다가 기회가 오면 공화국북반부를 또다시 침략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고안해낸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조선정책에서 이와 같은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게 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난날 군사적 《힘》에 의거하여 추구해오던 미제의 대조선정책이 전면적으로 파산된것과 관련되여있다.

조선을 침략하려는것은 미제가 100여년전부터 꿈꾸어온 변함없는 침략적야망이다.

미제침략자들은 8.15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교두보로 전변시켰으며 1950년에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놈들은 조선에서의 침략전쟁을 통하여 남조선에 세워놓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체제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확대해보려고 어리석게 망상하였으나 오히려 제놈들자신이 정치군사적으로뿐아니라 심대한 도덕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전후에도 미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놈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겨 이른바 《북진통일》과 《반공》의 간판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게 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감행한 모든 범죄적책동은 걸음마다 파산되고 말았다. 이것은 《힘》에 의거하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던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전면적파산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힘》에 의거한 《북진통일》정책대신에 분할하여 통치하는 교활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은 또한 남조선에서 감행해온 식민지통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것과 관련된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괴뢰도당

의 매국배족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러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보다 적극화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드디여 1960년 4월 전인민적봉기로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매국역적리승만괴뢰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놈들이 감행해오던 《북진통일》책동은 전면적인 파산을 당하게 되였다.

1965년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사이에 벌어진 범죄적인 《회담》을 계기로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남조선에 조성된 심각한 위기에 겁을 먹은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데 몰두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것이 남조선에서 저들의 지위를 유지공고화하고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 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유리하다고 타산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제는 《두개 조선》 정책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들고나왔으며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던것이다.

미제가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오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이 날을 따라 강화되고 그 국제적권위가 비상히 높아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전후 레히속에서도 짧은 기간안에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그것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은 더욱 강화되였다.

《힘》에 의거한 《북진통일》전략의 전면적파산과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체제의 전면적위기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의 강화와 그 국제적권위의 증대와 같은 정세의 변화는 미제의 대조선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로 하여금 음흉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오게 하였다.

미제는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음모와 술책을 꾸미는데 일본반동들을 로골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품고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여러모로 방해하여나섰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민족분렬음모를 공공연히 정책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범죄적인 공모결탁에서 제나름의 야망을 추구하였다.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강점과 지배를 계속하려 하였으며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사의 옛지위를 되찾아보려고 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분렬의 현상태를 고정화함으로써 일신의 안일과 장기집권의 야욕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였다.

미제와 일본반동들, 전두환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슬기로

은 하나의 조선민족과 강토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 조선》 정책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으로 내놓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하여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1970년대에만 하여도 형형색색의 기만적인 《제안》을 거듭 내놓으면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1973년 6월에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우두머리를 내세워 이른바 《유엔동시가입》론과 《유엔단독가입》론을 떠벌이게 하였다. 1975년 9월에는 키신저놈을 통하여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기 위한 이른바 《4자회담》이요, 《6자회담》이요 하는것을 웨치게 하였다.

이무렵에 미제는 이른바 《교차승인》론이라는것도 들고나와 일부 사회주의나라들로 하여금 남조선괴뢰정권을 인정하게 하려는 어리석은 책동을 감행하였으며 미제의 우두머리였던 카터놈은 우리와 미국, 남조선괴뢰가 참가하는 이른바 《3자회담》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감행한 이 모든 책동들은 비록 형식상차이가 있는것같지만 그 어느것이나 다 남조선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내세워 《두개 조선》을 합법적으로 조작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여 감행된것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오래동안 꾸며온 이 모든 음모와 술책들은 놈들이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오늘 더욱더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이른바 《교차접촉》과 《교차래왕》을 떠드는 한편 남조선괴뢰를 유엔에 《단독가입》시키려는 국제적 음모를 꾸미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놈들이 새롭게 조작하여 류포시키고 있는 《교차접촉》과 《교차래왕》이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괴뢰도당으로 하여금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접촉》과 《래왕》을 통하여 《교차승인》에로의 다리를 놓아보려는 새로운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러한 《교차접촉》, 《교차래왕》과 함께 남조선괴뢰들을 이른바 《유엔단독가입》에로 부추기는 책동을 또다시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놈들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이 당분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전제밑에 남조선의 단독가입을 추진시킬 방침》이라고 떠들면서 남조선을 단독으로라도 유엔에 정식성원국으로 가입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그와 공모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의 력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이미 세상사람들의 배격을 받고 파산당하였던 《유엔단독가입》론을 다시금 들고나오고있는것은 놈들이 얼마나 궁지에 빠져있고 조선의 영구분렬을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교차접촉》과 《교차래왕》, 《유엔단독가입》의 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가운데서 특히 엄중한것은 남조선에서 될수록 많은 국제적성격을 띤 회의와 행사들을 벌려놓으려는것이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각종 국제적 회의와 행사들을 련이어 조직하여 여기에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될수록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저들의 고립을 면하고 이른바 《중요목표를 일거에 달성》하며 《유엔단독가입》을 위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남조선은 원래 자주적인 독립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회의나 인민들간의

평화와 친선,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적행사를 치를수 있는곳이 되지 못한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고 침략적군사기지이며 남조선괴뢰도당은 매국배족의 무리이고 미제에게 충실한 사환군이다. 특히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침략군의 사촉밑에 광주대학살만행을 감행한 군사파쑈도당이다.

남조선에는 민족적자주권뿐아니라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마저 없으며 오직 전쟁소동과 파쑈광풍, 《반공》소동만이 벌어지고있을뿐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여러 국제회의와 국제적행사를 기어코 남조선에서 벌려놓기 위한 음모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의회동맹 제70차총회가 바로 그 실례의 하나였다.

미제는 국제기구의 리념과 관례를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국제의회동맹총회장소를 서울로 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도록 조작하였다. 그리고 놈들은 많은 성원국들의 배격을 받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집단적으로 참가도 하지 않은 이 회의에서 유엔의 《기능강화》라는 미명밑에 국제의회동맹성원국 모두를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괴이한 《결의안》을 만들어내도록 온갖 음모술책을 다하였다.

이것은 국제의회동맹의 활동원칙을 유린하고 국제의회동맹을 업고 남조선을 《독립국가》로 내세우며 《유엔단독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다리를 만들어 《두개 조선》을 조작해보려는 음흉한 분렬주의음모인것이다.

미제는 《교차접촉》과 《교차래왕》, 《유엔단독가입》안을 실현하기 위한 음모책동에 일본반동들을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미제는 올해 1월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일본반동의 우두머리인 나까소네로 하여금 남조선괴뢰도당과 함께 남조선의 《유엔가입》과 《교차승인》을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모의하도록 하였다. 지난 11월에는 레간놈이 직접 남조선에 기여들어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준비를 다그치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더욱 본격화하기 위한 모의를 벌려놓았다.

레간과 나까소네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반동지배층속에서는 《부분교차승인》, 《단계별교차승인》 등 형형색색의 《교차승인》론이 널리 론의되고 《교차접촉》과 《교차래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모의와 음모가 더욱 로골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부추김밑에 전두환괴뢰도당도 민족분렬의 영구화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놈들은 주제넘게도 유엔《가입》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국제적《지지기반》을 구축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놈들은 미일상전들에 대한 예속성의 강화를 히울좋게 《우방과의 뉴대강화》로 미화분식하면서 그를 정책화하여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남조선을 미일침략자들의 2중식민지로 철저히 내여맡기는 대가로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또한 《비동맹권과의 협력강화》라는 간판을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여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받아보려고 권모술수를 다하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이와 같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엄중한 장애에 부닥치고있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긴장한 정세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하고 숭고한 민족지상의 과제입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와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하고도 숭고한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며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이룩할것을 절절하게 념원하고있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선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근40년동안이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의 령토와 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고있으며 남조선에 식민지체제의 위장물인 허수아비정권을 조작하고 조종하면서 민족분렬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우리 나라의 령토와 민족을 둘로 분렬시키고있는 화근이다.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것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것이다.

미국은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조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제는 또한 새 조선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고있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장하고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의 위험이 떠돌고있는 환경속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걷어치우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응해나서야 하며 남조선에서 대량살륙무기와 침략군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미국은 매국배족적이고 군사파쑈적인 남조선괴뢰정권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그릇된 립장을 버리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옳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부합될것이다.

일본반동들도 시대의 흐름과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음모와 새 전쟁 도발책동에 가담하기 위한 놀음을 걷어치워야 하며 지난날 조선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망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전두환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파쑈통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족적화해와 단결을 방해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물이며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매국배족적인 통치체제이다.

남조선에 이러한 매국배족적인 통치체제가 유지되고있는 한 우리 민족은 한시도 편안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의 부추김밑에 연명해가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을 청산하여야 하며 남조선에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진두환군사파쑈《정권》을 청산하고 사회정치생활에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우에 놓여있는 민족내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숭고한 과업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륜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오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 방안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인민은 민족통일의 숙원을 성취하고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대외적으로 통일된 단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하나의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민족적 독립과 자주, 번영의 길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이고 치욕스러운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전체 조선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며 우리 민족의 정당하고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실현될 때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권위와 존엄을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것이며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조선을 훌륭히 건설해나갈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사회주의재정은 경제관리합리화의 중요한 공간

한 인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8년 12월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과 재정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분석총화하시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전투적과업들은 재정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재정관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은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분배하면서 확대재생산의 균형을 보장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국가는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적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124페지)

재정사업이란 국가자금을 바로 쓰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국가가 나라살림살이전반을 책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하여 일정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리용하는 한편 그것을 옳게 쓰도록 통제하는것이 다름아닌 재정사업이다.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재정이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착취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전적으로 복무한다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공동재산으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인민의 복리증진에 복무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돈을 벌어들이는것도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쓰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주의재정이란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재정의 인민적성격,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재정에 비한 사회주의재정의 본질적우월성이 있다.

사회주의재정은 경제관리의 합리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인민경제의 균형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사회주의경제를 당정책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관리운영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튼튼히 다질수 있다.

인민경제의 균형을 보장하자면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고 축적에 돌려진 자금을 옳게 분배하여야 한다. 만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지 못하거나 축적된 자금을 잘 분배하지 못할 때에는 확대재생산에 지장을 주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심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주의재정은 분배적기능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균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한다. 물론 재정이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혼자서 맞추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확대재생산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화폐형태로 장악하고 그것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축적을 우선적으로 빨리 증대시키면서 인민들의 소비를 계통적으로 늘이는 방향에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며 축적에 돌려진 자금을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부문,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정확히 분배한다.

분배된 자금을 리용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부문, 다른 단위보다 앞서나가는 부문과 단위들이 있을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문과 단위들도 생길수 있다. 물자재산의 움직임은 자금의 류통을 동반하는것만큼 달라지는 정황에 맞게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계속 유지할수 있다.

재정은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의 계획수행과정에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자금을 기동적으로 조절하고 공급하며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을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이렇듯 사회주의재정은 분배적기능을 통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균형을 자금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해줌으로써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당정책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재정이 경제관리합리화의 중요한 공간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잘 리용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재정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물자재산을 아끼고 절약하며 로력관리를 잘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있게 리용하게 한다.

재정기관들은 우선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에 자금보장계획을 수동적으로 맞물리는것이 아니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도록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운다. 적극적인 재정계획은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로 하여금 계획작성단계부터 원료, 자재를 절약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을 예견하도록 추동한다.

재정기관들은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을 잘못썼거나 자재를 사장, 류용, 랑비하고 설비를 놀렸을 때에는 생활비지불과 류동자금공급을 제한하며 가동하는 설비와 마찬가지로 고정재산상환비를 받아들이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한다. 그리하여 물자재산을 랑비하고 경제적타산을 바로하지 않으며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하게 경리를 운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상적인 영향을 준다.

경영활동의 전과정에 대한 재정의 이러한 자극들은 기업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랑비현상을 없애고 있는 설비와 있는 자재, 있는 로력과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인민경제계획을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다같이 완수 및 초과완수하도록 통제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재정이 인민경제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잠재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재정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옳바른 재정 정책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국가재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소재정을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기업소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원가, 가격, 리윤, 수익성, 국가기업리익금, 거래수입금과 같은 재정적공간을 옳게 리용함으로써 경제관리를 보다 합리화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자금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푸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을 늘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옳바른 재정정책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 공부시킬뿐아니라 전체 인민들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쌀을 공급하며 무상치료제와 사회보장제,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제를 실시하고있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국가를 관리하며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도 많은 자금이 지출되고있다.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여 인민들로부터 한푼의 돈도 받지 않지만 우리는 이 모든 방대한 자금수요를 자체로 벌어서 충당하면서도 많은 재정예비를 조성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재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곧바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발전법칙을 구현한 우리 당 재정정책의 거대한 생활력의 발현이다.

우리 당 재정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전례없는 거창한 설계도이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재정부문에서 나라의 모든 재정자원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고 축적에 돌려진 자금을 옳게 분배하여야 하며 분배된 자금이 제때에 은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방대한 규모의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류동자금을 충분히 대줄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잘 리용하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을뿐아니라 국가적투자를 절약하여 생산능력을 더 많이 확대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과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재정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재정부문앞에 제시된 전투적인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우리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우리 당의 재정관리방침에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여 재정을 가장 과학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재정관리방침의 본질과 정당성, 그 구현방도들을 깊이 체득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인민의 소유이며 재정사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결국 재정의 주인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깊이 간직할 때 그들은 나라의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며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깐지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표현된다. 일군들은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다루는 기계와 설비를 비롯한 모든 재산들이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마련해놓은 귀중한 경제적밑천이며 그것을 알뜰히 거두고 아껴쓸수록 나라의 재부는 더욱 늘어나고 인민생활이 빨리 높아진다는것을 깊이 깨우쳐주어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나라와 인민의 공동재산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려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할 때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높일 수 있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2페지)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독립채산제는 로동에 의한 분배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 원가와 리윤을 비롯한 경제적공간을 정확히 리용한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과학적관리운영방법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한다는것은 독립채산제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상품화폐관계와 물질적관심성을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옳게 리용할수 있으며 대안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경제적공간을 목적지향성있게 리용할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출수 있고 종업원 한사람당생산액을 늘일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제품의 가격을 바로 정하고 원가, 리윤, 고정재산상환비와 같은 경제적공간을 잘 리용하여 원료, 자재, 기계설비를 효과적으로 쓰며 알뜰히 다루도록 자극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또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 계획을 정확히 주고 그 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를 잘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은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며 그 결과도 국가계획의 실행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계획을 바로주고 그 실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여야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기업소들에 내려보내며 계획실행정형을 현물지표별로, 실지 일한것만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재정관리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정기관뿐아니라 모든 기관, 모든 사람이 다 재정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재정통제를 례외없이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227페지)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예산수입을 어김없이 보장하며 자금의 랑비를 막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재정 규률과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재정수입을 계획대로 보장할수 없으며 조성된 자금을 랑비하여 애써 벌어들인 보람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재정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재정통제를 례외없이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요구이다.

재정 규률과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에 따라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이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국가의 법으로 정한 국가예산을 그대로 어김없이 집행하게 하는 철저히 일원화되고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재정관리원칙이다. 이 원칙에 맞게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나라의 재정을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의 요구대로 훌륭히 관리해나갈수 있다.

재정은행기관들은 국가의 법에 제정된대로만 재정을 관리해나가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재정은행기관들에서는 인민경제단위들에서 국가에 대한 납부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여 재정수입을 계획대로

보장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지정된 지출항목대로 자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재정총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재정총화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재정예산집행에 대한 대중적인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수 있으며 온갖 랑비현상과 그 요소들을 없애고 재정규률을 강화할수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는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정상화, 제도화하여야 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재정총화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강화하며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매일 생산계획수행총화와 재정총화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경제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게 하는 우월한 경제생활총화제도이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부족점들을 제때에 고치고 좋은 점들을 적극 살려나가게 함으로써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재정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국가재산을 절약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관리일군들부터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본질과 우월성, 그 강화방도를 잘 알고 그것을 대중에게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당의 방침관철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무적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총화 내용과 방법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재정은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재정은행일군들은 인민들이 번 돈을 가지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이며 사회주의재정을 관리하는 직접적담당자들이다. 재정관리사업의 성과는 재정은행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실무에 밝은 일군들로 재정은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재정은행일군과 부기일군 양성사업을 짜고들어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후비일군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은행일군들의 역할을 높이자면 그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들모두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애호절약하고 법규범과 질서를 지키는데서 대중의 앞장에 서도록 할수 있다.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은 재정은행일군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재정은행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에 정통하여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대로 재정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은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재정관리를 개선해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민족문화건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절박한 문제

박 인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9월에 진행된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교육및문화부장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와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교육문화부장들앞에서 하신 연설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의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들에서 새 사회 건설에서 문화건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민족문화건설의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문화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신흥세력나라들의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다그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 *

민족문화건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민족을 문명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2페지)

문화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이다. 민족의 발전은 바로 문화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야 사회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문명하고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교육과 문화의 발전이 없이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관련되여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 군림하여 그 나라 인민들의 정치적자주권을 빼앗고 막대한 재부를 략탈하였을뿐아니라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우매화하는 반동적인 식민지노예화정책을 강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이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전반적인 문맹과 민족간부의 부족, 뒤떨어진 교육과 문화예술을 물려받지 않을수 없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우매화정책과 민족문

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짓밟힌 민족문화를 새롭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초래된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고 경제적자립도 이룩할수 없으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들에 있어서 민족문화건설은 미룰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제기되게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현시기 이 나라들에서의 교육문화의 실태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이다.

지난 기간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을 반제자주의 숭고한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힘을 넣은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교육문화분야에서의 제국주의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초등및중등교육과 성인교육을 비롯한 교육과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키고있다. 지금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식민지노예교육제도와 낡은 문화대신에 새로운 민족적인 교육체계와 문화가 발전하고있으며 민족문화건설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려나갈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있다.

그러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데 불과하며 이 나라들에서의 교육과 문화 건설사업은 의연히 뒤떨어져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에서 문맹자는 인구의 40%에 이르고있으며 세계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는 아동의 대부분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현대문명의 혜택을 향유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20세기말기에 이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맹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우매화정책의 저주로운 후과로서 그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저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아직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을 받을 기본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교육시설과 교원의 부족 등으로 초등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있으며 이미 의무교육을 선포한 나라들에서도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실제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대부분의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새 사회 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각 부문의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를 아직 자체로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민족간부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은 국가경제기관을 관리운영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장애를 받고있는 형편에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높은 과학기술수준과 문화적소양을 가진 새형의 인간으로 키워내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끊임없이 증대되는 근로자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전문가와 자금의 부족으로 문학,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 문학예술의 여러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있으며 극장, 영화관,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국, 출판인쇄기관, 영화촬영소와 같은 문화기관들과 필요한 문화기자재생산시설을 원만히 갖추지 못하고있다. 그리하여 문화생활령역에서는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심한 차이가 나타나고있다.

현실은 교육과 문화 령역에서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하루빨리 없애고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이 현대문명의 혜택을 응당한 수준에서 누리도록 민족문화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가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억제하고 저들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문화적침투를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저들의 썩어빠진 문화를 퍼뜨리기 위하여 통신, 방송, 출판, 영화 등 모든 문화적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실례로 악명높은 《미국의 소리》방송은 38개 나라말로 방탕한 미국식문화와 생활양식을 주입시키기 위한 방송을 불어대고있으며 미국의 영화제작독점체들은 텔레비죤방송소재들과 영화들을 수십개 나라말로 번역록음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방송국들과 영화관들에 마구 들이밀고있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평화군》, 《기술요원》들을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시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반동문화를 퍼뜨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문화적침투책동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이 나라들에서의 새 사회 건설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성과적으로 막아내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참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인간의 정신문화생활령역에 끼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들의 존엄있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고도 전면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앞에는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가 참다운 민족문화를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에서 민족문화건설의 력사적경험과 신흥세력나라들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족문화건설의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새 사회 건설은 그 담당자인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페지)

교육은 사람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적인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민족교육사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하여야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조직진행

하는것이 필요하다. 력사적경험은 국가가 교육사업을 나라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 발전시키며 여기에 국가적힘을 넣을 때 새 사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기여하고 로력이 있는 사람은 로력을 바치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는 식으로 교육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민족교육의 개화발전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 교육을 옳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교육사업의 비식민지화,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의 비식민지화, 민주화는 정치적해방으로부터 시작된 인민들의 해방과정이 교육부문에 연장된것이며 교육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다시 찾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운영하던 교육기관들을 국가가 장악하고 그것을 민족교육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개편하며 식민지통치의 유물인 반인민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와 선진적교육제도를 세우는데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유롭게 배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교육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간부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것이다.

매개 나라가 기술자,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민족간부집단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자체의 힘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다. 그러므로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체의 민족간부양성체계를 세우고 국가관리간부와 경제관리간부, 교육문화일군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간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성인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문맹을 하루빨리 퇴치하고 근로자들의 전반적지식수준을 높여야 하며 후대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자주성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것이다.

진보적인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고상한 도덕과 아름다운 정서로 교양하며 그들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화예술은 빈터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오랜 력사를 통하여 창조된 민족문화유산에 토대하여서만 발전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민족문화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서 제기되는 현실적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비과학적이며 저속한것은 버리고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난날의 문화를 덮어놓고 찬미하며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에 빠지거나 자기의 민족문화유산을 보잘것없는것으로 여기는 민족허무주의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개 나라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민족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민족문화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진보적인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를 담당수행할 자체의 인재가 있어야 한다.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재능있는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는 일반교육단계에서 예능교육을 강화하여 새세대들을 다양한 문화적소양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또한 높은 예술적재능을 가진 전문예술인들을 더 많이 양성하며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는것이 필요하다. 매개 나라는 자기의 경제발전정도에 맞게 문화건설의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의 반동문화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고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위험한 독소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썩어빠진 반동문화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신문, 잡지, 방송, 텔레비죤 등 각종 선전수단을 통하여 퇴폐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류포시키지 못하도록 국가 및 사회적인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제국주의문화에 대한 환상과 숭배사상을 철저히 뿌리뽑고 자기 나라의 민족문화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민족문화의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참다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문화건설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이 건설하여야 할 참다운 민족문화는 주체가 선 문화, 주체적인 문화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페지)

민족문화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참다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매개 나라가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적인 문화란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는 문화이며 인민대중이 그 창조자로 되고 향유자로 되는 문화이다.

나라마다 문화발전의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인민들이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민족문화건설에서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야 대중적지반우에서 인민적인 문화를 건설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인민대중이 가장 고귀한 문화적재부의 창조자라는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인민의 지혜와 재능에 기초하여 민족적특성에 맞는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인민대중이 모든 문화적재부를 향유할수 있도록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과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교육문화분야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력사적처지와 새 사회 건설에 대한 지향의 공통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교육문화분야는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할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며 이 분야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교육과 문화를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교육문화분야에서 이룩한 좋은 경험을 서로 나누고 전문가들을 호상 교류하면서 물질기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긴밀히 협조한다면 자체의 힘으로 능히 민족 교육과 문화를 훌륭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문화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경험을 서로 교류하고 자체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면 나라의 자주적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참다운 문화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을것이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차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및문화부장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과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문화 부장들앞에서 하신 연설들에서 천명하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리론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빛나게 구현된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나라의 장엄한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실증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비록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나라라 하더라도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한다면 짧은 기간에 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참다운 민족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 새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것이다.

근 로 자 1983년 제12호(루계 500호)

편 집 위 원 회

번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3년 12월 1일 발 행•1983년 12월 3일

ㄱ—35139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1983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수 폐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편 집 국 론 설

혁명전통 및 당건설 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 론설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